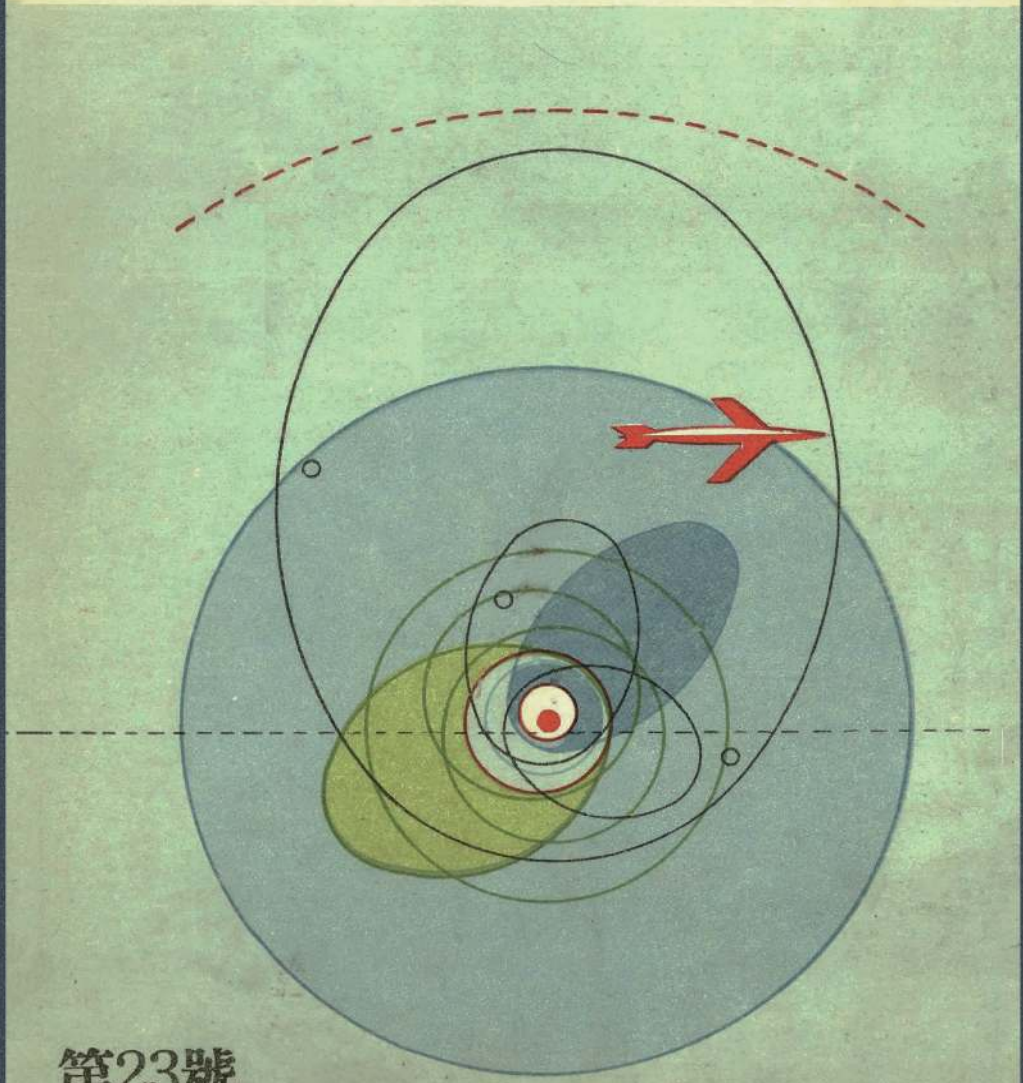
THE COMET

코메트



第23號

1441

일 러 두 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둥(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黑 → 메구로(目黑)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꾀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봐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쨉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벌서 → 벌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캐 → 오랑캐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숀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캬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땐스파아티이→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쥴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불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 내용 ”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23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 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착의(着衣)의 마야」, 「나체(裸體)의 마야」〈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고야 작(作)

화보(畵報)
◇ 제3대 대통령(第三代大統領), 제4대 부통령(第四代副統領) 취임식(就任式) 및 제11회(第十一回) 광복절(光復節) 성거(盛擧)
◇ UN군(軍) 총사령관(總司令官) 램니쩌 대장(大將) 내한(來韓)
◇ 국부(國府) 공군(空軍) 총사령관(總司令官) 왕숙명(王叔銘) 대장(大將) 내한(來韓)
◇ UN군(軍) 휴전감시위원단(休戰監視委員團) 미측(美側) 대표(代表) 카글 해군소령(海軍少領) 내한(來韓)
◇ UN군(軍) 상임대표(常任代表) 박병직(朴炳稷) 대사(大使) 공군본부(空軍本部) 예방(禮訪)

〈권두언(卷頭言)〉 군인(軍人)과 군기(軍紀) 이종승(李鍾勝) 2

국군(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김정렬(金貞烈) 4
미(美) 군사원조(軍事援助)와 한국경제(韓國經濟) 배성룡(裵成龍) 6
수에즈 운하문제(運河問題)의 위기(危機)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研究所) 제공(提供) 11
NATO와 SEATO의 장래(將來)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研究所) 제공(提供) 15

시(詩)
창궁송(蒼穹頌) 박기원(朴琦遠) 20
바닷길 모윤숙(毛允淑) 82

수필(隨筆)
비행기(飛行機) 멀미 김용환(金龍煥) 68
구름 위에서 전숙희(田淑禧) 70

미공군(美空軍)의 유일(唯一)한 흑인장교(黑人(將校) 피터 캘리셔 84

공군발달사(空軍發達史) 〈만화(漫畵)〉 58
아랍 세계(世界)의 이모저모 이록재(李綠載) 74
장병란(將兵欄)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의 교차지(交叉地)-내가 보고 느낀 홍콩(香港) 고영일(高永一) 112
옥관정(玉關情) 고관영(高寬永) 138
고(故) 현일(賢一)은 갔으나 정해영(丁海瑛) 92
시(詩) 추심보(秋心譜) 최창열 143

방사선(放射線)의 영향(影響) 외지(外誌)에서 160
하나의 대담(大膽)한 제안(提案) 칼 스파츠 127
★ 해외희극만화선집(海外喜劇漫畵選集) 130
★ 명언(名言)·□언(□言)·이언(俚諺) 이곳저곳
★가위와 풀 중간중간

★ 특집(特集) 공군(空軍)과 항공(航空)의 날
항공일(航空日)의 유래(由來)와 변천(變遷) 강철(姜哲) 22
항공(航空)은 이렇게 발달(發達)했다 외지(外誌)에서 28
하늘을 정복(征服)하는 사람들 로버트 월래스 37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윤천주(尹天柱) 60
항공일(航空日) 회고(回顧) 김경수(金敬洙) 62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이종린(李鍾麟) 64
좋은 연분(緣分) 예용해(芮庸海) 66

이태리영화(伊太利映畵)의 근황(近況) 외지(外誌)에서 144

★ 해외(海外)토픽스 여기저기

교양(敎養)
전쟁(戰爭)과 국제법(國際法) 박관숙(朴觀淑) 105
군인(軍人)과 종교(宗敎) 엄요섭(嚴堯燮) 110
현대시(現代詩)의 난해성(難解性) 김규동(金奎東) 118
한국고전해설(韓國古典解說) 이명구(李明九)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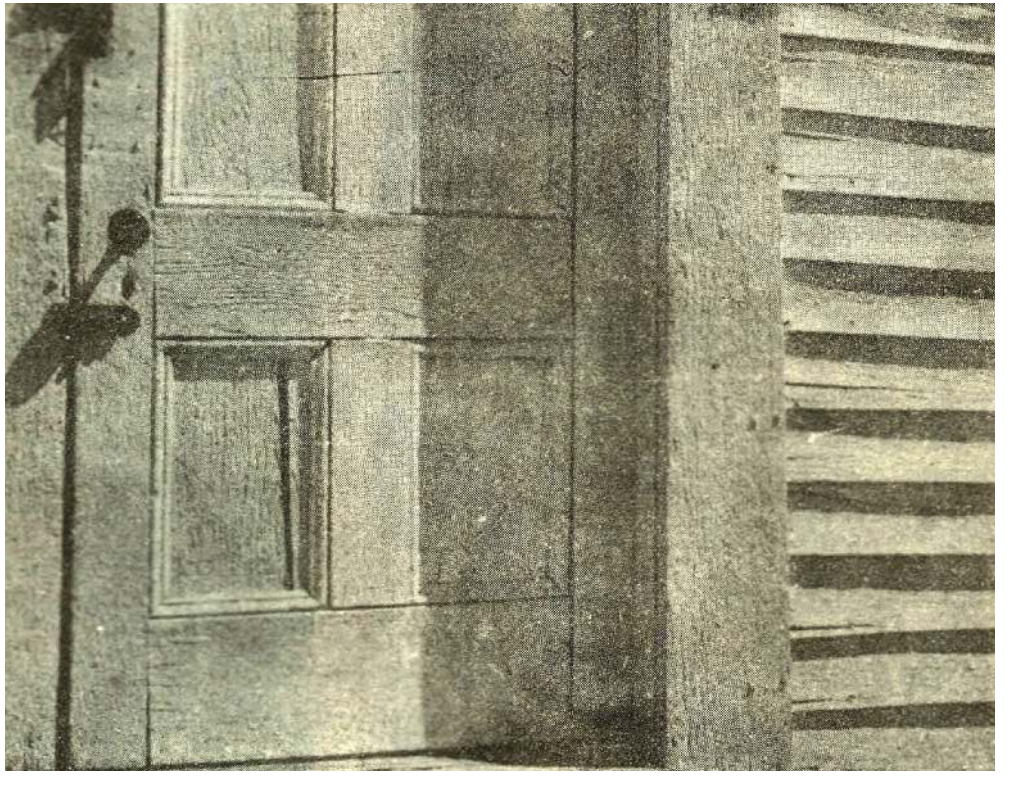
항공일단상(航空日斷想) 최인욱(崔仁旭) 54
우리와 하늘 박영준(朴榮濬) 56

호정일화(浩亭逸話)〈사화(史話)〉 서태헌(徐泰憲)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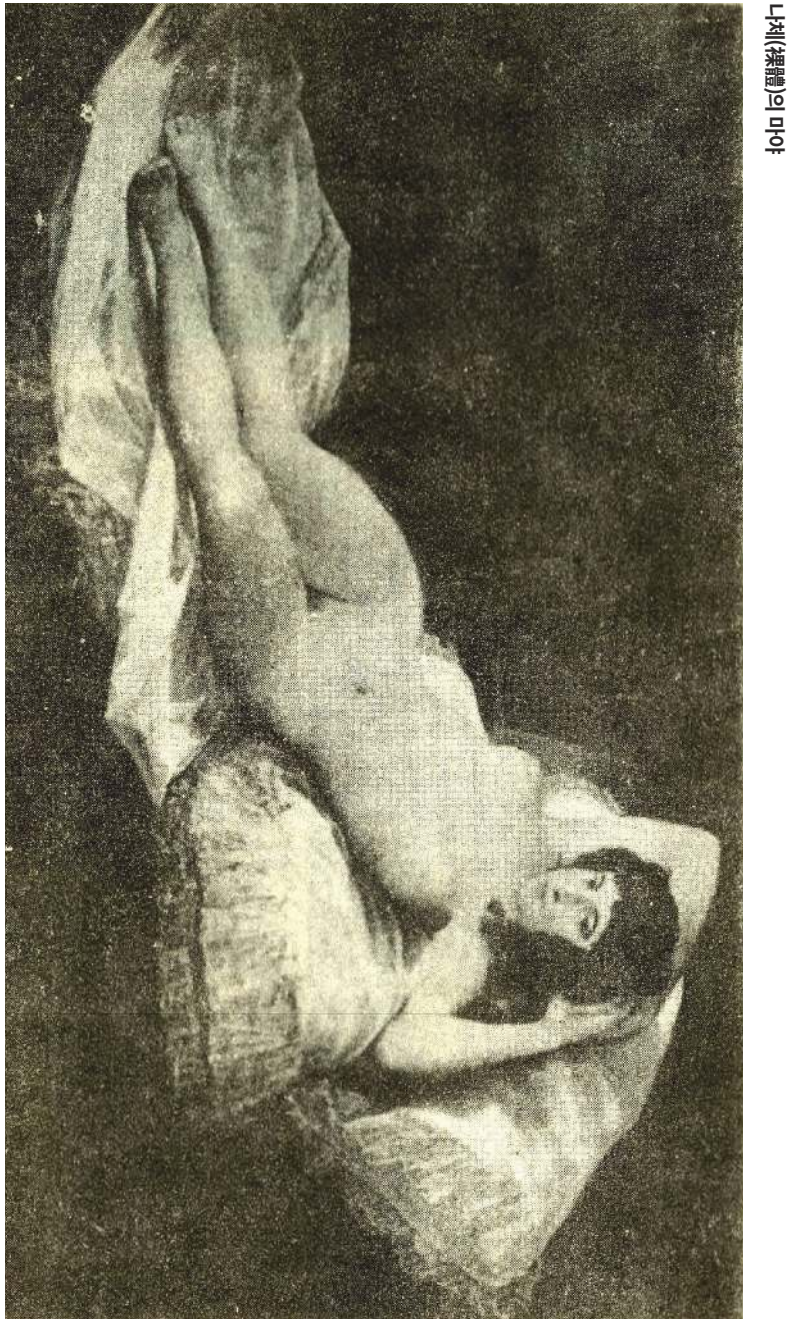
영화소개(映畵紹介)
복면(腹面)의 기사(騎士) 148
굳건한 사나이들 150
금단(禁斷)의 유성(遊星) 152
칼리만자로의 눈〈연재소설(連載小說)〉 E. 헤밍웨이 작 이기석 역(譯) 163

★ 영추단편선(迎秋短篇選)
폐허(廢墟)의 독백(獨白) 유주현(柳周鉉) 173
엽편2제(葉篇二題) 곽하신(郭夏信) 182
불구자(不具者) 최태응(崔泰應) 187

명작사진(名作寫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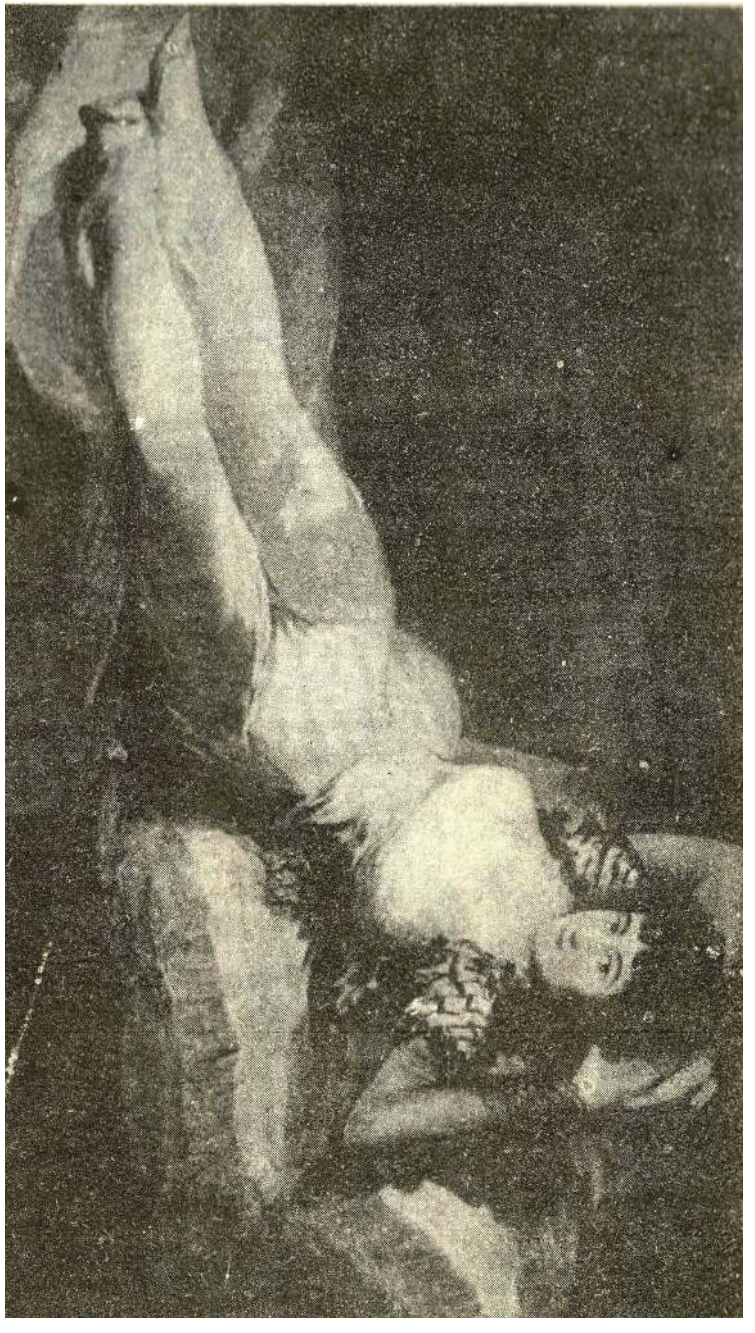


교회(敎會)의 문



나체(裸體)의 미녀

나체(裸体)의 마야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착의(着衣)의 마야」, 「나체(裸體)의 마야」

고야 작(作)(Francisco Jose Goya; 1746~1828)

이 그림은 동형(同形)의 가까운 화포(花布)에 하나는 착의, 또 하나는 나체로서 한 사람의 모델을 같은 소파 위에서, 같은 포즈로 같은 광선 아래서 그렸으므로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두 그림을 보면 착의보다 나체를 먼저 시작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누구를 그렸는지? 알바 공(公) 부인이 아닐까하고 여러 가지 억측으로 유명해진 그림이다. 왜 착의와 나체를 그렸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주제에서 나타냄과 같이 무명의 마야 즉 스페인의 그 시대의 여장부라고도 할 종류의 여자를 그린 것이다.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짧은 상의는 투우사(鬪牛士)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황(黃)에 흑(黑), 아주 강한 색의 배합, 육체를 싼 얇은 것, 분홍의 띠는 밑에 깔린 굿송과 같이 고야가 얼마나 미묘한 광선적 효과를 솔직히 표현했는가를 볼 것이며 그 아래 있는 육체의 모드레(살 붙임)를 충분히 해득하지 못하면 안 될 일이다. 얼굴도 뚜렷이 초상화 같이 그리지 않고 마음껏 대답하게 볼(협(頰))을 붉게 그렸으니 이 시대로서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수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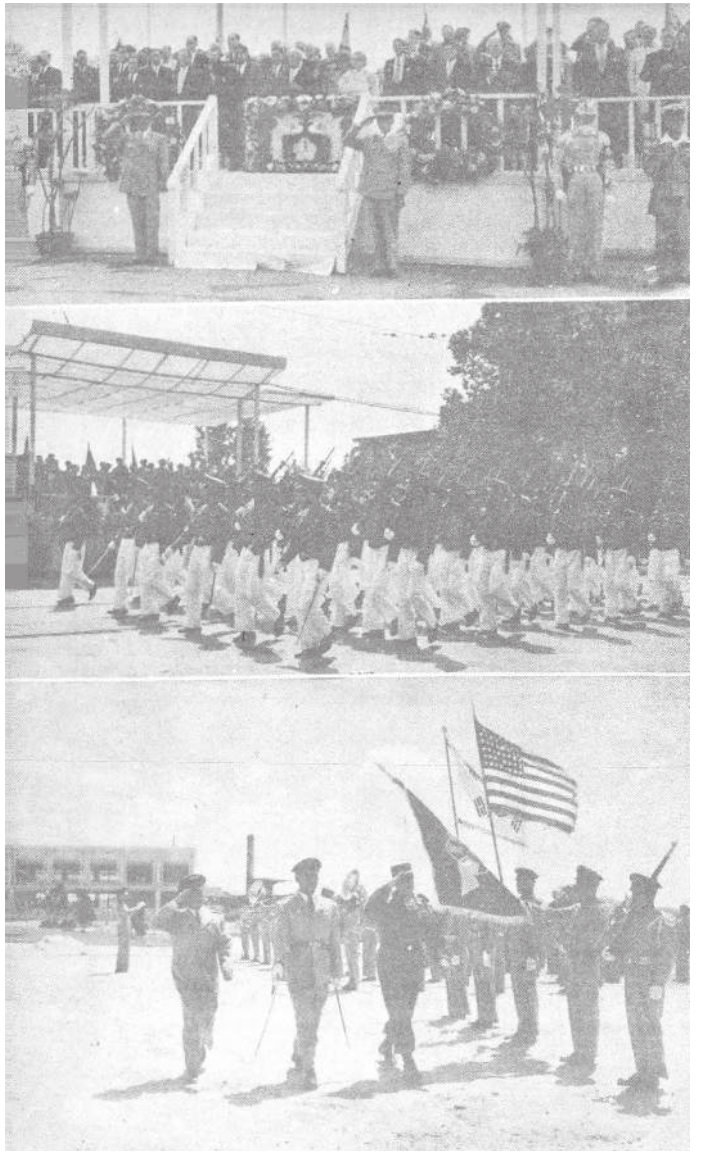
고야는 상세한 사실적(寫實的)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것을 모두 나타내려고는 하지 않았다. 전체의 해조(諧調)에 불필요한 것들은 용감하게 버린다. 이 버리는 것은 고야의 착실성(着實性)이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 고야의 표현법이 확립한다.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1] 및 램브란트[2]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

궁정화가(宮廷畫家)로서 로고고 말기의 궁정 취미풍으로 자연주의 경향을 강조한 근대 회화의 선구자이다. 주제는 초상화가 가장 많고 종교화, 풍속화, 그밖에 판화(版畵) 등은 특히 유명하다. 나폴레옹군(軍) 침입 이후 프랑스 볼드로 가 있다가 1828년 4월 16일 거기서 객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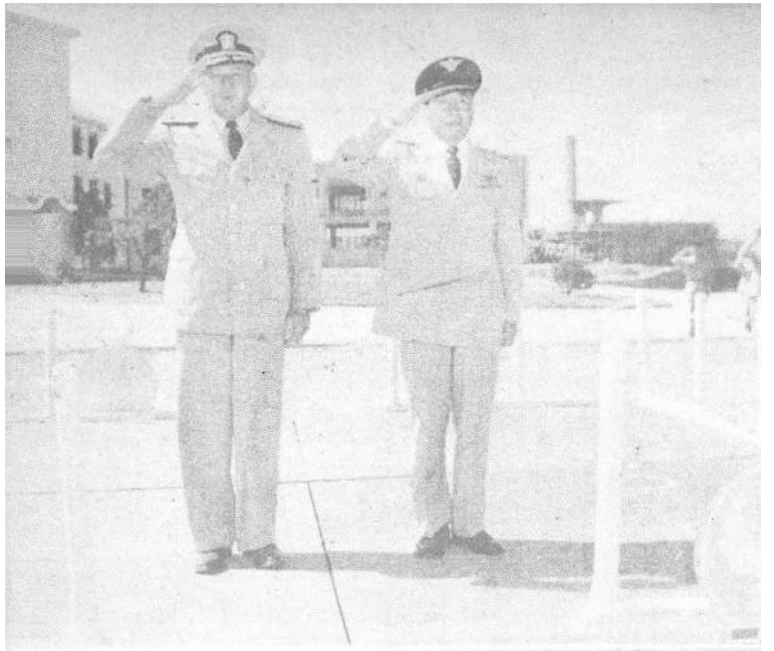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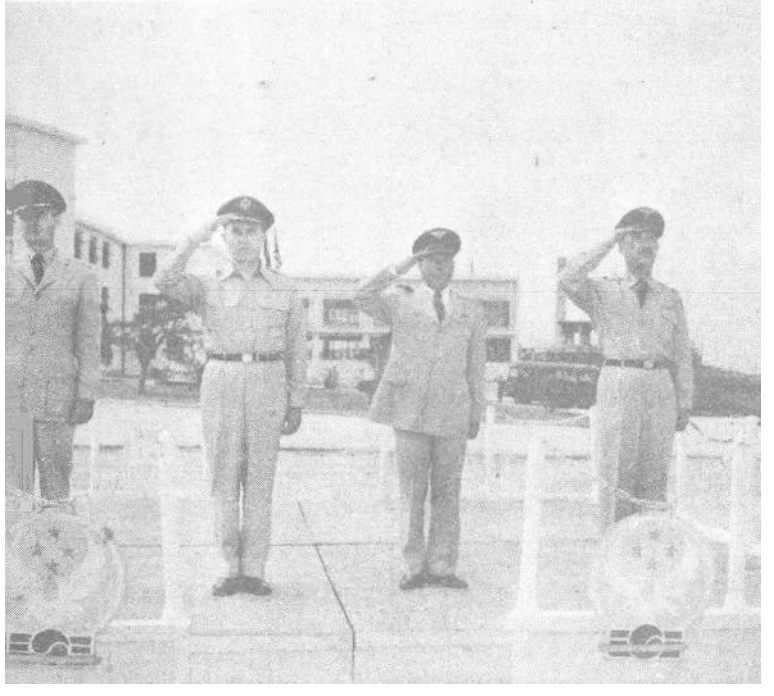
1) Diego Rodríguez de Silva y Velázquez
2)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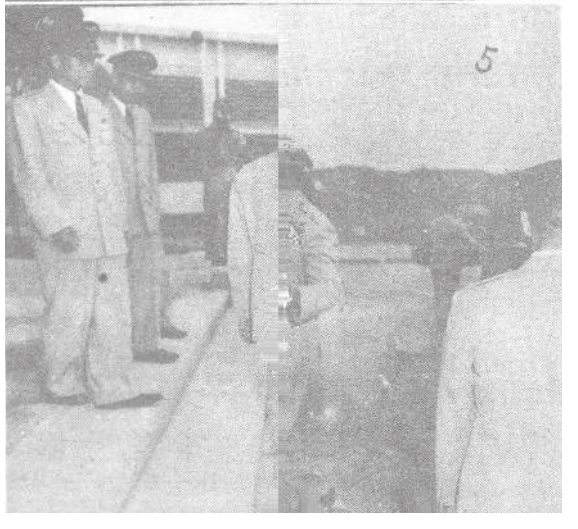
제3대 대통령, 제4대 부통령 취임식 및 제11회 광복절 성거(盛擧)

(상) 경축식전에서 사열하시는 이(李) 대통령 각하 부부와 장(張) 부통령 각하
(중) 분열식(分列式)에 참가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하) UN군 총사령부 램니쩌 대장은 8월 2일 공군본부를 초도(初度)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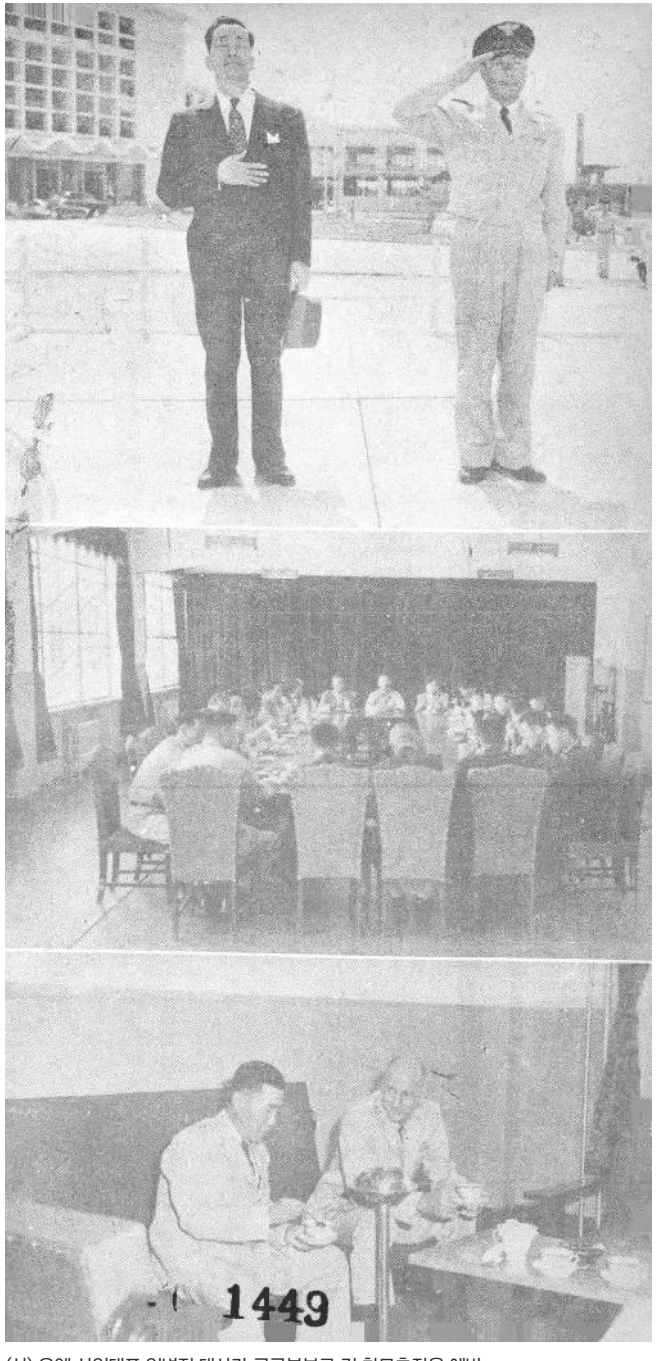
UN군 휴전감시위원단 미 측 대표 퀴글 해군소장이
9월 6일 11시 공군본부로 김 참모총장을 예방.
미 제13공군사령관으로 임명될 에커맨 소장은 9월
7일 10시에 공군본부를 예방



국부(國府) 공군총사령관 왕숙명 대장 내한

지난 7월 26일 김 공군참모총장의 특별 초청으로 내한
국부(國府) 공군총사령관 왕숙명 대장은 작전국장 진염균 소장,
보국장 의복은 대령, 제5제트비행단장 채명영 대령,
부관 장천립 소령을 대동하고 여의도공항에 도착하였다.

(1) 여의도공항에서 김 참모총장의 영접을 받는 광경
(2) 동 공항에서 왕동원 주한 중국대사의 안내로 화교들의 환영을 받는 광경
(3)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예방
(4) 국방부로 김 국방장관을 예방
(5) 동 일행이 공군본부에서 김 참모총장의 영접을 받는 광경



(상) 유엔 상임대표 임병직 대사가 공군본부로 김 참모총장을 예방
(중) 재일 한국동포 고등학교 야구단 일행이 공군본부를 예방, 각급 참모의 다과환영회
(하) 미 제5공군 부사령관 케에쓰 B. 홉슨 소장은 16일 내한하여 공군본부를 예방하여 김 참모총장과 환담

코메트
THE C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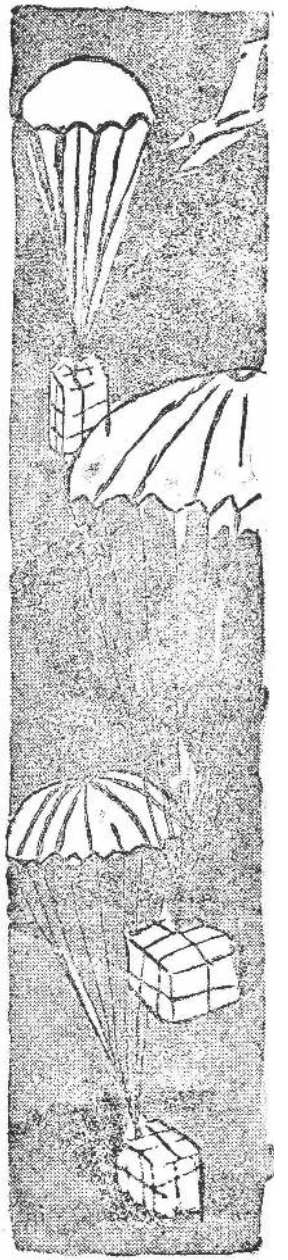
제23호

우리가 「항공일」을 지키는 의의는 모여서 떠들고 비행기가 뜨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보아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결심과 계획을 새롭게 하자는데 있고 또 국민 전체가 단결하여 인식을 새롭게 가지자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 괴뢰가 능가하지 못할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이 다 잘 아는 일인 즉 우리를 주소(晝宵)로 이에 대비가 충분하기를 기하여야 될 것이다.

금년부터는 항공일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여 군인은 물론 전 국민이 국방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할 바 지침을 세우기 위하여 뜻있는 하루를 지내게 되었으니 국민 제위(諸位)의 더욱 더한 성원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美) 군사원조(軍事援助)와 한국경제(韓國經濟)

배성룡(裵成龍)



1.

지난 7월 27일 한국휴전 제3주년을 맞이하여 김용우(金用雨) 국방부장관은 한국의 전력 강화의 필요성과 군 현대화 장비의 화급성(火急性)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이것은 UN에 대한 경고였으니 북한 괴뢰군과 병력 및 장비가 휴전 당시와는 크게 달라져서 엄청나게 팽창한 것을 숫자에 의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군력은 상대적으로 강약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니 국방 책임자로서의 김(金) 장관의 그러한 경고는 결코 우연한 발언이 아닐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필자는 군 관계가자 아니오, 또 그 방면의 연구를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니 아군 국군의 현황을 잘 알지 못한다. 또 미국 및 UN의 대한(對韓) 군사 원조도 그 내용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나 한국의 강대한 전력(戰力) 유지와 미국의 대한 군사 원조 또 그 군사 원조와 한국의 경계 건설과 서로 서로 긴밀한 관계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서로의 미치는바 영향이 극히 심절(深切)한 것만은 알고 있다. 「코메트」지에서 본 원고를 청탁하는 본의에도 깊이 감명하는 바 있어 다만 경제 관계만을 조금 먹어보기로 하는 바이다.

2.

UN 및 미국의 전(前) 주한 경계 조정관 우드 씨(氏)의 발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대(對) 한국의 매년 소비를 약 10억불로 추정하였다. 대한 경제 원조를 약 3억불, 또 대한 군사 원조를 약 4억불, 미국 주한 경비를 약 3억불로 보아서 군사 및 경계 원조 총액을 매년 7억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경제 원조보다는 군사 원조가 약 1억불 정도로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매년 4억불의 미 대한(對韓) 군사 원조가 매우 큰 것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이것은 우드 씨 자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침략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처지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조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니 불가피한 피(被)원조인 것이다. 더욱 한국군의 증강 문제가 아니라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에 있어서도 전(全) 국가 예산의 약 3분지(分之) 1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는 처지이니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대한 원조라는 것도 그의 3분지 1 이상 훨씬 큰 부분이 국방비로 넘어가고 있음을 부인치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부흥, 건설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니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증강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사정의 불가피한 발언일 것이다.

미국인의 말을 빌리건대

역사는 오늘의 한국이 공산주의의 노예근성에 사로 집히는 망상에 추중하지 않고 인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체계에 입각함으로써 능히 국민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지로 신생 아세아 수천만 인민들에게 예증(例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요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 책임 하의 군력 존재라는 것을 지적함일 것이다. 즉 오늘의 한국 대군비(大軍備)는 그 건설에 있어 많은 외국의 원조도 있었던 것이지마는 한국은 넓은 자유세계에 이바지 하는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맞은 것이다. 그 사명은 1950년에서 1953년에 이르는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공산 침략에 대항하는 동안에 성취한 과업에 못지않은 도전을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 재침(再侵)은 지나간 3년 전쟁을 그대로 재연하고 혹은 그 이상의 민족의 비참을 가져올 것인 까닭이다.

한국의 국방 문제는 한국 문제의 범위를 떠나서 전 자유세계의 문제이니 한국 당국의 책임 문제도 크겠거니와 전 자유세계의 협조, 원조가 없이는 그 대(大)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3.

지난 5월 3일 당시 한미 경제 조정관이던 우두 씨의 발언(워싱턴 5월 3일 발

INS 합동)에 의하면 한국이 21개 사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미국은 막대한 원조를 계속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고 또 이어서 "만일 한국이 대규모 군대가 필요치 않게 된다면" 현 수준과 비등한 "검소한 수준" 위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였고 또 "그러나 21개 사단을 훈련하고 일선에 배치하면서도 자급자족(필자—경제적?)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이상 발언을 검토해 보건대 21개 사단의 군대를 유지하고는 경제적 자급자족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만한 대군비가 필요치 않게 된다면 경우라도 검소한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소군비(小軍備)가 아니면 자급자족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조의 다과(多寡)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건설의 과정을 두고 말해보더라도 재정에 의한 대군비(大軍費) 조달이 없었던들 경제 건설의 템포는 훨씬 빨랐을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비용을 산업 건설에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현재의 대규모한 군비(軍備)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한 군비 원조가 더욱 컸더라면 한국의 어려운 재정에서 많은 국방비를 할출(割出)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금후에도 그대로 예상되는 것이다. 큰 군비를 유지하고는 경제 안전을 얻을 수가 없다. 다만 큰 군비를 유지하면서도 원조로서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큰 군비를 유지하고도 능히 경제적 자립,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너무 무거운 군비에도 있지마는 또 원조가 군비 시설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적은 데도 있다는 것이다.

4.

한국의 경제 부흥이라는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사회의 어떠한 부면(部面)도 아직 근대성을 가지지 못하여 근대와 전(前) 근대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형편이니 경제 관계도 그러한 존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생산과 자본이 분리되어 자본의 생산적 역할은 매우 미양하고 상업 자본의 화식적(貨殖的) 투기적인 기풍은 매우 농후한 것이니 이런 경향을 한국의 근대 산업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거기에다가 8.15 해방에 의한 산업체계 상의 혼란이 컸었고 또 6.25 사변에 의한 3년 전쟁의 파괴는 극히 처참한 것이었으니 이 국방과 경계 건설의 이중의 큰 과업 수행은 도리어 그 하나도 오르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국방과 경계 건설에 있어 미국의 연계(年計) 원조 7억불이라는 것은 사실에 있어 거대함을 부인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거대한 원조가 소기의 목적을 뜻하는 바대로 달성치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내부에도 있으며 그 내부의 이유도 외부의 이유에서 파생하는 바 있고 또 외부의 이유는 내부 이유에 인유(因由)하는 바 있어 그 거대한 7억불 원조의 효과는 용이히 거두어지지 않는 것이다. 원조 문제가 외교에 속하는 바이오, 또 군사에 속하는 바이어서 혹은 형식에 흐르고 혹은 체면에 사로잡히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은 결국 원조 효과를 축감(縮減)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는 것이다.

전(前) 경제 조정관 우드 씨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견해를 표명한 바이지마는 이 21개 사단의 대군비를 어느 때까지 유지하여야 될 것이냐 또 따라서 미국의 대한 군사 원조는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개전 문제 또 미국의 문제의 대한 경계 원조에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국 양국의 원조 및 피원조의 입장이 어느 때까지는 존속될 것이나 항구화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 단계적인 완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막연히 대군비만을 탐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함부로 축소하는 것도 득책(得策)이 못 될 것이며 경계원조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차계획을 틀림없이 실천하는 곳에서만 원조 측의 원조계획도 어떤 한계상에서 확호(確乎)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있어서는 연 4억불의 군사 원조, 연 3억불의 경제 원조가 아무런 현실적인 구제적인 과학적인 설계도 없이 혹은 많다 혹은 적다는 주먹구구식의 양정(量定) 사정을 면치 못하는 것은 커다란 유감사일 것이다. 요컨대 오늘의 세계정세에 의한 한국의 요(要)군비적 현실이 일조일석에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에 따라서 군비의 규모와 군사 원조의 한도를 항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즉 현실에 대한 확신은 가짐으로서 확정 대책을 양국의 함의로서 수립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는 바이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의 경제재건 대책에 미치는 호(好)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믿는 바이다.

5.

한국이 미국의 거대한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받되 어떤 권리 의무의 한계가 확정하게 되지 않는 한 한국 주권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완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진실한 내용일 것이다. 그 실질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도

오직 관념상으로만 절재 독립체와 같이 알고 모든 국가계획을 더욱 완전한 면에로 추진하는 실무에 등한한 것은 헛배가 불러서 실질에 힘쓰지 않는 폐단을 그대로 존속하는 형식의 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의 대(對) 한국 원조가 군사와 경제를 막론하고 결코 무한으로 존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어느 목표에 도달할 확신이 서지 않고는 미국의 원조 태도가 굳어질 수도 없는 것이니 이 점에 있어 한국 정부의 국방 및 경제의 계획이 가능한 것만을 문제 삼는 진실에 돌아가서 계산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다. 양국의 목표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의 독립 완성이라는 공통한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너 나의 간격이 있을 수 없고 허장이나 비현실의 체면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책임성의 붙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문제 삼고 계획 없는 기대나 원인 없는 결과의 희망은 전연 행동 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점에 있어 미국인의 한국관에는 상당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을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교류 내지 협동에는 여러 가지 난삽(難澁)이 없을 수 없고 그 불리는 오직 한국 및 한국인만이 독점하지는 않을까도 생각한다.

요컨대 미국의 군사 및 경제의 원조는 우리로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욱 계획화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거니와 한국 경제 건설이라는 문제를 전적으로 재정 문제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향을 띠는 것은 한국 정보의 경계 건설관(建設觀)과 미국인의 한국 경계 건설관의 사이에 있는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니 이 점의 뚜렷한 한 실증이 최근의 농업은행의 탄생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국민 경제의 힘에 의하여 국가 경제의 확립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이르는바 민주 경제의 건설 방향이니 우두 씨가 언명한바 "자기의 사명은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니 즉 한국 정부의 진실한 협심합력(協心合力)이 아니고는 도저히 원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각부 각처의 더욱 통일된 대(對) 원조 정책이 민주 경계 건설의 단일 목표에 따라서 새로 책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필자(筆者) 경제평론가(經濟評論家))

수에즈 운하문제(運河問題)의 위기(危機)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研究所) 제공(提供)

이집트의 나세르가 구라파(歐羅巴)와 아세아를 최(最)거리로 연결하는 국제 수로(水路)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함으로서 야기된 긴장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좀처럼 해결 내지 타협의 방도가 보일 것 같지 않다.

나세르의 국유화 조치가 발표되자 조급히 개최된 서방 3대국의 런던 회의는 수에즈 운하의 국제적 관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8월 16일에 런던에서 24개 관계 국가 회의를 개최할 것을 호소한 바 있거니와 당초에 예상되던 바와 같이 이집트는 이에 참가를 거부하였다. 소련은 일련의 지연 전술이 서방측의 완고한 거부를 받은 후 결국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몰로토프의 뒤를 이어 새로 외장에 취임한지 오래지 않은 미숙한 외교관 쉐피로프 외상을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독재자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발표한 후 취한 행동과 소련의 태도는 많은 점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결국 나세르의 동(同) 운하 국유화 조치는 소련과의 사전 협의 내지는 소련의 암시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를 낳게 한다. 나세르는 운하의 국유화를 발표한 후 18시간 동안에 3회에 걸쳐서 이집트 주재 소련대사와 회담하였고 현재까지 5회의 회담을 가졌다. 그들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가고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서방측의 24개국 회의안에 대한 이집트의 태도는 고련의 그것과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이며 두 나라 사이에 사전 협의한 흔적이 여실히 들어

나고 있다.

소련은 영국 측의 24개국 회의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의를 중공을 비롯한 수개(數個) 공산국가를 더 포함하고 또한 수개의 중성(中性) 국가는 아랍 연맹 전(全) 국가를 포함하는 22개국을 더 추가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회의 개최 일자를 8월 말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왔던 것이다. 한편 이집트의 나세르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을 영국에 제시해 왔던바 이는 전기(前記) 소련 측 제안과 함께 영국에 의해서 분연 거부되고 말았다.

두말할 것 없이 수에즈 운하는 구아(歐亞)를 최단거리로서 연결해주고 있는 유일한 국제 수로를 이루고 있음으로서 세계 해양 교통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불란서를 위해서는 생명선적인 존재인 것이다. 영국은 지중해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 동방에 있는 노력권(勞力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는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며 불란서 역시 지중대의 안전과 북아(北阿)[북아프리카] 식민지의 유효한 관리를 위해서 수에즈 운하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한층 더 중요한 문제는 중동 지구의 석유 자원이다. 영국을 비롯해서 전 구라파는 그들의 국방력의 유지는 산업의 유지 발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중동 지구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실로 중동 지구의 석유는 전 구라파의 석유 수요량의 5분지(分之) 4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는 이와 같은 구라파 제국(諸國)의 국방과 산업에 필수적인 석유의 수송로인 것이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하물은 연 평균 1억 톤이라 하는바 그 반 이상이 이 중동구(區)의 석유를 적재한 유조선(油槽船)이 차지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의 광적인 독재주의자 나세르에 의해서 독점된다는 사실은 곧 서구 제국의 국방력과 산업이 침체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통계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영국이 제일 중동의 석유를 잃게 되면 영국은 6개월 내에 4백만 명이 실직 상태에 빠질 것이며 영국의 연 수입은 6억불이나 감소될 것이라 한다. 이는 영국의 경제가 얼마나 중동 지구의 석유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단적인 사실이다.

38세의 독재자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그의 운하 국유화 조치의 공식적인 이유로서 수에즈 운하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아스완 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최근에 서방측이 아스완 댐 구축에 대한 원조 제안을 철회한데 대한 보복 행위로서 취해진 것이라는 것이 정평이지만 나세르의 심중에는 단순한 보복을 위한 것 이상의 다른 목적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즉 그는 종국에 가서 서방측을 아랍 세계에서 완전히 구축(驅逐)함으로서 아랍 세계에 산재해 있는 서방측의 유전 시설마저 뺏어버리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는 실로 서방측의 생명선을 끊으려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나세르의 극적인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과한 결정이 발표되자 카이로 방송을 "오늘날 우리 아랍 인민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들의 단결과 협력과 승리는 선망의 적(的)이 되어 있다. 나세르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함으로서 아랍 민족을 국유화하였던 것이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던 것이다.

한층 더 중대한 문제는 나세르의 운하 문제를 위요(圍繞)한 태도에 대해서 기타의 아랍 연맹 제(諸)국가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하루 저녁에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싸우드 왕은 나세르에서 친서를 보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집트를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고 요르단의 후세인 왕 역시 축하의 전문(電文)을 발송하고 나세르의 승리는 아랍 민족주의 장래를 한층 더 유망한 것을 만들었으며 우리들의 국기가 장차 부당하게 도덕당한 팔레스타인 땅위에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은 아랍 제국(諸國)의 거대한 석유회사를 국유화함으로서 그 수입을 이용해서 공통적인 경계발전 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설이 떠돌고 있다.

한편 나세르의 운하 국유화 조치가 발표되자 영국과 불란서는 크게 경악하고 분격(憤激)한 나머지 양국 공(共)히 예비군 소집을 단행하는 동시에 해군력을 동부 지중해에 집결시키는 등 금시라도 이집트를 칠 것 같은 무력시위를 한바[3] 있었거니와 이에 대한 이집트의 태도 자못 강경한바 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다시 뺏길 바에야 차라리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나세르는 국가총동원령을 발포하는 동시에 최후의 일인까지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또 아랍 연맹노동조합은 이집트가 만약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중동 전역의 서방측 시설을 일체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가결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구에서 영국의 창도로서 이루어진 바그다드 협정의 가맹국이며 영국과의 친선을 유지하고 있던 이라크와 이란마저 이집트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영국을 한층 더 깊은 딜레마 속으로 빠트리는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3) 원문의 '베풀은바'는 '한바'로 함.

소련은 시초부터 이집트의 조치를 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찬양하고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셨거니와 서방 3대국 대표들이 런던에서 모여 8월 16일에 24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호소하자 소련은 전술한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지연 전술을 써보려 했으나 영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예정대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쉐피로프 외상은 런던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이 최근 과거 75년간의 점령에 종지부를 찍고 수에즈 지역에서 철수를 단행한 이래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은 이집트, 기타 중동 제국과 더불어 구시대의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벗어난 평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4년 전에 화룩 왕을 쫓아내고 이집트의 정치 혁신과 부패의 시정을 부르짖으며 독재자로 등장한 38세의 청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걸어온 행상은 언제나 서방측의 실망을 자아내 왔다.

그는 소련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며 필요 이상으로 서방측을 비난함으로서 아랍 인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그는 작년 9월에 소련과 무기 거래를 시작함으로서 중동 평화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또 친서방적인 바그다드 협정(중동방위기구)을 깨트리기 위해서 전력(全力)을 다해 왔고 또 최근에 와서는 서방측과 하등의 사전 협의 내지 통고도 없이 중공 정권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아랍 연맹국가들 중에 가장 친영(親英)적 색채가 농후하던 요르단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서 영국과의 마지막 유대를 끊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세르의 나일강 상류에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소위 아스완 댐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소련과 접근하고 마치 삼각관계에 선 요부(妖婦)와 같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서방측 특히 미국은 아직도 나세르에 대해서 일루(一縷)의 희망을 걸고 그가 서방측에 머물음으로서 얻는 이득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인내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서방측이 나세르에 대해서 걸고 있던 일루의 희망은 완전한 환상이 없음이 드러났다. 나세르는 아랍 세계 나아가서 전 무슬림 세계의 패권을 쥘 것을 꿈꾸고 있는 야심가요 환상가임이 드러났다.

이는 서방측을 위해서 커다란 고전이 되고 있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세르는 아랍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가 영도하는 이집트가 아랍 연맹 전체에서 주도국인 위치에 서있다는 이유에서뿐 아니라 그는 특히 금반(今般)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해서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되었으며 아랍 인민에 의해서 일대(一大) 영감적(靈感的) 존재와 같이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세르를 가리켜 독일의 히틀러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도 지당한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층 더 중대한 문제는 이와 같은 나세르의 야망이 작년 9월에 이집트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기 시작함으로서 노골화한 소련의 중동 지구에 대한 야욕과 야합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의 중동 문제의 개입의 근본 목적이 서방측을 중동 지역에서 거세함으로서 그 생명선적 존재인 석유 공급원을 봉쇄해 버리자는 데에 있거니와 이제 이러한 소련의 야욕이 나세르의 똑같은 심보와 결합을 이룸으로서 서방측을 위해서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방측이 단결을 유지하고 이번 수에즈 운하 문제에 용감히 당하지 않는 한 수에즈 운하 문제는 서방측을 위해서 단순히 동(同) 운하 자체의 상실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거세되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NATO와 SEATO의 장래(將來)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硏究所) 제공(提供)

자유세계의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집단방위체제로서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SEATO(동남아조약기구)는 이제 소련의 무력 침공의 의도를 저지하는 본래의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한 결과 새로운 국면에 처한 냉전을 위해서 개편을 단행할 계단에 도래하였다.

NATO는 1949년에 "가맹국의 1국 내지 수개 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시 이를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시 자동적으로 응전한다."라는 원칙 위에서 창설되었고 SEATO는 1955년 9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마닐라 8개국 회의에서 조인된 마닐라 조인된 마닐라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집단방위체제인 것이다.

이 두 개의 자유세계의 동맹체는 그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대한 것은 NATO가 가맹국에 대한 공격은 이를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시 자동적으로 응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SEATO는 다만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이 있을 경우에 조약 체결국은 각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의하여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양자 간의 성격상의 차이는 우리가 여기서 논하려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SEATO는 그 근본적인 조직상으로 볼 때 NATO에 비해서 약체라는 평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이 성립한지 역사가 짧은 반면에 NATO는 그 성립 이래의 역사가 오랠 뿐 아니라 자유진영의 강력한 단결을 상징하는 집단방위체제로서 과거에 소련의 무력침략의도를 저지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소련이 현재 그의 대외 정책상의 당면의 목표의 하나로서 NATO의 해체를 획책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술한 바가 같은 NATO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서방측은 당면의 긴박한 상제(詳題)로서 우선 NATO의 개편에 대해서 고려를 가하여 왔으며 SEATO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던 것이다.

생각건대 NATO의 개편론이 대두되게 된 근본 원인은 작년 7월의 제네바 4거두(巨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표면화하기 시작한 소련의 평화 공세와 이에 따라 소련의 대외 정책이 새로운 신축성을 가지고 다각화한데 대응하려는 요청에서 유래하였던 것이다. 제네바 정상회담은 동서 냉전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소련의 대외정책은 지금 와서 소련의 신(新) 지도자층이 완전히 비난 부정하고 있는 소위 스탈린 방식에 의해서 수행되었던바 그는 요지부동하는 철의 장막 뒤에서 서방측에 대한 무력시위와 협박으로서 일관하였으며 따라서 양대 진영 간의 관계는 끊임없는 군비 경쟁과 상호간의 세력권 형성으로 시종(始終)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전체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양대 진영으로 확연히 분할됨으로서 군사적으로 정돈(停頓) 상태에 빠지고 숨 막힐 듯한 긴장은 치열의 도를 가해왔다. 그리하여 NATO는 그와 같은 양대 진영의 대립 관계 속에서 자유진영의 단결을 상징하는 강력한 조직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표면화한 소련의 미소 외교, 평화 공세는 냉전의 양상을 일변시켰다. 냉전은 그때까지의 군사면 치중을 양기(揚棄)하고 경제전, 사상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냉전 제1기에 있어서 공산 측의 침략 의도를 봉쇄하기 위해서 자유진영의 군사적 방위 태세의 완성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완수한 NATO는 그 면모를 바꿈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면 치중을 지양하고 정치, 경제적 면에서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NATO 개편은 촉구되었거니와 반면 NATO 내부에서도 그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취약점이 배태됨으로서 그 응급수술을 위해서도 NATO는 새로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원래 NATO는 소련이 무력 침공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흔히 말하면 소위 제네바 정신은 그와 같은 공포를 말소해 버림으로서 NATO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소련이 전면적인 무력 침략을 취행(取行)할 위험성은 이미 해소되었고 자유진영은 과거의 군사면 치중 정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양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자 기 몰레[4] 수상이 영도하는 현 불란서 정부이다. 일찍이 기 몰레 씨는 미국의 한 잡지 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난하고 서방측 특히 미국은 그 정책에 있어서 군사 면에 과도히 치중함으로서 공사주의자들로 하여금 평화를 표방하는 역선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동시에 미소(美蘇) 양국이 다 같이 수소탄 폭발에 성공한 이래 자기는 이미 소련의 무력 침공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왔다라고 말한바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도 불란서는 그의 구주군(歐洲軍)을 북아(北阿)의 알제리 폭동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돌렸고 또 최근에는 몰레 수상과 피노 외상이 몸소 막부(莫府)[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소련 수뇌부와 한 자리에 앉아 군축 문제를 비롯한 세계 긴장 문제를 얘기한 바 있었던 것이다.

한때 대서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자유진영의 소련에 대한 군사기지로서 미국이 그의 공군기지를 보유하여 해군의 일부를 주둔시키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그 의회에서 미국에게 그 주둔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바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 동 결의안은 국제 긴장 완화된 결과 동 도(島)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킬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계속해서 군대를 동 도에 주둔시키게 되었으나 이것이 NATO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NATO의 개편을 촉구한 또 하나의 한층 더 중대한 사실은 현재 중동을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 걸쳐서 팽배해 일어나고 있는 중립주의와 후진 민족들의 각성하여가는 민족의식이다. 소련의 평화 공세는 현재 후진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축심(軸心)으로 하고 수행되고 있는바 과거 서방측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후진 민족들의 각성하여 가는 민족의식을 용이하게 자극함으로서 중립주의적 경향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자기 진영 내로 포섭해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방측이 이에 대항해서 후진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현재 세계 전체를 풍미하고 있을 중립주의를 막고 후진 국가들로 하여금 서

4) Guy Alcide Mollet

방 진영에 머무르게 함은 무엇보다도 긴박한 당면의 과제인 것이다. 냉전에 있어서의 결국적인 승리는 어느 편이 먼저 인간의 싸움과 사상을 정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ATO는 당연히 과거의 군사면 치중을 지양하고 정치적 경제적 면에서 서방측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에 의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과 불란서가 미국에게 NATO 개편을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들은 NATO를 이와 같은 후진국에 대한 경제 원조의 발판으로 만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미국과 기타 서방 제국들 사이에 개편에 관한 정책상의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 여론은 아직도 미국의 장기적 대외 원조를 반대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의 1957년도 대외 원조액 49억불은 상하원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 결국 10여 억 불이 삭감된 끝에 37억불로서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이 가일층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려할는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NATO 개편을 위한 실제적인 첫 단계는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불란서 파리에서 NATO 가맹 15개국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NATO 이사회에서 취해졌다. 동 이사회는 냉전의 새로운 양상에 즉응키 위해서 NATO를 여하히 개편할 것인가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소련과의 평화적 투쟁을 위해서 NATO를 개편하는 방안 작성을 캐나다, 이태리, 노르웨이 수상으로서 구성되는 3인 위원회에 위촉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구라파의 NATO는 그 개편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을 이에 보이고 앞으로 개편을 위한 3인 위원회에 방안이 여하한 것인가 주목을 끌고 있거니와 한편 동남아세아의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하는 SEATO는 어찌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SEATO가 성립되던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희망은 SEATO가 비록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당면의 제(諸)사정으로 인해서 아세아 전역에 걸친 반공 세력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못하였고 구라파의 NATO와 같은 강력한 조직을 이루지는 못하였을망정 앞으로 SEATO가 절대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며 또 발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세아는 구라파와 동양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성이 존재하여 더구나 구라파보다도 훨씬 더 국부적 전쟁의 위험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로서 아세아의 강력한 반공집단방고체제를 확립하다는 것은 강렬한 요망이었던 것이다.

서방 강국들이 자기들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서 아세아에 관심을 덜 두고 있음은 인간의 상정(常情)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는 아세아의 안전 나아가서 세계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아세아는 아직도 군사적으로 한국을 위시해서 타이완(臺灣), 인도지나(印度支那), 버마 등의 폭발적인 위험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강력한 집단방어체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세아는 서구 제(諸)국에 비해서 아득하게 뒤떨어진 미개지이며 따라서 미개한 아세아인민들은 공사주의의 침투를 위한 한층 더 용이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SEATO를 앞으로 확장 강화하는 과제란 한층 더 긴절(緊切)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노력은 군사적 경제적 양면에서 다 같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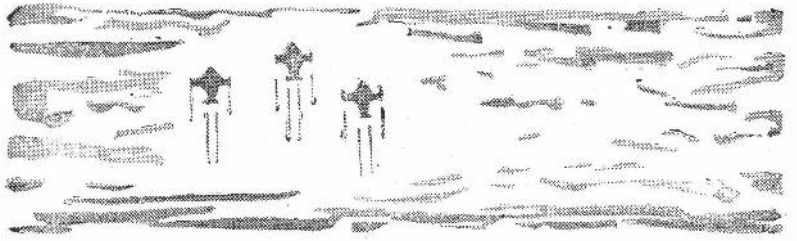
(27페이지에서)

흥분에 가득 차게 하였다. F-86, T-6에 의한 특수비행이 경이와 감동으로 입을 벌린 참관인들 앞에서 거행되었고 F-86에 의한 음속돌파비행과 F-86 편대에 의한 대지(對地)공격 시범이 있었는데 한강 모래사장 위의 목표물에 명중탄을 퍼붓는 묘기에 천지를 뒤흔드는 박수갈채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낙하산 강하와 H-19 헬리콥터에 의한 구출작전으로써 하늘의 제전(祭典)은 막을 내리었는데 백수 십여 대의 각종 항공기가 참가하여 90분간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계속된 동(同) 제전은 참관인들에게는 오직 감격과 흥분, 감탄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참가한 비행기는 H-19 헬리콥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태극의 표식이 달린 한국공군기였다.

이와 같이 1948년 가을 제1회 항공일을 제정한 이후로 연년(連年) 성대한 항공일 기념행사를 거행하여옴에 따라서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공군의 위용이 해를 바꿀 때마다 온 겨레의 앞에서 과시되었고 국민도 또한 해가 갈수록 항공에 대한 인식과 동경을 더욱 새롭게 하여 국방상에 있어서 공군력의 중요성이나 현대문명의 극치인 항공기의 발달상을 몸소 목도(目睹)하고 체험하게 되어 이 나라 항공계발(航空界發)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자유롭게 우리 하늘을 우리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오늘날 한국공군과 한국항공계의 전도는 참으로 전도양양하다고 할 것이다.

(군사과(軍事課) 제공(提供))



<항공일(航空日) 축시(祝詩)>

창궁송(蒼穹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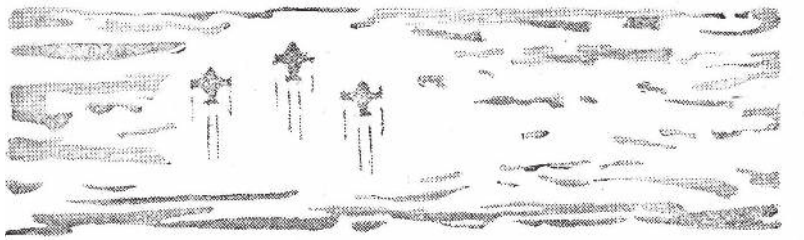
박기원(朴琦遠)

우주를 축도(縮圖)할 푸른 의욕에 항시 가슴은 부풀어
유유히 창궁을 아람하여 구름을 갈피하는 뜻이 가을처럼 드높다.

한갓 솟치고 솟구치어 푸르름에 사색하는 동방의 하늘 끝
유구히 한 점 새벽 별을 탐구하기에 오늘이 있어 찬란하다.

태양은 은혜(恩惠)하여 일곱 빛 황금 꽃다발을 은익(銀翼)에 던져주면
대양(大洋)은 용용(湧湧)히 굽이쳐 한 폭 바다를 그림 하기엔
낙매(落梅) 같은 지도(地圖)가 눈 아래 감돌았다.

여기 꺾지 못할 기백이 굳어간 기체(機體)는 고된 역사 위에 섬광(閃光)을 점(点)치고
오랜 풍우(風雨) 속에 굳센 긍지를 인내하기 젊음이 이토록 보람하는 창공



의 사도(使徒)였다.

사람이 애써 하늘로 하늘로만 받들어 올리기에 공을 세우던 날
파란 의지를 차츰 하늘을 닮아 지구를 오쿰 안에 두는 걸 자랑삼는
평화의 날개였다.

죄와 악이 모두 땅덤이 위에서만 빚어지는 인간의 비굴함을 박차고
차라리 창궁에 날아 신의 뜻에 귀 기울이는 조촐한 미음을 지조(志操)했다.

한 떼 따오기 조용히 흘러 거리낌 없는, 구규(九逵)의 길 위에
가을 독수리처럼 때로는
의(義) 앞엔 천인(千仞) 절벽도 겁나지 않는 엄청난 노호(怒號)를 불 뱉었다.

우러러 우러러 저렇듯 높은
성좌(星座) 같은 위치에
무수한 기폭(旗幅)을 열(列)지어 가는데
아—자유의 자세에 눈이 부신다.

공군(空軍)과 항공(航空)의 날
항공일(航空日)의 유래(由來)와 변천(變遷)

강철(姜哲)

한국인들만이 역사상 최초로 서울 상공을 비상하다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동경하여 20세기 초부터는 드디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 민족에게는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하늘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닥쳐올 항공시대를 예견하고 하늘을 일터로 하겠다고 나선 우리의 항공계 선각자(先覺者)들은 부득이 외국 하늘을 날아야만 했고, 또는 갖은 고초를 겪어가며 비행술을 배웠으면서도 이국 하늘마저 마음대로 날수 없는 쓰라림을 언제나 겪으면서 조국 하늘을 마음대로 날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다.

8.15 해방, 일제의 쇠사슬이 풀리면서 그날은 드디어 왔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붉은 마수가 조국 하늘 북반(北半)을 뒤덮고 남쪽마저 뒤덮으려 할 줄이야! 그리하여 조국 해방과 더불어 조국 하늘을 마음대로 날겠다고 줄을 이어 돌아온 보라매들은, 절박한 국내정세와 조국 하늘의 방어 없이 뻗어오는 붉은 마수를 막을 길은 따로 없었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7인 간부를 중심으로 4281년 초여름 항공부대를 조직하였다. 그 후 착착 토대를 닦아 나아가던 항공부대(당시 정식명칭은 육군항공기지사령부)에서는 4281년 9월 13일부로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L-4형 연습기 10대를 인수받아 김포(金浦)기지에서 김정렬(金貞烈) 대위(현(現) 중위)를 부대장으로 하는 비행부대를 편성하고 그날부터 순전히 우리 손으로 이를 조립한 다음 즉시 비행훈련을 개시하여 9월 15일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감격의 날 9월 15일, 가을도 짙어가고 구름 한 점 없이 드높게 개인 그날 김포기지 상공에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순전히 한국인들만이 조종하는 비행기 10대가 편대비행에 성공하여 자유스럽게 은익(銀翼)을 빛내면서 서울상공을 비상함으로써 한국 항공역사상에 화려한 첫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이날부터 우리 겨레는 그립던 조국 하늘을 마음대로 날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이날부터 묵묵히 훈련을 거듭하여온 우리 공군은 조국 하늘을 지켜왔다.

제1회 항공일(航空日)은 4282년 9월 15일 여의도기지(汝矣島基地)에서 막(幕)을 올리다

4281년 9월 15일에 역사적인 초비행(初飛行)을 개시한 비행부대는 그 후 10월에 인수받은 L-5 10대와 함께 여순(麗順)반란사건 진압 작전에 참가, 4282년부터는 제주도(濟州道) 폭동사건, 옹진(甕津)전투 등에 출동하여 활약을 거듭하여 왔는데 4282년 9월 15일, 역사적인 기념일의 첫돌을 맞이하게 된 당시 육군항공군사령부(육군항공기지사령부가 개칭된 것)에서는 뜻 깊은 이날을 영구히 거족적(擧族的)으로 기념하고 온 국민의 항공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협력 하에 이날을 항공일로 제정하고 제1회 항공일 기념행사를 여의도기지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당일 상오(上午) 10시부터 거행된 동(同) 기념식전에는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국방부장관 신성모(申性模), 동 차관 최용덕(崔用德), 기타 3부(府) 요원, 서울 시내 수만 명의 학도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전시(展示), 공중묘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전시된 항공기는 L-4, L-5 등이었다.

제1회 항공일을 치른 지 며칠 안 되는 4282년 10월 1일 육군항공군은 육군 예속으로부터 이탈되어 당당히 육해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군으로서 독립하였다.

눈물과 감격(感激)에 찼던 제2회 항공일

4282년 10월 1일에 독립한 공군은 날로 증강을 거듭하여 오던 중 4283년 6월 25일 전란을 맞이하여 용전 감투하였으나 지상 전투가 불리하여 후퇴 작전을 거듭한 한국군 및UN군은 낙동강(洛東江) 궁형(弓形) 방어선에서 최후의 방어진을 구축하고 반격 작전 개시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에 또다시 돌아온 항공일,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우리 공군은 적진에서 불과 10여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구(大邱)시내에 공군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전지(戰地)에서도 이 의의 깊은 제2회 항공일을 다채롭게 축하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공군본부가 주동이 되고 국방부 정훈국,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의 후원 아래 대구시 문화극장에서 9월 15일 13시부터 김정렬(金貞烈) 공군총참모장, 최용덕(崔用德) 공군사관학교장, 박범집(朴範集) 공군참모부장, 김성삼(金省三) 해군참모부장(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참석) 정부 측에서는 조병옥(趙炳玉) 내무부장관 등 귀빈 임석 하에 김기완(金基完) 공군정훈감의 사회로 기

념식을 거행하고 정훈국 공작대의 합창, 문총의 시 낭독, 전황(戰況) 뉴스 상영 등으로써 17시에 폐식하였다. 이 의의 깊은 기념식이 거행되는 도중 대한민국 육해공군총사령부에서 15일 13시 45분에 발표한UN군 및 한국군 반격 작전 개시 보도 호외(號外)소리는 대구 문화극장 주변을 뒤흔들었고 감격과 눈물과 흥분과 희망으로 빛나는 제2회 항공일 기념식전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날부터 UN군 및 한국군은 북진에 북진을 거듭하여 우리 공군도 9월 24일부터 서울 지구로 복귀를 개시하여 10월 1일에 맞이하였던 공군 독립 제1회 기념일은 서울 복귀 속에서 보냈다.

항공일(航空日)과 공군기념일(空軍記念日)의 병합(倂合)

반격 작전 개시와 함께 괴뢰군을 격멸하고 민족적 염원인 조국통일이 곧 성취되는 듯하였더니 중공(中共)오랑캐의 침입으로 재차 서울을 버리고 피눈물 나는 후퇴작전을 계속하여 남한에는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피란민이 범람하였다. 그러나 한민족은 주저앉지 않았다. 우리 공군은 이 후퇴시기에 있어서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4284년 8월 1일에는 1개 전투비행단(戰鬪飛行團)을 갖게 되고 지리산(智異山) 지구 공비(共匪) 토벌 작전을 통하여 그 실력을 내외로 인정받는 등, 4284년 가을은 대적군(對敵軍) 단독출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느라고 한창 바쁜 때이었고,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공군의 강화(强化)를 기원(冀願)하는 항공기 헌납금이 연일 답지하고 있던 때이었다. 따라서 제3회 항공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다만 국내 각 기관으로부터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항공일의 의의와 하루 속히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격려사(激勵辭)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어 10월 1일 당시 대구에 자리 잡고 있던 공군본부에서는 공군독립 제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구시 문화극장에서 상오(上午) 9시부터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하오(下午)에는 각 부대 대항체육대회 등과 국민 항공사상 앙양을 위한 방송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또한 항공일과 공군독립기념일을 더욱 빛내고 의의 깊은 날을 영구히 기념하여 전 국민의 항공사상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항공일을 공군기념일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사건은 당시 각 신문에 보도되고 있음).

이리하여 4285년부터 제4회 항공일 및 공군독립 제3주년 기념식전은 10월 1일에 전 국민이 경축하는 가운데에 거행되었다.

우선 42852년 10월 1일에는 남단(南端) XX기지에서 대규모의 기념식전이 베풀어졌다. 동(同) 식전(式典)에는 때마침 극동(極東) 지구 축제 중에 있던 미 공군 장관 핀렛터 씨가 이 식전에 참석차 도쿄(東京)로부터 당(當) 기지에 도착하여 더욱 이채를 띄운 가운데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위시하여 함태영(咸台永) 부통령,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 각 부 장관 및 육해공군 각 총참모장, 그리고 핀렛터 미 공군 장관을 위시한 미 극동 공군사령관 웨이랜드 대장(大將), 미 제5공군사령관 바카스 중장 이하 많은 한미 고급 장성 및 내빈들의 참석리에 성대한 기념식전이 13시부터 동 기지에서 베풀어졌다. 먼저 비행기 전시(展示)로부터 시작하여 공중 분열(分列), 특수비행, 공지(空地) 협동작전 및 대지(對地)공격의 실황, 낙하산 강하 등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어 그동안 눈부시게 자라나온 우리 공군의 위용이 격찬(激讚)을 받았으며, 이어서 격납고 앞에서 한미 양국 조종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어 이(李) 대통령은 공군수석고문관 포드 대령 이하 3명의 미 공군 조종사에게 금성을지(金星乙支) 및 은성(銀星)충무공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미 제5공군사령관 바카스 중장은 김영환(金英煥) 대령 이하 9명의 역전(歷戰)의 한국 공군 조종사에게 동성(銅星)항공훈장을 수여하여 17시 30분에 식을 마치었다. 이날 식전에는 F-51 무스탕 전투기 T-6, L-4, L-5, L-19 등 각 연습기 및 연락기와 C-46 수송기가 참가하였으며 동 식전에 참석한 수십 명의 국내외 기자들은 한국 공군의 발전상을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성대한 제4회 항공일 및 제3회 공군독립기념일을 남단 기지에서 거행한 우리 공군에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 4286년 10월 1일의 제5회 항공일과 제4회 공군독립기념일을 우리 공군 파일럿의 보금자리인 진해(鎭海)에서 가을하늘도 짙어가는 날 제2기 사관생도의 졸업식과 함께 거행하였다. 식전에는 이(李) 대통령과 함(咸) 부통령이 미 제5공군사령관 전용 4발(發) 기(機)로 내진(來鎭)하여 임석(臨席)하였고, 서울로부터는 특별열차가 운행되었다.

만장(滿場)의 박수를 받아 가면서 만면에 희색을 띄우고 진해기지의 사열대에 등장하신 이 대통령 뒤에는 함 부통령, 손원일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요인, 최용덕 공군총참모장, 백선엽(白善燁) 육군참모총장, 박요규(朴夭圭) 해군총참모장, 미 제5공군사령관 앤더슨 중장, 유엔한위(韓委) 각국 대표 등 내외 귀빈이 다수 자리 잡고 앉아 앞으로 벌어질 성대한 식전의 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상오 10시 10분 동해안 기지로부터 비래(飛來)한 우리 공군의 F-51 무

스탕 전투기 편대는 다도해(多島海) 해상으로부터 그 용자(勇姿)를 나타내어 태극표식도 선명히 사각대(査閣隊) 상공을 비행 분열로 지나갔다.

동 20분 대지공격으로 들어가 남해 상공에서 공격태세를 갖춘 동 편대는 진해만(鎭海灣) 내에 있는 소죽도(小竹島)에 가설(假設)한 목표물에 대하여 로켓탄, 네이팜탄, 기관포를 퍼부어 백발백중, 동(同) 도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화(化)하였다.

단상의 모든 관중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었다. 곧이어 특수비행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묘기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로써 이날의 비행 행사는 끝나고 11시 45분부터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제2기 사관생도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항공일(航空日)은 국민항공(國民航空)의 날

이와 같이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하여오는 가운데 4287년 10월 1일의 제6회 항공일 및 공군독립 제5주년 식전을 서울 한강(漢江) 인도수(人道樹) 상편(上便) 정심(靜心)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거행하기에 이르자 이제 항공일은 완전히 온 겨레가 경축하는 국민항공의 날로 화하고 말았다.

이날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한 한강 양(兩) 둑에는 운집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유엔기, 태극기, 공군기가 나부끼는 정심공원 사열대에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함 부통령, 변영태(卞榮泰)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한미 고급 장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식은 10시 20분부터 개시되었다. 식은 먼저 당시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이었던 김정렬 중장에 대한 대통령 개인공로표창장 및 대통령 특별서훈 금성을지무공훈장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친수(親授)되었고 장덕창(張德昌) 소장, 김창규(金昌圭) 소장에게 은성을지무공훈장, 김신(金信) 준장, 장성환(張盛煥) 준장, 신상철(申尙澈) 준장, 양정수(楊正秀) 준장 외 6명에게 무성을지무공훈장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어서 김득룡(金得龍) 대령 외 6명에게는 국방부장관 개인공로표창장을, 제81지상장비수리창에는 공군참모총장 부대장표창장, 박충훈(朴忠勳) 중령 외 2명에게는 공군참모총장 개인공로표창장이, 윤석준(尹錫俊) 소령 외 5명에게는 민의원(民議院)의장 감사장이 각각 수여되어 오늘 수만 관중 앞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여온 공군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게끔 한 공로자들의 공훈을 높이 찬양하였다.

이어 "공군의 강화가 더욱 요망된다는 것과 공군이 노력하여 모든 국민들 앞에 이와 같이 공군력을 자랑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요지의 이 대통령 훈시가 있은 후 시위비행으로 들어가 11시 8분을 기하여 자태를 나타낸 F-51 2대에 뒤이어 T-6 편대군(12대), F-51 편대군(58대) 등의 분열식이 있었고 F-51 4기편대의 특수비행, 동 8기편대의 대지사격이 있어 한강 모래백사장 위에 가설된 목표물에 백발백중하는 묘기에 관람자들은 황홀하여졌는데 계속하여 미 공군 측의 찬조비행에 들어가 F-86 세이버 제트기 12대의 편대비행, 동 12대의 편대단 종진(縱陣), 동 4대의 음속돌파비행, T-33의 편대비행, 한국 공군에 의한 낙하산 강하 등이 있은 다음 11시 57분에 성대한 제6회 항공일 행사는 막을 내린 것이다.

그다음 4288년 10월 1일, 중추절 다음날이었던 제7회 항공일에는 한강 양안에 실(實)로 수십만의 군중이 운집하여 이제야말로 온 겨레가 함께 경축하는 항공일이 되었다는 감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그날 서울시내의 모든 차량은 한강 기슭으로 모여드는 시민들을 이른 아침부터 수송하느라고 대혼란을 이루었다. 정심공원 사열대에는 함 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물론, 주한 각국 외교사절단, 한미 3군 고급 장성 다수가 임석하였고 UN기, 태극기, 공군기가 펄럭거리었다.

드디어 정각 14시가 되자 F-86 세이버 제트기 2대가 한강 인도수에 닿을락말락할 정도의 고도로 날아와서 폭음도 우렁차게 뚝섬 쪽으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동 F-86은 미 공군의 찬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태극의 표식도 선명한 우리 공군의 비행기였던 것이다.

7년 전 L-4 10대로 서울 상공을 비상한 것이 어제 같건만 어느덧 한국 공군은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최신예전투기로 장비된 현대공군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그 당당한 위용을 수십만 군중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연이어 F-86 편대군의 편대비행, 엷은 은색으로 말쑥이 단장한 T-33 제트기의 공중분열 또 T-6 및 C-46 수송기 편대군 등이 연속적으로 사열대 앞을 지나갔다. 뒤를 이어 F-86, T-6, F-51 각 편대의 편대단 종진이 계속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참관인들의 눈에 오직 감격의 눈물과

(19페이지에 계속)

항공(航空)은 이렇게 발달(發達)했다

외지(外誌)에서

X X X

한없이 넓고 푸른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 누구든지 날개를 달고 마음대로 날라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은 인류의 하늘에 대한 동경은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태고(太古)적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희랍(希臘)의 신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오랜 꿈이 드디어 비행선을 낳았고 비행기를 만들어 내어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항공시대를 가져온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항공기의 실현을 위해서 착실하게 걷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말의 산업혁명 이후의 일인 것이다. 즉 하늘에 대한 동경에 과학과 기술이 따름으로서 비로소 항공기는 발명된 것이다. 꿈만 가지고는 결코 훌륭한 발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도 15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행기의 발명에는 조금도 기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 몽골피에의 기구(氣球)

태고적부터 사람이 꿈꾸고 있던 하늘을 나는 기술은 새(조(鳥))의 흉내를 내어 날개를 이용해서 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기 분류에서 말하자면 중(重)항공기를 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인류를 처음으로 공중으로 상승시킨 것은 중항공기가 아니라 공기보다도 가벼운 기구(氣球)였다. 이 세계 최초의 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불란서의 몽골피에 형제였다. 1783년 11월21일에 필라트르 드로지에[5]가 이것을 타고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 한 달 후에 역시 불란서의 샤르르 교수가 수소 가스를 넣은 기루를 발명하여 두 시간이나 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항공열을 더욱 북돋우어 주었다.

5) Jean-François Pilâtre de Rozier

★ 초기(初期)의 비행선(飛行船)

기구의 가스대(袋)를 유선형(流線型)으로 해서 공기 속을 진행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하고 그에 동력을 달아서 자유로이 하늘을 날도록 한 것이 비행선이다. 19세기의 후반부터 구라파 각국에서 연구되었지만 동력으로서 전기 모터나 증기기관을 사용하면 기관이 무거워서 별로 큰 마력의 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속도도 느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1880년에 독일의 불레르트가 처음으로 비행선용 동력으로서 가볍고 마력이 나는 가솔린 발동기를 사용하였다.

1900년 7월 2일 독일의 체펠린[6] 백(伯)은 세계 최초의 경식(硬式) 비행선의 비행에 성공하였고 1901년 10월 17일 당시 불란서에서 항공을 연구하고 있던 브라질인 산토 듀몽[7]은 자작(自作)의 연식(軟式) 비행선으로 에펠탑의 주위를 일주함으로서 비행선의 실용성을 증명하였다.

이리하여 비행선은 1915년경까지는 비행기의 좋은 적수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 리리엔탈의 글라이더

중항공기의 분야에서 선구자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리리엔탈[8]이다. 그는 1890년에 글라이더를 만들어 언덕에서 뛰어 내려 글라이더의 성능을 여러 가지 연구함으로서 마침내 출현한 비행기의 기술적인 기초를 확립하였다. 옛날부터 인류에게 큰 수수께끼였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새(조)의 비행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해명되었다. 그에 이어서 영국의 필쳐[9], 미국의 샤뉴우트, 라이트 형제[10] 등도 글라이더를 연구하였다.

★ 라이트의 비행기(飛行機)

리리엔탈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의 글라이더 연구에 의해서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공기를 비행하는 경우의 공기역학적인 사실이 해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동력으로서 가볍고 마력이 나는 가솔린 발동기가 발명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비행기를 제작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은 20세기를 맞이해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때 많은 연구자에 앞서서 세계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것인 미국의 라이트 형

6) Ferdinand von Zeppelin
7) Alberto Santos-Dumont
8) Otto Lilienthal
9) Percy Sinclair Pilcher
10) Wright brothers

제이다. 형제는 자작의 기체에 자작의 20마력 가솔린 발동기를 달고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키티호크에서 이 역사적인 비행을 행하였다. 그 기록은 제1회가 동생의 조종으로 거리 37m, 체공 12초였고 최후의 4회에서는 형의 조종으로 거리 260m, 체공 59초였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보다 2개월 앞서서 미국의 랭글리 박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5만 불의 연구비를 얻어 맨디와 협력하여 52마력의 성형(星型) 발동기가 달린 꼬챙이 모양으로 생긴 비행기를 완성하고 1903년 10월 7일과 동 12월 8일의 2회에 걸쳐서 워싱턴의 포토맥 강에서 시험 비행을 행하였으나 두 번 다 사출 장치의 고장으로 실패에 끝났다.

그러나 그의 사후 1914년에 그의 우인(友人)들이 이 비행기를 수리하여 플로트를 달아서 비행에 성공한 것을 보더라도 랭글리기(機)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될 번하였으며 최초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 애석하다.

그리고 불란서에서는 클레망 아데르가 1890년에 제작한 40마력의 증기기관이 달린 비행기 에오르호(號)가 동년 10월 9일에 약 50m의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세계 최초의 비행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 보아잔과 파르만의 추진식복엽기(推進式複葉機)

비행기는 1903년 미국에서 발명되었지만 1908년경부터는 그 연구의 중심은 불란서로 옮겨가서 성능도 트게 향상되었다. 이때에 가장 실용적인 비행기로서 많이 제작된 것은 추진식 프로펠러(발동기의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을 단 복엽기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불란서의 보아잔과 파르만이었다. 파르만 복엽기는 당시 많은 세계 장거리 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종류의 추진식 복엽기는 속도가 느려서(시속 90km 정도) 제1차 대전이 시작됨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 브레리오 단엽기(單葉機)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행기 요람시대에는 전기(前記)한 바

와 같은 추진식 복엽기가 전성이었으나 불란서의 브레리오는 단엽기의 주장자였으며 그가 제작한 단엽기는 복엽기에 비해서 소형이고 경쾌하여서 몇 번이나 기록적인 비행에 성공하였다. 그 중에도 유명한 것은 1909년 7월 25일에 행해진 자기 자신의 조종에 의한 세계 최초의 영불(英佛) 해협 횡단 비행이다. 38km, 32분간의 비행이었으나 항공사상(航空史上)에 남는 획기적인 비행으로

서 1927년에 있어서의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에 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브레리오 단엽기는 1910년 샤베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프스를 횡단하였고 1913년에는 페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루프(공중회전)비행에 성공하였다.

★ 수상기(水上機)의 발명(發明)

비행기의 차륜(車輪) 대신에 부주(浮舟)를 달고 수상에서 발착(發着)하는 형식 즉 수상기를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은 불란서의 안리 파아블인데 1910년 3월 28일에 처녀비행을 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커티스가 1911년 1월 26일에 역시 부주가 달린 수상기로 비행하였고 다음에는 동체(胴體)와 부주를 겸한 정체(艇體)를 가진 비행정(飛行艇)을 발명하였으며 1914년에는 쌍발(雙發)의 대형 비행정을 완선하여 수상기의 발달에 큰 공적을 남겼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를 수상기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아블의 비행은 착수(着水)에 실패하였으므로 커티스가 세계 최초라고 말하고 있다.

★ 다발동비행기(多發動機飛行機)의 발명(發明)

세계 최초의 다발동기 비행기는 현재 미국에서 헬리콥터의 완성자로서 유명한 전(前) 어리아인 시코르스키의 의해서 1913년에 완성되었다.

익장(翼長) 28.2m, 전(全) 중량 3,500kg라는 당시로서는 특별나게 큰 비행기로서 100마력의 발동기를 4대 달고 있었다.

이 해에 8명을 싣고 1시간 45분을 비행함으로서 타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던 러시아 비행계(飛行界)를 고무하였다.

★ 제1차(第一次) 대전(大戰) 중(中)의 군용기(軍用機)

1941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당시의 비행기의 세계 기록을 보면 속도는 시속 203.9km, 거리는 1,021km, 고도는 6.12로서 점차로 실용 단계에까지 진보하였으므로 곧 군용기로서 정찰과 폭격에 사용되었다. 전황의 진전에 따라서 각국이 모두 비행기의 개량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므로 비행기는 눈부신 발달을 하였으며 대전(大戰) 4년 동안에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였다. 즉 이 도안에 비행기는 완전히 어른이 되었던 것이다.

대전 4년간의 진보를 종합해 보면

(1) 성능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향상되었다.

(2) 대전 전까지는 비행기의 용도가 확실치 않았으나 대전과 함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 각각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하게 되었다.

(3) 대전 전까지의 각종 형식이 도태되어 중기 이후는 견인식(프로펠러가 발동기의 앞에 있는 것)의 복엽기로 통일되었다. 단엽기는 구조상 복엽기에 비해서 불리하고 외형이 커지기 때문에 조종성(操縱性)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투기에서는 조종성을 중요시한 결과 3엽기까지 사용되었다.

(4) 대전 중의 급격한 소모에 응하기 위해서 생산이 공업화되고 생산 능력이 급히 증가하였다. 예컨대 불란서에서는 대전 참가 후 4개월 만에는 월산(月産) 60대였던 것이 종전 시에는 월산 5,000대를 넘었다.

(5) 한때는 셉펠린 비행선의 런던 공습도 행해졌으나 결국 비행선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수송기(輸送機)의 출현(出現)

전쟁이 종식됨과 더불어 각국에서는 대전 중에 많이 제작한 군용기의 처치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리하여 폭격기급의 대형기는 동체를 발달해서 속에 객석을 만들어 수송기로 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1919년경부터 여객과 우편물을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조기(改造機)로서는 경제적으로 보타 설비와 안락의 도(度)에서 보나 불완전한 데가 많았으므로 각국에서는 본격적인 수송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반해서 수송기관으로서의 비행기도 점차로 본격적인 것이 되어 그 스피드를 무기로 하여 철도와 선박 등과도 대항하게 되었다.

제1차 대전 후부터 제2차 대전 전까지의 약 20년 동안에 각국에서 제작한 수송기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1925년 이후의 약 1년간을 대표하는 것은 화란(和蘭)의 폭커였으나 1935년 이후의 대표자는 미국의 더글러스였다. 전자는 고익(高翼) 단엽으로서 주익은 목제(木製), 동체는 목금(木金) 혼합 구조였으며 후자는 저익(低翼) 단엽 전(全) 금속제로서 근대 수송기의 기초 형을 완성한 것인데 모두 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 전금속제(全金屬製) 비행기(飛行機)

비행기의 구조 재료는 제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목재가 주(主)였으나 독일의 융커스는 제1차 대전이 끝날 무렵(1917년) 오늘날의 비행기와 같은 전(全) 쥬라르민[알루미늄합금]제(製)의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기 구조사상에 획기적인 시대를 가져왔다.

★ 역사적(歷史的)인 장거리비행(長距離飛行)

제1차 대전 후 비행기의 활약 무대는 군용에서 민간으로 일변하여 각 국에서는 정기항공이 열리는 한편 각종의 신기록을 목표로 눈부신 국제적인 쟁패전(爭覇戰)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행가들의 모험심을 자극한 것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횡단 비행이 있으며 1920~30년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비행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비행기의 항속 성능으로서는 5,000km 이상을 날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대양 횡단 비행은 모험의 요소를 많이 지닌 것이었으며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나 일단 성공하면 세계의 영웅으로서 존경을 받고 개선장군처럼 고국의 환영을 받았다. 주요한 비행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최초의 대서양 무착륙 횡단
   - 시(時): 1919년 6월 14일
   - 인(人): 올콕 대위, 브라운 중위(영국)
   - 기(機): 믹커스 비미 복엽기(롤스로이스 이글, 350마력 2기(基))
   - 비행시간: 16시간 12분
2. 뉴욕, 파리 간 대서양 무착륙 횡단
   - 시: 1927년 5월 20~21일
   - 인: 챨스 A 린드버그(미국)
   - 기: 라이안 NIP 단엽기(라이트 팔원드, 220마력)
   - 코스: 뉴욕, 파리 간(5,809km)
   - 비행시간: 33시간 29분
3. 남태평양 횡단
   - 시: 1928년 5월 31일~6월 10일
   - 인: 킹스포드 스미스 중령, 울므 중령 외 3명(호주)
   - 기: 폭커 F-7 3m 단엽기(라이트, 200마력 3기)
   - 코스: 오클랜드(미국)에서 호놀룰루를 지나 피지도(島)를 경유하여 브리스베인(호주)까지(11,900km)
   - 비행시간: 83시간 15분
4. 대서양 역횡단
   - 시: 1930년 9월 2~2일
   - 인: 코스트, 벨론트(불란서)

기: 브레게 19형 단엽기(이스파노, 666마력)
코스: 파리, 뉴욕 간(6,600km)
비행시간: 37시간 18분

5. 북태평양 무착륙 횡단
시: 1931년 10월 4~5일
인: 헌돈, 팽본(미국)
기: 베란카 스카이로켓 단엽기(PW 와스프, 450마력)
코스: 일본 사비시히로, 워싱턴 주 웨낫치 간(7,900km)
비행시간: 41시간

★ 오토자이로의 발명(發明)

큰 프로펠러를 하늘을 향하게 달아서 이것을 회전하여 상승하려는 고안은 15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래 많은 발명가들이 시도하였으나 발동기로써 회전익을 돌려 그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려면 구조상에도 안정성과 조정성의 면에서도 많은 곤란이 있어서 용이하게 성공하지 않았다. 스페인의 후안 데라시에르바도 그 연구자의 하나였는데 헬리콥터의 연구 중 회전익을 적당한 각도에서 공중을 달리게 하면 바람을 받아서 자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오토자이로를 발명하였다. 오토자이로는 헬리콥터와 달라서 회전익을 동력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훨씬 간단하여 헬리콥터보다 먼저 성공한 것이다. 오토자이로가 처음으로 비행한 것은 1923년 1월 9일이었다. 그 후 오토자이로는 미국, 영국 및 그 밖의 나라에서 많이 제작되어 제2차 대전 전까지 성행하였다.

★ 헬리콥터의 완성(完成)

헬리콥터라는 것이 여하튼 지면에서 뜬 것을 의외로 오래 전 일이며 1907년에 불란서의 코르뉴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초기의 헬리콥터는 모두 안정성, 조종성의 실패로 쓸모가 없었다. 겨우 비행다운 비행을 하게 된 것은 1935년에 불란서의 브레게가 제작한 것과 1937년에 독일의 하인릿히 폭케가 제작한 FW61인데 후자는 체공 1시간 20분 49초, 직선거리 230km, 고도 3,430m, 시속 123km의 레코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헬리콥터의 설계상에 야기되는 허다한 난문제를 해결하고 진실로 실용적인 헬리콥터를 완성한 것은 혁명의 소련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시코르스키로서 그의 최초의 헬리콥터 VS-300형이 처음으로 비행한 1940년 5월 13일은 헬리콥터 발달사상 가장 기념할만한 날이 되었다.

시코르스키가 최초로 성공한 이래 특히 미국에서는 헬리콥터가 굉장한 힘으로 발달되어 비행기에게서는 전영 바랄 수 없는 그 특수한 성능으로 특수한 용도가 개척되어가고 있다.

★ 제트기(機)의 역사(歷史)

제트를 단 비행기가 언제 누구의 손으로 완성되어 최초의 비행을 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름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설이 구구하다. 영국에서는 프랭크 호잇틀이 발명한 W-1형 터보제트를 장비한 그로스터 E28-39형 전투기가 1941년 5월 14일에 비행한 것을 세계 최초의 제트기 비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2년 전인 1938년 8월 27일에 즉 파란(波蘭)을 침공하기 직전에 독일의 하잉켈 He-178형은 터보제트를 장비하고 비행하였으며 이어서 1940년 8월에는 이태리에서 제트를 장비한 카르로니 칸피니 cc-2형이 비행에 성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제트기 비행은 하잉켈기(機)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독일과 이태리의 제트기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터보제트와는 다르며 말하자면 본격적인 터보제트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터보제트와 같은 원리의 가스터빈으로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터보프롭 비행기로서는 1949년 9월 20일에 영국의 그로스터 리미티어기(機)에 롤스로이스트렌트형 터보프롭을 달고 비행한 것이 세계 최초이다.

★ 앞으로의 항공(航空)

항공기는 라이트 형제가 불과 50여 년 전에 세계 초초의 동력 비행을 행한 이래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경(可驚)할 발달을 하였다. 즉 항공기는 전쟁에 의해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고속 고공 및 긴 항속거리를 가진 비행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초음속 비행은 오늘날 지극히 용이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가솔린 발동기 대신에 제트와 로켓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속 장벽을 돌파한 노을의 항공기는 이제 열의 장벽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즉 비행 중에 조종사와 비행기가 연소해 버리는 굉장한 고속도 한계에 도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계는 시속 2,000마일 정도에서 도달하

는 것이다. 이 장벽도 불원(不遠)한 장래에 돌파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항공에 혁명을 가져올 것은 무엇보다도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원자력 비행기릴 것이다. 매 10만 마일의 비행에 불과 1파운드 이내의 농축 우라늄을 소모하는 이 원자력 비행기는 허다한 난문제에도 불구하고 불원한 장래에 출현할 계단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제트, 로켓의 동력에 이어서 원자동력의 출현은 비단 군 항공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에도 새로운 시대를 가져 올 것이며 마침내는 오랜 인류의 꿈인 월세계(月世界) 비행과 우주 비행도 실현케 할 것이다.

(끝)

물의 여왕(女王) 에스다

미국 영화계의 물의 여왕 에스다 우일리암스는 근간 영국 런던에서 1956년 수중(水中) 쇼를 6주간이나 개최. 이 수중 쇼에 수영 선수가 백 명이나 출연한다고 한다.

사진은 왕관을 쓰고 연습하는 에스다

하늘을 정복(征服)하는 사람들

로버트 윌래스

거대한 기술진이 금일(今日)의 테스트 파일럿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항공계에 있어서의 거대한 국가적인 노력은 흡사 피라미드와도 같은 것이다. 그 넓은 기부(基部)는 스미스라고 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 그 돈이 유익한 일을 해구기를 바라지만 그 피라미드의 절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 도리가 없다. 이들 스미스라는 평범한 대중 위에는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및 행정가들이 있고 시 그 위에는 아이젠하워(대통령), 윌슨(국방장관), 퀄스(공군장관), 트와이닝(공군참모총장)과 같은 정부의 거물들이 있으며 또한 보잉, 커티스 라이트, 뺄과 같은 항공기회사들이 있다. 그 피라미드를 올라가면 결국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탐구와 희망의 절정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동료의 어깨에 올라서서 칼로 넓은 하늘의 복부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디서인지 본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이 스미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군 항공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노력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항공연구발전사령부(ARDC)에 의해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에 있는 공군비행시험소이다. 바로 이곳에서 기묘한 모습을 한 X-3시험기와 같은 가장 최신의 가장 유망한 비행기들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은 군 항공의 대답한 실험을 통해서 발달하고 있는 민간 항공에도 역시 크게 중요한 것이다.

국회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고 조사할 것이고 군, 민의 지도자들은 전략을 구상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은 경이적인 것을 설계하고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돈과 착상(着想)과 연구는 F-110, B-76 등으로 불리는 비행기의 형태로 그 비행시험소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미스라고 하는 혹은 프랜시스 J 켈리나 오비 머렐과 같은 명예로우면서도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분해하고 다시 짜 맞추고 마침내는 그 무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금주에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의 생사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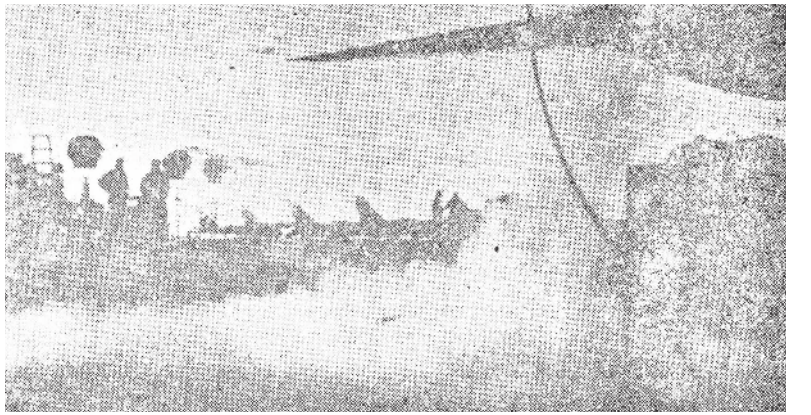
하게 될 항공기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워즈라는 곳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월세계(月世界)에 도달할 수단 방법을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드워즈라는 곳은 한 훌륭한 연병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주면을 잠시 살려보면 마치 이미 월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기지는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약 100마일 밖에 있는 모쟈브 사막 변두리에 가로 놓여 있다. 북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뻗은 지평선을 따라서는 테하차피, 샌가프리엘, 샌 버나디노 등 월세계의 모습을 한 긴 산맥이 가로놓여 있다. 사막의 대지는 엷은 누런 설탕 빛을 하고 있으며 회색에 초록빛이 섞인 들 쑥과 그리스 우드의 가냘픈 수풀을 간직하고 있다. 기지 저편에서 불어오는 노래 섞인 바람은 시설물의 주위에 유사(流砂)를 남기고 가옥과 자동차의 칠을 핥으며 지나간다.

기지의 주위에는 오슈어라고 하는 미 대륙에서 가장 신기한 수목이 서있다. 그 굵고 우툴두툴한 줄기는 10피트 가량이나 우뚝 솟아있고 마치 손가락처럼 생긴 잎사귀가 달린 수많은 나뭇가지는 그로테스크하게 꾸불꾸불 뻗어 있다. 그 나뭇가지들은 마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중대한 것을 행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으로 이 나무에 관해서 문헌을 남긴 탐험가 존 C 프레몬트는 이 나무를 가리켜 "식물계에서 가장 쌀쌀한 느낌을 주는 나무"라고 하였다. 이 아무는 괴로운 듯한 비대한 몸집을 하고 있으며 도끼로 찍으면 신음하는 소리를 낼 것만 같다. 이 나무는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그 성장은 연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에드워즈에 있는 요슈어 나무가운데에는 크리스토와 유다의 시대부터 자라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울하고 태고적(太古的)이며 이상하게 뒤흔드는 이 나무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비통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기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통하게 고무해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 지방이 외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비행시험소가 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유이다. 즉 이곳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공중을 날고 있는 괴상하게 생긴 물건을 보려고 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이다. 그 둘째 이유는 청명한 사막의 하늘을 1년 중 350일이 비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30만 에이커에 달하는 그 기지 안에 라이저스 드라이 에이크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 드라이 케이크(건조 호수)는 세계 최대의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연 착륙지



〈여명(黎明)의 서광(曙光) 속에서 X-2 시험기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지상근무원들〉

로서 면적이 65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그 표면은 완전히 평탄하고 거의 돌과 같이 견고하다. 최대한도로 짐을 실은 중폭격기가 그 호상(湖床) 위에 착륙하여도 희미한 타이어 자국만을 남길 뿐이다. 그 위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자갈마저 없을 정도이며 그 전체는 마치 분가루처럼 잘 갈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에 두어 서너 번 주위의 사막에 비가 내리면 그 호수는 약 1피트 깊이의 강우량으로 채워진다. 그러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광대한 평지에서 물을 앞뒤로 밀어서 땅을 다시 평탄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한다. 보통 이 호상은 시험착륙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중에서 곤란을 당한 파일럿을 위해서 항상 구명 비상 착륙지로서 준비되어 있다. 이 기지가 제트 및 로켓의 연구소로 사용되어 온 과거 10년 동안에 그 호상은 수없이 많은 인명과 그리고 65평방마일의 광대한 면적도 모종의 신형 항공기를 위한 착륙지로서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며 공군에서는 현재 라저스 드라이 레이크를 그 옆에 있는 로사몬드라고 하는 건조호수와 연결시킬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그곳에는 길이 22마일에 달하는 비상활주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자연재산으로 인해서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신형 비행기를 시험하는 그 본래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많은 활동의 무대가 되어 있다. 그곳에는 철로가 부설되어 있어 로켓을 동력으로 하는 썰매가 그 위에서 시속 800마일의 속도로 발사되고 있다. 그 썰매에는 미익(尾翼), 주익(主翼), 기체(機體), 파라슈트, 유선형(流線型) 물체 등 공군에서 운동시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달려 있다.

그곳에는 또한 어느 정도 그보다는 작고 저속의 철로가 있으며 장비품이 아니라 인간이 사막 위를 로켓의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폴 스탭 대령이라고 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어떤 귀중한 생리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속 632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도중에 급격히 정지한 곳도 바로 이와 같은 철로에서였다. 스탭 대령이 정지하였을 때 흑색으로 변한 그의 안구는 1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에드워즈 기지에 있는 이와 같은 철로 상에서의 한 유명한 시험이 일찍이 한 비협조적인 원숭이에 의해서 실시된 일이 있다. 한 기술자는 원숭이를 썰매위에 혁대로 붙잡아 매놓고 바나나를 주어서 달래였다. 그러나 그 원숭이가 막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을 때 썰매는 사막 위를 굉장한 속도로 반(半) 마일이나 달려 바나나는 원숭이의 얼굴에 산산 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졌다. 그 조금 후에 기술자는 그 원숭이를 가지고 역시 같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 하나의 바나나를 주었다. 그러자 원숭이는 그 바나나로 기술자의 머리를 후려갈겼던 것이다.

이 기지에서 특히 적막하고 월세계와 같은 경치를 가진 유우만 릿지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큰 강철 콘크리크 가(架)가 서 있는데 그 위에서 로켓엔진이 시험되고 있다. 로켓이 시험 발사되면 그 폭음은 사막 저쪽 수(數)마일 밖에서도 들린다. 로켓이 꽉 붙잡은 그 선반(가(架))에서 빠져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밑에 있는 움푹 파인 콘크리트 전향(轉向) 장치를 행해서 파랗고 흰 무서운 불이 발사된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냉각하기 위해서 발사 중에는 수천 갤런의 물이 그 위에 쏟아진다.

에드워즈에는 4개의 정부 기관과 20개의 항공기회사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연락원만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례(一例)를 들자면 뻘 항공기회사에서는 X-1 및 X-2와 같은 그 유명한 로켓비행기를 에드워즈에서 비행시험하고 있다. X-1기는 1947년에 최초로 음의 장벽을 돌파한 것이며 X-2는 현재 열의 장벽에 접근하고 있다. 이 열의 장벽이란 것은 비행 중 처음에 파일럿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 자체가 불타버리는 고속도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뻘 회사와 특히 파일럿들은 신중하게 전진하고 있다. 그들은 시속 2,000마일 정도에서 그 장벽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공군당국에서는 29개월 전에 한 대의 로켓비행기가 시속 1.650마일에 도달하였는데 그 후에도 결코 정지해오지는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공군의 비행시험학교도 역시 에드워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세계

에서 가장 우수한 테스트 파일럿이 양성되고 있다. 한때 뛰어나게 훌륭하였던 제2차 대전 시의 비행기를 구식화한 공업학의 발달은 구식 테스트 파일럿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테스트 파일럿의 임무는 단순히 비행기를 50,000피트의 고공에 끌고 올라가 급강하를 하여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현대 테스트 파일럿은 여전히 훌륭한 비행사야만 하는 동시에 또한 우수한 엔지니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형기 한 대가 시험 비행할 때면 단 1회의 비행에서 두터운 교과서 한 권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를 기록 혹은 전달하는 무려 200종에 달하는 기계를 장비한다. 공군에서는 그 테스트 파일럿을 양성함에 있어서 6개월 동안의 교육 기간 중 대학 3, 4년 정도의 공학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몇 가지의 최소한도의 자격을 구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공군 파일럿이라도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즉 연령은 25세 이상 33세 미만이라야 하고 소령 이하의 계급을 가진 파일럿으로서 최소한도 1,500시간의 각종 비행시간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수, 평면기하, 미분, 비행이론, 항공기계학 및 공기역학 등에 정통하여야 한다. 가죽으로 된 비행모와 먼지 막는 안경과 긴 백색 마훌러 만을 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 누가 타이어를 수선(修繕)하나?

피라미드의 절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활동과 그밖에 언급하지 않은 수십 종의 활동은 약 10,000명의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그 중 불과 3,500명만이 공군 소속원이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의 공무원, 건설 청부회사 사원 및 항공기회사와 제네랄 엘렉츄릭, 미네아폴리스 허니웰, 웨스팅하우스, RCA 등과 같은 그 밖의 회사의 사원들이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소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바로 평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날에 한 파일럿이 로켓비행기를 타고 일찍이 세계에서 비행한 그 누구보다도 빨리 날겠지만 그 10,000명 중 9,950명은 그 비행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엄중한 정비를 하고 있는 기지의 영문(營門)을 통해서 트레일러트럭이 큰 캔버스 밑에 무엇을 싣고 들어간다. 그것은 인공위성의 일부일지도 모르고 전자두뇌일지도 모르며 들 원숭이(狒) 일지도 모른다. 혹은 액체질소 탱크일지도 모르고 혹은 단순한 기계 도구일지도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약 9,975명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간혹 그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타이어를 누가 수선하는가? 공군비행시험소의 굉장한 편성표에는 무려 125개의 난(欄)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직원 혹은 직능을 대표하고 있다. 제일 위에 있는 큰 난에는 사령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J S 홀토너 준장을 말하며 물론 그는 바람 나간 타이어를 수선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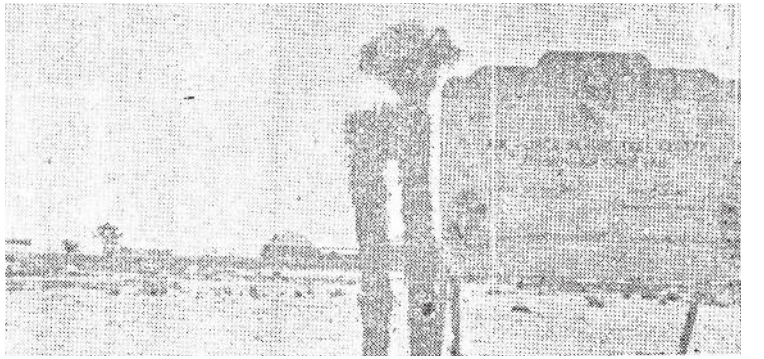
그것을 수선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홀토너 준장의 란에서 밑으로 15개 난을 지나 우로 굽어서 다시 좌로 가면 제6515경비전대(警備戰隊)라고 쓰인 란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난을 내려가면 본부대대과, 행정과, 생산관리과 및 기술검열과 등이 있고 다시 우로 굽어서 좌로 가면 제6515야전정비대대라고 쓰인 난이 있다. 이 난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대대본부과, 전자과 및 존 R 넬슨 대위를 과장으로 하는 제작수선과가 있다. 물론 넬슨 대위도 바람 나간 타이어를 수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넬슨 대위는 20개 란으로 구분되어 있는 과(課)의 편성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RM 포터 이등상사를 책임하사관으로 하는 난이 포함되어 있다. 포터 상사도 그 바람 나간 타이어를 수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난 밑에는 다시 8개 직책이 있 며 그 마지막 것이 타이어 및 차륜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그 타이어를 수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더글러스 S 스미스 하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합니다. 나는 12개 월동안 일주에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비행기의 타이어를 교환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 하사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하고 싫증나고 더러워지는 그리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겠지만 위험한 작업이다. 스미스 하사가 타이어 하나를 교환하는 데는 4시간이나 요한다.

B—36 중폭격기에 사용하는 타이어는 중량이 50파운드나 되며 스미스 하사는 그 타이어를 취급하는데 조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 타이어보다도 이 특수한 타이어를 교환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타이어는 적당히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면 매 평방인치에 불과 150파운드의 압력밖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자동차의 타이어는 약 30파운드이다). 고압 타이어는 매 평방인치에 무려 300파운드나 가해진다. 스미스 하사는 이와 같은 타이어에 공기를 넣은 다음에 먼저 강철로 된 조그마한 우리(함(檻)안에 굴려 넣고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옆에 꾸부려서 공기 호스를 끼고 변(辯)을 연다. 만일 그 타이어가 흠이 없는 것



〈사막의 지표(地標)인 요슈어 나무가 에드워즈 기지 입구에 서있다. 에드워즈는 미 공군에서 둘째로 큰 기지이다.〉

이라면 폭발하지 않지만 만일 어떠한 결함이 있으면 폭발하고 만다.

그 강철로 된 우리는 폭발하는 경우에 튀어 날아갈 고무와 강철의 파편으로부터 스미스 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스미스 하사는 로켓비행기 X-2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 문제에 관해서 스미스 하사와 상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간혹 X—2기(機)가 실험비행을 한 1, 2주일 후에야 비로소 그는 그에 관한 이야 기틀 듣지만 그러나 그 것 뿐이다. X—2기가 비행할 때에는 4발의 B—50기가 그것을 복부에 매달아가지 고 수마일의 고도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잠시 그대로 낙하하다가 X—2기의 파일럿은 그의 로켓엔진에 시동을 걸고 일정한 고도까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 후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내려온다. 그는 호상(湖床)에 있는 착륙지를 향해서 시속 약 300마일의 속도로 활공하여 2, 3마일을 활주한 후 정지한다.

X—2기는 용기와 기술을 가진 프랭크 에버레스트 중령이 조종해오고 있으며 X—1기의 파일럿 찰스 이거 소령과 마찬가지로 그는 국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유명해졌으나 X형 비행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밖의 용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다.

X—2기가 비행하기 전에 그 엔진은 지상에서 시험된다. 그 엔진은 액체산소와 알코올로 움직이며 극히 위험한 장치 속에서 작용한다. 시험을 할 때에는 X-2기를 단단히 잡아매놓고 그 옆에 절대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모두

멀리 물러간다. 왜냐하면 엔진은 폭발할지도 모르며 혹은 큰 새는 구멍이 생겨서 옆에 서있는 사람에게 액체산소를 뿌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얼어붙게 하며 그 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297도에 달한다(얼마 전에 에드워즈에 있는 한 실험소에서는 어느 기술자가 액체산소를 가지고 순식간에 뱀을 얼어붙게 하여 그것을 쇠몽치로 때렸더니 가루가 되어 부서진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이 X-2기에게로 걸어가서 머리를 들이 밀고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주시한다. 그는 당년 18세의 월퍔 M 스미스라고 하는 벨 항공기회사의 기사이다. 그는 단단하게 귀를 막고 헬멧을 쓰고 있다. 엔진은 150데시벨이나 되는 평장한 폭음을 발생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음보다 25데시벨이 더한 것이다.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스미스 씨는 연관(鉛管)에 새는 곳이 없는 가를 살펴본다. 만일 어떤 종류의 중대한 고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때는 늦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미스 씨의 몸뚱이는 여전히 X—2기 곁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목은 사막 위로 약 20마일은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조그마한 새는 구멍만을 발견한다면 스미스 씨는 생존해서 그에 관해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시험이 끝나면 스미스 씨는 비틀거리며 비행기의 곁에서 떠나간다. 폭음 때문에 그는 병이 난 것이다. 그는 토하고 싶을 만큼 속이 메슥거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그에게 스미스 씨,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오직 다음과 같이 대답할 뿐이다.

"글쎄올시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스미스 씨는 로켓엔진에 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지만 비행기시험을 할 때 초음속기에 장치하는 YAPS라고 하는 편주(偏走) 공격 각도 지시계(指示計)에 관해서는 거의 백지라고 할 수 있다. 이 YAPS는 놋쇠로 된 두 개의 조그마한 바람개비가 돌출한 플래시 라이트만한 기계이다. 이 바람개비는 그 샤프트와 기어 조직을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즉 공중을 공격할 때 수직 및 수평항로 이탈의 각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에드워즈에는 과거 5년 동안 이 YAPS 에 종사해오고 있는 당년 24세의 한 직공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 호운이라 고한다. 그는 초음속기가 공중을 날고 있는 것을 그리 흔히 보지도 못하며 그가 취급하고 있는 YAPS가 언제 사용되고 있는가도 모른다. 그는 지나가는 비행기의 폭음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실험

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 그가 제작한 이 기계는 모든 노력의 창(槍) 끝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 기계는 비행 중에 제일 먼저 바람에 부닥치는 비행기의 첨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놀라운 출생률(出生率)

직공 호운, 로켓엔진을 시험하는 스미스, 타이어를 교환하는 스미스, 이들은 모두 최소한도 비행기에 관련되어 있다. 에드워즈에는 그밖에도 끊임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비행기를 힐끗 쳐다보는 일도 드물며 심지어는 그것이 액체산소로 움직이는 것인지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혹은 코카콜라로 움직이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기지에서 오피레이션 타워의 책임자 다음으로 가장 바쁜 사람은 군의관인 안드레 리나우드 대위일 것이다. 리나우드 대위의 특기는 구급 외과가 아니다.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거리의 이름은 그 곳에서 생명을 바친 테스트 파일럿과 승무원들의 이름을 단 것이기는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은 비교적 드물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지방에서의 자동차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리나우드 대위의 특기는 산과학(産科學)이다.

세계에 있는 그 어느 미 군사기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즈에서도 출생률은 놀라울 만큼 높다. 기지병원의 산과 입원실은 오직 군인, 군속의 부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도 불과 1,5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나 1953년에 그들은 314명의 애기를 낳았고 1954년에는 357명을 낳았으며 작년(1955년)에는 432명에 달하였다. 금년에는 근 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리나우드 대위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나도 왜 이렇게 출생률이 늘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젊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뭐 할일이 있겠습니까?"

〈바람을 넣은 타이어를 강철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더글라서 S 스미스 하사〉

리나우드 대위의 산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20~25세이며 그들은 모두 매우 건강하다. 리나우드 대위 자신만 하더라도 어린애를 셋이

나 가지고 있는데 넷째가 또 불원 출생할 것이다.

이 기지에서 셋째로 가장 바쁜 사람은 아마 PX 책임 장교인 월터 걷프리 대위일 것이다. 그의 전(全) 사업은 1년에 백만 불에 달한다. 월급일이 되면 손님들이 PX 카운터에 장사진을 이룬다. 그들은 모형비행기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 가는데 이것은 1년에 33,000대의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충시(充時)한 것이다. 그러나 기지에 있는 아동들은 비행기에 싫증이 난 탓으로 모형비행기의 재료를 사가는 일은 별로 없고 大 부분어른들이 사가는 것이다. 그들은 직업이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F—104기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그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에드워즈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정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것은 매일 판에 박은 듯한 일이 아 니라 환경에 대해서 활발히 투쟁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기지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하고 모래(사(砂))가 날지 않도록 하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맹렬한 폭풍이 내습하면 시속 40 내지 80마일의 강풍은 막대한 양의 모래를 날라 도로와 활주로와 건물 위에 쏟아 놓는다. 모래는 틈새로 문과 창문 안으로 날라 들어가 귀중한 장비품을 못 쓰게 만들고 식물과 의류 속에도 들어간다. 이와 싸우기 위해서 정비사들은 모래를 막는 담을 세우지만 그래도 모래는 스며들어온다. 그들은 또한 덤불(총(叢))을 만들지만 그것도 바람에 깎여서 잘 자라지 않고 더스트 바인더를 가지고 땅에 물을 뿌리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것도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기지의 한 구석에 정비사들은 평장한 힘을 들여서 물이 잘 덮인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다. 모진 바람에도 불구하고 싹은 살아 있어서 풀이 잘 자라고 있으며 자주 물을 주고 깎아주는 것만이 남은 문제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누런 설탕 빛을 한 바다위에 떠있는 푸른 섬과도 같은 이 들(야(野))은 섬처럼 보호하여야 한다. 밤이 되면 사막에서 들토끼들이 살금살금 뛰어 나와서 풀을 뿌리까지 긁어먹어 버리는 것이다.

이 축구장은 야간경기를 위해서 전등을 설비하고 있다. 얼마 전 일이다. 에드워즈 권총, 소총구락부회원 약 100명이 어두워진 후에 엽총을 가지고 그 들(야(野))에 모였다. 조용히 그들은 골라인과 사이드라인에 각각 열을 지어서 늘어선 다음 신호에 의해서 갑자기 전등을 켰다. 그리하여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무려 450마리의 들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요컨대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바람과 모래, 뜨겁고 번쩍이는 땅, 들토끼와 요슈어 나무, 큰 소음과 연기, 애기와 로켓, 모

형비행기, 액체가스와 썰매를 타는 원숭이 그리고 우리(함(檻)) 안에 든 타이어 등으로 특이하게 혼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하튼 신형기를 시험한다는 그 근본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헌신과 숙련을 가지고 달성되고 있다. 그 10,000名의 사람에게서는 가장 강한 책임감을 엿볼 수 가 있으며 각자의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전문화되어 있고 아무리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통되는 목적에 적절히 합치되는 것이다. 타이프라이터 수선공이나 트럭 운전수나 심지어는 PX 사무원이 범하는 실수라도 어떤 무서운 주위 환경의 연결을 통해서 언제든지 인명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임감은 어느 곳에서든지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실지로 비행기를 정비하고 조종하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게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프—랜시스 J 켈리 이등상사는 8대의 F—86 전투기의 정비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밑에는 16명의 부하가 있어서 비행기 한 대에 두 사람이 붙어 있다. F-86기는 물론 시험 중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다년간 공군에선 취역 중에 있는 비행기이다. 이들은 추격기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신형기가 시험될 때에는 한 대 내지 두 대의 F—86기가 공중에서 긴밀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관측하는 것을 라디오로 전달하고 테스트 파일럿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켈리 상사는 이렇게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착륙 직후의 테스트 파일럿 에버레스트 중령. S-27기의 굉장한 속도의 영향에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내가 처음 이 일로 옮겼을 무렵에는 의례히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을 먹고는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고 격납고를 향해서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차장에 차를 두고 차에서 나와서는 땅위에 먹은 것을 토하군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격납고 안으로 들어가서 일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켈리 상사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이다. F—86에 관해서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의 부하 16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면 조종사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숙련에 대해서, 또한 그에게

위탁된 많은 생명과 250만 달러 가치의 항공기를 보존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망위에 구토하는데 대해서 국가에서는 켈리 상사에게 매월 198.74달러라는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

켈리 상사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부하 16명 가운데 반수(半數)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우수한 일꾼 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7명 가운데 5명이 내월에 나가는 것입니다. 만기 제대하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택시를, 밀워키에 가서 우라질 택시를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제트항공기의 정비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는 16,000달러의 경비와 오랜 세월을 요한다. 그러나 4년이라는 복무연한이 차면 그는 제대하고 만다. 공군에서는 무려 89%의 사병이 4년 후에는 수십억 달러의 국비를 지닌 채 제대하고 있는 것이다.

켈리 상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작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으며 공군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공군에서는 그의 가치만큼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민간 생활에서 그는 상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것에도 기인하는 것입니다."

킬리 상사가 그 밖의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에 공군이—그리고 삼군 전체가—받아온 초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제나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군인들은 한때 최소한도 약간의 세금 면제를 받은 일이 있었다. 즉 사병의 봉급과 장교의 처음 1,500달러까지의 수입은 세금이 면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8년에 국회는 이와 같은 예외를 제거해버리고 말았다. 에드워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군사기지에서는 기혼 남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황폐한 오막살이집에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 민간인 가주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과도한 집세를 받고 있다. 군인들은 한때 물자배급소와 PX에서 물건을 할인해서 구입함으로서 그들의 적은 수입을 늘려 쓸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때 군대생활을 보다 더 유쾌하게 하였던 이와 같은 은전(恩典)도 지금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 상사는 그의 5명의 부하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 다른 5명을 양성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의 맡은바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제트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그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추격기와 신형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경우도 어느 정도 켈리 상사와 흡사하다. X—1기가 초음속비행을 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벨 항공기회사에서는 그 임무를 맡을 민간인 테스트 파일럿을 구하였다. 그러나 풍문의 15,000달러라는 막대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은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찰스 이거 대위가 X—1기를 조종하여 음의 장벽을 돌파하였다. 이거 대위는 그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6,138달러라는 그의 연봉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행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달리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즉 비행에 대한 진실한 사람은 그들 대부분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시험비행은 흥분되고 위험한 비행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판(製圖板) 위에서, 풍동(風洞) 안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그 신형기가 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조종사만이 생명을 내걸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비행은 어느 정도 관례적인 것이다. 신형기들은 6개월 동안이나 장기의 조직적인 일련의 시험을 받으며 그 동안 많은 보고와 통계가 분석되는 것이다. 시험비행이 큰 사건이 되어서 테스트 파일럿의 이름을 따서 한 거리를 명명하게 되는 일은 드물며 아마 1년에 3, 4회밖에 없을 것이다.

☆ 치명적인 파라슈트

사막 위에서 일어나는 폭발과 크게 굽이치는 연기(煙氣)의 최소한도 99%는 아무도 부상을 입는 일이 없는 잘 기획된 정상적인 연습이다. 그러나 비행기의 추락 사고는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한 구석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추락 사고의 한 이야기 이다.

그의 임무는 특이한 것이었다. 제트전투기는 고속도에서 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감속과 파라슈트가 장비되어 있다. 이파슈트는 비행기의 바퀴가 땅에 닿은 다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파라슈트를 20,000피트의 고도에서 열어서 그 결과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만일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서 급격히 감속된다면 그 조작은 공중전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리차드 J. 하러라고 하는 대위가 시속 600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 F-94C 기를 가지고 이것을 시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비행기에는 하러 대위가 시험을 끝마친 다음에 파라슈트를 때어버릴 수 있도록 손으로 조작하는 투하 장치가 준용되어 있었다. 만일이 장치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파라슈트와 비행기를 연결하고 있는 루프에 장치된 조그마한 장약(裝藥)을 폭발시킴으로써 파라슈트를 처치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장치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급강하와 교묘한 조종으로 파라슈트를 에프터버너(재연소 장치)의 화염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아직도 파라슈트를 처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요컨대 신중히 계획된 시험이었다.

하러 대위는 비행기를 몰고 20,000피트의 상공으로 올라갔으며 그 위를 밀버언 앞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위가 추격기를 몰고 가까이 따라가고 있었다. 하러 대위는 파라슈트를 열었다. 파라슈트는 공중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누가 생각하든지 하러 대위는 손으로 조작하는 그 투하 장치를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용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침착하고 능숙한 조종사였으므로 정신을 차려서 그 장약을 폭발시키려 하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장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때 하러 대위는 그대로 시속 약 500마일의 속도로 호상(湖床)을 향해서 곤두박질하는 것이었으며 그 바로 옆에서 비행하고 있던 앞트 대위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에게 큰 소리로 조언을 하였다. 하러 대위의 비행기는 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내려샀으나 그 치명적인 파라슈트는 좀처럼 애프터버너의 화염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다. 하러 대위는 추락하였다. 그의 비행기는 폭발하여 화염에 쌓였다.

앞트 대위는 그 추락과 거의 동시에 호상에 착륙하였다. 한 대는 연소하고 있고 한 대는 조작되고 있는 그 두 대의 비행기는 옆에 나란히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앞트 대위는 정지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뛰어나와 하러 대위의 비행기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은 화재에 불과하였습니다. 화염 속에서 밖으로 내다보이는 비행기의 유일한 부분은 미익(尾翼)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앞트 대위는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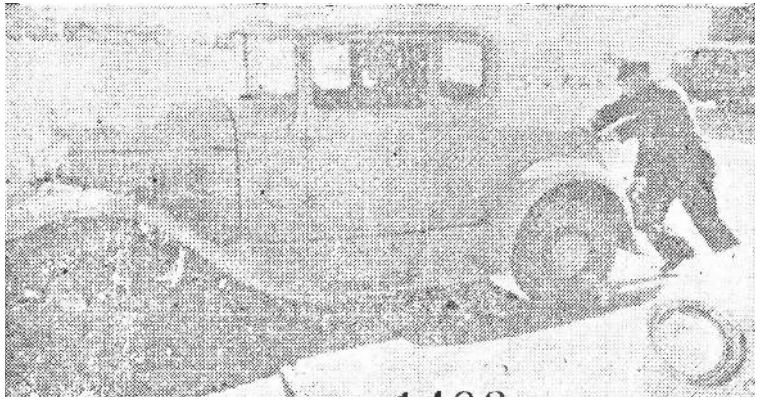
앞트 대위는 하러 대위의 비행기의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이상하게도 그 쪽은 연소하지 않고 있었다. 앞트 대위는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플렉스글래스로 된

캐노피를 통해서 컥핏트 안을 드려다 보았다. 그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나 하러 대위가 힘없이 기절한 듯이 머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앞트 대위는 이와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비행기의 외부에 장치되어 있는 캐노피 방출 장치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것은 작용하지 많았다.

건조된 호상 위에는 분가루처럼 고운 모래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앞트 대위가 캐노피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대기도 없었고 돌도 없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그것을 부수려고 애썼으며 그러한 긴박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것은 보기에 우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는 주먹으로 내리쳤으나 자기 자신의 손만 상하고 말았다. 그 동안에도 그는 안에 있는 하러 대위를 살펴보았다. 이제 불은 그의 몸에 붙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앞트 대위가 주먹으로 캐노피를 내려치고 있을 때 한 대의 지프차가 호상 저편에서 시속 70마일의 속도로 비행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 비행기 있는 곳에 도달하자 운전수는 뛰어 나와서 그가 소지하는 유일한 장비품인 국수방망이만한 50파운드 소화기를 들고 비행기에게로 달려갔다.

앞트 대위와 그 지프차 운전수는 불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데 서로 상반되는 지시를 외치는 것이었다. 운전수는 비행기의 전면에 대해서만 소화기를 완전히 소모하고 빈 용기를 앞트 대위에게 내 주었다. 앞트 대위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캐노피를 내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튀었다. 그는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캐노피를 내리쳤으나 역시 소화기는 튀기만 하였다. "그것은 마치 큰 스프링과도



〈X-2기의 테스트 파일럿 에버레스트 중령은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구식 포드차를 운전하기를 좋아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동료가 밀어주고 있다.〉

같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절망적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지에 있는 9,950명의 사람들은 그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조용히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산과의(産科醫)는 "스미스 부인, 목요일에 다시 오십시오."하고 말하였고, 로버트 호운은 YAPS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더글라스 .S. 스미스 하사는 타이어를 교환하고 있었다. 앞트 대위와 지프차 운전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고를 목격한 것은 호상의 변두리를 따라서 서있는 늙고 슬픔에 잠긴 요슈어 나무뿐이었다.

이때에 하러 대위의 살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지프차 운전수는 자동차에게로 달려가더니 5갤런들이 가솔린 캔을 들고 돌아왔다. "하느님 맙시사."하고 앞트 대위는 어이없이 생각하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수는 외쳤다.

앞트 대위는 근 50파운드나 되는 그 캔을 들어 올렸다. 높이 들어 올려 힘껏 내리쳤다. 캐노피는 깨졌다. 앞트 대위는 다시 한 번 내리쳐서 구멍을 뚫고 안에 들어 있는 연기를 나오게 하였다. 수초(數秒) 만에 그는 큰 구멍을 뚫어 그 틈으로 하러 대위를 끄집어 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러 대위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앞트 대위는 말하고 있다.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크지 않다.

"그는 只今 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앞트 대위는 말한다.

"그의 두 발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러 대위는 살았다. 오늘날 그는 의족으로 잘 걸어 다니고 있다. 그는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며 불원 은급(恩級)[11]이 붙어서 공군에서 명예 제부(除部)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사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20,000 피트의 고공을 비행 중에 파라슈트를 연 것 까지는 기억하며 그 2주일 후에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 생각날 뿐이라고 한다.

그 추락사고가 발생한 반시간 후에 앞트 대위는 또 하나의 임무를 띠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갔다. 기수에 YAPS를 장치하고 안전하게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를 가지고 우수하고 책임감이 강한 어느 상사가 정성껏 정비해 준 비행기를 조

11) 원문의 恩給은 恩級의 오기로 보임.

종하면서 넓고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날고 있었다. 밑에는 바람을 맞고 있는 기지가 멋없이 널리 전개되어 있다. 사막 위에서 큰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저기서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끝)

라이프 지(誌)에서

항공일(航空日) 단상(斷想)

최인욱(崔仁旭)

비행기를 부려서 하늘을 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쟁이의 일인가? 이는 곧 산 예술이다.

그날그날 의무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은 오늘도 또 피치 못할 과업에 권태를 느끼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의 생각인즉 소설을 쓰는 예술행동보다는 비행기를 부리는 예술행동이 훨씬 더 부러운 것이다.

서재에 앉아서 원고지를 메꾸기보다 신예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는 것이 얼마나 사나이다운 일이겠는가?

「고도(孤島)에서 그대와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해군 항공대의 킨슬레 대위가 말을 듣지 않는 자기애인 로살린드를 비행기에 태우고 어느 고도로 유인하여 춤추기를 청한다. 이러한 멋진 로맨스는 비행기가 아니고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하다. 만일에도 우리 조종사들 중에 이런 짓을 모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예술작품은 그것을 감상할 때는 심취를 해도 직접 자신이 그 예술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일은 좀처럼 없다는 것이 정론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영화는 감상자에게 스릴과 흥미를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장면을 취재했겠지만, 그 영화에 등장하는 킨슬레 대위는 군인으로서 군인 중에도 파일럿으로서의 씩씩한 기상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애인으로 말미암아 일시 애기(愛機)를 조종해서 탈선을 했을망정 그의 행동에는 젊은이로서의 발랄할 기상이 있었다. 사나이다운 용감성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이것은 곧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무인(武人)의 정신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가 보여주는 허구의 일면에 불과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우리의 용사들은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백배 천배나한 높은 기상과 보다 큰 용감성을 지니고 앞날의 꿈을 지향해 가리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용감성의 투지를 지니고 지향해 나갈 꿈은 어떤 것이겠는가? 한 애인을 태우고 고도로 가서 춤을 청하는 일이 아닐 것이요, 잃어진 강토를 회복할 일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당면한 꿈이어야 하겠다. 애인을 태우고 고도로 가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한 다음엔 그때는 이런 에피소드쯤 또 이만한 소동쯤 있는 것이 혹시는 없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전후(戰後)에 일본의 파일럿들이 탄식한 말을 여러분은 아는가? 그것을 직역하면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이 아니고 가을의 하늘"이란 뜻이다.

저 높푸른 가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일찍이 솔개처럼 날던 몸들이 번연히 자기네의 영공인데도 이제 와서는 비행기 한 대 마음대로 날리지 못하는 설음을 영탄(咏嘆)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영공에 마음대로 비행기를 날리게 되었다는 이 긍지를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정(日政) 36년의 비애를 꿈에도 잊지 말아야하며, 6.25 서전(序戰)에 전투기나 폭격기가 없어 2인승 연습기에다 사람이 폭탄을 안고 적진에 돌입하던 그때를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항공사는 실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제트기가 있다. 젊은 용사들이 푸른 꿈을 안고 날마다 우리의 하늘을 난다.

지상에는 육군이 있다. 바다에는 해군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공에는 우리(공군)가 있다.

대한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어찌 여기에서 그칠 것인가. 우리의 하늘을 빛낼 사람은 우리 밖에 없다.

우리의 하늘은 이제부터 우리의 피, 우리의 땀으로 건설해야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10월 1일 공군의 날을 앞에 두고)

형제(兄弟) 자매(姉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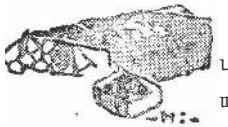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은 떨어지면 새로 구할 수 있으나 수족은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다.
(중국 사상가 장자(莊子))

사람은 홀로 살기보다 남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항차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삶은 더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희(希)[그리스] 대철인(大哲人) 소크라테스)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보라. 뉘 손에 태어났관데 모양조차 같을 손가. 한 젖 먹고 길러 나서 딴 마음을 먹지마라.
(한정철((韓鄭澈) 호(號) 송강(松江) 정치가 시인)

우리와 하늘

박영준(朴榮濬)



어떤 나라는 안개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비 때문에 흐린 하늘만이 보인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눈 때문에 얼어붙은 하늘만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때에 따라 아름다운 하늘을 사절(四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늘이 어떤 나라의 하늘보다도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한다.

하늘의 혜택을 받은 나라다.

땅에 잘아 앉은 듯 얕은 지붕 밑에서라도 멀리 하늘만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하늘이 높고 시원해서 우리나라 집들은 그렇게 얕은가 보다.

하늘 가운데도 가을 하늘이 더 높고 더 푸르고 더 맑고 더 깨끗하다.

잔서(殘暑)가 등골을 축이어도 하늘만 보면 시원해진다.

살기가 힘이 들어 한숨만 짓다가도 가을 하늘만 쳐다보면 주름살이 펴진다.

그리운 사람을 멀리 그리다가도 하늘만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려 한다.

높은 하늘은 시원하고 푸른 하늘은 아름답고 넓은 하늘은 웅대하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을 보면 올라가고 싶고 푸른 하늘을 보면 그 위에 눕고 싶고 넓은 하늘을 보면 그 속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만 있다. 높이 올라가면 오를수록 높아만 보인다.

어렸을 때 밤을 따러 밤나무에 올라가 보았다. 땅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밤나무가지로 올려가 보이는 하늘은 땅 위에서 보는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았다. 하늘이 보고 싶어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하늘은 까마득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다.

비행기를 타고 산보다도 높이 올라가 보았다. 하늘이 손에 닿을 것 같이 높이 올라보았다. 그러나 하 늘은 잡히지 않았다. 더 아득해하였다. 더 넓어 보였다

너무 높고 너무 넓어 도리어 무서움을 느꼈다.

하늘이 좋은 것은 역시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리라,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비할 수 없이 넓기 때문이리라. 구름만 개이면 한결같이 파래서 변덕쟁이 인간이 좋아할지도 모른다.

흰 구름이 거침없이 그리고 어디로나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

푸른 하늘

하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높으리라. 마음이 넓으리라. 마음이 투명체처럼 깨끗하리라.

우리나라는 하늘의 혜택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도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높고 넓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끝)

(필자(筆者) 소설가(小說家))

명언

☆ **처상칠종(妻相七鍾)** ☆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아내가 있다.
첫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살기 찬 아내
둘째, 남의 것을 훔칠 것 같은 음침한 아내
셋째, 제 먹을 것은 차리고 일에는 게으르고 말소리만 높여서 거장치는 주인 같은 아내
넷째, 남편에게 자상스럽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어머니 같은 아내
다섯째,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골육의 정이 나는 누이동생 같은 아내
여섯째, 남편을 보고 마치 오래 못 만난 친구와 같이 반겨하는 벗과 같은 아내
일곱째, 남편이 때리던 욕하던 그저 참고 복종하는 종 같은 아내
(인(印)[인도] 석가(釋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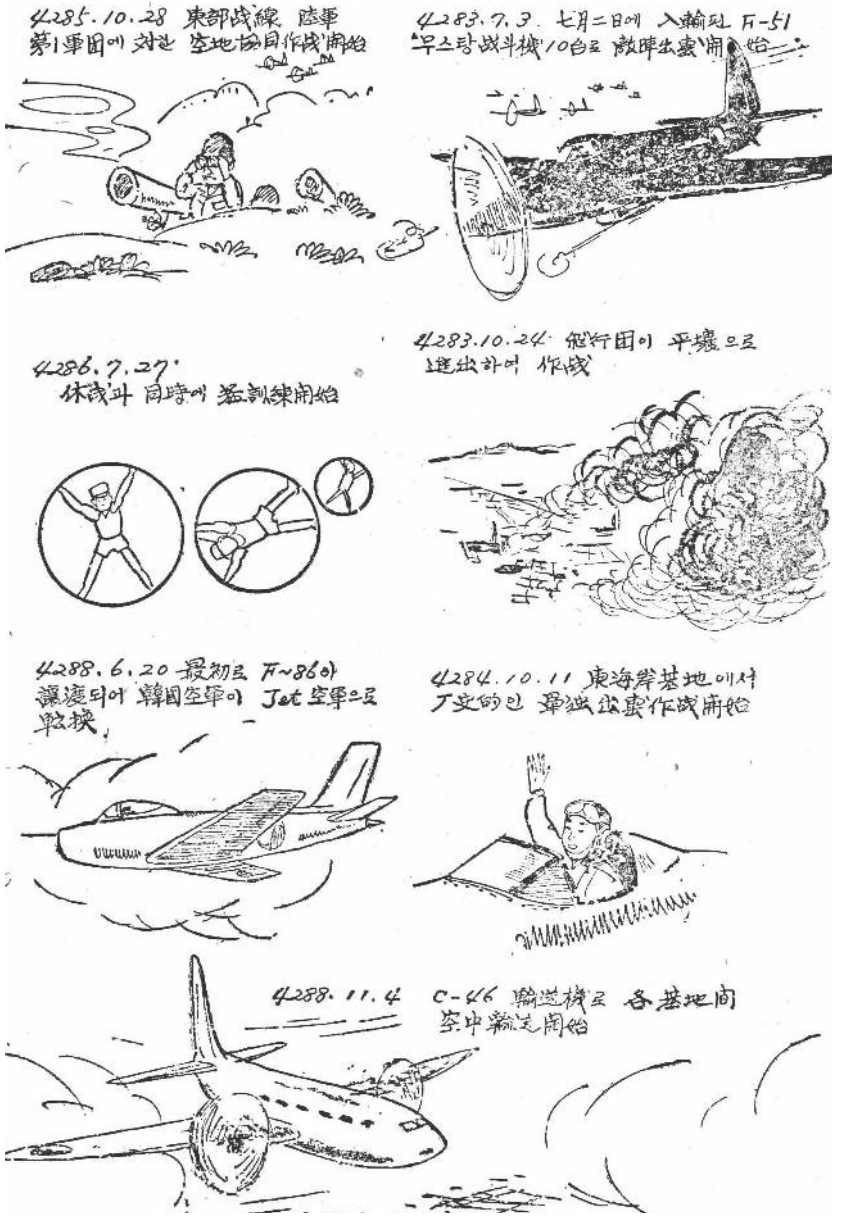
☆ **인내(忍耐)** ☆

인내는 모든 쾌락의 근본이며 또 모든 권세의 근본이다. 장래의 희망은 인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인내치 않은 사람은 그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영(英) 예술평론가 러스킨)

☆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니, 남편이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비록 만승(萬乘)의 위엄이라도 빼앗지 못한다.
(한(韓)) 도화랑(桃花郞), 신라 제25대 진지왕(眞智王) 시대 사량군녀(沙梁郡女)
(임금이 도화랑의 미모에 반하여 그를 범하고자 하니 이 같이 항답(抗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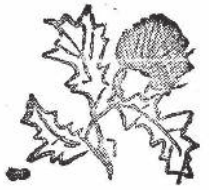
공군발달사(空軍發達史)

4282.10.1 陸軍隸屬으로부터 발달히 一軍으로서 空軍独立
4281.4.1 空軍部隊 創設幹部要員 7名이 陸軍步兵學校에 入隊함으로서 大韓民國空軍 歷史는 시작되다
4283.5.14 國民의 誠金으로된 建國機 10台 獻納式을 汝矣島基地에서 擧行
4281.9.15 最初로 入輸된 L~4 10台로 丁史的인 初飛行을 서울上空에서 擧施
4283.6.25 六·二五 战乱 勃発과 同時에 建國機(T-6)및 L-型機로 敵陣攻擊
4281.10.21 聖順事件 作战에 飛行部隊 出動하여 活躍


4285.10.28 東部战線 陸軍 第1軍團에 対한 空地協同作战開始
4283.7.3 七月二日에 入輸된 F-51 무스탕战斗機 10台로 敵陣出擊開始
4286.7.27 休戦과 同時에 猛訓練開始
4283.10.24 飛行團이 平壤으로 進出하여 作战
4288.6.20 最初로 F~86이 讓渡되어 韓國空軍이 Jet 空軍으로 転換
4284.10.11 東海岸基地에서 丁史的인 單独出擊作战開始
4288.11.4 C-46 輸送機로 各基地間 空中輸送開始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윤천주(尹天柱)



유배당한 죄인처럼 온 가족을 거느리고 하얗게 눈 속에 파묻힌 제주도(濟州島) 땅에 처음 발길을 옮겨 놓았든 일, 그 후 1개월쯤 지나 공군 대위로 임명을 받고 복무하게 된 일, 이 모든 사실이 아주 가까운 어제 날의 일 같으면서도 기실 5, 6년이란 세월이 마치 꿈결처럼 흘러갔다는 게 사실이고 보매 깜짝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과거에 육군 소위를 지내본 일은 있었지만은, 공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이른바 풋내기인 내가 공군본부의 중요 계획 참모부에 보직을 받고 보니 늘 가깝게 지내던 친지들로부터 만나는 족족 (아니 자네가 원일이야? 그런 곳에)하고 몹시 놀라는 표정을 보면 나로서도 그들의 표정에 동감하는 거와 같은 표정을 띄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애당초 일에 대한 예비상식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사 연구할 재료도 별로 만만치 않은 처지였지만 Lincoln이 남의 책을 빌려 몇 번이고 밤잠 자지 않고 읽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요행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책은 보고 듣는 대로 마구 얻어드려 밤낮 할 것 없이 사각형과 직선 등을 그리며 도표 한 장을 꾸미기에 식은땀을 내던 일은 오래두고 잊지 못할 일 중의 하나다.

효성학교(曉星學校)의 한구석에서 병식(兵食)도 언제나 넉넉하게 먹으며 간호 가다 기회를 얻으면 막걸리 병을 가운데 놓고 친우들과 더불어 삥 둘러앉아 들썩한 분위기를 음미하던 일, 살포시 취기가 감돌아도 정신 바짝 차리고야 근무에 골몰하다 새로 3시나 4시경에 허둥지둥 집구석이라고 찾아들던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달콤하게 떠오르는 추억의 한 장면들이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싱싱하게 마음속 깊이 살아있는 또 한 가지 추억으로 분에 넘친 사명을 띠고 미국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있다.

본래부터 코높은 사람만 옆에 오면 쩔쩔매던 내가, 엽전의 체취를 풍기면서 미국까지 다녀온 후론 허울까지 말쑥하게(?) 변해진 것 같고, 그 위에도 신발을 전에 없이 깨끗이 한다든지, 곧장 막걸리 타령만 하던 식성이 맥주니 양주만을 골라 찾게 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미국 갔다 온 보람이며 더욱이는 공군에 복무했던 덕분이라 생각된다.

제한된 지면에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쓰자니 저것이 남고, 저것만을 쓰자니 또 이것이 쑥 빠지는 식이 되어서, 제목 그대로「나의 공군시대」라는 회고담과는 동떨어지는 것이나 아닌

가 싶어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그런대로 한 가지 더 기입하자면, 별로 남다른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치켜세우는 바람에 못 이겨 공군야구부를 창설하는데 있는 힘을 다했고, 또 근기 있는 열성의 보람으로 역사가 우리보다 긴 육군 야구팀을 제압하던 일도 있었다.

이렇게, 활발하게 군에 복무하던 나에게 또 한 가지 길이 트이게 되었으니 그것은 본래의 내 본직에 관여하는 은전(恩典)을 입어 이제 다시금 대학 교편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여러 가지 다난한 속에서도 상부의 깊은 이해로서 출강하게 되니 그때 입은 그 크나큰 혜택은 내 평생을 두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군에 있는 나에게 그처럼 출강하도록 편리를 봐준 상관들,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강좌를 맡기며 나의 본직을 찾게 해 준 선배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다. 또 한 그분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내 자신 천직에 노력할 것은 물론이다.

공군을 나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내 온몸에 배어있는 군인정신은 가시어 지기는커녕 군복을 입을 때보다 더 괄괄한 정신이 스며있어 좀 언짢은 행패를 하는 군인을 볼라치면 크게 꾸짖고 싶고 또 제트기 소리만 들으면 무시로 하늘을 멍하고 쳐다봐지는 습관이 눈에 뜨이도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나와 공군과의 깊고 깊은 인연으로 해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긍정할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활발한 우리 공군의 발전상을 곳곳에서 보고 듣는 대로, 무딘 나의 천성에 매를 치는 것도, 앞날의 눈부신「공군의 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라고 해도 좋을 것이 다.

(필자(筆者) 고대교수(高大教授))

한국이언(韓國俚諺)

☆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꼴 더 한다.
☆ 말 많은 집 장(醬)이 쓰다.
☆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

「항공일(航空日)」 회고(回顧)

김경수(金敬洙)

항공일 특집 「코메트」원고의 청탁을 받았으나 제목이「나의 공군시대」라고 되어 있다. 나의 공군시절을 적어보자면 적지 않은 지면이 있어야겠기에 이번에는 항공일에 관한 이야기를 씀으로써 편집자의 재촉을 면할까 한다.

'항공(기념일)', '공군기념일' 이러한 명칭과 내용의 기념행사가 6.25 사변 전에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변으로 중단되었던 이러한 행사가 부활된 것은 85년 10월이었는데 그 규모도 대단했었다. 그때 나는 공보 관계를 담당했었고 보도진은 부산(釜山)발의 임시열차로써 K—4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다.

역에서 비행장까지는 트럭 버스로써 내빈들을 날났는데 시간적 여유 없이 짜인 스케줄은 내빈 전부의 도착을 기다려 줄 수 없었다. 비행장에 도착한 보도원들은 행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 준비된 식사를 취할 사이도 없이 식장으로 달려갔었다. 이렇게 쓰고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의미 없는 것 같으나 이 사건(?)이 참으로 중대한 것이었다.

기자들이 이처럼 식사도 못하고 행사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부산에서 온 일반 내빈이 준비된 식사를 다 먹어버렸으므로 기자에게 제공될 것이 없어졌을 뿐더러 비행장 내에는 매식할 곳이라곤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리를 아는 기자들은 공보장교들도 같은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불평을 하지 않았으나 일부 억지를 잘 쓰던 기자들은 이 문제(?)를 CP에게까지 항의하였으며 식장 귀빈석 주변에서 떠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도 얼마를 두고 이 사건은 공군본부에서의 정례 기자회견 때마다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의 항공일 행사에는 기자용 식사 음료는 처음부터 따로 PIO에서 준비해 가지고 행사 거행지인 K—10으로 가지고 가서 식사할 장소도 따로 준비하여 일반 내빈과 는 삼엄한 구별을 하여 전년의 사태의 되풀이를 피하느라고 야단법석을 했었다. 결국 행사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총평의 기준으로써 기자 접대 여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행사 준비에 있어서 PIO는 같은 고충과 기자들을 위한 과도(?)한 준비를 하고 있을 줄 믿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K-4에서의 실수 아닌 실수로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 현 PIO들에게 송구한 생각이 든다.

87년의 항공일 행사는 정부 환도 후라 서울에서 거행되었다. 장소가 서울이라고 해서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지 않게 마음을 졸인 것은 행사 당일에 과연 시민이 어느 정도 동원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9월 29일의 최종적인 행사 담당 관계 참모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특히 행사 관계 기사가 아직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점이 논의되었다. 빨리 광고라도 내라고 야단을 치는 참모도 있었다. 한편 또 그 때에 나는 제대가 확정되어 이미 국방부의 특명이 나 있던 터라 일부 참모는 이 점에 결부시키어 책(責)하는 이도 있었고 심지어는 재소집하라는 등의 야유까지 나왔다. 나는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므로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행사 전에 나가는 예비적 보도는 만일 어떠한 신문에서 크게 취급된다면 다른 신문은 이를 다시는 취급하려 하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全) 신문에 예비기사가 게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되도록 행사 당일에 가까운 일자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일자는 9월 30일인 것이다. 과연 서울의 모든 일간은 4면 톱으로 또 지면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으로 공군 및 행사의 소개를 위한 선전 기사가 실려졌었다.

또 행사 당일에는 일반 시민 학생 등 참관인이 식장인 한강변 양안을 뒤덮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통이 차단되는 대성황을 이루었었다. 참관인의 동원이 여의치 않을 것을 두려워하던 당국은 대만족이었다. 물론 이것은 공군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였음이 배경이었겠지만 윤명(尹洺) 준위(准尉)의 비상한 활약이 주공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었다. 나는 참으로 수고했다는 상관 동료들의 치사를 받으면서 10월 1일부로 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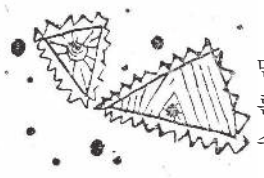
(필자(筆者) 국회도서관장(國會圖書館長))

영국이언(英國俚諺))

☆ 폭음가(暴飮家)는 부단히 자기 자신과 생명을 공격한다.
☆ 아이와 주정꾼은 참말 한다.
☆ 청소한 의복은 젊은 소개장(紹介狀).

나의 공군시대(空軍時代)

이종린(李鍾麟)



누구는 더 행복하다드니 아무개는 더 불우하다드니 하지만 결국 인생이란 희로애락의 연속선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내 30 평생 중 제법 인생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절이 공군에 복무한 기간이라 하겠다.

조수처럼 밀려 내려가는 피난민 틈에 끼어서 공군 트럭에 몸을 싣고 대구(大邱)까지 내려가 푸른 작업복에 작업모를 얻어 쓰고 군문에 발을 드려놓으면서부터 나는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다 맛보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뇌리에 생생하니 말이다. 원래 체질이 허약하여 동작이 느린데다가 눈치 없는 내가 군대생활을 하였으니 곤란한 일도 많이 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감당키 어려웠던 고역으로 이따금씩 생각나는 것은 신병교육을 받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위가 혹독하였다. 동료 하나가 불침번을 서다가 꾀를 부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화근이 되여 소위 단체기합이라는 명목 하에 못 당할 일을 당하였던 것이다. 살을 어이는 매서운 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천막을 휘날리는 새벽녘에 웃을 다 벗기고 팬티바람에 그것도 선착순으로 뛰어 나오게 해서 내려 쌓인 눈 위에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것이었다. 잔등에 소름이 쪽쪽 끼치고 사지뿐만 아니라 이빨조차 와닥와닥 떨렸다. 땅을 짚은 손바닥은 눈 속에 파묻혀 저리다 못해 감각을 잃고 허리는 끊어지며 그저 악밖에 남지를 않았다. 5분, 10분, 15분……. 이제는 더 버텨볼 기력 없어 모든 것을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날 몸에 별 이상 없이 훈련을 하였다고 기억하니 착각이 아니라면 내 신체상의 하나의 기적이었다고도 하겠다. 요사이도 다소 과로를 못 견디어 하던 일을 중단할까 망설이게 될 때에는 의례히 이 기적을 내세운다.

지금의 나에게는 공군복을 입었던 시절이 분명히 즐거웠다고 생각된다. 여유 없는 생활에 시달리고 일에 얽매이며 한편으론 번거로운 잡념과 허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험악한 현실 사회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내 처경(處境)에 비해서 그 당시로 말하면 자기의 맡은바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면 하등의 위협과 번뇌도 개재(介在)하지 않는 극히 마음 편한 그날 그날을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숙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아니 있어 더러는 그들과 교분을 맺어 휴일 등을 이용하여 심신으로 레크리에이션의 사회를 가질 수 있는 기쁨도 있었다.

일전에 우연히 노상에서 비행단에서 함께 근무하던 형을 만났다. 여러 해 만에 군복을 벗은 옛 동료를 만나서 반갑기도 하였지만 군에 복무하였을 당시 그 누구보다도 불평불만이 많았고 자기가 퇴보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형이 사회에 나와서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진보된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여 하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소매를 잡아끌고 어느 선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술잔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제법 불그스레해지자 말 많던 형은 여전히 떠들어 댔다.

"여보 이 형, 그때가 좋았소, 사회에 나와 보니 돈 없는 놈은 그저 죽으란 법이야, 백목 가루를 마시면서 월급이라고 사, 오 만환 받아 댔자 자식들하고 밤낮 요 모양 요 꼴이거든, 빌어먹을 돈이 무엇인지 벌어야만 살게 마련이니……" 말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던 사회에 나와서도 못살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데로 가실라우, 하하……"

"아냐, 아냐 그래도 군복 입었던 그 때가 좋았소, 당신 책상 밑에 종이 바둑판을 숨겨 놓고 오이루 펜실로 바둑 두다가 기합 받은 일 생각하슈, 춤이다 당구다 하고 놀던 때가 한참이었소."

얼근히 술 오른 내 머리 속에서도 다시 맛볼 것 같지 않은 가지가지 즐거웠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돌았다. 역시 그때가 재미있는 시절이었다고 한번 다시 수긍하였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고 자극 없는 생활이었다고도 본다.

우리에게 시간과 정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들지 않았던 가도 싶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어리석음으로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입맛 쓴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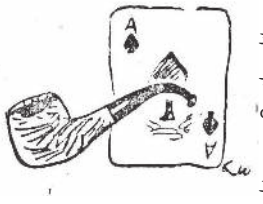
(동국대학강사(東國大學講師))

한국이언(韓國俚諺)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시집살이 어렵다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좋은 연분(緣分)

예용해(芮庸海)



허름한 군복으로 영내 식당에 들어 서려하는데 당번 하사관이 "당신 뭐요! 나갓!"하고 고함을 치는 통에 분함과 무안을 어찌할 줄 모르던 이른바 나의 공군 시절의 첫날 기억은 어제와 같이 새롭다.

동란으로 본부를 대구(大邱)로 옮기고 어려운 고비이던 낙동강 전투를 치른 다음이다. 차츰 두서를 잡아서 일을 해볼 작정이던 정훈감 및 차감이던 서임수(徐壬壽) 씨와 김경수(金敬洙) 씨가 당시 모 일간지 종군기자로 있던 나를 잡아다 그런 욕을? 보이게 했던 것이다.

맡아본 일은 사병의 교양을 위한 공군 위클리를 편집하는 일이었다.

신문사에 있었다고는 하나 사회부의 올챙이 기자라 활자 호수(號數)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편집을 맡았으니 일이 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편집이랍시고 제호(題號)를 매겨서 공장(공군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高級副官室印刷所))에 넘기면 따브로이드판(版) 지면에는 주먹만큼씩 한 활자의 나무가 기관(奇觀)을 이루었다. 그 나마도 체면을 수습해볼 양으로 이리 뜯고 저리 메꾸며 시간가는 줄을 모르는 내 변덕에 화통이 터져 핀셋트를 내어던지며 "도대체 판을 짜본 일이 있느냐?"고 육박해 오던 젊은 조판공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리운 것 중 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단편적인 일들에 대한 기억은 하나하나 새로운데도 정작 위클리가 창간되던 때가 어느 해 어느 달이였던지 또는 얼마동안 그 편집을 맡아 보았던 것인지는 흐릿하여 생각나질 않으니 묘하다.

그러나 당시 사무실 맞은편 책상에 앉아 코메트 일을 보던 박현서(朴賢緖) 씨가 입고 있던 갑사(甲紗) 치마가 퍽도 곱던 일이라든지 어지간히 군복에 멀미가 나서 두툼한 겨울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며 여러 사람의 핀잔을 받던 일들을 생각하면 갑사 치마가 먼저였던지 두루마기가 먼저였던지는 모르겠으나 위클리 일을 창간 후 한 1년 가까이는 보지 않았나 짐작된다.

어찌하면 1년이 채 차지 못했을지도 모를 공군 시절이었지마는 나로서는 퍽 좋고 마음 푸근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때는 거의 다가 피난살이라 생활의 어려움은 그 극에 있었다. 다행히 나는 고향이 낙동강 이남의 어지간한 산촌이라 피난을 하지 않아도 좋을 처지였으니

그나마도 좀 낳은 편이어서 이따금씩 시골 인편에 철 따른 채소나 음식이 오면 변변치 않은 부끄럼을 무릅쓰고 같이 나눠 가지던 낙도 있었다.

그때 위클리 2면의 영어강좌를 맡아 보던 심(沈) 형은 지금도 콩나물이랑 호박, 고추를 삼베 보자기에 싸들고 가던 일을 잊지 않고 만날 때마다 고마워 해준다.

비단 심 형 뿐만 아니라 그때 만난 좋은 연분들과의 상교(相交)는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그냥 계속되고 있다.

이까지 써 내려오노라니까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으니 공장에서 조판(造版)을 보아 주시던 홍모(洪某) 씨이다. 약 50이나 되어 보일까 좀 심한 주전증(酒戰症)이 있었는데도 몇 번이나 판을 고쳐야 하는 성가신 요구에도 웃는 얼굴로 정말 잘해 주셨다.

지금도 그 공장에 그대로 계신지? 무심한 탓으로 실명(失名)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야근 때마다 나오던 밀국수를 맛나게 나눠 먹던 조판대(造版臺)의 수선한 광경들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위선(爲先) 여기서 안부나 전해 드립니다).

이러했던 내 공군 시절을 고담(古談) 나부랭이라도 들추듯 회상의 붓을 어루만져야 할 정도로 오랜 이야기는 아니나 첫머리에 썼던 식당 하사관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나니 어지간한 시간은 흐른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도 공군 위클리가 지금 나오고[12]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 (끝)

(한국일보기자(韓國日報記者))

---

12) 원문의 '오나고'는 '나오고'로 조판의 오류로 보임.

★ 나폴레옹 3세의 가정생활의 파멸은 유제니 황후의 끊임없는 불평과 비평에 기인(基因)된 것이며 톨스토이의 노후의 비극은 그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반항에 기인(起因)한 것이며 링컨의 가정적 불행은 부인의 히스테릭한 행동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미(美) 저술가(著述家), 사업가(事業家) 카네기)

★ 인생에는 순경(順境)도 있고 역경도 있다. 사업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따라서 일가의 영고성쇠(榮枯盛衰)라는 것은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이치를 잘 이해하는 부부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 저술가, 사업가 카네기)

(수필(隨筆))

비행기(飛行機) 멀미

김용환(金龍煥)

내가 비행기라는 것을 처음 탄 것은 대구(大邱)에 피난해 있을 때 미 8군 심리작전과의 대적방송을 하는 쌍발기(雙發機)였다.

동체(胴體) 옆구리에 큰 마이크를 달고 대적(對敵) 선전삐라를 실은 비행기는 대구비행장을 출발하여 38 이북 당시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화천(華川) 지구를 저공으로 돌아다니며 삐라도 뿌리며 방송도 하고 하여 적진 깊숙이 날아 들어갔다.

지상에서는 공산군이 숨어있는 삼림을 유엔군이 소이탄을 던져 태우고 있는 불꽃이 뱀의 혓바닥같이 이 산등 저 산등에서 어둠 속에 날름거리고 있다. 이따금 적군이 쏘는 고사포탄의 파편이 알루미늄 비행기 동체에 부닥칠 때는 머리끝이 쭈빗쭈빗하고 간이 콩알만큼 작아진다. 그런데 그날은 무사히 돌아오고 다음 두 번째는 호남(湖南) 지구 지리산(智異山) 방면의 공비들에 대한 방송을 하기 위하여 나는 역시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때는 몸의 컨디션이 나빴는지 처음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별안간 뭉클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토할 것 같아서 그냥 좌석에 드러누웠다. 이때 동승한 미군 장교가 큼직한 하토롱지(紙) 봉투를 줌으로 입에다 대고 있으니 금시 위속에 것이 전부 쏟아져 나온다. 그때 기분으로 비행기의 동요(動搖)는 마치 바다 위를 항행하는 배와 똑같다고 생각하였다. 여하간 비록 봉투는 입에 대고 있을망정 한 번 나려다 보고 싶어 일어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바로 눈앞에 산봉우리가 솟아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지리산 봉우리라고 알려 준다. 이리하여 간신히 한 시간을 걸려서 군산(群山)에 착륙하였다. 비행장이라기보다 넓은 초원으로 되어있는 이 비행장에는 금테두리의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아마 경찰국장과 서장들 같아 보였다) 기타 고관(지사(知事)일까) 몇몇이 우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지방 고관들은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벌써 다섯 시간 이상이나 세찬바람이 부는(그때는 초춘(初春) 아직 추울 때다) 벌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 고관은 이 문명 세상에 나서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봐서 될소냐 하여 어떻게 8군과 연락이 되어 정장을 하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우리 비행기를 다섯 시간 이상이나 북풍 원두(原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고관들은 好기심에 찬 얼굴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 앞을 다투어 비행기에 오른다. 나는 멀미가 심해서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우리 비행기는 사람들을 편승시켜 지리산 일대를 구경시켜주기 위하여 군산에 착륙한 것임으로 다시 비행기는 여기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이리하여 비행기는 다시 떠나고 나와 몇몇 같이 내린 사람은 하나밖에 설치하지 않은 미군 컨셀 안에서 불을 쪼이며 놀다가 부근 부락 주막에 가서 점심요기를 하고 서너 시쯤 지난 후에 다시 비행장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바람이 매우 심하여 지상에 있어도 바로 보행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공중에 뜬 비행기는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아까 의기양양하게 비행기를 타는 그 시골 고관들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이윽고 비행기는 출발한지 꼭 네 시간 만에 저쪽 하늘에 나타났다. 강풍 중임에도 완전한 활주로도 아닌 초원에 용하게 착륙을 한다. 컨셀 가까이까지 활주해온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멈추고 동체 옆구리 문이 열리며 승강용 사닥다리가 내리고 방송을 하는 한국인 군속이 먼저 경쾌하게 뛰어내리며 다음으로 시골 고관들은 내리지 않고 미 군인 조종사가 나타난다. 그리고는 아무도 내리지를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내린 한국인 군속이 다시 사다리를 올라 안으로 들어가며 무어라 손짓을 하고 지껄이니 그때야 주먹 같은 모표(帽標)와 금테를 두른 위풍당당하던 서장님이 검은 망토를 옆에 끼고 비틀거리며 녹초가 되어 한국인 군속에게 부축되어 간신히 사다리를 내려온다. 다음 은 또 하나 역시 젊은 고급경찰관인데 얼굴은 창백하게 사색(死色)이 되어 그러나 혼자서 사다리를 내려왔으나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한참 있다가 이번은 평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양편에서 부축을 당해가며 흡사 술 취한 사람같이 겨우 제 몸을 지탱하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도지사라고 한다.

이리하여 지방 장관 나으리들 한 번 문명 세상에 낫다고 자손만대의 자랑거리로 비행기를 타기는 했는데 처음 탈 때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과 내릴 때의 기어서 내리는 모양을 대조해보니 나는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비행기는 곧 대구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어 있음으로 나는 지금 내린 사람들 보기에도 제법 비행기를 일상으로 타고 멀미를 전연 안하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비행기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대구까지의 한 시간을 올 때 모양으로 또 하토롱 봉투 신세를 질것을 생각하니 체면 불구하고 하토롱 봉투를 미리하나 얻어가지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리고 말았다.

(필자(筆者) 만화가(漫畵家))

수필(隨筆)

구름 위에서

전숙희(田淑禧)

1955년 8월 6일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여러 선배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어디 부산(釜山)에라도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오래 벼르던 길을 향해 여의도공항을 출발하였다. 비행기가 위로 위로 올라가는 대로 저 아래 땅위에서 쳐다보고 서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차츰 흐려져 갔다. 그러나 나는 이별의 감상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나에게 닥쳐올 모든 미지의 땅, 미지의 사람들, 미지의 사건들을 어렴풋이 그려보며 호기심 또는 희망과 같은 무언지 벅 찬 마음으로 조 그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늘도 푸르고 아득하게 내려다보이는 땅도 푸르기만 했다.

비행기는 신기하게도 뭉게뭉게 기묘하게 퍼져 흐르는 구름 속을 헤쳐 나갔다.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구름 위를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도쿄가 가까워 왔다. 마이크에서 후지산(富士山)이 보인다고 하여 내다보니 과연 그림에서나 시에서나 보던 후지산이 멀리 내 눈앞에 참으로 그림엽서처럼 아름답게 떠올랐다.

오후 6시 45분! 여의도공항을 뜬지 세 시간 반만에 내가 탄 비행기는 동경 하네다비행장에 와 닿았다. 여기가 도쿄! 십 년 전의 그오비와 유까다, 요란하게 귀에 거슬리던 게다소리 등을 문득 생각해내며 먼 구름다리 위를 쳐다보았다.

천막 하나 쉴 곳이 없는 여의도공항과는 달리 이 하네다비행장의 시설은 눈이 부시다. 그 구름다리 위로 휘황찬란한 불빛아래 마중을 나온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무지 하오리 유까다를 찾아 볼 수 없는 게 신기했다.

도쿄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이튿날 나는 다시 PAA에 몸을 싣고 오후 여섯시 하네다비행장을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였다.

비행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 들이 타고 있었다. 동양인은 나 하나뿐이었다. 내 옆자리에는 괴상하게 질은 화장을 한 오십여 세나 되어 보이는 마나님이 한분 앉아 있었다. 한 자리에 앉았으니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는 핸드백 속에서 부랴부랴 무엇을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나에게 내어 보인다. 그것은 correspondent의 패스포드였다. 나도 새로운 관심이 생겨 어느 신문사 근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세계 각국을 두루 다니며 소일하는 사람인데 그러자면 기자증을 가지는 것이 다니는 게 제일 자유스럽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뿐이라고 솔직히 말 하며 웃는다. 영감님은 안 계시냐고 물으니 그는 펄쩍 뛰며 자기는 미스노라고 했다.

나중 세관 보고서에 물품 목록 쓰는 것을 보니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산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 각국을 유람하면서 재미있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나는 무의식중 그가 끼고 있는 커다란 다이야 반지를 주의해 보았다.

알의 크기를 말한다면 10캐럿이 거의 되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서투른 내 눈에도 유리알로 보이지 진짜로는 보이지 않았다. 어지간히 수다를 잘 떨게 생긴 마나님이라 내내[13] 옆에 앉아 쓸데없는 말을 시키면 어쩔까 하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데 그는 슬리핑 타브렡을 꺼내 먹더니 이내 쿨쿨 잠만 자고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 그밖에도 이 비행기 안에는 창부 비슷하게 차린 여인들이 서너 명 타고 있어 옷을 벗는다, 담배를 피운다, 왔다 갔다 하며 수선들을 떨고 있었다. 이들은 아마 도쿄에 주재하는 미군 상대의 위문단이라고 생각하였다.[14]

많은 손님들이 부산히 자리를 정돈하고 난 다음 스튜아테스가 앞에 나서더니 라이프 재켓(Life J acket) 입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앞에 보니 과연 큰 주머니 속에 이 구명조끼와 그에 대한 설명서가 벌 써 제각기 하나씩 꽂혀 있었다.

즉 여행 도중 만약에 비행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조끼를 입고 거기에 공기를 불어 넣어 뛰어 내리란 말인데 나는 도무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 기기묘묘하고 아름다운 구름 속에 흩어져 산화(散華)해 버리지 무엇 그리 구구스럽게 살아 보겠다고 저런 우스꽝스런 것을 입고 뛰어 내리랴하는 생각에 설명은 듣지도 읽지도 않고 그냥 창밖 석양 하늘 아래 흘러가고 또 뭉치는 구름들의 신비한 모양만을 무심히 내다보고 있었다.

웨이크 도(島)의 달밤

비행기가 오후 여섯 시에 하네다를 출발해 일곱 시가 되자 차장이 또 앞에 나서 이번엔 시계를 열 시 십분 전으로 고쳐 놓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는 시

13) 원문의 '내도록'은 '내내'의 방언.
14) 원문의 '생각키웠다'는 '생각하였다'로 함.

간이 약 세 시간 앞서게 된다.

밤 두 시 캄캄한데 비행기가 어느 Port에 가 조용히 내려 앉는다.

한참 자다 깨어 남들이 내리기에 물어보니 한 시간쯤 여기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도 따라 내렸다.

여기는 웨이크(WAKE)섬이라고 한다.

2차 대전에 귀 익은 유명한 남쪽의 조그만 섬, 이 웨이크도의 땅 위에서 보는 내 마음은 어딘지 처량 한데가 있었다.

십년 전, 우리 어린 학병들 지원병들의 억울한 피가 이 외로운 조그만 섬 안에 얼마나 뿌려져 있고 사무쳐 있으랴 생각하니 진정 마음이 쓰리기조차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위선 밤공기가 몹시 훈훈함을 느꼈다. 거기에 달콤한 남양의 나뭇잎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이상한 큰 나무 두 그루가 이 비행장 안 십자가를 표식한 조그만 채풀 옆으로 서있었다. 나는 하도 신기해 그 나무 아래로 다가서서 우거진 이상한 큰 잎사귀들과 조그만 포도 알 같이 뭉쳐진 열매를 만져 보았다. 향기는 바로 이 나무에서 풍기는 것이었다. 도무지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였다. 하늘을 쳐다보니 마침 구름을 헤치고 달빛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 달을 쳐다보며 지금 저 똑같은 달빛아래 잠들어 있을 고향과 또 그 고향의 사람들이 문득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밤중에 남해의 고독한 이상한 나무아래 와 서있는 것이 마치 무슨 꿈같기만 했다. 비행장 여기저기에는 굵고 하얀 모래알들을 모아 화단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름 모를 이상한 나무들 남양 식물의 그림책에서나 보던 그런 나무들이 커다란 잎사귀들을 달빛아래 너울거리고 있었다. 무언지 신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 조그만 섬은 1796년 미국인 캡틴 윌리암 웨이크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래 이 섬을 그의 이름을 따라 웨이크 섬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물고기가 유명하며 가지각색의 큰 고기들이 수정같이 투명한 물속에서 노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고 한다. 이 비행장 안에는 가장 첨단적인 시설을 구비해 놓은 휴게실이 있었다.

그 휴게실 창 앞으로는 사면으로 돌아가며 바다 속에서 잡아낸 형형색색의 조개껍질들, 꼭 진주라는 남양 영화에서 본 바다 속의 고사리 같은 이상한 조개랑 산호, 진주조개 등이 진열되어 있어 남해의 정취가 그대로 풍겨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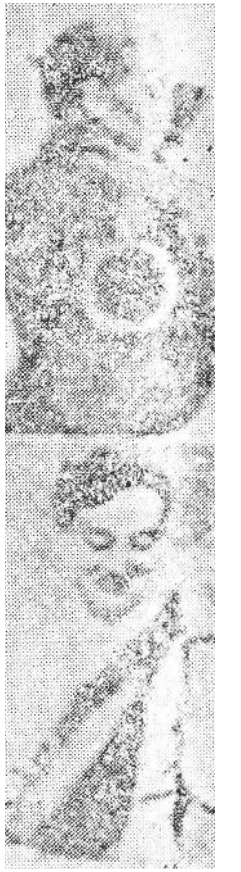
그 위로는 한국 '발'에 연지색의 붉은 물을 곱게 드린 것이 커튼 대신 창마다 드리워 있어 또다시 멀리 잠든 고향을 생각게 하였다.

여기서 한 시간 후 나는 다시 비행기에 올라 하와이를 향해 날기 시작했다. (끝)

(여류수필가(女流隨筆家))

☆ **마가렛트 공주**

영국의 마가렛트 공주는 금년 만 26세의 탄생일에 보석으로 수놓은 이아린구에 고가인 넷그레스와 팔찌, 그리고 꽃과 작은 원판 모양으로 수놓은 핑크색의 이브닝 드레스로 몸을 감았다 한다.



☆ **악기 같은 핸드백**

로마에서 고안된 악기의 핸드백. 음악 좋아하는 이태리의 여성간(間)의 대호평이라 한다.

사진

상(上) 황색의 가죽으로 만든 기타 형(型)

하(下) 노루가죽으로 만든 만도린 형

(수필(隨筆))

아랍 세계(世界)의 이모저모

종교(宗教), 사회제도(社會制度), 풍속(風俗) 등(等)을 중심(中心)해서

이록재(李綠載)

☆ 사막(沙漠)과 회교(回教)

눈이 부시게 밝은 태양과 다색(茶色)의 사막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흑발벽안(黑髮碧眼)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를 막상 접해보면 누구나 경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기독교가 오늘날 아직도 구주(歐洲) 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랍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교(회교(回教))인 것이다. 유태교(猶太教)와 더불어 이 세 개의 세계적 종교는 예루살렘에서 발상한 것이라 하는데 유독 이 세□에서만 회교가 압도적 다수의 신도를 옹(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이 땅에 재류(在留)하는 모 외국인사의 말을 빌리면 사막에서 생활하는 자가 아니면 회교의 진수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즉 회교는 사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사하라사막을, 아니 서(西)아세아의 사막지대를 걸어 보라! 살려고 하고 사실 살고 있는 것이 그 광대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오직 자기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백열의 태양 아래서 누구나 죽음의 공포에 쌓이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다. 백주의 혹서(酷暑)가 일몰과 함께 사라지면 이윽고 별이 반짝이는 검푸른 밤하늘이 고독을 점점 고독에로 이끌어간다. 아니 그 보다도 사막에도 느닷없이 습래(襲來)하는 풍우(風雨)의 무서움을 체험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초자연의 힘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생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회교적 신앙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져 그 안에서만 믿는 자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랍권의 어디를 가나 모름지기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에는 대소 각양의 모스크(회교사원)가 있다. 신축된 것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오랜 역사를 그대로 지녀온 고찰도 있다. 그 유구함을 부설(浮雪)같은 우리 인간 생명과 비해볼 때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종교적 기분에 포착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럴진대 사막을 정신적인 고국으로 삼는 아라비아인들이 조석으로 유일 절대신 알라에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기도에 참례(參禮)하라! 기도는 자는 것에 우선 하느니라!" 음성도 낭랑하게 사원의 선탑(先塔) 근처에서 매일 아침 매일 밤 이와 같은 아라비아 말이 들려온다. 이에 뒤이어 반시간이나 독경(讀經)하는 소리가 사파(娑婆)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통한 단련에 연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아라비아인들의 목청이 좋아서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가톨릭교회의 종소리와는 또한 그 정취가 다른 것이 있다.

회교도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모스크를 찾아가보면 반드시 몇몇 사람은 신을 벗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렀다가 다시 이마를 땅에 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리석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금자(金字)로 된 코란을 펼쳐놓고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명상에 잠겨 있다. 가족 동반도 있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런 때 옆에서 씨름을 하는 등 장난을 치는 풍경도 볼 수 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장관(壯觀)〉

회교도의 소위 터키모(帽)에 챙이 없는 까닭이 이 기도하는 격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감탄하고 있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기 꼭 알맞을 노릇이다.

어느 사람이 그곳 교도에게 코란(성전(聖典))의 영역(英譯)이나 불역(佛譯)은 없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즉석에서 "코란은 유일 절대적이어서 외국어로는 번역될 수 없습니다. 굳이 그것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역서가 아니고 코란의 내용을 영, 불어로 해석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다.

☆ 아라비아어(語)와 종교(宗教)

회교가 아랍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으나 그것이 민중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로는 상용(常用)되는 언어의 구구절절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가히 추찰(推察)할 수 있다.

아라비아 말로는 "예스"라는 대답 대신에 "알라 하나님의 뜻에 드신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외국 상사(商社)가 아라비아 상인과 거래를 하는데 "알라 하나님의 뜻에 드신다면"하는 식으로는 몇 백만 불 몇 억 불의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상대의 약속에는 역시 영어나 불어식으로 우이냐 농이냐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다. 여기 또 하나 누구나 곧 외울 수 있는 아라비아어에 "마레슈"라는 것이 있다. 그 의미로 말하면 영어의 "네버 마인"이라든지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따위의 뜻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중국어의 "몰법자(沒法子)[방법이 없다]"와 상통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마레슈"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위로할 때 이 말을 쓴다면 조금도 이

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예컨대 고용인이 주인의 귀중품을 깨트려서 야단을 맞을 때도 그 고용인은 주인에게 "마레슈"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이것을 "기왕 깨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성복(成服) 후에 약방문격(藥房文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고용인은 어지간히 유들유들한 심사를 갖인 자라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의 의미는 전자(前者)와 다소 틀리는 모양이다. 즉 그 물품이 깨지는 것은 전세(前世)의 숙연이니 할 수 없다는 천명(天命)이라고나 할까? 그런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이런 것 역시 그네들의 종교적 觀념(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겠다.

절대유일의 신의 힘에는 사람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숙명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前記)한 경우에 있어서 주인도 언제까지나 고용인을 야단만 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막이라는 자연적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환경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교에 있어서 절대귀의의 관념은 그런 데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가 비치면 비치는 대로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방임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오히려 자살행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또 그러한 순응의 생도를 취해도 죽음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천명이라고 체념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데이스라는 말린 대추(조(棗))와 물만 먹으면 광대한 사막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의 유목 방랑시대의 고난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생긴 관념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한 환경 순응주의는 오늘날 문명사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위(無爲) 무기력(無氣力)과 혼동되기 쉬우며 또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고대문명의 꽃을 피게 한 아랍 세계가 18세기말에서 제2차 대전에 걸쳐 그 무기력에 수반된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음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아라비아인과 무슨 약속이나 의뢰를 할양이면 그들은 의례히 "보구라"라는 말을 잘 쓴다. 이것은 "내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약속한 일이 우물쭈물 일주일가량 지나는 것은 보통이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니 진보 발전은 바랄 수 없다. 성미 급한 사람이면 당장 화를 낼 일이다. 그럴 때면 그들은 또 의례히 이구동성으로 "슈와이"라는 말을 잘 쓴다. 이것은 "덤비지 말라. 서서히 하자."라든가 "조금씩"이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말들은 저 대자연 속에서 작은 인간이 하찮은 힘으로 버터 보았댔자 별 수 없다는 이것역시 순응 사상의 표백(表白)이라고 할 것이다. 유구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중국인들이 곧 잘 쓰는 "만만적(漫漫的)"과도 같은 어감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아랍의 세계는 성전 코란에 의하여 규율됨과 동시에 칼과 폭력에의 관용도 있기 때문에 방심이 안 된다. 이것이 서구인의 눈에는 본능적이며 전통적인 흉포(凶暴)성으로도 보이는 모양이다. 거리에서 아랍인과 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 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교조(教祖) 마호메트가 오른손에 코란, 왼손에 칼을 들고 주변의 제족(諸族)을 제압한 역사를 회고해 보면 수긍되는바 있는 것이다.

☆ 남자(男子)의 천국(天國)

아랍의 세계는 남자의 천국이기도 하다. 남자 전제(專制)는 마호메트가 정한 계율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부녀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마호메트 전(傳)에 의하면 부상(富商)의 미망인에게 사랑을 받은 마호메트는 부인에게는 결코 횡폭하지는 않았으며 물론 오늘날의 아라비아인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부인의 지위가 낮다고 하는 것은 부인의 사회적 정치적 발언력(發言力)이 극히 적은 때문이다. 금년 1월 16일 공포된 이집트의 신헌법에는 부녀자에게 투표권은 인정하였으나 피선거권은 인정치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유(類)는 장래의 문제일 것이다. 그 보다도 각성한 부인들의 사회운동의 제일 목표는 무엇보다도 저 하렘의 해소이며 일부일처제의 확립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무릇 문명사회에 있어서 일부다처주의로 통하고 있음은 부녀자에 대하여 과혹(過酷)하며 모욕적이라고 일부 부인 층이 붉은 기염을 토하기 시작하였으니 부녀자들의 권리 획득의 시기가 도래함도 여사적인 필연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운에도 불구하고 회교도의 남자는 처의 동의가 있으면 네 사람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다. 교조 마호메트는 부인이 열이나 되었다하니 일반 신도가 네 사람의 아내를 가졌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남자의 재력 여하에 달려있다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사람의 아내를 인용(認容)하는 회교의 계율도 네 사람에 대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회교 남자에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로 생각된다.

회교도는 유태교도와 같이 같은 회교도끼리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결혼은 종교청에 등록하고 나서 2,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식을 올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즉 약혼 기간도 있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관습으로는 피로연에 신랑은 남자 손님만 신부는 여자 손님만 따로따로 초대한다. 그리고 부인의 얼굴은 우리가 간혹 사진 같은데서 보는바와 같이 베일로 가려서 타인에게 는 보이지 않는다.

아내를 넷이나 테리고 사는 남자는 구조가 갈은 가옥을 넷이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거주 구역에 다른 남자는 가까이 갈 수 없다. 물론 서구식 파티에 부인을 동반하는 것은 외교관일지라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국(某國)의 대사 부인인 한 서시(瑞西) 여자의 생활을 모 외교관 부인이 평하기를 "그것은 생활이 아니고 단순히 생존에 불과하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렘제도는 경제적 이유도 있고 해서 오늘날은 차차로 그 구애를 받지 않게 되어 시리아공화국에서는 관리는 거의 다 일부일처제라고 한다. 그러니 모름지기 지금도 이것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곳은 회교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부인들의 베일은 지금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회교 부인의 사진을 무단히 찍는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가두에서 섣불리 사진기를 들이댔다가

봉변을 당한 여행자의 이야기는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구스에 유명한 오마얏드 사원이라고 하는 회교의 모스크가 있는데 모 외국인이 언젠가 이것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자 느닷없이 그 근처에 있던 시리아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도리 없이 사진기를 빼앗길 형세에 직면하였다. 이유는 부인을 찍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시비 끝에 그 외국인은"절대로 부인은 찍지 않았다. 그 증거로 찍었나 안 찍었나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생필름을 끄집어 내 보여 겨우 난을 면했다고 한다.

과연 남자의 천국도 이교도에게는 부자유 천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기독교도가 많은 레바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비교적 자유스럽다. 그러나 역시 이교도로서 회교 부인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운 모양이다.

☆ 집무시간(執務時間)과 휴일(休日)

아라비아인이라 해도 전부가 회교도는 아니다. 더욱이 알라 신에 대하여 기도만 올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벌써 현대문명은 아라비아인들의 대부분을 정주화(定住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각종 직장에 근무하고 그 업무 시간을 지키고 있다.

위선 아랍 세계의 정부기관을 들여다보면 업무 개시 시간은 오전 8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라고는 기껏해야 수위(守衛)나 소사(小使) 혹은 급사 같은 사람들이며 관리로 호칭되는 사람들은 출근시간도 일정치 않다. 종업(終業)은 오후 2시라고 하니 규정대로 하면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이 되나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 내지 5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과의 볼일은 오전 중에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끝장이 나지 않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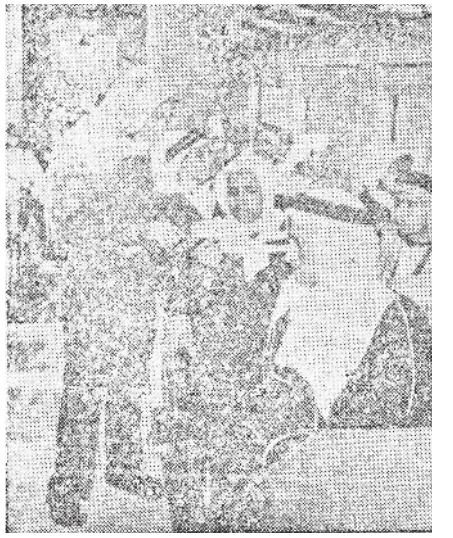
각국 외교기관은 대체적으로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와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2회로 나누어서 집무하고 있다.

일반 회사나 상점도 이에 준하고 있으나 상점은 밤 일곱 시까지는 열고 있다.

영화관이나 극장은 오후 3시, 6시, 9시 이렇게 3회 상연하고 있는데 국제항인 베이루트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바라든지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연중 장시간 일하고 있는 곳은 신문사나 호텔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간하는 것이 많으며 발간한다 하더라도 매점이 휴업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손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 물론 배달제도 같은 것은 볼 수 없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이 저렴한 것과 인구가 적은 덕택이라고나 할 것이다. 거기서 수입의 적자는 석유 이권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다음에 그들의 휴제일(休祭日)은 종교에 따라서 상위(相違)하다. 회교는 금요일, 유태교는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이 휴일이다. 그밖에 회교의 라마단(단식일)이라든지



〈아라비아인들의 기차여행(汽車旅行)〉

기독교나 유태교의 제일(祭日)도 있어 이것을 전부 쉬는 날로 계산한다면 아랍 세계는 휴제일 뿐으로 1년이 지나 간다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시간과 역(曆)은 대부분 서구식으로 되어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만은 회교력(回教曆)을 엄수하고 있다 한다. 이런 관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래자는 시간과 일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회교 시간으로 따지면 일몰이 0시인데 오후 3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면 그것은 오후 7, 8시경 만나자는 것이 되며 현재로서 내년 초하루라고 하면 그것은 금년 8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또한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수자는 자연 쓰게 되는 것인데 아랍 세계에서는 산수 문자와 아라비아 수자 병용하거나 아라비아 문자만을 쓰는 때도 있다. 거기다가 아라비아어는 바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횡서(橫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는 경우에 혼동도 생기는 수가 많은 것이다.

또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으로는 수연초(水煙草)(나루기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유리병 주둥이에 담뱃대 꼬가리 같은 것을 부착시켜 숯불을 올려놓고 뻑뻑 피우는 것인데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가 피우던 고무관으로 된 물뿌리를 돌려가며 피우는 것으로 접대한다. 때로는 손님에게 아라비아커피도 내지만 흔히 수통(수(水筒)처럼 생긴 유리병에 과즙을 넣어 놓고 이따금씩 마시다가 손님이 오면 이것을 차(茶) 대신으로 권하는 것이다.

레바논 같은 데서는 전화 같은 것은 잘 통하니까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교환대를 통해서 불러내는 구식인 것이기 때문에 통화하기까지 한두 시간은 걸리며 급한 용무에는 아무 소용도 안 된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이 세계에서는 "슈와이, 슈와이"(천천히 천천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음식물(飮食物)과 예절(禮節)

아랍 세계를 소개함에 있어서 음식물을 빼 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다종다양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네 음식과는 너무나 특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선 조미료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네들에 있어서는 초(酢)와 기름 그리고 소금이 기본으로 되어있다. 초는 과물(果物)이 많이 산출되는 지중해 주변의 나라에서는 레몬

즙으로 만들며 식유(食油)도 올리브유를 쓰기 때문에 담백하다.

재작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 아랍권에서도 많은 대표가 출석하였는데 중공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이들을 맞아 환심을 사려고 어느 날 저녁에 중국요리로 연회를 베푼바 있었다 한다. 상당한 요리가 나왔을 것이 상상되는데 여기에 출석하였던 레바논 대표는 후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우리 구미에 맞지 않았다."라고 술회(述懷)하고 있다.

아랍인들의 미각 신경이 반듯이 섬세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탕이나 간장을 친 요리는 입에 댈 수도 없는 모양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아랍 제국의 손님을 맞아 드릴 기회가 있을 외무 당국은 애초에 그들 구미를 고려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요리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들은 연회를 베푸는데 있어서 먼저 아라쿠스 주(酒)라는 식전 주를 내놓는다. 그것은 밀감껍질 같은 향기가 나는데 제법(製法)은 독특한 식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글라스에 부어놓고 빙수를 치면 젖빛이 된다. 아라비아인들은 그것을 소화가 잘 된 다고 권하는데 상용(常用)한다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다음에 17, 8접시나 되는 전채(煎菜)와 인도(印度)의 챠파티와 같이 고물이 안 든 밀가루 떡이 나온다. 크기로 말하면 직경이 7, 8촌(寸)이나 되는 둥근 떡이다.

전채의 종류는 라부니(오굴트), 홀(생강낭콩), 하모스(삶은 황두(黃豆), 화스리에, 다부리(미나리와 비슷한 잎으로 만든 사라다), 비잘(호콩 혹은 염두류(鹽豆類)), 자이쓰운(초를 친 올리브 열매), 리후트(무와 호박을 초로 담근 것), 그밖에 계절 따라 생야채 약간이다. 물론 닭의 간을 기름에 튀긴 것이라든지 쇠고기를 기름에 튀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로 진기한 것도 아니다. 생야채 잎사귀에 시큼한 라부니를 발라서 먹는 것이라든지 익히지도 않은 날강낭콩을 그대로 까먹는 따위는 처음 먹어보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진짜 요리로 말하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린애 머리통만하고 속이 빈 미트볼이나 온어(鰛魚), □어(□魚)같은 생선을 찐 것이 있고 명물로는 닭을 통째로 구운 것이거나 찐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집트 미(米)를 잘 먹는다. 그런데 이 밥을 짓는데 기름도 치고 고기도 섞고 해서 부드러운 중국식 소반(燒飯)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회식이 종료될 무렵에는 과자도 내놓는다. 찹쌀과 사탕으로 만든 양과자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풍부한 과물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밀감만큼씩 한 오렌지를 필두로 사과, 바나나, 밀감, 포도, 후루쓰 등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는다. 포도로 말하면 아랍권에서도 불란서식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구사라스라는 상표의 백포도주는 불란서 포도주와 맛이 비슷하여 제법 먹을 만하다. 과물이 나온 후에는 꺼멓고 걸쭉한 아라비아커피를 낸다. 이것을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마시면 못 쓴다. 한꺼번에 마시면 위가 상할 만큼 쓰디쓴 물이다. 그들은 흔히 그 남은 찌꺼기를 접시에 부어 그것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운명 판단을 하는 것을 식후의 좌흥(座興)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식사예절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위선 첫째로 아랍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엮어서[15]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얹어 놓은 발끝이 마주 않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음식을 쩍쩍 소리를 내면서 먹으며 음료수를 마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마시는 것이 초대를 기쁘게 생각하고 즐기는 예절이라 하니 이야말로 양식을 먹을 때와는 정반대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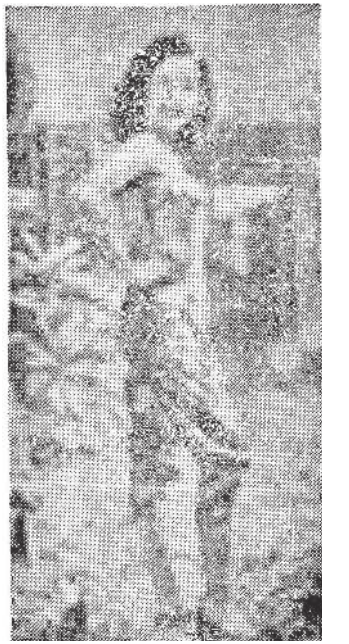
끝으로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변소를 드려다 보면 훌륭한 양식 주택에서는 수세식인데 테두리가 없고 구멍 하나로 되어있다. 바닥은 타일로나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뒤쪽에 반드시 수도꼭지 아니면 물병이 놓여있다. 용변을 하고 나서는 물로 씻어버릴 뿐 종이를 사용치 않는다. 이때 왼손만을 쓰기 때문에 회교도는 식사할 때 절대로 왼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

15) 원문의 '억겨서'를 '엮어서'로 함.

☆ 월남(越南)[베트남]의 상금(賞金) ☆

남(南) 베트남에서는 국제 예산의 균형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에게 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남 베트남 재무성에서는 정부 관리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정부 지출의 긴축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부정 관리 적발자에게 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 미스 과무 도(島) ☆

태평양전쟁 시의 격전지인 과무도에서 전쟁 후 11주년 기념일에 미스 과무 선정이 있었는데 금년 17세인 후로랜스 가민가 양이 당선되었다. 동양(同孃)은 극동여행의 상금을 획득했다.

바닷길

모윤숙(毛允淑)

이 마음 가는 곳 그 바닷길엔
저 달이 내려 나를 어루만지고
바람 연하게 섬 기슭을 돌아
내 치마 기슭에 입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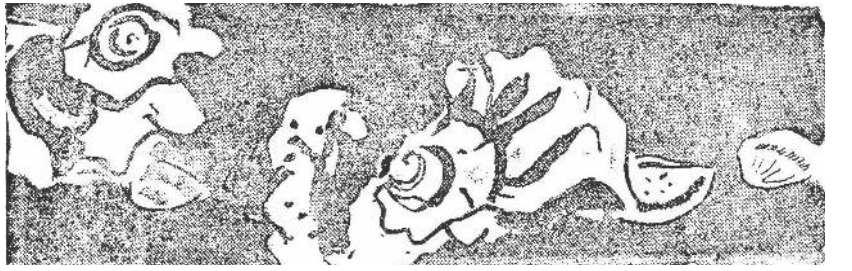
그리움에 부딪치는 저 물살들은
은꽃 금꽃으로 황홀한 비를 뿌리고
그때 떠난 때 마음 안에
가버린 그리움이 다시 피어오른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가버린 사랑이.

아 아, 생의 헛됨 다 버리고
나 홀로 가고 싶어 저 영원의 길로
별과 달 무리지어 사랑 이루는
저 푸른 꿈의 집 산호의 성(城)을 찾아

사랑도 희망도 다 함께 가자.
모진 비바람 너를 미워해도
오라 눈물의 빛나는 밤을 맞아서
달이 홀로 노 젓는 바다로

송도(松島)에서



미(美) 공군(空軍)의 유일(唯一)한 흑인장군(黑人將軍)

벤자민 O 데이비스 준장(准將)

피터 캘리셔

그날은 바로 중공군의 포대(砲臺)가 중국 본토 연안에서 불과 5마일 떨어져 있는 진먼다오(金門島)의 국부군 포대와 다시 한 번 포화를 교환하고 있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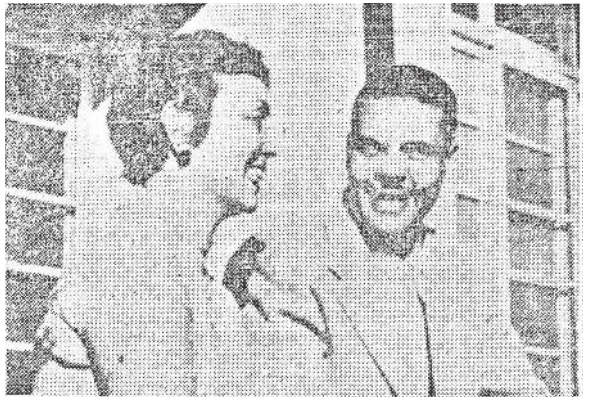
"사태는 약간 격화하는군."

하고 미 공군의 한 대령이 말하였다.

"만일 중공군이 타이완(臺灣)이나 펑후열도(澎湖列島)를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자유중국 정부와의 상호방위협정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이에 응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먼다오나 마주다오(馬祖島)만을 점령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참전 여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하튼 벤 데이비스 장군이 JOC를 지휘하게 되면 사태는 정말 격화될 것이다."

JOC는 타이완을 방위하고 있는 자유중국 공군과 미 공군의 전술 통제소이며 일단 유사시에는 미 제13기동부대 사령관 벤자민 올리버 데이비스(2세) 준장이 JOC를 지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100마일 너비의 해협은 미 제7함대가 활동하기에는 너무도 좁기 때문에 공산군이 공중공격을 가해오는 경우에는 당년 43세의 데이비스 장군으로 하여금 극동에 있는 그 어느 일성(一星) 장군도 비견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은 또 하나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 특색은 한때는 그의 상관 부하 자유중국인들의 호기심을 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평범한 것으로 변하였다. 즉 그는 미 공군에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흑인장군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 역사상 제2의 흑인장군이다. 지금은 퇴역하였지만 그의 부친이 최초의 흑인장군이었다.



〈데이비스 장군부처(將軍夫妻)〉

데이비스 장군은 키가 6피트 1인치이며 체중이 175파운드인데 그 똑바른 자세로 그의 키는 더욱 크게 보인다. 짧게 깎은 그의 머리털은 약간 희끗희끗해 보인다. 코밑에 수염을 기르고 있고 눈썹과 눈썹사이에는 훈련기의 추락에서 입은 상처가 있다.

그가 23년 전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입었을지도 모를 다른 상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데이비스 장군은 그의 클리블랜드에서의 중학 시절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의식중에 모든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를 명시하였다.

"희나는 신문 배달을 하였다."

하고 그는 과거를 회상하였다.

"어느 일요일에 우리는 한 부(部)에 2센트를 벌었는데 그때 우리는 다른 신문 배달하는 소년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쟁이 심하였다. 어떤 때에는 신문을 팔기 위해서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때도 있었다. 신문을 파는 비결은 경쟁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단골손님들이 화를 낼만큼 일러서는 안 되었다."

오늘날 타이완에서 데이비스 장군은 이와 똑같은 적극성과 재치를 필요로 하는 사태에서 훨씬 더 냉혹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해협 건너편에서는 중공군이 제트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긴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을 5개 소나 신설하였다. 이들 비행장은 지금 현재는 비어있으나 현대식 군용기에 있어서 미국과 극동의 연합국 공군보다 2 대 1로 우세한 공산(共産) 공군(소련, 중공 및 북한)은 수 시간 이내에 제트기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 공군력은 3,000대의 MIG(소련이 현재 중공에게 공급하고 있는 MIG-17 신형기를 포함하여), 1,000대의 IL-28 경제트폭격기(미국의 B-29에 해당한다), 200대의 TU—4(미국의 B-29에 해부한다) 및 약 1,000대의 구식 전투기로 추산된다. 우리는 전체적인 능률 있어서 우세하며 보다 더 현대적인 지원기를 가지고 있고 미 제7함대의 기동성 있는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군은 다른 하나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아세아에 있는 전(全) 공산 공군력이 한 중앙 집권의 사령부 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이다.

연합국 공군력의 통제가 분할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극동에 있는 공군의 한 난점이며 이것은 타이완에 재치 있는 인물아 필요한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작년 6월에 데이비스 장군은 공군기에 의한 타이완의 공중방위를 책임지는 한 사령부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제13공중기동부대로서 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 전투기대를 통제하고 JOC를 통하여 15개 비행대대에 달하는 자유중국 공군을 훈련하고 또한 그와 협조(協調)하고 있는 것이다.

교전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 있어서는 제13공중기동부대는 필리핀의 클라아크기지(基地)에 있는 제13공군의 예하 부대이다.

이 제13공군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공군의 예하 부대이며 태평양 공군은 태평양 군사령관 펠릭스 스텀프 제독의 휘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스 장군은 라이만 레미니찌 대장(大將)의 극동군 사령부 밑에 있는 극동 공군의 관할 구역인 오키나와나 한국으로부터 보급물자를 얻고 전투기대대들을 배치 받고 있다. 그러나 만일 타이완이 교전 상태에서 미국의 전술 지구로 화(化)한다면 제13공중기동부대는 제7함

대의 스튜어트 H 잉거솔 해군 중장과 그의 부사령관인 해롤드 W 그랜트 공군 소장이 지휘하는 미 타이완방위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의 임무는 타이완에 있는 미 공군부대가 언제 전투에 참가해야 하느냐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잉거솔 제독이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결정이 내렸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의 지휘본부는 녹색, 홍색 및 호박색의 수많은 전등으로 장식된 타이베이(臺北)의 루즈벨트로(路)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보초가 경비하고 있는 한 회색 건물 안이 TOC 실(室)일 것이다. 이곳에서 데이비스 장군은 공격과 방위임무를 지정하고 미국과 자유중국의 전투기대를 하나의 공격력으로 통합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통합이 데이비스 장군을 비롯하여 군복을 입은 모든 흑인들에게 개인적인 의의를 가져온 것은 불과 7년 전의 일이다. 즉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에 있어서의 흑인과 백인부대와의 분리를 종식시키고 그 통합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의 부친이 육군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공군에서 흑인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데이비스 장군은 그의 찬란한 무훈과 훌륭한 인품과 매력적인 부인을 가지고 큰 경계선을 돌파하였다.

"그는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군인이다."

이렇게 타이베이에 있는 한 해군 장교는 말 하는 것이었다.

데이비스 장군의 군인으로서의 개성은 웨스트포인트에서 탄생하였으나 그 개성은 그곳에서 거의 死 멸될 번하였다. 데이비스 장군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네 번째의 흑인이었다. 그가 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만 1년 동안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는 무언의 냉우(冷遇)를 받았다. 공용 이외에는 그 어느 사관생도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으며 그는 혼자서 방을 쓰고 있었다. 다른 사관생도들이 사실이 아닌 그의 벌점을 늘여서 그를 퇴교시키려는 한 조직적인 기도가 당시에 생도 대장이었었던 고(故) 버어트 C 리차아드슨 중장에 의해서 좌절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장군은 끝까지 참고 노력해서 1936년도에 졸업한 276명 중에서 35위를 차지하였다.

전(前) 웨스트포인트 교관이며 현재 몇 개의 별(성(星))을 달고 있는 한 장군은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내가 본 그 어느 사관생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생도였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똑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결코 옆길로 새지 않았다."

사관학교의 졸업반 때에 데이비스 장군은 비행훈련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육군항공대에는 흑인부대가 없고 흑인부대를 창설할 계획도 없다는 이유로 그의 지원(志願)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보병장교가 되어 한동안 알라바마 주의 터스케기대학(흑인대학)에서 ROC(예비장교훈련단) 교관으로 있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6개월 전에 그는 캔사스 주 포토 라일리에서 당시 제4기갑여단장이었던 그의 부친의 부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항공대로부터 돌연 그에게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초청이 있었다.

흑인만의 한 전투비행대대를 조직하려는 정책상의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당시 미국에는 단 한 명도 흑인의 육군 조종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1941년 5월에 데이비스 장군과 그 밖의 12명의 사관생도가 터스케기 육사 비행장에서 최초의 흑인 비행반을 구성하였다. 그중 데이비스 장군을 비롯해서 6명이 졸업하였다. 불과 2주일 동안에 그는 대위에서 소령, 소령에서 중령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조종 흉장을 얻은 지 6개월만에 그는 신설된 제99전투비행대대장에 임명되었다. 급속도로 발전한 당시였지만 이것은 급한 일이었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대의 유일한 정규 육군 장교였으나 데이비스 장군은 그의 부하 장교들과 동등한 조종훈련 레벨에 있었다. 현재 공군에서 중령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 중의 한 사람은 이렇게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우리들은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엄격한 기율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우리가 연습(演習)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둔 후였다. 사열 도중 그는 스토오브 뒤에 오렌지껍질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부하들에게 비행기의 조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까짓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있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99전투비행대대는 하나의 시험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며 데이비스 장군은 그 시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99전투비행대대는 북아(北阿)[북아프리카] 작전에 참가하기에는 너무도 늦게 해외에 파견되었었으나 시실리도(島) 상륙 작전 시에는 폭격기를 호위하고 지상을 엄호할 수 있었다. 안지오 상공에서의 한 치열한 공중전에서 제99전투비행대대는 독일전투기를 15대나 격추한 일이 있었다.

그때까지 데이비스 장군은 그가 미시간 주 셀프릿지기지(基地)로부터 이태리로 이끌어 온 전(全) 흑인의 제332전투비행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후에 제99전투비행대대도 이에 소속하게 된 제332전투비행전대는 6개월 동안에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제332전투비행전대의 전투기들은 제15공군의의 폭격기를 호위하여 발칸 제국, 폴란드, 루마니아 및 독일 깊숙이 장거리 출격을 감행하였다. 데이비스 장군이 진두지휘한 베를린(伯林)에 대한 1,500마일의 출격에서는 독일의 262형 제트기 4대와 프로펠러전투기 4대를 격추하였던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은 제2차 대전 중에 도합 224시간에 달하는 전투비행에서 60회의 출격을 하였다. 제332전투비행전대는 그가 호위하는 한 대의 폭격기도 적에게 주지 않았다. 동(同) 전대는 그 베를린에 대한 출격에서의 수공(樹功)으로 대통령부대표창을 받았다. 데이비스 장군 자신은 실버스타(은성훈군), 리지언오보메리트(공로훈장)

및 에어메달(항공훈장)을 받았다. 데이비스 장군이 훈장보다도 더 고맙게 여긴 것은 폭격기의 탑승원들이며 바에서 제332전투비행전대 조종사들을 만나면 그들의 목을 얼싸안고 술을 사주는 것이었다.

"당신들은 332전대 사람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소."

하고 의례히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다.

종전 후에 거의 모든 흑인 공군장병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교외에 있는 럭크번 공군기지로 전속되었는데 데이비스 장군은 동 기지사령관 겸 비행단장으로 있었다. 그리하여 1948년에 군대 내에서의 인종분리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이 내리자 데이비스 장군은 그 변경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잭크 마 아 중령은 공군의 통합안을 기초하였으며 그것은 1949년 5월에 발효하였다. 한 흑인 소령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직업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쌕크레이스(포대(布袋)경주)와 60야드 경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1마일 경주와 마라톤에서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은 알라바마 주 막스웰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작전대학에 들어갔다. 졸업 후에 그는 정식 대령으로 진급하였는데 그러한 정식 진급은 8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0일 후에 그는 펜타곤(미 국방성) 작전참모부장 밑에 있는 전투기 과장에 임명되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그의 과(課)가 제트전투기의 작전에 어떠한 전술상의 공헌을 하였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데일 카아네기의 「인간처세학」으로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세계문화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독서를 하고 있는 데이비스 장군은 토인비의 말을 알기 쉽게 환언해서 카아네기가 들었으면 유쾌하게 생각하였을 다음과 같은 말로 그에 대답하였던 것이다.

"전술은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후방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오늘의 가장 위험한 전선(戰線) 타이완에 도달하였다. 그는 제트전투기의 조종사로서 한국 휴전 중에 제51전투요격비행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도쿄(東京)로 건너 가 극동 공군의 작전국장 직에 취임하였다.

1954년 10월의 어느 날 그가 참모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다. 한 사병이 그에게 메시지를 가져왔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보자."

하고 데이비스 장군은 약간 귀찮듯이 말하였다.

그래도 그 사병은 읽어볼 것을 고집하였다. 데이비스 장군은 그것을 읽어 보았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말 하였다.

"천만 뜻밖인걸."

그 메시지는 그가 준장으로 진급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가 별(성(星))을 얻게 된 것은 그해에 미국의 정부(正副)통령선거가 있고 따라서 흑인 장군을 임명하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필연적으로 떠돌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장군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타이완에 흑인 사령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반공(反共) 선전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글쎄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미 공군 최초의 유일한 장군 벤 데이비스(2세) 준장〉

도쿄의 세이조 마찌 구(區)에서 데이비스 장군과 그의 아내 아가타 여사(전(前) 교원)는 한 셋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웃에 사는 미국인과 일본인들은 그의 문전에 「세이조 마찌 최초의 장군」이라는 간판을 세워놓았다.

"데이비스 장군과 우리와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세단 차를 빌려 탈 수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그의 한 이웃사람은 말하였다. 터스케기와 이태리에서 데이비스 장군을 기율에 엄격한 군인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다른 면도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일을 할 때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군인의 모범이었다.

그러나 따뜻한 사회의 분위기는 그의 개성의 다른 면을 녹이었다. 극동 공군장교 구락부 회원들은 일부장교들이 고의로 회피하였던 것을 발견하였다. 즉 그것은 데이비스 장군 부처가 매우 재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은 80점의 골프를 쳤고 뛰어난 댄서였으며 브릿지(트럼프 놀이의 일종)를 썩 잘하였다. 전쟁 중에는 건 사이트(총기의 조준장치)를 검사하고 우편물을 분류한 일이 있는 그의 부인은 어린애도 볼 줄 알고(데이비스 장군 부처에는 어린애가 없다) 브릿지는 남편보다도 더 잘하며 자선사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부인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그의 옷이 가장 아름다웠다.

데이비스 장군은 1개월 이내에 그 기능을 발휘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타이완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수도 타이베이가 혼잡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휘하에 있는 500명의 장병을 위한 숙사, 식당, 사무소, 혹은 통신시설 등에 대한 준비는 전연 되어 있지 않았다. 데이비스 장군 휘하에 있는 한 대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23년 동안 공군에서 일해 왔지만 당장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큰일을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였다. 제13공중기동부대는 예정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데이비스 장군은 24시간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정력가(精力家)이다. 한때 중국입법원(立法院)의 특별조치나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직접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장군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을 기어코 얻고야 말았다.

자유중국인과 친해 질 수 있는 데이비스 장군의 능력은 장 총통 부처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찍이 장 총통은 그를 가리켜 타이완을 위한 "현명하고 다행한 인선"이라고 말한바 있었다. 그러나 미 공군의 한 고급 장성은 "데이비스 장군은 외국 정부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 '노'(부(否))라고 말할 수 있는 드문 고문관이다."라고 말하였다.

평상시에 있어서의 데이비스 장군 휘하 부대의 전투력은 1개 세이버제트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타이완해협 저편에 있는 중공군의 빈 비행장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증원부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세이버제트기나 혹은 원자탄을 적재할 수 있는 F—84G 선더스트리이크기(機)를……비행대대는 3, 4개월마다 한국과 오키나와로부터 오는 부대에 의해서 교체되고 있다.

제13공중기동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유중국인의 용기를 크게 북돋우어 주고 있다. 금년 초에 그들은 원래 중국공군사령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신축 지대를 제13공중기동부대에게 양도하였다. 데이비스 장군 부처는 타이베이 교외에 있는 중국식과 미국식을 딴 한 아담한 주택에 살고 있다. 중국인들은 큰 거리에서 그 주택으로 통하는 포장하지 않은 도로를 '데이비스 장군로(將軍路)'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상공을 훈련비행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자유중국 공군기들이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고 섬(도(島)) 상공에서 MIG 전투기들과 소규모의 공중전을 하고 있으며 해협에서 중공 선단(船團)을 포착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언제 대전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소전(小戰)'은 데이비스 장군의 임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휘하 장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있다.

"아무리 풋내기들이라도 그들은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미 공군의 한 역전(歷戰)의 장교는 말하였다.

데이비스 장군은 식당에서 장병들과 한 컵의 커피를 나누면서 그의 사명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였다.

"우리는 마침내 소련인들이 다년간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능숙하게 해온 일을 현존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중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훈련과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장비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일과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우방 군대를 양성할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오래 일하면 할수록 훈련된 장병의 수는 늘어가는 것이다. MAAG(군사원조고문단)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중국인에게 더욱 인센티브를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타이완이 우리의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어 있는 그 밖의 지역과 다른 점은 언제 전쟁이 돌발할지도 모르는 이곳에는 즉시 전투작전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완을 방위하기로 되 어 있는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은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바다에 있는 섬(도)들에 대해서 포격을 가해왔으며 앞으로 그들은 중공 본토 연안의 신설 비행장에 비행기를 이동하여 이들 섬에 대해서 소규모의 공중작전을 개시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타이거(호(虎)) 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자유중국 공군총사령관 왕수밍(王叔銘) 대장(大將)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이 우의는 각계각층에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한 미국의 4성 장군은 데이비스 장군이 타이완에서 "비상한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찬양하였고 또 하나의 미국의 4성 장군은 그것은 데이비스 장군의 생애에 있어서의 고난에 행복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두 번째의 4성 장군은 다시 이렇게 부언하는 것이었다.

"그 종지부는 그의 고난에 찍힌 것이지 그의 생애에 찍힌 것은 아니다. 그의 생애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끝.

컬리어즈 지(誌)에서

☆ 사망(死亡)한 부인(婦人) 소생(蘇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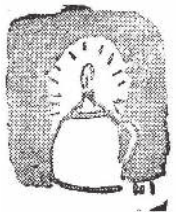
메일톤 시 병원 당국자들은 한 의사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고 사체공시소(死體公示所)에 보낸 한 부인이 수(數) 시간 후에 퇴원할 수 있었던 제(諸)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쉐일 볼시 여사는(44세) 거리에서 넘어진 후 입원하였는데 의사는 동(同) 여사가 사망하였다고 확증하고 병원차로 시 시체공시소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시소에서 근무한 순경은 볼시 여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할 때 살아있다는 징조를 보고 곧 병원차로 병원에 반송하였는데 그 즉시 건강을 회복한 결과 퇴원이 허락된 것이라 한다.

☆ 비국처녀(比國[필리핀]處女)의 행진(行進) ☆

필리핀 전통의 비린다왁을 입고 파초 잎으로 만든 구리핫드를 쓰고 게손 시내를 행진하는 필리핀의 처녀들. 이것은 지난번 게손 시(市)에서 개최된 고(故) 게손 초대 대통령의 생일 78주년 축전에서 행하여진 행진의 하나이다.

고(故) 현일(賢一)은 갔으나

공군 소령 정해영(丁海瑛)



6월 철이 접어들면 파랗게 트인 하늘을 보고 끝내 잊어버릴 수 없는 향수에 마음이 젖곤 한다.

어느 덧 휴전 3년이란 무의미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쳐 버린 눈앞의 현실은 매양 값싼 안이(安易)와 교활과 타협만을 일삼는 것뿐이 아닌가. 남북통일의 숙원을 이룩하기도 전에 훌훌히 타계의 객이 된 젊은 고인을 추도하는 염(念) 더욱 간절해지며 자꾸만 떠오르는 그의 싱싱한 모습과 추억은 어느 때보다 6월 철이 다가오면 더욱 뚜렷해지기만 한다.

그가 산화한지 만 3년이 되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옛 이야기들을 적어 보자는 부질없는 뜻은 행여 한 전우의 일화가 여러 전우의 정신생활에 좀 더 나아가선 온 겨레의 건국 의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이다.

"끝내 잊지 못할 날"

단기 4286년 6월 13일, 이날 역시 대관령(大關嶺)에는 먹장구름이 마치 담벼락 같이 까맣게 끼어 용이하게 개일상 싶지 않았다. 잠시 동해(東海) 쪽으로 파랗게 트인 하늘이 엿보였으나 10시를 접어들면서부터 점점 더 일기는 악화조로 변해가기만 했다. 이를 본 전우 중에 "오늘도 또 crenel이군."하며 사뭇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강릉(江陵) 전진기지에서 연일 출격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상적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지 않은 장해를 받았다.

6월 5일부터 이날까지 기상적 이유 때문에 전투는 사실상 중단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11시가 될 무렵 오늘도 (crenel)이라는 전달이 아닌가. 이때에 모두들 의기소침하였다. 나는 이날 (Lchednl)에 없었으므로 현일을 내방으로 데려왔다. 때마침 사천기지(泗川基地)로 다녀온 이경철(李經哲) 중위(지금은 소령)가 선뜻 들어선다. NOPKI(TAPC)에서는 이덕호(李德浩) 중위(지금은 소령)가 와 있었다. 서로 반가워 잡는 악수가 교환되었다. "야, 선물 좀 내놓아라." 대뜸 고인(故人)이 한 말이다. 이(李) 중위는 서슴지 않고 들 고 온 백에서 MILKYWAY 2개를 끄집어낸다.

나는 꼭 반을 잘라서 현일더러 "자, 내 것이 더 크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셋이 흐뭇한 단정을 나누고 있는데 해소되었다던 출격 준비를 하라는 전달이 청청벽력 같이 날아온 게 아닌가? 고인은 약간 초조한 눈치로 방을 나섰다. 이렇게 헤어진 후 아마 한 시간은 경과하였으리라. 이미 점심을 먹고 났다고 하면서 그는 helmet을 들고 내가 막 나서는 conset 모퉁이로 사라지려 하였다. "야, 현일아." 이렇게 쫓는 말에 그는 획 돌아보고 곧 웃는 얼굴을 짓는다. "오늘 돌아올 때 사진 찍어줄게." 나는 적지 않은 호의에서 한 말이었다. "얘 그만두라. 야"대뜸 제 편에서 달갑지 않은 눈치가 아닌가? 나는 쉬이 이것을 알아채고 다소 무색해 했다. 그날은 바로 김직한(金直漢) 중위(지금은 대위)의 백회 출격이 있는 날이라 많은 ○○시민이 환영차 나올 차비가 되어 있었다. 헌데 고인은 그 편대원(編隊員)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념촬영이 무더기로 있을 판국이다. 출격 가는 길에 사진 찍는 일은 꺼려했지만 돌아 온 길에 촬영하는 것은 싫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잠시 머뭇하다가 "그래."하고 사라졌지만 명호(嗚呼) 그러나 그의 첫 거절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말다니 참 꿈같은 노릇이었다. 얼마 후 많은 시민들이 편대장 김(金) 중위의 백회 출격을 환영하려 나와 기다리는데 세 대의 비행기만 초라하게(적어도 우리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 와서 내리는 게 아닌가. 허겁지겁 engine을 끄고도 편대장은 내릴 줄을 모른다. 한 사람의 편대원을 잃고 돌아왔으나 자기는 백회 출격의 영관(榮冠)을 쓰고 환영을 받아야 하느니 진실로 괴로운 전승의 윤리였으리라. 무릇 청사에 빛나는 동서(東西) 장성(將星)들이 이렇게 귀중한 눈물을 뿌리고 족히 개가를 노래하여 온 것일까? 참 이상야릇한 일이였다. 전우들은 저마다 편대장 김 중위를 끌어내리고 주먹질로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모두 말똥말똥한 눈들을 하고 있었다. 누구하나 고인의 전사(戰死)를 고하고자 안 하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안하려는 그 마음을 적시는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내일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나가서 복수하여 주마. 이렇게 뇌까리는 측은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최후(最後)의 공격(攻擊)〕

고(故) 김 대위가 산화한 곳은 한국군 제1군단 전면(前面)인 간성(杆城) 상공이었다. 지지(遲遲)하던 휴전회담이 거의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산악지대인 동부전선 일대는 피아의 진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지구전이 준 적(敵)의 이점은 큰바 있었다. 주간에는 동굴 속에 파묻혀 있다가 밤으로 공격해오는 것이라든지, 가장(假裝) 목표를 조작하는 일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고사포를 장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매일처럼 3, 4편대가 출격하는 곳이었지만 이렇게 적지(敵地)는 날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마침내 휴전협정이 오늘 내일하고 익어가자 적의 행패는 더욱 심해가는 것이었다.

그날도 우군 mosquito(T-6)는 목표 지시의 임무를 띠고 고도 4,000feet에서 유유히 떠돌고 있었다. 곧 김 대위 편대와 무전으로 연락이 되었다. 4기(機)의 fighter는 목표 상공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Mosquito에서 알려주는 목표 인(認)했다. 바로 1,600 고지능선 상에 있는 적의 야포진지였다. 고도는 경7,000이다. "공격준비" 편대장의 명령이 무전으로 내린다. 이윽고 장기(長機)는 급강하로 목표를 겨누어 때린다. 고인은 바로 다음 차례에 급강하했다.

이때 적진지는 산산이 은가루를 뿌린 듯 했다는데 눈에 쌔끗한 광채가 파도처럼 비껴갔다. 이는 비행에 위험을 줄 적의 기도로서 최근에 생겨난 적의 양동(陽動)이었다. 한데 이상하게도 그때 급강하하던 현일 비행기의 왼쪽 날개가 마치 은행나무 잎처럼 펄럭펄럭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어느 틈에 적의 포탄이 날아와서 주익(主翼) 지주(支柱)를 때린 셈이었다. 그러니 중무장을 하고 급강하 하던 비행기라 어느 결에 뛰어내릴 틈을 엿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애기(愛機)와 더불어 팽팽히 돌아 땅위에 폭파

되어 순식간(瞬時間)에 화염을 뿌리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목표에서 약간 떨어진 산중턱이라 한다. 3번 기는 그 즉시에 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4번 기는 이 참상을 목격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1회의 공격이 끝나자 눈에 불이 나게 질린 그들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상공을 선회하면서 공격을 되풀이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끝장 날 때까지 그대로 공격만을 계속하고 싶어 했을는지도 모른다.

〔위인(爲人)〕

이제 나는 고인의 사람됨을 다소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일과 즐겨하던 몇 가지 일들을 적어가면서 그의 고적(孤寂)한 환경의 일단(一端)을 소개할 때가 되었다.

시(詩)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의 약산(藥山)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그가 즐겨 암송하던 시구는 비단 소월(素月)의 것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납치당하여 가신 김안서(金岸曙) 선생이 공사(空士)에 나오심으로 해서 우선 그의 가슴을 불질러 놓은 진달래꽃이 지미(地味)한 그의 체취처럼 되어버린 셈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가 이 같은 시들을 암송하는 솜씨는 매우 세련된바 있어서 노상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 어떤 야릇한 힘이 작용하였다. 이는 작고한 후로 알려진 일이다.

쓸쓸이 고인 혼자 간직해 둘 수밖에 없었던 신원에 관한 사연만이 곧잘 그 신비성을 발휘해 준 발판이 된 거라고 지금의 나는 믿고 있다.

그가 낳은 곳은 평양 근교였으나 일찍 아버지를 일본 땅에 여의고 어린 누이동생과 어머님 슬하에서 외롭게 자랐다. 중학시절로 말하면 평원선(平元線)상에 있는 사인장(舍人場)에 위치하였으니 순탄치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드디어 어머님의 권유로 16세 되던 해에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단 하나의 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음양으로 애쓴 어머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敢히 헤아릴 바 못되리라. 하지만 그 후 얼마도 못가서 파탄은 격심해 갔다고 한다. 도시 자유 없는 땅, 어린 마음에도 정신적인 불만만 날로 자라서 어려운 가정살림에 그 마음을 붙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드디어 그는 외형상으로 는 리혼을 당하다 시피 하면서 단독 월남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된 이남 사회가 그를 반겨 맞아줄 리는 없어서 동경하던 진학 대신에 실업(實業)(유리)상계(商界)에 투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는 중에는 속기(速記)학교를 다닌다, 자습을 한다

하고 늠름히 공부에 몰두하면서 2년이나 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사교(空士校)에 응시할 생각으로 수속하던 중 갑수(甲洙)라는 본명 대신에 현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다.

이상이 그의 장의식에 오셨던 외숙(노(盧) 씨)의 말이다. 나는 당시에 하도 어리둥절하여서 새로 접한 그 사연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미처 캐어볼 염도 못 내었을 뿐더러 친우라던 자체가 쑥스러운 일 같은 느낌을 메꾸어 볼 수가 없어서 쩔쩔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생전에 애송(愛誦)하던 시구들을 통해서 족히 그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일만이라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휘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 리야."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 리야" 이때에 그의 낭독하는 유양(柳楊)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다. 혹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귀여운 외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든가 "그날이 오면"하고 절규하는 시구의 읊음이라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의 지난날을 발판으로 하고 현실을 꿰뚫려는 울부짖음으로 일맥상통하는 야릇한 힘을 늘 시현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가 각별이 좋아하기는 박두진(朴斗鎭) 씨나 박목월(朴木月) 씨의 시였다. 지금도 나는 그가 속기체로 베껴놓은 이분들의 시첩을 보관하고 있지만 여기에 일일이 열기(列記)할 겨를도 없음으로 다만 그가 좋아하는 sign이나 풀어 보고자 한다. 한 번이라도 그의 편지를 받아 본 이는 이 sign을 목격했겠지만 그 자원(字源)인 적은 바로 제비 연자다. 어느 땐가 일본방송을 듣고 있던 중 나는 이런 질문에 접한 일이 있다. "비둘기가 좋으냐, 제비가 좋으냐."고. 이럴 때에 고인이 살아있다면 아마 서슴지 않고 제비라 하였으리라. 그 후로 겨울이 가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 것을 볼 적마다 나는 이상한 사념(思念)에 잠기군 한다. 이미 아득해 진 몇 해 전 오늘에 적진 상공에서 산화한 고인이 이제금 제비와 같은 차림새로 나의 주위를 배회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그것이다.

"살아서 섧던 주검 / 죽었으매 이내 안 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화안히 / 비워 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박두진 씨의 묘지송(墓地頌)의 1절)

이 구절은 왜 그렇게 되풀이해 외웠는지 마침내 전장터에 뼈 부스러기를 뿌려놓고 사뭇 태양이나 실컷 맞고 있으리.……

〔노래〕

시와 노래는 아주 떼놓을 수 없는 위치라 하겠다. 하지만 시상(詩想)과 성대와는 아주 판이한 조건이므로 이 둘의 겸비를 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고인은 별명처럼 해골바가지라 할 만큼 해쓱한 편은 아니지만 여간 앙상한 코와 날쌘 눈살을 가졌다. 키는 1m 70 내외로 꼭 참할 정도인데 일단 무대에 오르면 노래는 마치 웅변이었다. 온몸을 쥐어짜듯이 바르르 떨며 불러대는 가락은 제아무리 무뚝뚝한 이의 가슴도 녹여놓고야 마는 것이다.

"버들 피는 능라도 언제나 그리운 섬 / 푸른 잔디 위에서 기타에 즐기며
사랑의 노래 부르던 그날 그때가 그리워 / 석양빛 붉어지면 그대가 그리워
고슬 버들 드린 섬 언제나 그리운 섬"

이렇게 한 곡조 뽑고 나면 박수와 재창이 쏟아진다. 비단 무대에서뿐 아니라 그는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모질고 고된 시간일수록 족히 그 노래 값어치는 상당한 지수를 보여주었다. 고인을 끼고 읊은 것이 시요 부른 것이 노래다. 이제 그때 가장 유행하던 몇몇 노래는 지금도 우리들 동기(同期)간에 곧 잘 불리고 있다. 그 중에도 세상에 알려있지 않은 노래로

"따뜻한 봄날의 뜰에 / 능금 꽃 필적에
봄 나비 한 마리가 / 날아왔도다.
나는 나비의 마음을 알 수 없어도 / 나비는 나의 마음을 아는가보다.
따뜻한 봄날의 뜰에 능금 꽃 필적에 / 봄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도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들인가? 이런 노래를 누가 짓고 누가 작곡했는지는 전혀 우리의 알배 아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현일이가 불러낸 노래로 족한 것이다.

봄날의 뜰에 나비와 같이 / 아름다워라 임아 추는 구나
가슴에 꽂인 장미꽃은 / 빨갛게 떨며
그리워라 내님이여 / 은반(銀盤)의 WALTZ

이렇게 노래만은 사뭇 즐겁고 경쾌한 것이었건만 명실상부하게 한 번 놀아볼 겨를도 없이 약관(弱冠) 26세를 일기로 못내 가시밭길을 더듬어 가시다니……

끝으로 나는 그가 우리들 기억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음과 같이 그는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상관(相關)하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그가 읊어 주던 시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그가 불러주던 노래가 우리들 입가에 넘나드는 한 우리는 결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어코 남북이 통일되는 날 지금은 우리가 보관 중인 그의 유품들을 이북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달하게 될 때 모름지기 우리는 그 자리를 흰 꽃으로나마 수놓아야 할일이 아니겠는가? 이는 오로지 우리 동기간의 굳은 단결과 한국 공군 위력(威力)에 기여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다 할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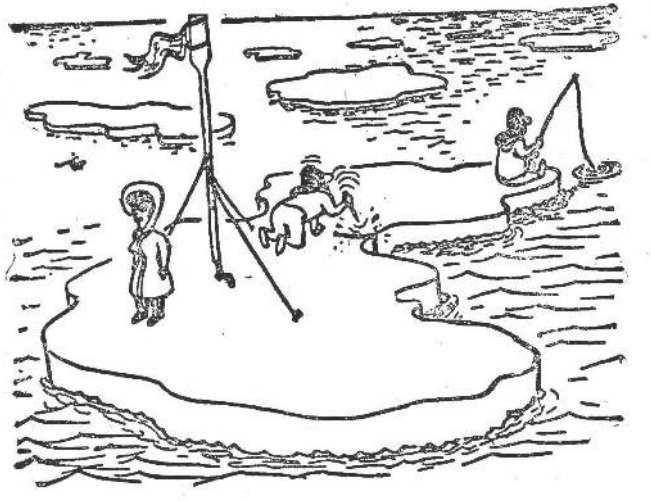
4289. 6. 13.
소령 정해영(丁海瑛) 근기(謹記)

☆ 소맥(小麥) 육류(肉類)에 키 큰다 ☆

일본 관리들은 일본인의 신장을 서양인과 같이 크게 발육시키기 위하여 호주인의 정식(定食)을 연구차 3일 도쿄(東京)로부터 공로(空路) 시드니에 비래하였다. 일본 중의원 의원 나카시마(中島) 씨, 식량기관 관리(우니지마) 씨 및 일본 제분업자(製粉業者) 대표 다카하시(高橋) 씨 등은 앞으로 수주일 간에 긍(亘)하여 호주의 소맥공업을 시찰할 것이다.

나카시마 씨는 일본인은 현재 미식(米食)을 소량으로 섭취하고 소맥과 육류를 다량으로 섭취하도록 교시를 받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일본의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도 빵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일본인의 신장을 보다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연재(連載)>

한국고전해설(韓國古典解說) (2)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이생이 담 너머 엿본 이야기)

이명구(李明九)

개성인 옛 송도(松都)에 이생이란 총각이 있어 낙타교(駱駝橋) 근처에 살고 있었다. 나이는 18, 타고난 성품이 뛰어 났었으며, 시에 대한 재주도 비상하였다. 학문에 뜻을 두어 당시 국학(國學)에 다니며 공부하였으며, 길에서도 시를 읊곤 하였었다. 한편 선죽리(善竹里)에는 큰 귀족 최(崔) 씨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나이 15~6세 된 딸 최랑(崔娘)이 있었다. 그 아리따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자수의 솜씨가 능란할 뿐 아니라 또한 시부(詩賦)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풍류 재자 이생이요
요조숙녀 최랑이로다.
그 재주 그 인물을 보면
가슴 속마저 후련해 지내

라고 노래까지 지어 읊게 된 것이었다.

이생은 책을 옆에 끼고 학교에 다니었는데 그 길은 최 씨네 집 북쪽 담 밖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담 밖에는 수양버들 수십 그루가 아름답게 늘어서있어 이생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곤 하였었다. 하루는 역시 그 나무그늘에서 쉬다가 우연히 그 담 안을 엿보았다. 향기 높은 아름다운 꽃들은 봄을 맞이하여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벌이나 나비들은 다투어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듯하였다. 그 곁에는 조그마한 누각(樓閣)이 있어 꽃 숲 사이에 은은히 비치어 있었다. 그 다락에는 구슬로 꾸민 발을 반이나 가리고 비단 장막은 나지막이 드리운 가운데에 어여쁜 한 처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수를 놓다가 지친 양 바늘을 멈추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시 한편을 읊는 것이었다.

홀로 사창(紗窓)에 비기니
수놓기도 귀찮은데
온갖 꽃 흩어진 속에선
꾀꼬리만 노래하네.
헛되이 앉아있어
봄바람을 원망하니
말없이 바늘 멈춰
이리 생각 저리 생각

X X

길 위에 저 총각은
뉘 집 도련님이고
푸른 옷 넓은 띠에
수양버들 비치었네.
어찌턴 이놈이 싀어지어
나는 제비 되면
주렴을 나직이 벗어나서
긴 담 위에 솟아 앉으리.

이생은 이 시를 듣고 마음이 몹시 간질간질 하였으나 그러나 담은 높고 뜰은 깊숙하여 어찌할 도리도 없어 그저 가버리고 말았었다. 학교서 돌아올 때 한 꾀를 내어 흰 종이에 시 세 수를 써서 기와쪽에 매어 담 안으로 던지었다.

무산 육육봉에는
안개만 겹겹이 쌓여
반이나마 나타난 뫼뿌리
붉고도 푸르른 언덕이로세.
고운님 외로운 꿈을
괴롭히지 마르고서
구름과 비됨을 들어
양대 위에 내리어라

X X

탁문군을 보려는
사마상여라
하고 많은 사랑은
넘쳐흐르네.
붉은 담 머리 위의
아리따운 복사꽃
바람에 날고 날러
어느 곳에 떨어질고

X X

좋은 인연일고

도시 나뿐 인연일고
헛되이 시름에 쌓여
날이 가고 해 바뀌네.
스물여덟 시의 구절
중매노릇 이미 이뤄
언제나 고운님 만나보아
즐거움을 나누리.

최랑은 시녀 향아(香兒)를 시켜 그것을 가져다 보니 곧 이생의 시였다. 펴놓고 거듭 읽어 보고 마음에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조그만 종이에 또한 글자 여덟을 써서 던지니, 즉

장자무의혼이위기(將子無疑昏以爲期)(그대는 의심치 마시고 오늘 저녁으로 기약을 합시다)

이생은 그 언약과 같이 날이 저물자, 최랑을 찾아갔다. 도화나무 한 가지가 담 밖으로 뻗어[16] 있는데 무엇인지 간드러지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그네 줄이었으며 대 광주리를 달아 드리워 있었다. 이생은 그 줄을 잡고 울라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마 침 달은 동산에 솟아 꽃 그림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맑은 향기는 끝없이 아름다웠다. 이생은 마치 신선 세계에나 들어선 듯 마음속으로 즐겁게 생각은 하였으나 한편 이러한 정다운 일이란 비밀의 일인 지라 두려워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도 하였다. 좌우를 둘러보니 여자는 향아와 더불어 꽃 숲 속에 있어 서로 꽃을 꺾어 들고서는 한 결에 자리를 깔아 놓고 있었다. 이생을 보고 향긋이 웃으면서 먼저 시 두 구절을 읊는 것이었다.

복사나무 가지가지
꽃들도 탐스럽고
원앙의 잠자리엔
달빛도 어여뻐라

이생은 이 노래를 받아 그 다음을 읊었다.

다른 날에 봄소식이
소리 없이 흘러나오면
무정한 비바람에
그 아니 가련한가.

여자는 이 노래를 듣자 낯빛을 고치며

16) 원문의 '베쳐'를 '뻗어'로 봄.

"저는 본시 당신과 더불어 부부가 되어 길이 즐거움을 함께 맺고자 하는데 당신은 무슨 말씀을 이다지도 급히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일지라도 마음과 뜻은 태연하거늘 장부의 의기로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까. 훗날 이러한 규중의 일이 새어나가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몸소 당할 작정입니다. 향아야 방에 가서 주과를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위는 적적하여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생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여자는

"이곳은 북쪽 뜰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누각 밑입니다. 제가 외딸이라 부모는 저를 퍽이나 사랑하셔서 연못가에 따로 이러한 집을 지으시고 봄철을 맞이하여 꽃들이 난만히 피게 되면 시녀와 함께 여기서 즐거이 놀게 하신답니다. 부모님 계신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 비록 웃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리 쉽게 들리지는 않는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아름다운 술을 한 잔 따라 이생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오늘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 한 편을 읊는 것이었다. 이생도 그에 화답하였다. 시 읊음이 끝나자 여자는,

"오늘의 일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오니 저를 따라오시어 즐거움을 이루도록 하시지요."

말을 마치자 북쪽 창으로 들어갔으며 이생도 또한 쫓아 들어갔다. 방 안에는 계단이 있었으며 계단을 올라가니 과연 다락이 있다. 방안에 차려놓은 문방 책상은 모두가 맑고도 어여뻤으며 한 벽에는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와 유황고목도(幽篁古木圖)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가 명화(名畵)이며 누구의 지은 바인지 는 모르나 그림 위에 시가 쓰여 있었다.(시는 생략함)

한쪽에는 따로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 장막이나 금침이 또한 깨끗이 차려있었다. 장막 밖에는 사향(麝香)이나 난고(蘭膏)를 다리는 향내가 나고 서로가 빛나고 비치는 모습은 황홀하여 마치 대낮과도 같았다. 이생은 처녀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다였으며 드디어 이삼일을 그에 머물렀었다.

하루는 이생이 최랑에게 말하였다. "성현의 말씀에 부모님이 계시면 나가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을 못 드린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어버이께서는 필시 문을 비껴 바라볼 것이니 이 어찌 사람의 자식 된 도리라 하겠습니까."

여자는 측연하여 옳다 하고 담을 넘겨 보내주었다. 이러한 이후부터 아니 찾아가는 저녁이라곤 없었다. 하루 저녁은 이생의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로 말하면 바야흐로 성현의 인의(仁義)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즈음은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이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이냐. 필시 경박(輕薄)한 놈이 되어 담을 넘어 나무를 함부로 꺾는 도다. 일이 환히 나타나고 보니 사람들이 모두 내가 자식을 엄히 가르치지 않는다 나무라며 한편 그 여자로 말하면 높은 귀족의 집이라 필시 너의 미친 짓으로 하여 그의 가문을 더럽히고 사람 집에 죄를 얻음이 또한 적지 않은 일이로다. 너는 빨리 영남

(嶺南)으로 내려가 일꾼을 거느리고 감농(監農)이나 하고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리하여 바로 이튿날 울주(蔚州)로 쫓겨 내려가고 말았다. 최랑은 저녁마다 꽃밭에서 기다렸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종시 오지를 않았다. 최랑은 그가 혹시 병이나 앓는가 하여 향아로 하여금 이생 집 이웃에 가서 가만히 알아보게 하였다. 이웃 사람 이야기는 이생은 아버님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간지 이미 수개월이라는 것이었다. 최랑은 이 말을 듣자 바로 병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리 저리 병석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보니 음식이 입에 들지를 못하며 말은 갈기갈기 허튼 말이요, 고운 살결은 까칠하게 말라들었다. 부모는 이상히 여겨 그 병상을 물으나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부모들은 최랑의 대바구니를 슬며시 뒤져보았다. 그리하여 최랑이 그 전날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는 무릎을 쳐 놀라며 "아뿔싸,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어버릴 뻔하였구려."

하고는 이생이 누구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서는 최랑도 다시 감출 도리 없어 가는 소리로 겨우 부모에게 말하였다.

"길러 키워주신 은혜가 깊은 어버이에게 어찌 숨기오리까. 남녀의 서로 느끼고 기뻐함은 인정의 극히 중한 것이므로 옛 노래나 글에도 이에 대한 찬송이나 경계한 말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표류(蒲柳)같은 가냘픈 몸으로서 남녀의 의(義) 아닌 즐거움을 반성치 않고 과오를 범하여 사람들의 웃음을 입으며 방탕한 짓을 하였사오니 죄는 이미 가득 찼으며 수치를 가문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생을 한번 여읜 뒤로는 천 가지 원한이 쌓여 쓰러지게 된 약한 몸으로 수심에 쌓여 홀로 있음을 견디려고 하오니 정든 마음은 날로 깊어가고 따라 병세도 날로 위중하여 거의 죽을 땅에 이르러 장차 궁한 귀신이 될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 만약에 저의 소원을 이뤄주시면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옵고 혹 그렇지 않아 저의 정성에 어긋나면 죽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리하여 이생과 더불어 다시 저승에서 만나 따를 것이고 맹세코 다른 가문을 쫓지는 않으렵니다."

이에 이르러 부모는 이미 그 뜻을 짐작하고 다시는 병 증세는 묻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달래어 그 마음을 위로하고는 매작(媒妁)의 예를 갖추어 이생 집에 보내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의 문벌을 물은 뒤에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바람을 내었다 할지라도 학문에 정통하고 인물도 그만하니 다른 날 대과에 급제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러냄을 바랄뿐 아직 그리 급히 혼사를 구하지 않겠소."

이 말을 매자는 곧 돌아와 고하니 최 씨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한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댁 도령의 재화(才華)가 사람에게 뛰어났다 합니다. 지금은 비록 궁곤하더라도 장차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속히 즐거운 잔치의 날을 정하여, 두 성이 합침이 좋지 않겠습니까."

매자가 그러한 말로 이생 아버지에게 고하니 이씨는

"나도 또한 어려서부터 책을 잡고 공부를 한다 하였으나 나이는 늙어도 아무 이룬 것 없고 노복들은 도망가고 친척이라 도움도 없어 삶이 거칠고 생활이 가난합니다. 그러하니 귀족 댁에서 어찌 가난한 선비로써 사위를 삼겠다고 하십니까. 이 필시 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집을 지나치게 칭찬하여 귀댁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매자가 돌아와 고하니 최 씨는 또 사람을 보내어

"남채의 모든 예물이나 의복 등은 저희들이 모두 갖출 것이오니 오직 좋은 날을 가리어 화촉의 날을 정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매자가 이와 같이 전하니 이 씨는 그 간절한 청에 다소 마음을 돌리고 사람을 울주로 보내 이생을 불러올려, 그 뜻을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편을 지었다.

깨어진 종 둥글둥글
다시 모일 때이러냐
은하수 오작들도
고운 때를 돕는도다.
이제야 월하홍승(月下紅繩)
굳게굳게 끌어매어
봄바람 산들 불제
두견새를 원망 마라

최랑도 이 이야기를 듣고 병 또한 겨우 낫게 되었다. 또한 시 한 수를 지었으니

나쁜 인연이란
이 좋은 인연인가
옛날의 굳은 맹세
이제야 이루련다.
어느 때 임과 함께
저 가마를 끌어 옐고
아이야 날 일으켜라
꽃 비녀를 다스리련다.

이에 길일을 가리어 드디어 혼례를 이뤄 다시 정을 잇게 되었다. 부부가 된 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마치 손을 대하는 듯하였다. 이듬해 이생은 대과에 급제하여 빛나는 벼슬에 오르니 그 이름이 조정에 빛나게 되었었다. 그러자 신축년(辛丑年)(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10년을 가리킴)에 홍건적(紅巾賊)이 서울을 노략하매 상감께서는 경북 안동으로 피하시고, 도적들은 집을 불사르고 인축(人畜)을 살육하여 부부 친척이 서로 보존치 못하여 동서로 흩어져 목숨을 도망하였다. 이생도 가족과 함께 깊은 산골에 숨었더니 한 도적이 있어 칼을 빼어 들고 따르는지라, 이생은 겨우 몸을 빼어 벗어났으나 최랑은 도적에게 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최랑을 어지

럽게 하고자 함에 최랑은 크게 꾸짖어

"악귀 놈아 나를 먹으려느냐. 내 차라리 죽어서 시랑(豺狼)의 밥이 될망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리오."

그리자 도적은 노하여 칼로 죽이고 말았다.

이생은 거친 들에 숨어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이 이미 다 섬멸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의 옛 집을 찾으니 난리 통에 불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최랑의 집에 이르니 집안이 황량하여 쥐, 새의 울음만 들려 슬픔을 스스로 이길 수 없었다. 최랑을 처음 만났던 소루(小樓)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이 탄식하였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쓸쓸히 홀로 앉아 지나간 행복을 생각하니 꼭 꿈과도 같았다. 한밤중이 거의 되자 달빛은 희미하게 집을 비추는데, 낭하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어 왔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곧 최랑이었다. 이생은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사랑함이 지극하였던지라 다시 의심치 않고 급히 물었다.

"어디에 피했다가 이리 생명을 온전히 하였소."

최랑은 이생의 손목을 잡고 길이 탄식하며, 그사이 자기의 서러웠음을 말하고 다시 살림을 이어나갈 것을 말하였다. 이생 또한 그 말에 즐겁고 감격하여 서로 그동안의 그립던 정을 풀고 산골에 감추어 두었던 재물을 찾아 집을 수리하고 두 집 부모의 시체를 거두어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예를 갖추어 합장을 하였다. 그 후 이생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아니 하였고 흩어졌던 노복들도 다시 모여, 이로부터 이생은 인사(人事)에는 조금도 뜻이 없어 두문불출하고 최랑과 더불어 혹은 시를 읊고 화답하며, 행복한 생활에 어언간 수년이 지났다. 하루 저녁은 최랑이 자기는 그만 가야한다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이생은 놀라 그 이유를 물으니,

"명수(冥數)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제(天帝)는 제가 당신과 더불어 그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다 할 죄도 없음에 저를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당신과의 남은 정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인세에 머물러 산 사람을 속일 수 없답니다."

그리고는 시녀에게 술을 내어오게 하고 옥루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한가락마다 눈물을 흘림에 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생 또한 비감하여 백년을 같이 산 후, 같이 흙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나 최랑은 당신의 목숨은 아직 더 남아있고 저는 이미 귀록(鬼籙)에 이름이 올라 오래 보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그리워하여 칙에 벗어나면, 비단 저에게 죄가 내릴 뿐 아니라, 화는 또한 당신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남은 해골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비바람에 쏘이지 않게 거두어나 주십시오."

서로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최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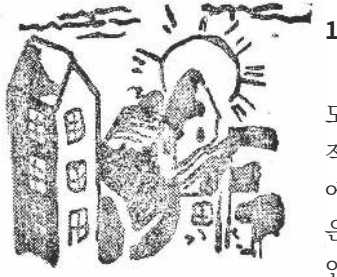
"몸조심 하옵소서."

말이 마치자 그 자취는 점점 사라져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이생은 그 뼈를 거두어 어버이 무덤 옆에 장사를 지냈고 장사를 마친 후 이생 또한 최랑 그리운 마음에 병이 들어 수개월이 못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필자(筆者)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 교수(教授))

전쟁(戰爭)과 국제법(國際法)

박관숙(朴觀淑)



1. 전쟁(戰爭)의 의의(意義)

전쟁은 여러 가지 견지에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찰하여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한 마디로 국가 간의 무력에 의한 투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전쟁은 국가 간의 투쟁 관계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과의 투쟁이나 개인과 개인과의 투쟁은 전쟁이 아니다. 또 한 국가 내에 있어서 정통 정부와 반란군 사이에 무력에 의한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이것은 국내적인 내란 또는 반란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정통 정부를 상대로 하고 무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반란군이 본국 정부 또는 외국으로부터 교전 단체로서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반란군은 내란이 계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전쟁의 주체로서 인정되며 따라서 그 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전쟁 관계로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간의 투쟁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 있어서의 정통 정부와 교전 단체와의 관계도 이에 준하는 관계로 된다. 다음에 전쟁은 국가 간의 무력을 중심으로 한 투쟁 관계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전쟁 양식이 많이 변천되어 전쟁은 과거처럼 단순한 무력전에 그 치지 않고 무력 이외에 경제력, 사상력(思想力), 선전력(宣傳力) 등의 요소가 상당히 가매되고 따라서 전쟁은 무력전인 동시에 경제전, 사상전, 선전전으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어 소위 국가 총력전의 양식을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금(現今)에 있어서도 전쟁이 역시 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무력투쟁이 아닌 투쟁 관계는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소위 '냉전'이 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의하지 아니한 대립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끝으로 전쟁은 국가 간의 투쟁 관계 또는 투쟁 상태이며 개개의 투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무력투쟁이 연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중에 투쟁 자체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쟁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쟁 도중에 휴전협정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무력에 의한 투쟁 즉 전투 행위는 중지되지만 전쟁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전쟁 관계는 다시 정식 강화(講和)에 의하여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은 개시로부

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개개의 투쟁은'전쟁'이 아니고'전투'이며 말하자면 복수의 전투가 합쳐서 하나의 전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전쟁은 국가 간의 무력에 의한 투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고 수행된다. 따라서 전쟁은 침략전쟁, 방위전쟁,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 제재를 위한 전쟁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전쟁은 국가 간에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당사국 간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 당사국이 이를 자기의 의사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든가 자위전쟁이라든가 또는 제재를 위한 전쟁 같은 것은 일견(一見)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침략전쟁도 결국에 있어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일정한 요구를 제출하고 이것이 수락되지 않을 때에 침략 행위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역시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자위전쟁이나 제재를 위한 전쟁도 침략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또는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위이니 만큼 역시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자력 구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戰爭)의 금지(禁止)와 범죄화(犯罪化)

흔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국제법상으로 전쟁은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국제법의 시조라고 불리고 있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이래로 여러 학자들이 전쟁을 적법한 전쟁과 불법한 전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불법한 전쟁을 금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 노력은 수포에 돌아가고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여 법적 규제의 범위 밖에 방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때에 있어서는 다만 전쟁이 개시된 후에 있어서의 무력행사 즉 가해 수단에 대하여서만 어느 정도의 금지 내지 제한을 하는데 불과하였다. 즉 주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비(非)교전자에 대한 공격 금지, 일정한 무기의 사용 금지, 무방수(無防守) 지역 및 비군사목표의 포격 폭격 금지, 포로, 상병자(傷病者)의 보호 등을 규정한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가해 수단 제한 법규는 1907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문화되었다. 이와 같이 1차 대전 전에 있어서는 전쟁 개시 자체는 통제하지 못하고 다만 전투 행위에 대하여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전쟁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 자체를 금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즉 1919년의 국제연맹규약에서는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연맹이사회, 총회(總會) 또는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에 제소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국제연맹규약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서는 전(全) 연맹국이 공동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1928년에는 소위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전쟁의 포기를 선언하고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즉 침략전쟁을 말함)과 분쟁 해결을 爲한 전쟁 및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에서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행위에 대한 공동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전쟁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개별적인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 전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차 대전 이후부터는 국제연맹규약을 비롯한 여러 조약에서 전쟁 자체에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금(現今)에 있어서는 무력 사용은 오직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거한 자위권의 행사인 경우와 동(同) 헌장 제8장에 의거한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과 제재를 위한 무력 사용은 그 자체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침략전쟁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방위 또는 제재하기 위한 수동적인 무력행사이므로 이것은 침략전쟁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만 금지되면 존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쟁은 그 어떠한 것임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전문(全文) 111조에 긍(亘)하는 방대한 조문 중에서 전쟁이라는 문구는 그 전문(前文)의 모두(冒頭)에서 "전쟁의 참화로부터 장래의 세대를 구하고……"라는 한 마디만 사용하였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쟁은 완전히 부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고는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 특히 침략전쟁은 이를 범죄화하려는 경향까지 생기게 되었다. 즉 종래의 국제법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달라 불법행위와 범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다라서 전

쟁도 다만 조약상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뿐으로 이에 위반하면 다만 사후에 피해국을 구제하여 주는데 그쳤고 가해국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전후에 가해국이 피해국에 지불하는 배상도 형법상의 벌금보다는 민사법상의 손해 배상으로서 생각되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전쟁 특히 침략전쟁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피해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큰 위협을 주고 해악(害惡)을 끼치는 것이므로 마치 국내법상에 있어서의 살인이나 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생겼고 더욱이 이번 2차 대전 후에는 사실상 침략전쟁을 감행한 독일과 일본에 대하여서는 그 전쟁 책임자 즉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한 자들을 전쟁 범죄인으로서 재판하여 처벌을 하였다. 즉 독일 뉘른베르크(Nurnberg)에 있어서의 국제군사재판정에 의한 리벤트로프[17] 이하의 독일 수급(首級) 전쟁 범죄인의 처벌과 일본 도쿄에 있어서의 도조(東條) 이하 수급 전쟁 범죄인의 처벌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현금에 있어서는 전쟁은 다만 조약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침략전쟁은 다른 일반적인 조약 위반과 구별하여 범죄로서 규정하고 그 책임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물론 전쟁 범죄인의 처벌은 엄밀한 법리론적 견지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난점은 없지 않다. 즉 전쟁은 국가의 행위인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 지 울 수 있느냐의 문제, 최고책임자 한 사람을 처벌하면 모르되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취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의 문제, 전쟁 범죄인의 처벌은 지금까지 처벌 법규가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침략전쟁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국내법상의 살인이나 강도 이상으로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현재 각 국가의 법적 확신도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의 전쟁 범죄인 처벌의 선례는 적어도 전쟁의 범죄화를 지향하는 국제법의 결정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연합헌장하(國際聯合憲章下)의 전쟁(戰爭)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현재에 있어서는 전쟁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특히 침략전쟁은 범죄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무력의 사용이 용허되는 것은 다만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의 경우와 침략자에 대한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만 국한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및 집단적 제재를 위한 무력 사용은 종래의 전쟁과는 그 성격이 전혀 상이한 것이다. 즉 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은 타국으로부터의 침략 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취하는 부득이한 조치이며 이 조치도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권의 행사도 현재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처럼 무제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제연합의 통제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허용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또 집단적 제재를 위한 무력 사용도 각 국가의 자유의사에 의한 개별적인 무력 사용이 아니고 침략자에 대한 경찰 행위로서 국제연합의 지시와 결정에 의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력 사용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테두리 내에서의 행위인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종래의 전쟁의 개념은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속에 발전으로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국가의 무력행사는 오직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내에서만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로서만 용허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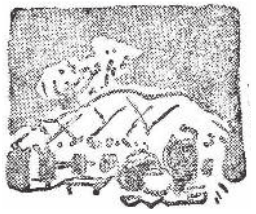
끝으로 이러한 전쟁 개념의 변천에 따라 일언(一言)하여야 할 것은 중립 개념의 변천이다. 중립 개념이란 원래 전쟁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고 또 전쟁이 직접 이에 참가한 당사국만의 이해관계 사항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개념으로서 교전국에 대한 제3국의 공평과 무(無)원조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전쟁 자체가 금지되고 또 전쟁은 곧 국제사회 전체의 중대한 이해관계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때에 있어서는 국외(局外)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 있어서는 전쟁 개념과 동시에 중립 개념도 또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된 것이다.

(필자(筆者) 이대교수(梨大教授))

17) Joachim von Ribbentrop

군인(軍人)과 종교(宗教)

엄요섭



군인이라고 해서 종교가 특별히 필요하다 혹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군인이거나 아니거나 그 직무여하가 종교의 필요 여하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고로 군인과 종교라는 제목이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제목 같으나 그러나 특별히 생각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군인생활을 하여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싸워가며 살아간다. 니체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학교수를 집어치우고 총을 들었다. 그리고 유명한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 교수는 군인생활에서 인간을 이해하였다. 전쟁은 수많은 문학작품, 미술작품, 기타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문화면에 있어서 또 국민생활 전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군인생활이란 어떠한 커다란 충동 가운데서 사는 생활이다. 또한 인간으로서는 가림이 없는 인간 그대로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생활이 즉 군인생활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첫째로 종교는 인간을 바로 보는 데 있다. 인간이란 한없이 더러운 것이다. 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극히 더러운 싸우려고만 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인간이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그 인간이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그 인간을 장식한 한 개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일제 시대에 그 무시무시하던 군인과 경찰관도 8·15가 되어 그 군복장이 인형에 걸쳐놓은 의복같이 되고 말 때 그 인간도 별 것이 없었다. 어느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고직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굽실거리기에 자기를 보고 굽실거리는 줄 알았더니 그 직을 그만두고 나와 한 시민이 되고 보니 누구 하나 자기를 존경하지 않더라고 쓸쓸하게 말함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을 쓴 고 정경옥(鄭景玉) 교수는 말하기를 인간의 지식이란 거지가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것저것을 따서 꾸며놓은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시 계속하여 말하기를 인간은 다 벌거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가 인간이라고 말하였다. 다 벗고 나면 인간은 마찬가지이다. 막스 베버는 이 다 벗은 상태의 인간을 군인생활에서 보았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다 벗겨놓으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을 군인생활에서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베버의 경험인 듯하다. 이렇게 인간을 죄인으로 볼 때 이러한 인간에 환멸을 느끼고 또 이러한 인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심리상태를 가지게 된다. 인간은 인간 그대로를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의 이성은 또다시 더러운 자기의 인간성을 일면 긍정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 즉 자기 상태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즉 인간의 이성이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은 완전자 혹은 최고의 가치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종교 상태에 들어가는 인간이다.

둘째로 군인생활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급격한 변동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새로운 역시를 창조한다. 문화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새로워지거니와 인간적으로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군문이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로 강한 충동에서 변하여 새사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군인의 생활은 뛰어오르는 비약이 생긴다. 즉 종교적인 것에로 뛰어오르는 비약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군인의 생활은 허무주의적인 자포자기적인 경향이 많다. 이것이 즉 민족의 비극이다. 나라의 기둥이 썩어져 들어가는 비극이다. 청년들 머리에 이성이 없어지는 추락이다. 이것이 과연 민족의 비극이요 인간의 추락이라면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우리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는 군인은 전쟁 시에 적을 죽이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와 종교적 신앙과 합치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즉 종교와 전쟁 문제이다. 이 문제는 따로 써야할 문제이나 결론만을 말한다면 종교는 개인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란 민족윤리문제이고 개인윤리문제가 아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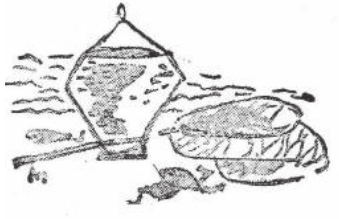
결론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군인이 높은 이상을 가질 때 민족의 이상이 실현된다. 군인이 건전할 때 민족의 장래가 건전하다. 이 이상과 건전이 어디서 오겠는가. 배부른 밥에서 취하는 술에서 그렇지 않으면 돈에서 오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급장에서 오겠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독자 자신이 생각할 해답이다.

(필자(筆者) 목사(牧師))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의 교차지(交叉地)

내가 보고 느낀 홍콩(香港)

제5비행단공륜전대(第五飛行團空輪戰隊)
공군 대위 고영일(高英一)



우리 공군에서 처음으로 왕복 약 2천 6백마일이나 되는 홍콩에 도양(渡洋) 비행을 하게 된 역사적인 비행에 비행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미숙한 본인이 일행의 일원으로 참가키로 결정되었을 때 생후 초유의 일임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임 장교님의 지도아래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 와보니 감개가 새로워지며 짧은 해외여정이었건만 그래도 보고 듣고 느낀 가지가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허나 마음만 앞설 뿐 필설(筆舌)로서 표현을 다하지 못한 채 미숙함을 무릅쓰고 「코메트」지(誌)를 통해서 장병 여러분에게 감회의 일단(一端)을 피정(披汀)하고 자 합니다.

☆ 미전술공군기지(美戰術空軍基地) 오키나와(冲繩)

출발 일자인 6월 24일 새벽 6시 신유협(申攸俠) 대령님, 김양욱(金良昱) 중령님 등 전원이 브리핑실에 모였으나 기상 불량으로 뒤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기지지휘소 앞에는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참모께서 우리들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시간보다도 약 4시간 후인 오전 10시 50분 우리들의 장도(壯途)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며 전기(全機) 무사히 이륙하여 일로 목적하는 OKINAWA로 기수(機首)를 잡았다.

비행 도중 기상이 여의치 못하여 각 기(機)는 계기(計器) 비행 상태로 운중(雲中) 비행을 하였으나 일본 규슈(九州) 남단의 가고시마(鹿兒島)를 좌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구름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OKINAWA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지점부터는 구름을 점점이 볼 수 있을 뿐 맑은 날씨였다.

목적하던 OKINAWA 상공에 이르러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은 가옥과 신장로(新裝路)를 내려다보니 2차 대전 시의 격전장이라고 말 할 수 없을 만큼 복구되어 경탄하였다.

OKINAWA의 KADENA 기지에 전기 무사히 착륙하고 보니 그 기지야말로 전술 공군기지로서의 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훌륭한 설비, 건물, 그리고 주위 환경 등이 갖춰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충실하였음을 느꼈다.

남쪽답게 바람에 습기가 있어 몸이 끈적끈적하였다. 그곳 기지지휘소에 들어서 보니 울긋불긋한 옷차림의 미국 여성과 어린애들이 보여 미국 본토의 어느 공항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 야자수(椰子樹) 그늘진 타이베이(台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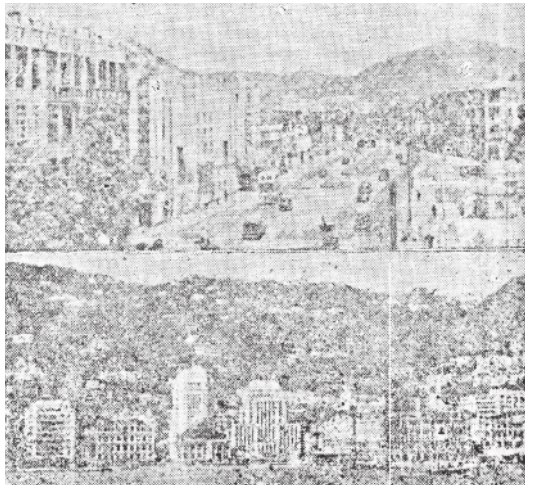
전원은 주식(晝食)을 마치고 오후 늦게 OKINAWA 기지를 이륙하였다. 그 때문에 20시에야 자유중국의 임시수도인 타이베이기지에 도착하였다.

당지(當地) 주재의 김홍일(金弘壹) 대사를 비롯하여 교포 몇몇 분 그리고 중국 공군의 타이베이기지단장이 우리들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며칠을 두고 우리들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 공군과 똑같은 임무와 중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중국 공군, 다시 말하면 우리 공군의 북진 남북통일과 자유중국의 본토 해방이라는 같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자유중국 공군 장병을 대하매 스스로 반가움과 동지적인 우의가 북받쳐 올라오며 아울러 그들의 엄격한 군기를 목격하고 그들의 본토 해방의 기개와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는 듯 싶었다.

거리에 그늘진 야자수는 남양의 정서를 풍겨주었으며 상점에 가득한 바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수박은 우리들의 구미를 듬뿍 돋구어주었다.

중국의 명물인 삼륜차는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자유중국 장병이 자전차로 퇴근하는 것을 무수히 보았을 때 거기서도 그들의 결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유중국의 수도이면서도 우리나라 서울에 비해 고급차가 적은 것을 또한 보았을 때 그들의 검소한 생활면과 아울러 자립경제 확립에의 노력을 찾아



〈상(上)은 구룡(九龍)의 번화가, 하(下)는 홍콩의 정치중심지〉

볼 수 있어 매우 부러웠으며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민관군이 합심합력해서 실지(失地) 회복, 본토 해방을 지상(至上) 과제로 삼고 있음을 여실히 목격하였다.

〈OKINAWA의 오막살이 집〉

중국 공군장교숙소에서 일박한 다음 익일 일찍이 출발할 예정이었었는데 통신장치의 일부를 CAT에서 차용하는 관계로 12시 10분에 타이베이기지를 이륙 일로(一路) 홍콩으로 향했다.

☆ 이국정서(異國情緖) 그윽한 홍콩

최종 목적지인 홍콩 KAITAK 기지에 전기 무사히 착륙한 것이 15시 30분이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식민지의 단 하나인 이 KAITAK 공항은 전면(前面)이 DIAMO NDHILL, 다른 한쪽은 바로 항구의 기슭에 접해 있으며 또 한쪽은 절벽에 둘러 싸여 있는 것이 흡사 우리나라의 횡성(橫城)비행장 같아서 착륙에 주의를 요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외 부영사께서 우리들 일행을 영접해 주셨다. 제반 정리가 끝나자 부영사의 안내로 전원이 IMMIGRATION OFFICE로 가서 여권의 조사와 서류 기입 등의 수속을 끝내고 세관과로 거쳐 자동차로 비행장에서 약 3마일이 되는 구룡 시내 금문주점(Golds Gate Hotel)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신(申) 대령님과 부영사로부터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들었다. 이곳의 풍습, 언어 등 상세한 말씀을 들은 다음 여장(旅裝)을 풀었다.

그 호텔은 서울의 반도호텔보다 작았으나 규모와 시설이 굉장하였다.

☆ 홍콩(香港)

극동의 보국(寶國), 세계의 교차로, 다시 말하면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가 홍콩이다. 어쨌든 홍콩은 관광객의 중심지이며 무역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교통의 교차지로서 매우 중요한 영국의 직할 식민지이다.

서기 1841년 아편전쟁(阿片戰爭) 말에 중국은 홍콩도(島)를 영국에게 양도했으며 뒤이어 1860년 구룡 본토도 차용 계약에 가산되었다.

영국 통치하에 따라 구룡 본토의 암석만의 섬은 비상한 중요성을 띠게 되어 세계에 있어서 최대의 물자집산지로 변했다. 홍콩은 로맨스와 모험을 연상케 하며 그 이름마저 매우 로맨틱하고 이국 정서적이다. 홍콩의 뜻인 즉 방향(芳香)의 항구를 의매하고 본토의 구룡은 아홉 마리의 용을 의미한다.

방향(芳香)의 항구와 아홉 마리의 용을 비해 어느 쪽이 더욱 로맨틱하며 모험적이며 스릴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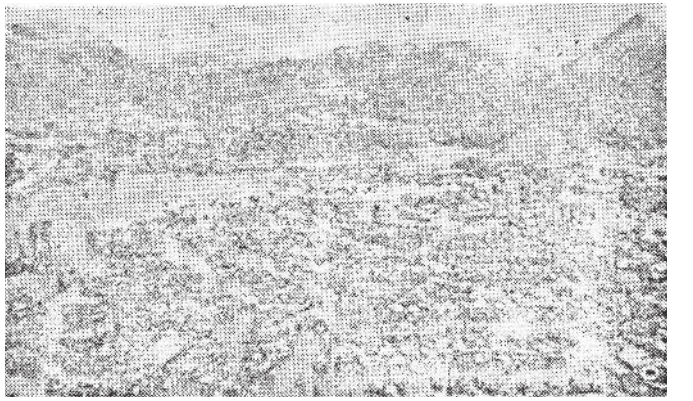
홍콩은 뉴욕시와 런던시보다는 작은 곳이나 세계 각국인이 살고 출입하며 마천루를 연상케 하는 고층건물이 즐비하여 우리들 이국인의 눈을 황홀케 하였다. 홍콩과 구룡에서 중공 인민이 사는 부근까지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므로 한 시간의 기차로 달수 있다.

민중의 통속적인 신앙과 개념에 반해서 홍콩은 퇴보한 곳이 아니고 가장 유행의 첨단을 가는 곳이며 세계 어느 일류 도시에도 못지않게 현대적이다.

홍콩의 도로는 깨끗하고 잘 보수되어 있었으며 최신식 미영(美英)의 자동차가 거리에서 흔하게 눈에 뜨인다.

반면 중국을 표상(表象)하는 인력차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특이한 한 가지는 여자들의 운전을 허다하게 보았으며 자동차 뒤의 백판(白板)에 홍색(紅色)으로 학자(學字)를 써 붙인 차를 흔히 보았다. 그곳 사람에게 질문해보니 운전 면소(免訴) 없이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이라 한다.


〈촌락(村落) 이룬 장크선(주(舟))〉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중국인 상점에서는 에누리를 3분지(分之) 2 이상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에누리를 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샀다는 맛이 안 나는 모양이다.

〈중국인(中國人) 상가(商街)〉

구룡과 홍콩 사이에서 많은 쟝크선을 볼 수 있는데 살림을 배안에서 하며 그들은 출생해서 생애를 마 칠 때까지 배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들의 최고의 희망과 최후의 희망이 자식을 큰 배의 선원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를 테면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 대선(大船)의 선원이 된다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배에서 번 돈은 상륙하여 은행에 예금한다고 하며 그들의 예금액이 또한 무시 못 할 정도의 액수라 한다.

☆ 그들의 풍습(風習)

홍콩은 연초(煙草)와 술을 제외한 어떤 것이던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 각자의 직업 선택은 자유이다. 중국의 제일(祭日)과 의식(儀式)의 대부분은 몇 십 년이나 이어 내려온 신앙과 관습에 근거한다.

중국인들은 대부분의 제일에는 폭죽(Fire Crackers)을 올리며 대사(大事)를 즐긴다 한다. 이 모든 커다란 제전(祭典)에 있어서 길조(吉兆)의 동물인 용, 사자, 일각수(一角獸)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그 의식이 완전한 격식에 맞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동물들의 모형을 많이 볼 수 있다. (끝)

<현대시(現代詩)의 이해(理解)와 감상(鑑賞)>

현대시(現代詩)의 난해성(難解性)

알기 쉬운 시(詩)와 어려운 시(詩)의 한계(限界)

김규동(金奎東)

1

시를 사랑한다거나 시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현대시를 깊이 이해하고, 이것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한 폭의 추상화(抽象畵)를 대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렇게 생긴 사람의 형체란 이해할 수 없다 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를 읽고서도 역시 무슨 뜻인지 저만 아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나 모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어서 그것이 지니는바 내용, 즉 작품의 의미가 이해되어서 어떤 공감을 자아낼 수 있어야 훌륭한 예술이지 자기 혼자만 아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를 만들어 냈댔자 아무 소용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옳은 주장일수가 있을까!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고 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도 이것을 바라 마지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에 널려서 있는 실용적인 물건과는 달라서 어디까지나 미적 가치 관념의 테두리 위에서만 음미되고 검토되어야 할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의 본질에 대한 옳은 파악, 즉 작품의 물질성에 대한 교양 있는 안목이 서있어야 그 것을 옳게 할 수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감상해 낼 수가 있다는 말이다.

간판 그림은 피카소나 마티스의 그림에 비할 나위도 없이 많은 대중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가 있으며 교향곡은 좀처럼 그 표가 팔리지 않아도 유행가는 표가 잘 팔린다는 정도를 넘어서 언제나 극장이 대만원을 이룬다.

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괴테나 하이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오늘의 세계적인 시인들인 T.S 엘리엇이나 스펜더 혹은 바레리,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전연 대중의 애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감상객이나 청중이나 독자가 양적으로 훨씬 적은 현대회화나 심포니나 현대시는 예술의 이름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가령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청중을 차지하는 음악이 가장 훌륭한 예술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는 한사람의 간판공이 그린 나체가 최고의 예술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이며, 또 시의 부면에 있어서는 유행 가사나 동요를 전문으로 쓰는 사람이 그 최고의 예술가가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이것이 정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림을 음악을 또는 시를 제작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도 만들어 내야할 외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태로운 고역일까 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예술품이란 보통에서 떠난 물건일게 분명하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소재의 집적(集積)이나 보통 있을 수 있는 거리의 화제(話題)를 제아무리 아름다운 색채나 음이나 언어로서 형상화하여 보았댔자 그것은 벌써 과거에 있어온 그 모든 예술의 추종이나 모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의 되풀이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유행가사가 시가 아님은 그것이 강렬한 창조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때문이라 하겠다.

상식을 노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어찌 시인이란 동물이 인간의 원시적 유치한 감정이나 본능만을 노래 부를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란 원래 감정적 동물이란 구실로 해서 인간이 지닌바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려는 태도는 극히 몽매하고 무식한 사람의 생활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성이란 다름 아닌 인간에 있어서의 고양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교양의 도(度)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요, 따라서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계층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으로 넓은 지식과 교양을 아울러 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잘 것 없이 지적 분별을 갖지 않은 몽매한 사람들이 수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란 현대에 있어서 항상 극단적이라고 불리도 옳을 만큼 지성의 첨단을 가고 있는 인간이다. 그는 실로 고독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자

기혼자만 지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취미나 사상에 응해 주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다.

그토록 높은 차원 위에 서 있는 것이 현대지성의 지도자인 화가요 음악가요 시인인 동시에 작가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높은 지성들에 의하여 창작되는 작품은 보통 있는 지성들이나 그 이하의 차원 위에서 쓰는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분별하고 검토하는 일은 현대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일몫이 될 것이다.

2

옛날 사람들은 줄이 하나뿐인 악기를 켜도 울 수 있었으나 현대인은 교향악과 같은 모든 악기가 총동원된 음악에 비로소 감탄하는 것이며 무성영화 시절의 사람들은 토끼가 없어도 그것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으나 오늘은 벌써 그럴 수가 없이 되었다.

문명의 발달이란 것은 매우 가속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어지간히 어리벙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기증을 자아낼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문화를 겸하여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는 문명의 세계에 있어서 어쩌면 시만이 홀로 19세기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옳단 말인가?

19세기 이전의 시인들의 예술은 단순하고 알기 쉬웠는데 현대에 사는 시인들의 예술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즉 전자는 지적 차원이 훨씬 낮았는데 비하여 후자는 비약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것이 높아졌다.

19세기 인간의 감정은 오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나 현대인의 높은 감정을 지적훈련 없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일게 분명하다.

미레의 그림은 알 수 있으나 세잔느, 고흐, 마티스의 그림은 좀 어려울게 분명하며 괴테의 연애시나 쉐리의 애상시구는 족히 감상해 낼 수 있는데 바레리의 「해변의 묘지」같은 시집은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9세기에 살던 인간의 사고는 복잡하지를 않고 비교적 단순했던데 비하여 현대인의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며 또 그 사고 자체의 형태가 고차원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인의 복잡한 감정적 체험이나 사고의 특수한 형태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말 때, 19세기 식의 교양 밖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현대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술—즉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건축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서정주(徐廷柱)의 「화사집」은 멋이 있는데 이상(李箱)의 시나 박인환(朴寅煥)의 시는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들도 시인의 축에 끼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R씨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류 간다는 신문의 편집책임자였다.

일류신문을 편집한다는 소위 인텔리급의 R씨조차가 김소월, 서정주는 이해하면서 그보다 훨씬 생명적인 요소를 그 작품 속에 담고 있는 박인환을 몰라보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정주의 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란 것은 다름 아닌 19세기의 자연주의인 것이다. 그는 19세기적 인간의 고뇌를 영원한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듯싶은 인상을 풍겨주는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시가 인생파적인 계열의 그것으로서는 우리 시단에서 그 누구의 그것보다도 완성에 가까워 보이는 것은 그의 뛰어난 시의 테크닉 때문이 아니면 아니 될 줄 믿는다.

시에 있어서의 음악적 요소가 서정주에게 있어서는 영원불멸의 가치 관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정주의 시는 벌써 오늘의 예술일 수가 없이 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괴테나 슈베르트나 베토벤이 살던 시대의 예술이지 오늘의 기류 밑에서 오늘이란 특수한 사회의 제약과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 감정에 자극을 가해주는 예술작품일수는 없는 것이다.

서정주의 시가 아무리 깊은 공감을 독자에게 자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서정주의 '이데'를 갖고, 보다 완전에 가까운 시작을 해놓은 시인들이 고금동서에 수두룩한 것이 아니냐?

3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시대는 새로워지는 것이며 문명은 발전하여 가는 것인 것이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르네상스시대의 인간관이어야 하며 문호 톨스토이의 종교주의는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이즘'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을 음미할 때에 그 작품 하나만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뚝 따서 어떤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상하거나 읽는다는 데서 비극은 흔히 야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병(病)이 바로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와 꼭 같은 생각 또는 꼭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무모한 뜻을 품는 돈키호테의 군상들을 낳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괴테와 꼭 같은 스타일로 시를 쓴다든지 김소월의 시풍(詩風)을 그대로 살려서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하등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사실보다도 먼저 김소월이나 괴테가 오늘의 사람이 아니고 지나간 역사속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다면 구태여 낡은 것에 생명의 근원을 찾아 헤맬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냐?

정말 야심이 있다면 오늘의 괴테, 오늘의 김소월이 되어 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들의 예술의 소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또는 변모해가는 문명의 인상 속에 얼마든지 널려져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들 주위에 파생하는 이러한 뭇 현상들에 대하여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예술은 좀 더 현실과 사회의 반영, 내지 비평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발휘 해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새 세대의 인간은 새 세대의 미학을 배워야 하며 새 시대의 응화관념(ideoplasty)을 통하여 사물을 관조하는 태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서 신문이 사화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진대 예술도 인간이 창조하는 사회적 산물인 것일게 옳다.

예술가는 언제나 새 시대의 인간을 그리되 그 인간상을 통하여 시대와 현실에 대한 비평을 망각할 수가 없다. 고도한 비평정이야말로 예술의 가장 높은 생명이자 가치라고 한다면 비평정신—즉 시대정신이 결립된 문학작품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오늘의 예술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이데'를 갖고 농부가 밭을 갈 듯이 한없이 시를 써갈 하등의 의무도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시대와 함께 또는 역사적 사회현실과 함께 좀 더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표정만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끊일 줄 모르는 주관적 영탄(詠嘆)만을 일삼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아주 달라져가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시인을 내어버린 채 아득히 저 혼자만 달아나 버리고 만다. 보통 사회 사람들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기를 겁내하는데 시인이 홀로 현대문명의 소음을 피하여 화조풍월(花鳥風月)의 내 고향산 천을 찾아 영구히 하향하고 말았어야 쓰겠는가.

그 어느 시대이고 그러했다.

한 시대의 예술정신이란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렬한 대표적인 저항정신인 것이다. 반항하는 정신이 그 저류(底流)에 숨지 않은 예술은 산 예술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예술은 또한 스스로 비판적이며 즉물적(卽物的)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모양을 갖추고 존재해 왔던 것이다.

4

까마귀가 흘리고 간 그림자 같은 혈액 속에서 무럭무럭 독버섯이 움터 오른다.

밤…….
피아노의 음향처럼 쏘나타를 형성하는 인간들의 숨소리.

까마귀는 불면증이 싫다고 한다.
까마귀는 나의 폐장 속에 불안의 의자를 준비하라고 한다.

화농(化膿)한 혈관의 광채
독버섯 같은 인간들의 안구(眼球).

밤…….
야행열차의 숨소리처럼 첩첩이 다가오는 까마귀의 날개소리

그때 까마귀는 밤의 포수의 조준속에 자기의 위치를 잃고 말았다. 까마귀를 치던 불행한 「츠아라스터터」

이러한 밤은 까마귀와 더불어 인간들은 되도록 니체를 잃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봉래작「밤의 까마귀」〉—

우리들은 이 작품을 읽을 때 로맨티스트들의 시를 읽을 때와는 전연 다른 이질(異質)의 어떤 감흥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인은 원래가 시속에서 인생론적인 의미를 구하는 시인들과는 달리 시에 있어서 말의 가치라든가 그 조형성(造型性)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미학 위에 선 새로운 시인이다.

다시 말하면 슈리얼리즘의 집착을 그 정신세계에 있어서 다분히 받은 시인으로서 오늘날 우리 시단의 모더니즘 운동의 첨단을 걷고 있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의 「밤의 까마귀」는 또 하나의 다른 작품 「그것은 전쟁인 것이다」 등과 더불어 그 이미지가 어두운 작품으로서 유별난 느낌을 주

고 있다.

「밤의 까마귀」는 「밤의 까마귀」 바로 그것일수도 있겠으나 보다 우리들의 어두운 사회현실이나 또는 어떤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가르치는 말이 될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해석된다고 한다면,

"밤…… 야행열차의 숨소리처럼 첩첩이 다가오는 까마귀의 날개소리"는 날로 불안과 공포를 더해가는 현대문명의 병적증후(病的症候)를 말하는 것이 될 줄 믿는다.

불안, 등요, 끝없는 혼란—그리고 화화(火花)처럼 피어오르는 전쟁의 부르짖음이 「밤의 까마귀」의 귀중한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독버섯 같은 인간의 안구는 너무나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이 시인의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구절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며 동시에 극히 즉물적인 이 시인의 표현방식에 우리는 대리석의 차가움조차 느끼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서정주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현대인의 안구가 독버섯으로 보일수도 전연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서정주나 유치환의 경우는 그 시 정신이 참혹한 현실을 향하여 저항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도피를 계획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혼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올는지도 모른다.

즉 어떻게 인간의 안구가 독버섯으로 보일수가 있느냐고—? 사실 그렇다. 인간의 안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안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버섯으로 되어버릴 수가 없으며 또 독버섯 이 인간의 안구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인은 「밤의 까마귀」의 그림자와도 같은 냉랭한 현실의 혼돈 속에서 인간의 안구를 독버섯과도 같이 느꼈다는 것이다.

흡사히 독버섯과도 같이 돋아난 사람들의 안구—그러한 안구들의 교착 속에서 불안은 야행열차와도 같이 밀려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불면증을 앓게 되는 것이고 니체의 사상조차를 어루만져보는 권태롭고 불안스러운 밤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문명의 조명 밑에서 이 시인은 사고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이것은 시인자신의 현대인으로서의 정서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시인의 작품에서 캐치할 수가 있다면 다른 모든 구절의 뜻과 그 종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시의 전체효과를 쉽사리 감상하고 음미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시를 완전히 이해해 낸다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또 다시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명과 문화의 완전한 이해를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이해가 없을 때에 문명을 그 모체로 한 시를 어찌 십분 이해해낼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만 자기만족을 구하고 있는 듯싶다.

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문화의 방향에 대한 아무런 통찰도 없으면서 다만 어려운 소리만을 쓴다는 구실 밑에 현대의 시인들을 향하여 욕설과 야지를 퍼붓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체로 자기가 읽어서 알 수 없는 시는 나쁜 시, 혹은 잘되지 못한 시라 정해 버리는 것이 왕왕 우리가 목격하는 시의 독자들이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 지식조차 쌓지 않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노라고 얼굴만 찡그리는 동안에 자신의 교양과 정신은 뒷걸음질만 쳐 간다.

◇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체처럼 작열하는 작은 심장을 추길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임광의 조수에 밀려
이제 흰 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이것은 필자의 작품 「나비와 광장」이다. 이것이 현대시의 계층에 들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시작행위 가운데서는 어떤 표말(標抹)이 될 수 있었던 작품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소개한다.

이 「나비와 광장」은 전기한 「밤의 까마귀」에 비하여 훨씬 난해할지 모른다.

한 마리의 나비가 폐허의 광장을 날아가고 있다. 그 나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환상과 상념이 생긴다.

그 연약한 나비는 어쩌면 물결치는 환상과 어둡고 슬픈 상념을 지닌 시인 자체의 변신이거나 한 조그마한 육편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현기증(眩氣症), 돌진(突進), 파편(破片), 안막(眼膜), 차단(遮斷), 진공(進空), 소기, 이동(移動), 인광(燐光), 지점(地點), 지표(地標), 종점(終點), 대결(對決) 등의 언어는 그러나 어린 생명체로서의 나비의 영상(映像)을 꾸미는데 무척 부자연스럽고 거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시의 언어를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쓰는 일상 회화—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언어로서 정돈해 보려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는 때문으로 해서 자연 이렇게 언어를 선택해 놓은 것이다.

시의 과학—그것은 겨우 오늘에 와서 제창될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학사(文學史)도 시의 비평도 시의 언어도 좀 더 과학에 접근해 졌어야 옳을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나는 또한 시의 사회성을 무척 존중하는 탓으로 해서 현실과 사물에 대한 즉물주의적(卽物主義的) 태도를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추구해 갈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낡은 리얼리즘의 수법이 아닌 이미지즘 및 다다와 슈리얼리즘 등 시운동의 발전선상에서 어디까지나 시가 나아갈 바 코스를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독자는 졸작 「나비와 광장」에서 한 마리의 연약한 나비의 안막에 비치는 오늘이라는 현실의 기류가 얼마나 험하고 불안한 것인가를 이 작품을 통하여 느낄 수만 있다면 대체로의 감상은 충분한 셈이 될 줄 믿는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필자(筆者) 스파츠 장군(將軍)

하나의 대담(大膽)한 제안(提案)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를 폐지(廢止)하고
참모본부(參謀本部)를 설치(設置)하라

미공군예비역대장(美空軍豫備役大將)
칼 스파츠

미 육해공군 상호간의 예산, 임무 및 무기를 위요(圍繞)한 분쟁은 미 국회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전(前) 미 공군 참모총장 칼 스파츠 대장은 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으로서 근본적으로 구(舊) 독일 참모본부와 흡사한 미 참모본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 미 삼군에서는 일부 장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

군사문제에 가장 정통한 미국 상, 하원의원들 간에는 미 군사 상호간의 반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조속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점차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 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참모본부(General Staff) 제도를 창설하라고 제의하고 있다.

이것은 소용없는 구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결국에 미국의 존망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명확한 구별인 것이다.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관련되는 전쟁에서 누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각기 그 군의 견해를 제출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장소이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참모본부도 역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선발된 자격 있는 고급장교들로서 구성된 기획 기관이겠지만 그것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

터 분리되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일 것이며 오직 참모본부 총장과 국방장관 그리고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는 금명(今明)간에 시작되는 가상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합의를 보는 데에는 이렇다 할 특수한 곤란은 없었다. 그들의 말썽은 유도탄 로켓 및 그 밖의 각종 무선기 조종 장치 등 미래 기(機)을 위한 무기를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에서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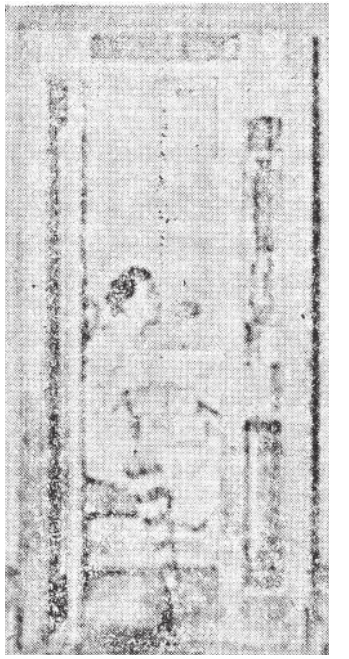
각 군은 그 장래의 규모 구성 및 중요성이 그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들은 모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는 나머지 같은 종류의 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재능, 생산 기술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군 상호간의 경쟁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는 인상적인 것이 못되었다. 미국은 국방을 위하여 1년에 350억불을 쓰고 있다. 이 액수는 연방정부 총 세입의 거의 절반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원 조사위원들은 군 당국자들로부터 미국은 유도탄의 발전과 심지어는 전략 공군력에 있어서까지도 소련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언은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이 현재의 부족을 보충하고 소련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과연 현재의 지출률이 자유사회에서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적은 돈을 가지고 큰 전력(戰力)을 얻어야 한다.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현재와 같이 각 군으로 하여금 경쟁적이고 중복된 무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도록 방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군의 변론자는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변론을 판결하는 심판관은 될 수 없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참모총장들은 물론 이 낭비를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이다.

참모본부 설치를 반대하는 상투적인 주장은 독일이 그것을 시험해본 결과 양차(兩次) 대전(大戰)에서 패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독일이 그 참모본부로 말미암아 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것이다. 양차 대전에서 그들은 우세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압도당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자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아주 잘 해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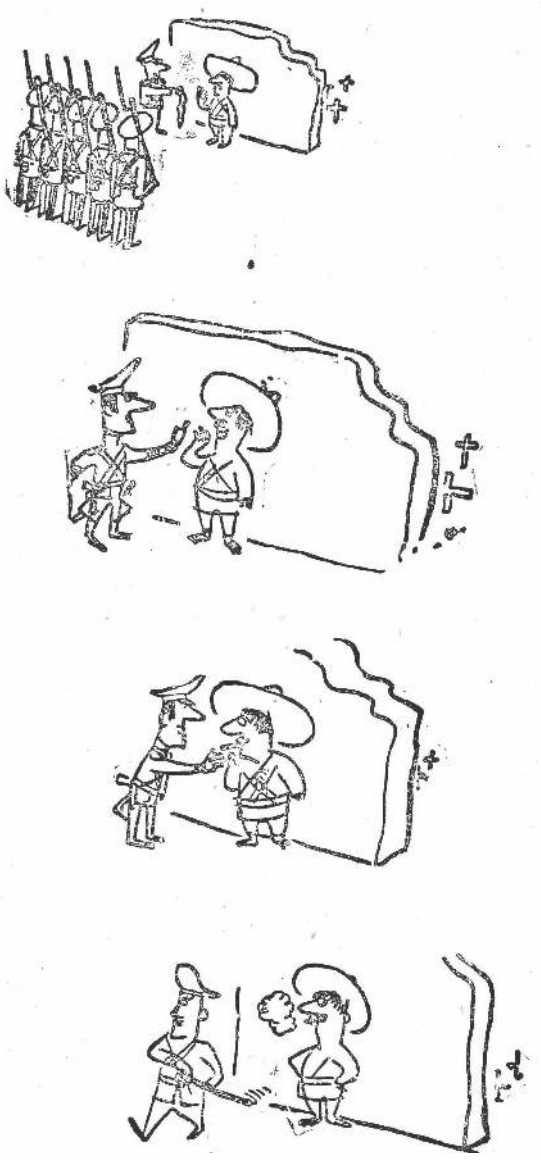
통화기(通話機) 없는 전화(電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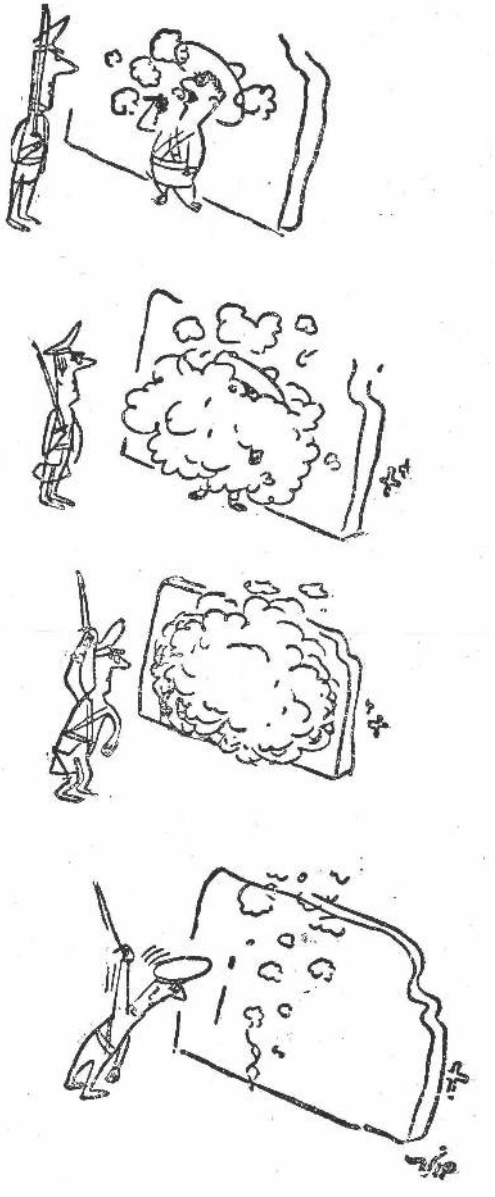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안고 말 할 수 있다."라는 사진과 같은 신(新) 전화실(電話室)이 최근 미국의 한 전화회사에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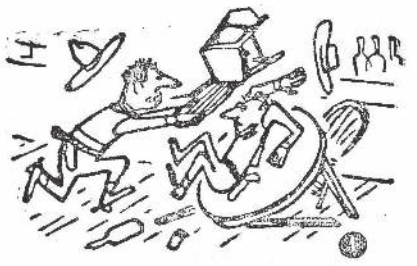
이 전화실은 지금과 같은 전화기는 없고 그 대신에 완전 방음장치를 한 실내에 마이굴로홈과 스피커가 숨겨 있을 뿐 이 신 전화실은 미국의 민주당 전국대회가 행하여진 시카고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고 평판이 좋으면 대대적으로 채용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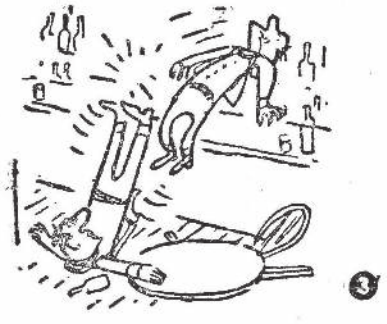
더욱이 제1차 대전에서 독일 참모본부는 근본적으로 지상군 사령부의 역할을 하였고 해군이나 그 당시에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던 공군에 대해서는 미약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제2차 대전에서는 히틀러가 계속해서 참모본부를 지배하였으며 게링의 공군은 참모본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직접 히틀러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 보다 훨씬 통일에 접근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북아(北阿)[북아프리카]와 구라파에서 육군은 물론 해군과 공군도 지휘하였다. 그는 삼군을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삼군이 심각하게 다시 자설(自說)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종전 후부터이다. 현재 그들은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값비싼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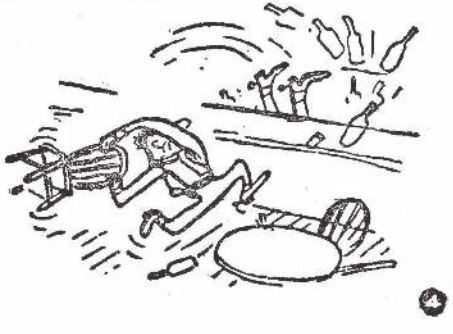
타임 지(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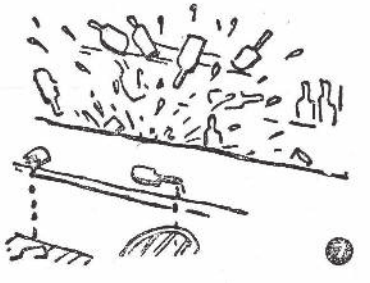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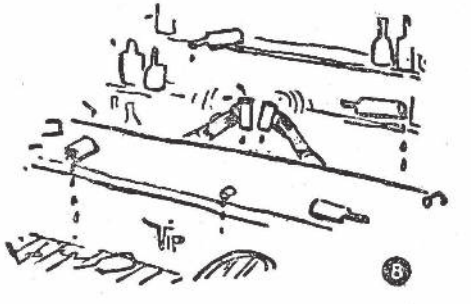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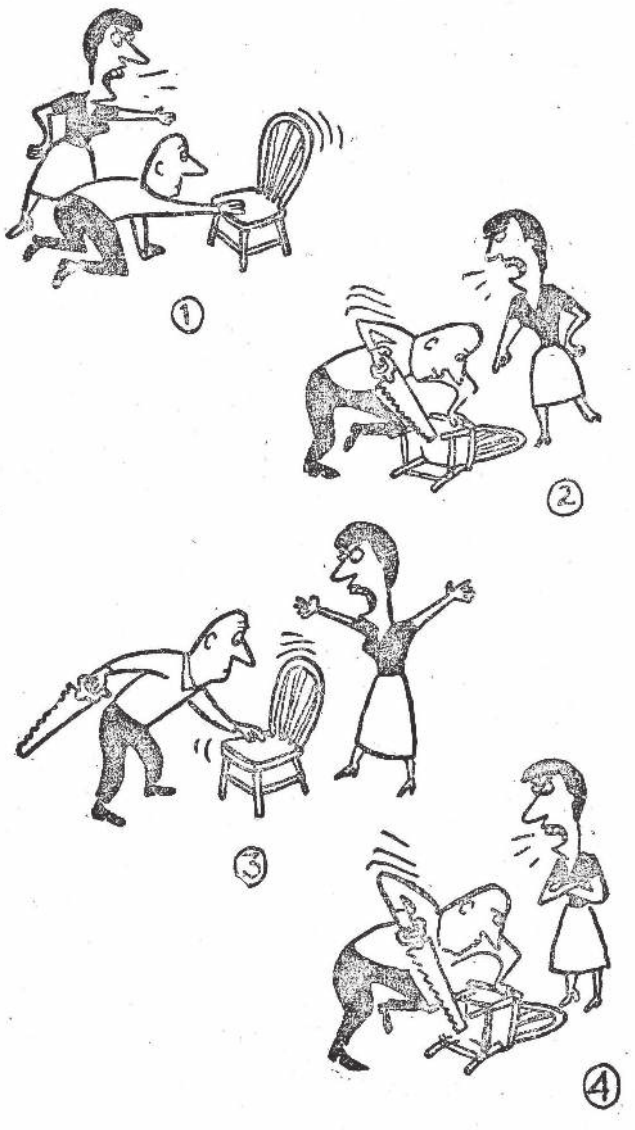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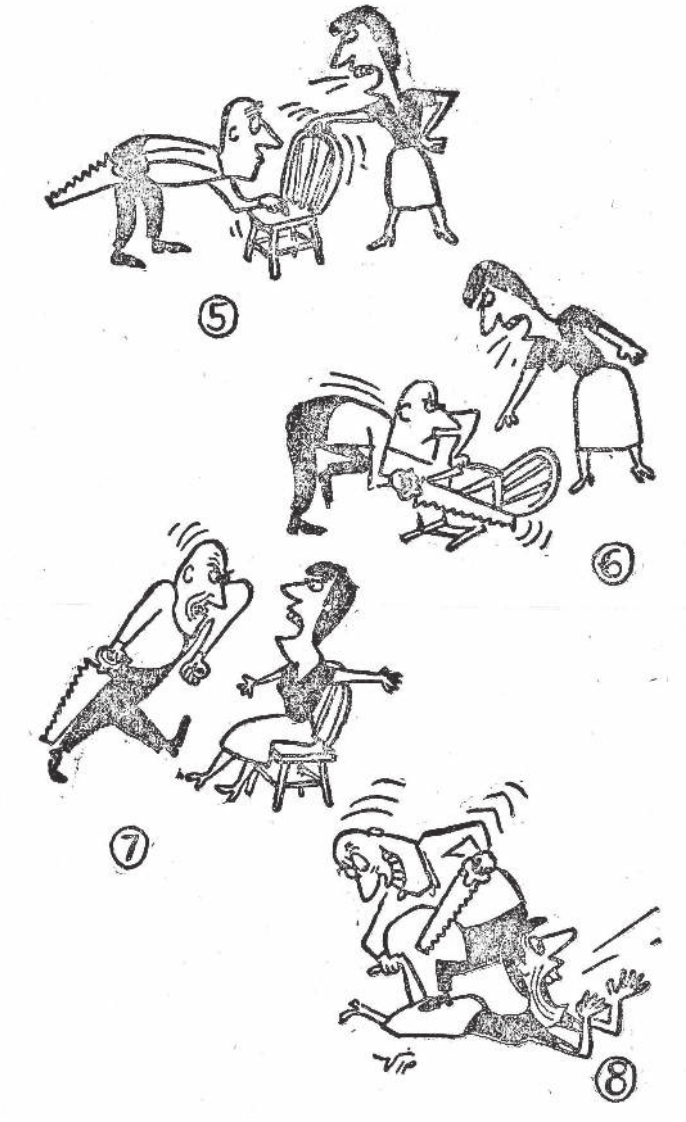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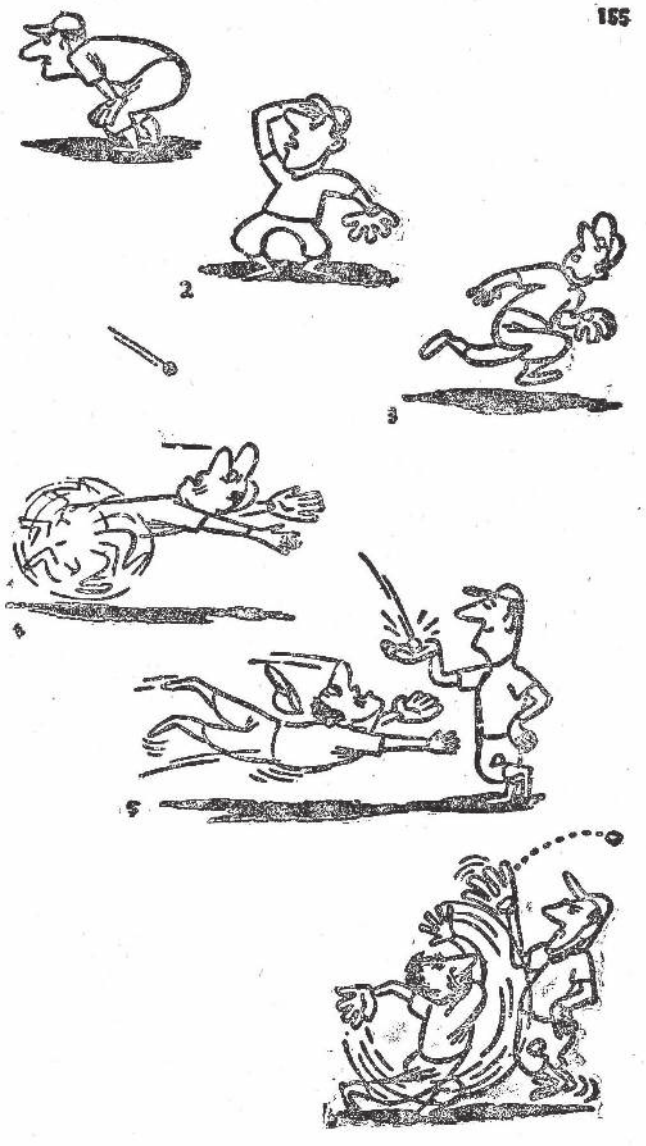



V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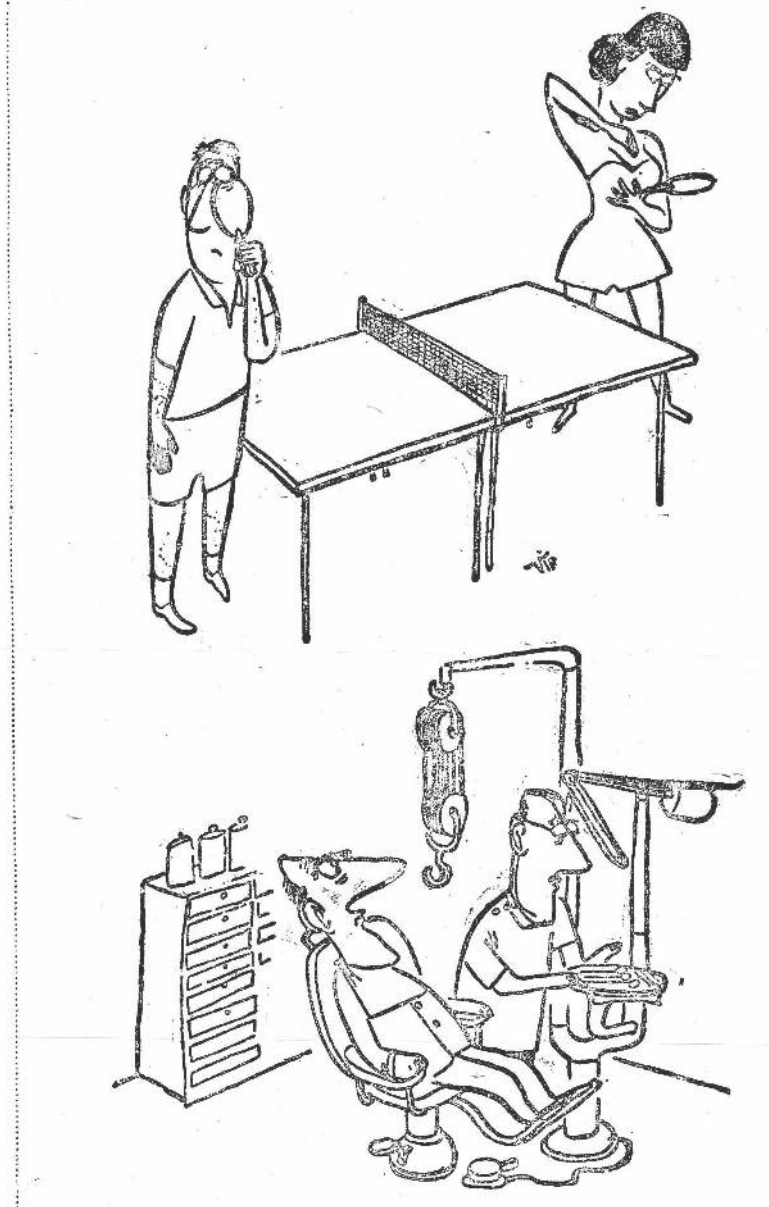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55



1581



1582

옥관정(玉關情)

한시(漢詩)에 나타난 후방(後方)의 여인(女人)과 전선(戰線)의 병사(兵士)

대위(大尉) 고관영(高寬永)

북풍받이 들창이 몹시 덜거덕거리는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다. 이불속에 웅크리고 엎드려서 책을 읽다가 불현듯 이백(李白) 작 「장안일편월(長安一片月)」이란 시구에 접했다. 적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멀리 뺏기고 독수공방에 도의(擣衣)하고 있는 여인의 애꿎은 얼굴이 생영(生影)같이 드러났다. 동시에 현하 아국(我國)의 정형(情形)이 이에 못지않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감상적(感傷的)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그 후 며칠 동안 사류(斯類)의 전쟁에 대한 한시를 애써 찾아보게 되었다. 수수(數首) 얻어 읽고 나니 멍든 가슴이 스스로 위자(慰藉)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중 몇 수를 예거(例擧)해볼까 하는바 주로 당대(唐代)의 작품을 택했다. 이 시대에 는 외정(外征)이 끊이지 않았었고 또 시의 황금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취제(取題)한 우수한 작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그중 후방의 여인의 옥관에 걸친 애꿎은 정은 실로 무엇보다도 거센 것이었다.

현하 아국의 후방 여인의 전선에 걸친 그것과 잘 통하는 장점이 있었으리라.

이하 수수 예거하여 그 사정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X X

먼저 이백의 작(作)인 「장안월(長安月)」부터

장안일편월(長安一片月) 만호도의성(萬戶擣衣聲)
추풍취부진(秋風吹不盡) 총시옥관정(總是玉關情)
하일평호노(何日平胡虜) 양인파원정(良人罷遠征)

아직 안록산(安祿山)이 반기를 들기 전에 현종(玄宗) 황제는 당(唐)의 국위(國威)의 신장(伸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대를 멀리 국경에 보내었다. 일편(一便) 당시의 중신(重臣)들은 제(帝)가 외정을 좋아하는 기회를 타서 공을 세우고자 산만하게 대군을 움직였으므로 민의 아닌 전쟁이 확실했던 것 같다. 시에도 그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시장(西藏)[티베트]에는 토번(吐蕃)이라는 외만(外蠻)이 당시 군림하고 있었기에 현종은 이것을 토벌하고자 감숙(甘肅) 방면에 많은 병정을 보냈을 것이다. 옥관이라 함은 옥관문(玉關門)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돈황(燉煌)에서 서방에 통하는 관문이었다. 이 전장이야 말 로 황량 극한 사막으로서 마음을 즐겨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비장한 변경 풍경뿐이었으며, 중국 본토의 서방의 끝인 이 옥관문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境界)라고 하여 옥관문을 통한 서방에의 원정 병사는 또다시 내지에는 생환하는 자 없다고까지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백은 여사(如斯)한 전장에 임하여 본 적은 없었겠지만 흉악하기 짝이 없는 변경 종군에서 아득한 고향에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용사들에게 적지 않는 동정을 하였을 것이다.

왕자(王者)는 환락에 빠져 깨우칠 줄을 모르는 반면에 인민은 나날이 고로(苦勞) 진탕 속에 빠져들었을 것은 판연지사(判然之事)였으니 민간에 원성이 나날이 높아갔던 것이다.

원래 모든 것에 대하여 '아불관언(我不關焉)'주의(主義)였던 이백도 이와 같은 민간의 원성을 듣고 현종의 정책에 전연 무관(無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상례(上例)한 시를 읽고 당시 장안의 정경을 뇌리에 그려 본다면 현종의 명령 하 거의 전부의 남자가 멀리 호국(胡國)전선에 끌려가고 남아있는 장안의 처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었다. 도읍이라고는 하지만 극히 한적한 것으로 어언간 여름도 지나고 낙엽 지는 가을이 오니 장안의 풍경은 일층(一層) 애색(哀色) 짙어졌다. 때마침 낮과 같이 밝은 가을달이 하늘 높이 걸쳐있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다다미소리가 쓸쓸한 가을바람의 구비구비에 실려 오는 것이었다. 원정의 남편에게 보낼 옷을 다듬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장안의 일우(一隅)에서 들은 그는 그 다다미소리 속에 멀리 옥문관 밖에 출정하고 있는 남편을 절모(切慕)하는 여인의 애꿎은 심정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이백은 자기도 모르게 「장안일편월」을 저음(低吟)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X X

앞에서 본 바의 도의인 중의 1인이겠으나 전선이 어디였는지 불상(不詳)이고 다만 당(唐)의 병사의 처라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전선의 수비를 하고 있는 남편에 외투를 지어 보냈다는 처의 시가 있으니

사장정수객(沙場征戍客) 한고약위면(寒苦若爲眠)
전포경수작(戰袍經手作) 지락아수변(知落阿誰邊)
축의다첨선(蓄意多添線) 함정갱저면(含情更著綿)
금생이과야(今生已過也) 중결후생연(重結後生緣)

대의(大意)를 취(取)해 본다면
황량한 전선에서 싸우시는 임, 한고(寒苦)에 혹이나 잠 못 이룰까 보아 손질로 외

투를 꾸미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알기에, 꾸미는 곳마다 온 마음 다 들이고 솜도 푸근히 많이 넣었지요. 이 세상은 이것이 끝이 아닐까요. 죽어서 후생에 또 연분이 되었으면……

실감적인 작품이다. 율시(律詩)이기 때문에, 대구(對句)가 4절(四節)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전연 소인(素人)의 작(作)인 듯싶다. 더욱이나 평민계급의 소산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여하 간에 얼마나 비감적(悲感的)인 작품이랴? 특히 끝의 2구(句)는 그 위에 표현할 길 없이 통절한 울부짖음이라고 할 것이다.

일편 희종(僖宗) 황제 때 그 외의 출정 병사에게 궁중으로부터 포(袍) 청령(千領)을 사하(賜下)한 사실이 있었는데 궁녀들로 하여금 그 포를 재봉케 하였던 것이나 그중 한 궁녀가 시 한 수에 금란(金襴) 1령(領)을 부송(副送)하였던바 한 병졸이 그것을 받아 입고 그 포 중에서 앞의 시 한 수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호화스러운 위문품이 문제가 되어 황제는 그 궁녀와 한 병졸을 결혼시켰다는 일화도 전하여 지고 있지만 여하 간에 한고(寒苦)로 인하여 진중에 의류를 송달하는 시가 많았다. 이것은 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많았던 까닭이 아니런가?

또 한 수 예거(例擧)하면

부용로냉월미미(芙蓉露冷月黴微) 소원풍정홍안비(小院風情鴻雁飛)
문설옥관천만리(聞設玉關千萬里) 추심하처기한의(秋深何處寄寒衣)

작자는 주태옥(朱泰玉)이라는 부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인지는 미상이고 대의를 취해 보면

연꽃의 이슬이 차가운 달빛에 어리니
소원(小院)의 바람도 많고 기러기도 날아갑니다.
옥문(玉門)은 천만리라고 들었소 마는 지나가는
가을 한의(寒衣)를 어느 곳에 보내오면 좋을까요.
이 시 가운데의 옥문이라 함은 역시 옥문관을 말한다.

이상 몇 수의 시에 후방에 남은 여인들의 인생관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음을 알겠다. 일단 출정한 남편은 생환할 가망성이 전연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성심성의 의류를 지어 보내는 당시의 후방 여인들의 애꿎은 심정을 잘 엿볼 수 있는 바이다.

X X

전(前) 9년 후 3년 정도는 아니었지만 옥관의 출병도 꽤 오래 계속된 모양이다. 역사에는 그런 점이 안 보이나 시에 나타나고 있으니 즉

옥관정수구(玉關征戍久) 공규인독수(空閨人獨愁)
한로습청태(寒露濕靑苔) 별래봉빈추(別來蓬鬢秋)

작자는 소정(蘇頲)으로서 현종 황제 시대 인(人)이다. 사실에 입각하여 장사(將士)의 처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대의를 들어 보면

옥관의 수비 오래인데 독수공방에 시름도 많소.
뜰의 청태(靑苔) 위에 내린 서리
흩어지는 귀밑머리에 가을이 짙어가오.

한로습태(寒露濕苔)는 안전(眼前)의 실경(實景)인데도 이것을 신상의 빈발(鬢髮)로 상징한 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필치이다. 얼마나 함축성 있는 구(句)이냐? 남편이 옥관에 출정한 후 독수공방에 오랫동안 시름을 하고 난 처는 견디다 못해 결국은 모든 것을 단념하고 지난날 그렇게 정열적인 인생 생활의 여음(餘音)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보니 모든 것이 쓸쓸하기만 하고 한랭하여 가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X X

초당(初唐)의 명가 장구령(張九齡)의 작에 남편을 정전(征戰)에 보내고 뒤에 남은 처에 대(代)하여 지은 시가 있으니

자군지출의(自君之出矣) 불부리잔기(不復理殘機)
사군여만월(思君如滿月) 야야감청휘(夜夜減淸輝)

싸움에 관한 문자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일시적인 여행을 위한 이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감이 너무나도 거세다. 대의를 들어 보면

당신이 나가신 뒤로는 짜다 남은 베틀에 손이 가지 않소.
당신을 생각한다면 보름달이 밤이면 밤마다 일그러지듯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위어가는 몸이지요.

사군여만월이란 구는 글자 그대로 보아 치울 것이 아니다. 아기자기한 부부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빼앗기고 보니 매사가 손에 걸리지 않고 밤이면 밤마다 원한에 쌓인 심경을 창공에 걸린 달에다 호소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여인의 몸은 그 달이 조금씩 조금씩 일그러져가는 동시에 자신도 야위어지는 것을 여실히 규지(窺知)할 수 있다. 어구는 단순하나 의미는 길고 깊은바 있다. 한시의 특징이란 이것이 아닐까 한다.

X X

멀리 변역(邊域)에 출정해버린 후, 국경 수비의 임무에 다망하였음인지, 무슨 일에 흥미를 잃었음인지 해를 두고 오랫동안 소식하나 없이 지낸 남편으로부터 어느 날 홀연히 사인(使人)이 왔을 때의 감동을 읊은 것에 노은(盧殷)의 「우변사(遇邊使)」가 있다.

누년무적신(累年無的信) 매야몽변성(每夜夢邊城)
수엄천행루(袖掩千行淚) 서봉일척정(書封一尺情)

대의를 들어 보면
소식을 모르는지 몇 해이드뇨 밤이면 밤마다 꿈이 보이는 변역
옷소매를 타고 가는 천 줄기의 눈물 옥서(玉書)에는 일척의 정이 깃들어 있지요.
적신(的信)은 적확(的確)한 통신, 변역은 성채이며 전 2구는 과거, 후 2구는 현재의 정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년, 매야, 천행루, 일척정 등 한자의 교묘한 조합은 여하 간에 출정한 후 몇 해를 두고 소식하나 없는 남편은 단념 할 것이 마땅하나 그래도 끝내 못 잊어 밤마다 꿈에 변역을 보는 흉악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돌연히 남편으로부터 온 소식에 감개무량하고 있는 여인의 환영이 안전에 새듯이 어린다.

X X

이상에서는 후방 여인에 관한 것이었으나 일편 옥문관 밖의 삭막한 전장 생활을 상기시키는 것에 황한(王翰)(초당인(初唐人))의 양주사(凉州詞)가 있다. 양주(凉州)(감숙성(甘肅省))의 변지(邊地)에서 보내는 살풍경한 출정 병사의 생활을 위자(慰藉)하는 것이라고는 술(주(酒))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백옥배(白玉杯)에 포도의 미주(美酒)를 넘치도록 부어가며 마상(馬上)에서 비파를 뜯어 즐기던차 드디어는 취에 못 이겨 그대로 사장(沙場) 위에 눕고 마는 등은 일단 출정하면 다시 고향에 생환할 수 없는 병사들의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짓이라고 볼 것이다.

포도미주야광배(葡萄美酒夜光杯) 욕음비파마상최(欲飮琵琶馬上催)
취와사장군막소(醉臥沙場君莫笑) 고래정전기인회(古來征戰幾人回).
대의를 들어 보면
야광에 어린 백옥배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서 마시려거든 마상에 비파를 뜯으라.
사장에 취와했다고 웃지를 말 것이 고래로 원정에서 몇 사람이나 귀환했던가?
왕한의 이 시에는 대륙적 남자의 호쾌성(豪快性)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쓸쓸하기 짝이 없는 비애감이 숨어있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또 왕지환(王芝煥)의 「출새(出塞)」라는 시를 보면

황하원상백운간(黃河遠上白雲間) 일편고성만인산(一片孤城萬仞山)
강적하수원양류(羌笛何須怨楊柳) 춘풍불도옥문관(春風不度玉門關)

즉 황하의 상류에 따라 호국(胡國)의 토지를 향하고 가니 백운 간에 일편(一片) 고성이 만인산정에 솟아 있어 그 성(城) 속에서 호인이 부는 절양류곡(折楊柳曲)이 들려 왔다는 것이다.
호지(胡地)는 언제나 한지(寒地)인지라 내지의 난화(暖和)한 춘풍이 옥문관을 거쳐 이곳까지 다다를 리 없건만 호인이 절양류곡을 부는 것은 오히려 난화한 곳에서 한랭 타대(他帶)에 원정 온 그들에게 원한에 겨운 애수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읊은 것이다.

X X

이상에 거례(擧例)한 수수(數首)의 시 속에 후 방에 남은 여인들의 인생관과 출정 병사의 생활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으니 일단 출정한 남편은 생환이 전연 무가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성심성의 의류를 지어 보내며 때로는 절망에 겨워 염세하는가 하면 때로는 무엇엔가 생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는 나머지 감개무량하곤 하는 후방 여인들의 표현하기 난(難)한 애꿎은 심정과 한편 가애가귀(可愛可貴)한 처자를 후방에 남기고 옥문관 밖으로 본의 아닌 출정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비장한 염세적 심경을 잘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들은 이 세상과는 전연 이별하였다는 비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여하 간에 그 옥문관을 싸고도는 전선과 후방이 절단되어 있으면서도 연계되어 있는 정체(情體)를 무어라고 표현해야 옳을지? 또 한편 그윽이 생각건대 현하 아국 민족이 처하고 있는 38선은 당시 옥문관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엄연한 변경이며 동족끼리 쌍방에서 대적적(對敵的)으로 불을 품고 있는 것이니 이 변경에 교류되는 정체를 또 한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옳을지? (끝)

<장병란(將兵攔)>

수심보(愁心譜)

대위 최창열

고요히 가랑비가 오나봅니다
추녀 끝에 물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그리움에
눈물짓나 봅니다.
어느 고초한 여인의 눈물을 담아
내 가슴에 역역한 빗방울 소리……

이 밤 따라 유난히
외로워지는 것은
봉오리 짓던 처녀의 젖가슴을
풀어 헤치는 목련화(木蓮花)의 울음
시름없이 창에 기대서면
어느 먼 나라의 고향을 등진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밤의 울음을 듣고 있느냐.

눈물 마냥 흐른다
흐르는 눈물에 따라서 가면
어디선가 오랜 고목(古木) 가지
유품(遺品)을 두고 온 슬픈 이야기
끝끝내 못다 푼 정으로 해서
이다지 곱게 보이자고 머리를 감누나.

고요히 가랑비가 오나봅니다
추녀 끝의 물소리가
잊어지지 않는 그리움에
눈물짓고 뒤돌아 가나 봅니다.

이태리영화계(伊太利映畵界)의 근황(近況)

그 몰락(沒落)하는 원인(原因)은 무엇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지(誌)

제2차 대전 후 「무방비 도시」, 「자전차 도적」, 「구두닦이」 등 감동적인 사실주의 영화를 낳아 일약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킨바 있던 이태리의 영화산업은 오늘날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다. 로마 교외에 있는 이태리의 할리우드인 치네치타에는 점차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육체미를 자랑하는 은막의 여왕들은 그 대부분이 이곳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영화제작자들 덕분에 고급출연료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이태리 최대의 촬영소의 하나는 드디어 최근에 파산하고 말았으며 많은 군소(群小) 회사도 폐쇄되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대소(大小) 각양의 회사들도 거액의 차금을 짊어진 채 수입은 확실히 감소 일로로 그 생명은 풍전등화 격이라고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할리우드 다음 가는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던 이태리영화산업 전체가 궁지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태리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산업이 모두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영화산업만이 이와 같은 참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X X X

이태리영화산업의 흥륭상(興隆相)은 실로 눈부신바가 있었다. 전후에 거의 새잡이로 출발하였으면서 작년까지에 이태리에는 영화제작회사가 260사(社)나 생겼다. 그리고 이들 영화회사 전부가 '이태리영화산업연맹'에 가입하였다. 또한 1948년에서 1954년에 걸쳐 촬영소에서 제작되는 영화 본수(本數)는 1주간에 평균 1본에서 3본으로 뛰어올랐다. 해외시장에서도 이태리영화는 좋은 평판을 받았다.

예컨대 실봐나 망가노 주연의 「쓴 쌀」이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 중 가장 인기를 획득한 영화였다. 그리고 풍만한 유방을 자랑하는 이태리의 스타들은 미국 잡지들의 표지를 커버 걸로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지에서의 이태리영화가 올린 수익은 연간 약 1천 2백만 불까지 올라갔다. 이 해외시장은 이태리영화의 유력한 지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영화산업 제작비의 3분지(分之) 1은 이것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마를 구라파의 할리우드로 만들고자 가능한 모든 기회를 영화 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 거의 모든 장편영화에 있어서 제작자들은 정부로부터 입장료 총액의 18퍼센트나 되는 보조금을 받았다. 이 같은 보조금은 금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중지되었었으나 다시 계속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또한 이태리영화를 위해서 국내에 확실한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즉 이태리의 전(全) 영화극장은 1년에 적어도 100일은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다. 그 뿐 아니라 제작자들은 제작비의 일부를 정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기금에서 저리(低利)로 차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大)촬영소도 이태리 제작소와의 공동제작 혹은 단독으로서 많은 성공작품을 이태리에서 만들어 치네치타의 명성을 높이는데 힘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의 성공작품으로서는 「여우의 왕자」, 「쿼 봐디스」, 「로마의 휴일」, 「사랑의 샘」, 「여수(旅愁)」 같은 것이 있다.

이태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제작자들은 미국영화가 올린 동결 수익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작비는 특히 인건비 면에 있어서 할리우드와는 문제가 안될 만큼 싼 것이다. 미국영화회사에서 볼 때의 이와 같은 재정상의 매력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수익 중에서 20만 불이 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으로 제작비의 고등(高騰)은 제작상의 절약까지도 별 무의의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제작비가 급등한 원인은 이태리의 영화인이 극히 희소한 것을 보면 스스로 납득이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비평가의 한사람은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였다.

"우리들이 우수 영화를 제작코자 할 경우 얼마마한 인재가 있을 것인가? 스크립트 라이터의 수는 몇 사람이냐고요? 네 사람이죠. 그러면 감독은? 그것도 네 사람, 여배우는? 그 것도 네 사람, 남배우는 두 사람,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재의 흑심한 결핍에 가부(加附)하여 외국관중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일류스타를 필요로 하는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몇몇 유명한 배우나 감독의 급료(출연료)는 요 2, 3년 사이에 할리우드와 비견할만한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예컨대 지나 로로부리지다 같은 여우(女優)는 1955년 1년간에 자그마치 55만 불을 벌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오늘날에 와서는 영화 1본(本)에 대한 출연료로 30만 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사람의 국제여우 소피아 로렌도 작년도에 50만 불 가까운 출연료를 벌었다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배우는 2, 3년 전만하더라도 1

본에 대하여 1만 5천 불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1본에 약 10만 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 엄청난 사실로서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겸 감독인 빅토리 오 데시카는 작년에 70만 불에 달하는 수입을 획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태리의 영화산업은 벌써 이러한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불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류스타의 대부분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스타의 할리우드 행은 이태리영화의 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태리영화가 외국 팬들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문제는 더욱 더욱 곤란성을 띄게 되었으니 외국에서의 수익이 그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태리영화산업의 근본적인 결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많은 사계(斯界)의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즉 "대부분의 이태리영화제작자가 진실한 영화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획천금을 꿈꾸는 엉터리 금광쟁이들 같은 자들인 때문이라.……"고.

전후(戰後) 소수의 영화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대성공을 거둔데서 문자 그대로 몇백 명의 이런 타산꾼들이 영화로서 한몫을 단단히 보려고 덤벼들었다. 카메라의 렌즈와 화인다의 구별도 못하는 이런 따위의 실업가들이 하룻밤사이에 영화제작자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어느 치과의사의 경우를 보면 약속수형(約束手形)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영화를 제작코자 작년에 폐업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그의 영웅적인 서사시가 어째서 대실패로 돌아갔는가를 아무리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네치타의 경기는 네요 리얼리즘 영화로 해서 생겨났다. 이것은 제작비가 싸게 먹는 흑백영화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태리영화가 그 가장 성공작품을 만들었던 1947년, 1948년 당시 영화 하나를 만드는 데는 평균 10만 불 정도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태리의 제작자들은 할리우드와 경쟁을 하고자 색채 필름, 와이드스크린, 대규모적인 서사시 작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1본 평균 제작비는 30만 불 정도이고 대부분의 영화는 제작비가 100만 불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화제작비의 급상승에 수반하여 제작에의 개인 융자의 이자는 2할 5분이나 되는 엄청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작년 중에 만들어진 영화중에 적어도 반은 제작비를 빼낼만한 수익도 올릴 수가 없었다. 약 30%가 송두리째 손해를 보았었으며 이익을 올린 것은 불과 5본에 1본 정도의 것이었다. 그것도 영화 제작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작비의 3분지 1을 보조해 주고서 그런 것이다. 나머지 3분지 2의 수입은 국내와 국외에서 거의 비등하게 들어온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상에서 대략 본바와 같이 흑심한 인재의 결핍, 기술적 지식의 결여, 거기다 태반의 제작자가 경험을 쌓은 영화제작자가 아니고 순 타산적인 문외한이라는 점 등이 이태리영화의 질을 확실히 하락시키고 있는 原因인 것이다 .

또한 이태리영화 팬들의 취미가 달라진 데는 텔레비전의 영향도 있다. 작년에 텔레비 열이 이태리를 휩쓸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와서 이태리 전국의 텔레비 수상기 총수는 불과 3개월간에 7만대가 증가하여 27만대가 되었다. 이 텔레비 수상기 중 약 6만대는 다방이나 테스트 란에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매일 밤 불과 커피 한 잔 값으로 텔레비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이태리인들은 신통치 않은 이태리영화를 보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기 보다는 텔레비로 현상(懸賞) 퀴즈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화관에의 입장 수는 실제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다. 즉 입장 총수는 1948년의 5억 7천 9백만 명에서 작년에는 8억 5천만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흥행주들은 이와 같은 관객 수의 증가가 전혀 미국영화의 인기에 의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서 이태리영화관의 입장료 총액의 70%는 미국영화에 의한 수입으로 되어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60% 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는 최근에 대제작배급회사의 하나인 미네르바 필름이 파산한 것으로 생생하게 부조(浮彫)되었다. 미네르바 필름을 파산에 몰아넣은 이 같은 재정 곤란은 거의 모든 다른 영화회사까지도 골치를 앓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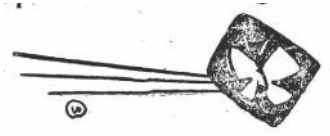
폐쇄되는 스타지오의 수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5대 회사를 포함시켜 촬영계획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까지 물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태리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생산이 절정에 달했던 때는 1954년으로서 총 157본이나 제작되었는데 작년에는 140본으로 떨어지고 금년은 영화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70본이나 만들면 많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끝)

명작영화소개(名作映畵紹介)

복면(覆面)의 기사(騎士)
(일명(一名) 의문(疑問)의 복수자(復讐者))

The Dark Avenger[18]



RKO 라디오영화
(시네마스코프)

13세기에 있어서의 영불(英佛) 백년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대활극.

다니에 B 울맨[19]의 원작과 각본에서 헨리 레빈[20]이 감독하였다. 촬영은 가이 그리인[21], 작곡은 세드릭 쇼프 데뷔[22]가 담당하였다. 주연은 로빈 홋드의 에롤 후린[23]과 존 드루[24]이며 조연은 피터 훤치[25], 마이켈 호더언[26], 투퍼트 데이뷔스[27] 등이다. 월터 미릿슈[28] 제작에 의한 총천연색 1955년도 작품.

☆ **스토리**

1358년. 영불 양국은 백 년래의 오랜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에드워드 마이켈 호던 1세는 불란서 측에 결정적인 패배를 입히고 자기 스스로가 불란서 국왕까지 겸하여 황태자 푸린스 에드워드(에롤호린)를 불란서에 남겨두고 영본국으로 귀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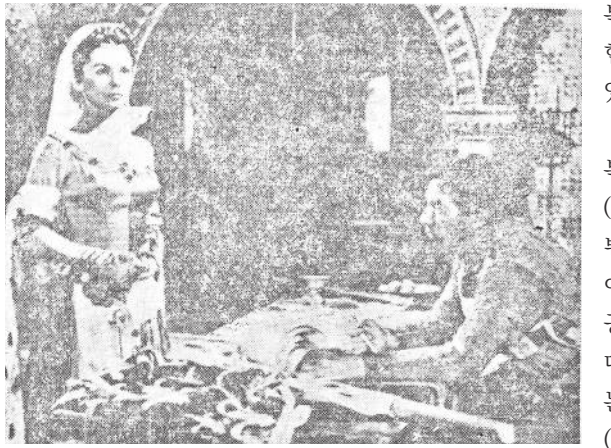
에드워드는 부왕의 뜻을 받들 어 선정을 베풀어 전란에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여 덕망이 높았다.

이러한 때에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의 벗인 귀부인 죠온(죠온 드루)이 죽은 그의 부군의 영지에서 살기 위하여 두 자식을 거느리고 왔다.

에드워드는 위험한 불란서의 사정을 설명하고 귀영(歸英)을 권고하였으나 허사였다. 패배한 불란서의 귀족들은 데뷜 백작(피터 훤치)을 중심으로 불왕(佛王) 다음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드 게스크링(노웰 월맨)을 추거(推擧)하여 비밀리에 재기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데뷜 백작은 에드워드를 제거하려고 자객을 보내어 암살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자 귀부인 죠온을 가족과 함께 유괴하였다. 에드워드는 구조차 출동하였으나 데뷜군의

18) 원문의 영화제목은 Areoqer로 되어 있으나 avenger의 오기임.
19) Daniel B. Ullman
20) Henry Levin
21) Guy Green
22) Cedric Thorpe Davie
23) Errol Flynn
24) Joanne Dru
25) Peter Finch
26) Michael Hordern
27) Rupert Davies
28) Walter Mirisch



복병에 조우하여 협격 끝에 패배하였다.

에드워드는 심복 부하인 죤 경(卿) (루퍼 트데이뷔스)에게 구출되어 겨우 도주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담한 에드워드는 주점(酒店) 여급(女給)의 도움으로 불란서 기사로 변장하여 '흑기사'라고 호칭하면서 데뷜 백작의 성에 침입하여 그 부하로 채용되었다. 에드워드는 즉시 감금된 귀부인 죠온을 구출하려 하였으나 경계가 엄중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드 게스크링은 병사를 모아 데뷜 백작군과 합류하였다.

드 게스크링은 에드워드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게스크링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새로 들어온 에드워드를 질투하고 있던 기사 리보(알라 스테어 헌터)가 결투를 도전해 왔다.

드 게스크링 입회하에 양인(兩人)은 결투를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에드워드의 가면이 벗겨져 신분이 탄로 나고 말았다. 에드워드와 죤 경은 중(重)포위를 뚫고 도주하면서 수비병에게 허위의 명령으로 감금 중인 귀부인 죠온을 구출시킨 다음 무사히 귀성하였다.

에드워드의 유수군(留守軍)은 소군(小軍)이었으나 용기백배하여 에드워드의 지휘 하에 마침내 공격군을 격파하였다. 이렇게 해서 불란서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들어 귀부인 죠온은 사랑하는 에드워드에게 불같은 키스를 보냈다.

이혼문제(離婚問題)

이혼문제를 조사한 결과 그 파탄의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1. 성적(性的) 불배합(不配合)
2. 여가 이용에 대한 의견의 차이
3. 경제적 곤란
4. 심적, 육적(肉的) 혹은 감정적 변천
(미(美) 로스앤젤레스 가정관계확회장(家庭關係學會長))

굳건한 사나이들

The Tall Menr

20세기 폭스영화
(시네마스코프)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의 클라크 게이블[29]과「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의 제인 러셀[30]이 공연(共演)하는 서부개척활극의 시네마스코프 판(版) 월리암 A 베이커[31]와 월리암 B 호옥스[32]가 제작을 담당하고 라울 월슈[33]가 감독하였다.

크레이 횟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시드니 보엔과「아일랜드의 연풍(戀風)」의 프랑크 뉴젠트가 각색하였다.

촬영은 레오 토붜[36], 음악은「백주(白晝)의 대결」의 뷕터 영[37], 조연은 로버트 라이언[38], 캬메론 밋첼[39], 후안 갈시아[40], 해리 셰논[41] 등이다.

☆ 스토리

남북전쟁에서 활약한 텍사스인 중에는 전후(戰後) 목축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실업하고 무뢰한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벤(클라크 게이불)과 그의 동생 클린트(캬메론 밋첼)도 역시 그 동류(同類)였다.

두 사람은 몬타나 국경의 어느 시에서 은행으로부터 대금(大金)을 찾아내오는 스타크(로버트 라이언)를 습격하여 대금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스타크는 강도질을 하느니보다 소(우(牛))를 사서 몬타나에 파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말하자 세 사람은 동지가 되었다.

토인(土人)의 위협을 피하여 북(北)텍사스로 가자 눈보라에 휘몰려 위태로울 때에 이민단(移民團)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또 그러자 벤은 그를 간호해준 아름다운 여성 네라(제인 러셀)에게 마음이 이끌렸다.

다음날 세 사람의 동지는 그 곳을 출발하였는데 토인의 이민단 습격을 알아 챈 벤은 단신(單身) 되돌아와서 전멸의 위기에 처한 이민단 가운데서 겨우 네라를 구출하여 선행하는 클린트와 스타크를 쫓아서 워스 요새로 향하였다.

도중에서 벤과 네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요새에 도착하자 도회생활을 동경

〈클라크 케이불과 제이 러셀〉

하는 네라에게 스타크는 교묘하게 접근하였다.

산 안토니오에서 스타크는 4천 필의 소를 사고 북상하였는데 일행의 앞길에는 흉악한 토인 지구가 있었다.

클린트는 정찰에 나가서 토인에게 살해되었다. 벤은 소의 대군(大群)을 질주시켜서 토인을 짓밟고 헤치며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가축을 매각한 스타크는 비겁하게도 벤을 경비대원에게 인도하고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으나 벤의 부하인 카우보이의 수조(授助)를 얻어 이득의 분배를 받았다. 텍사스에서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벤이 자기마차에 타자 그곳에는 벤과 생애를 같이할 결심을 한 네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 이언(俚諺) ☆

갖춘 복장은 아름다운 말(언(言))보다 나은 것이다. 정말(丁抹)[덴마크]
치장 아니 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 독(獨)
아름다운 옷이 가치 없는 사람의 어깨에서 운다. 불(佛)
주석(酒席)이 길면 수명은 짧다. 불(佛)
꿀을 얻으려면 벌의 쏘는 것을 참아야 한다. 영화(英和)
하룻밤을 자도 헌 각시. 한(韓)

29) Clark Gable
30) Jane Russell
31) Williams A. Bacher
32) William B. Hawks
33) Raoul Walsh
34) Sydney Boehm
35) Frank Nugent
36) Leo Tover
37) Victor Young
38) Robert Ryan
39) Cameron Mitchell
40) Huan Garcia
41) Harry Shannon

금단(禁斷)의 유성(遊星)

Forbidden Planet

MGM사(社) 제작(製作)

60년 후의 우주식민지를 더듬는 공상과학 스릴러의 일대(一大) 쾌작.

공상과학영화는 한 권 제작치 않았던 MGM사가 처음으로 만든 씨네마스코프로 된 작품. 공상과학영화로서는 스케일이 방대하고 볼만한 장면이 대단히 많아 좋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학영화로서의 특수기술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음악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전자음악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방면의 개척에 큰 성과를 얻어 누가 보더라도 흥미 깊은 것으로 여기에 로비라는 로봇의 활약이 퍽 재미있다.

이 영화는 아빈그 부록크[42]와 아렌 에드라[43]의 원작을 시릴 휴무[44]가 각색하고 니코라스 나팟크[45]의 제작에 프렛트 M 월콕크스[46]의 감독으로 스릴러와 공상과학이 잘 얽혀진 새로운 형(型)의 작품이다. 촬영은 죠지 폴시[47], 주연으로서는 월타 삐죤[48], 안 프란시스[49] 그리고 신진인 레스리 닐젠[50] 등이 등장한다.

<스토리>

시대는 서기 2200년경. 아담스(레스리 닐젠)가 지휘하는 유성연합(遊星聯合)의 우주순찰선 C57D는 20년 전에 일단의 과학자를 파견한 유성 '알디어4'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그 조사를 명받고 이 유성에 도착하였다.

아담스는 무인(無人)이라고 생각하였던 알디어4에 과학자단의 일원이었던 모비아스 박사(월타 삐죤)가 홀로 살아남은 것에 놀랐다.

모비아스 박사는 대원인 여류(女流) 과학자와 결혼하여 알디어4에 도착하였으나 이 유성은 2000세기 이전에 이미 우주를 초자연적인 즉 신과 같은 힘으로서 지배하고 있던 구레루족에 의하여 금단의 유성으로 되어있었으므로 그 노혐(怒嫌)을 사게 되어 과학자들은 모두 죽게 되고 지금은 자기와 이 유성에 와서 출생한 알디라(안 프란시스)만이 생존하였다고 말한다.

42) Irving Block
43) Allen Adler
44) Cyril Hume
45) Nicholas Nayfack
46) Fred M. Wilcox
47) George J. Folsey
48) Walter Pidgeon
49) Anne Francis
50) Leslie Nielsen

모비아스 박사는 자기가 창조한 로비라고 하는 187개 국어를 해득하고 말할 수 있는 정묘(精妙)한 로보트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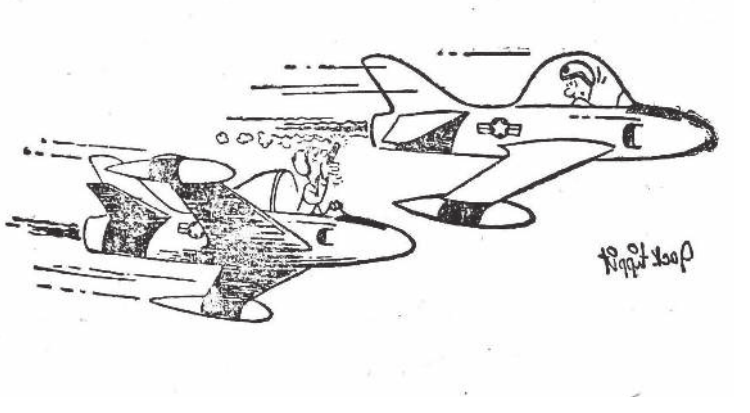
아담스는 젊은 남자를 처음으로 대하게 된 알디라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모비아스 박사에게 딸과 같이 지구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나 박사는 듣지 않고 오히려 C57D가 이곳에 머물면 구레부의 노염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한다. 사실 그 후 C57D는 보이지 않는 괴물의 내습을 받아 기계는 파괴되고 또 대원의 일부까지도 죽었다. 아담스가 강력한 원자병기로 응전할 것을 명하였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던 차에 보이지 않는 괴물은 일단 물러갔다.

대원의 돗크 오스드로(워렌 스티븐스)는 로비와 친하게 되어 모비아스 박사의 비밀을 탐지한다. 그 결과 모비아스가 구레루의 초자연적인 힘의 비밀을 해결하고 C57D를 습격케 한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것을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은 일각수(一角獸)의 변신이라고 전하여지는 모비아스 박사가 기르고 있는 범(虎)에 있다는 것까지에 이르렀다.

한편 아담스는 자기가 알디라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모비아스 박사에게 말하며 지구로 돌아가도록 설득시키나 미칠 듯이 된 박사는 범을 풀어놓다가 오히려 죽게 되고 만다. 그는 구레루의 힘의 비밀을 알았으나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알디라를 데리고 이 유성을 떠난 아담스는 얼마 안 되어 알디어4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금단의 유성은 드디어 구레루에 의하여 우주로부터 자취를 감춘 것이다.

(영사시간(映寫時間) 1시간 38분)



<사화(史話)>

호정일사(浩亭逸事)

Forbidden Planet

서태헌(徐泰憲)

이조 초에 왕통을 중심으로 하여 왕자 사이에 숨은 반목이 있었음은 일반이 두루 아는 바이지만 소위 함흥차사의 숙어까지 그 당시에 생기었던 것을 짐작하는 사람으로는 이른 바 태종(太宗)의 정사지공(定社之功)이라는 사건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정사(定社)의 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 일이다.

당시 조정 벼슬아치 가운데에 상당한 신망과 위세를 가지고 있던 호정하륜(浩亭河崙)이 뜻밖에 충청도관찰사로 제수되어 길을 떠나 임지에 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호정 하륜은 인물이 활달 외락하여 조그마한 일에 구애되는 법이 없었다.

일찍이 그가 예천군수로 있을 즈음에 정사를 전폐한 것은 아니지만 예천군하에 매인 관기란 관기는 하 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수청을 드리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장야의 주연을 베푼다하여 금복도사가 이것을 장소하여 그 행장을 논박하려 할 즈음에 당시 경상감사로 있던 김주(金湊)가 그것을 알고 극구 만류하기를

"하 군수의 기상을 보건데 결코 오래한 군읍의 재로 굴복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타일에 큰일을 손에 잡을 사람인즉 그만한 허물은 눈감이 두오."

라고 권하여 아무 일 없이 되었다. 김주는 바로 하륜의 서울집 근처에 역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 후 태종의 정사지변(定社之變)이 생겼을 때 김주는 태종 반대파로 몰려서 신변이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그때 김주의 아내가 남편의 사경에 빠진 것을 알고 하륜이 출타하는 말머리에 엎드려서.

"나는 전일 상공이 예천군수로 계실 때에 경상감사로 있던 김주의 아내로소이다"

하고 무언중에 남편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바 있었더니 하호정(河浩亭)은 그를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구의를 생각하여 극력 김주의 목숨을 구출해 주었다는 미담의 소유자이다.

하호정 정계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고 궁중의 사정이 박두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지에 도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 청안군(淸安君)(나중에 태종으로 된 분)을 비롯하여 당대의 명재를 초청하였다.

그가 특히 여러 왕자 중에서 청안군 만을 청한 것은 청안군이 타일 큰일을 할 만한 인물인 것을 잘 짐작하고 있어서 심중에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늦은 점심때부터 대관들이 하호정 자택으로 모여들었다.

이리하여 연회는 바야흐로 무르녹아 들어갈 즈음이었다. 하호정은 일부러 청안군 앞에 이르러서 잔을 올리고 손수 술을 따랐다.

그런데 하호정은 술이 취해 그랬던지 마치 수전증 있는 사람처럼 주전자의 술을 잔에 붓지 않고 함부로 주르륵 따라서 청안군의 옷에 술이 넘쳐흘렀다.

"엇"하고 하호정은 놀래서 주전자를 든 손을 움츠러들이는 바람에 국그릇 장그릇을 뒤집어엎어서 청안군의 웃옷 앞자락은 이 국물로서 물젖은 걸레와 같이 되었다. 청안군은 불쾌한 그의 취태에 얼굴에 노기를 띠고 펄떡 일어서서 "음"하고 공자를 노며 퇴장을 하였다.

"앗, 대감 대감."

하고 하호정은 마주 일어서서 그의 뒤를 따라 나가며

"아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쫓아가서 사죄를 해야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 거렸다.

이리하여 하호정은 청안군의 뒤를 따랐다.

청안군의 별배구종이 이 광경을 보고

"하 감사 대감께서 뒤를 쫓아오십니다."하고 민망하여 주인에게 고하였다. 그러나 청안군은 심중이 불쾌한 지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고 돌아다보지도 않고 말에 올라 자기 궁 앞대문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냥 중문을 거쳐 내문으로 들어서려 하였다.

하호정 역시 대문에서 말을 내려 중문을 거쳐 내문에까지 뒤를 쫓아 들었다.

청안군은 심중에 의아하였다. 어이해서 이다지 남의 집 내문에까지 쫓아 드는가? 하고 그제야 뒤를 돌아다보며

"대감은 어찌 여기까지 날 쫓아오는 거요"

하고 퉁명스럽게 질문하였다. "잠깐 긴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술을 엎질러서 여기까지 뫼시고 나온 격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엎질렀다."

청안군은 그제야 모든 것이 석연이 풀리어서 곧 하호정을 안채 뒷방으로 끌고 들어가 좌정하였다.

"급한 일이라니?"

"네, 이제 대군 신변에 위급이 박두 했습니다."

하고 청안군의 귀에다 입을 대고 대사의 비밀을 속삭인 후에

"이 몸이 서울에 있으면 몸으로 전하를 돕겠습니다마는 왕명이 계신지라 하는 수 없이 임지로 가기는 해야겠사온즉 한 가지 계교를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안산군수로 있는 이숙번(李叔蕃)이 정릉 이안군(貞陵 移安軍)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고 있는 중이온즉 이군수를 부르셔서 대사를 말기시면 지용(智勇)을 겸비한 위인이라 능히 대사를 완수 할 것이옵고 또 일이 성사되면 곧 신을 부르시면 후사를 계교하겠습니다."

하고는 급히 궁을 하직하고 나와서 시침을 뚝 때고 충청도로 부임하였다.

호정 하륜이 하직 하고 간 후에 청안군은 곧 이군수를 비밀히 불러 침실에 드려 앉히고 대사를 위촉하였다.

듣기를 마친 이숙번은

"전하의 부탁이라면 그야말로 여반장으로 즉시 촉행하고 말 것입니다."

하고 상담하며 나서서 수하의 이 안군졸을 격동하여 먼저 군기감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궁중 종복들을 합류시켜 경복궁을 포위하고는 눈코 뜰 사이 없이 대사를 거행하여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정사지변을 삽시간에 성공한 청안군이 남문밖에 장막을 느리어 큰 장막 속에 정좌하였는데 그 장막 아래에 또 한채 자그마한 장막을 꾸미어 높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앉은 사람이 없더니 거무하여 하호정이 소명을 받고 밤사이에 상경하여 곧 그 장막에 정좌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여러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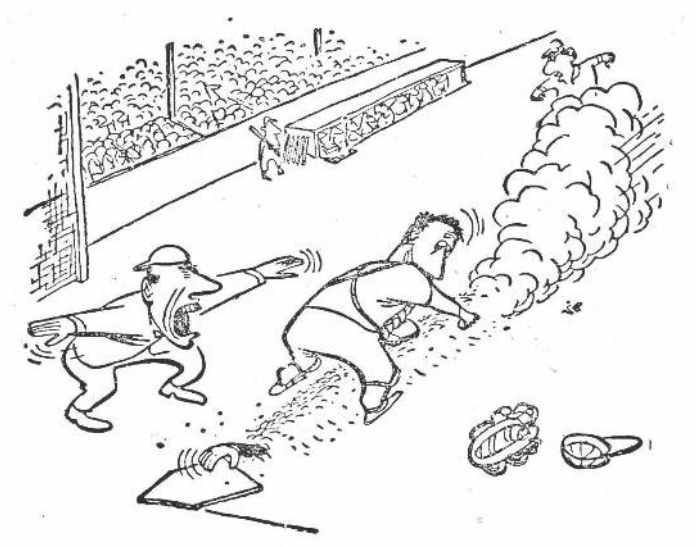
"승상 한분이 벌써 생겼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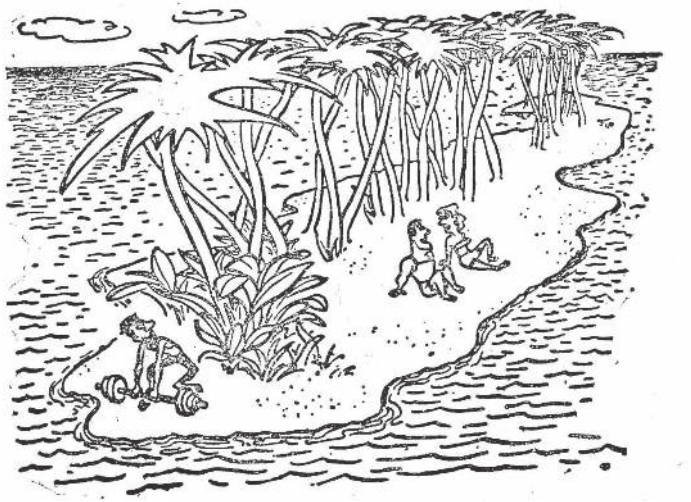
하고 수군댔더니 과연 선후 수습에 공을 이루어 재상의 지위에 올랐거니와 정사의 공은 기실 이군수 숙번의 힘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끝)

출송강제총화권지십(出松崗齊叢話卷之十)

이언(俚諺)

☆ 모든 사건(事件)의 지도자(指導者)는 여자였다. (영국)
☆ 약초(藥草)와 독초(毒草)는 한 뜰에서 자란다. (영국)
☆ 흘아비는 이가 서 말, 과부는 은(銀)이 서 말. (한(韓))
☆ 바늘 간데 실 간다. (한(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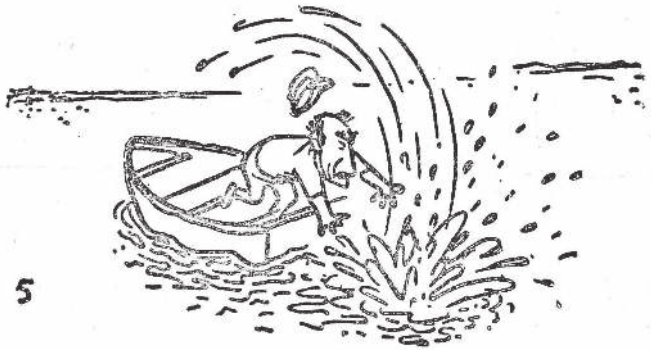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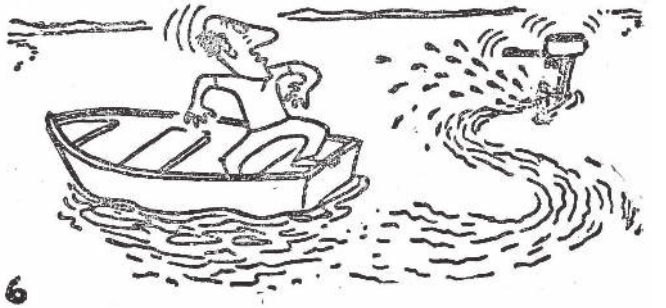
1

2

3

4


5


6

방사선(放射線)의 영향(影響)

미국과학원(美國科學院)은 이렇게 보고(報告)하였다.

외지(外誌)에서

워싱턴에서 지난 6월 12일 개최된 미국과학원의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보고회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보도가 종래에는 미국원자력위원회의 낙관적이며 또한 단정적인 발표에 의한 것이 주(主)였는데 이번의 과학아카데미의 보고는 어지간히 경고적이며 비판적이라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과학아카데미가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955년이었으며 연구비는 전부 록펠러 재단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여섯 개의 소위원회로 분류되어 있는데 즉 유전, 병리, 농업 및 식물, 기상해양 및 어업, 방사성폐기물의 투기, 이와 같은 6부문인 것이다.

이번 미국과학아카데미에서 발표된 보고는 2종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용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일반 공중(公衆)을 위한 것이다. 이것들의 보고에는 위선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의 성립 경위와 그 목적을 기술한 뒤에 "방사선에 관한 어떠한 토론의 배후에도 대규모적인 원자전(原子戰)이라는 괴물이 틀림없이 몽롱하게 나타날 것이다. 원자전은 전 지구 혹은 그 대부분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에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서두(書頭)로 시작된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있어서도 방사선은 물론 밀폐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자전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원래 무관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유전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벌써 천연방사선(우주선(線)이나 천연방사능)의 영향을 받아 그 결과로서 자연발생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 장해가 나타나고 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최소의 방사선량이라는 것은 없으며 아무리 소량이라 할지라도 생식세포에 도달한 방사선은 그것에 상당할 만한 돌연변이를 초래한다. 이런 종류의 방사선장해는 적산적(積算的)인데 자기의 수태(受胎)에서 자기가 낳는 최후의 어린아이의 수태까지의 사이에 그 생식기가 받은 방사선의 전량(全量)에 의존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찰하면 유전적 장해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전 인구에 있어서는 돌연변이의 수와 장해의 수는 대체로 비등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인구와 장시간에 대해서 고찰하면 다수에 대한 소량의 방사선은 소수인에의 다량의 방사선과 동등하게 유해한 작용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천연방사선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유전 장해의 수를 2배로 하는 선량(線量)은 대략 30뢴트겐 내지 80뢴트겐[51]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 인구의 약 2%에 유전 장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인 전체가 30 내지 80뢴트겐의 방사선에 침습된다면 유전 장해는 전 인구의 4%로 증가할 것이다.

불과 10뢴트겐의 선량에 있어서도 미국 전 인구가 거기에 조사(照射)된다고 하면 약 5백만이나 되는 돌연변이 유전인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X선(線)으로는 환자의 턱에 1회당 약 5뢴트겐이 조사된다고 한다(물론 이 경우에 생식기 등에 있어서는 약 천분지 5뢴트겐의 조사에 불과하다).

미국인의 30세까지의 우주선에 의한 조사량(생식기에의)은 43뢴트겐이며 원수폭병기로부터의 방사능에 의한 것은 0.05 내지 1뢴트겐으로 추산되며 X선은 3뢴트겐으로 계산되고 있다.

강력한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강력한 방사선에 조사된 사람으로서 방사선증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로(早老)하며 평균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해진 사실이다. 미국인의 평균연령은(25세 이상의 통계) 65.6세인데 방사선기술자는 평균연령보다 5년 이상이나 짧은 60.5세이며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사는 63.3세이고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에 있어서는 65.7세로 되어 있다. 전 인구가 대단히 미소한 선량에 조사되었을 경우의 평균수명의 변화도 예상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백한 것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

환경이나 식물에 있어서는 현재로 보아서 아직 중대한 문제로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벌써 원수폭에서 생긴 스트론슘 90이 인체에 함유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식물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의 최대 허용량이 명백지 않은 것이다.

오랫동안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물을 먹었을 경우에 인간과 동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층권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방사성의 낙하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의 기상학 지식으로서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다. 원자력 평화 이용이 발

51) 원문의 렌트겐은 뢴트겐. röntgen

달하면 아마도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다 표면에 그대로 흘려버린다든지 연안에 흘려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해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에 의한 심해의 연구가 요망되는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1. 각인(各人)이 받은 방사선량의 기록보지

2. 의학용 입선(入線)의 사용은 최소 필요량으로 그칠 것

3. 전 인구에 있어서는 수태에서 30세까지 생식기에의 조사선량을 10뢴트겐 이하로 멈출 것(천연방사선을 제(除)함)

4. 이 기준은 수시로 재검토할 것

5. 개개의 경우는 30세까지는 총량으로서 50뢴트겐을 한도로 하여 30세에서 40세에 이르기까지에 다시 50뢴트겐 이상을 생식기에 조사치 말 것.

6. 세계적 규모에 의한 방사성 낙하물의 감시 기술을 개선할 것

7. 성층권에 있는 방사성물질 축적유(蓄積遺)의 측정 계속과 연장

8.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있어서 정부기관에 의한 관리와 기록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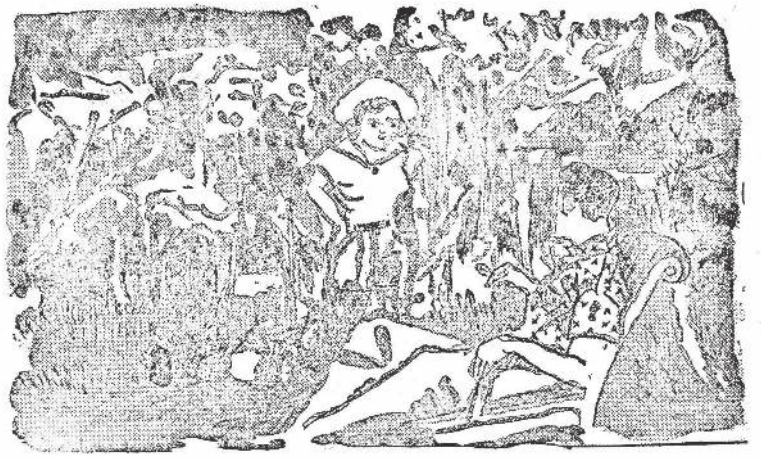
9. 국제기관으로 하여금 해양 투기의 안전기준 설정

10. 해양 투기의 연구를 국제적인 협력으로서 행할 것

11. 인구가 조밀한 지역 부근에 있는 원자로의 봉쇄

12.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연구를 계속하며 촉진시킬 것. 즉 기초유전학, 포유류 유전학, 인류 및 전 인구유전학, 방사선의 병리학적 영향, 대기 및 해양 각 부분의 혼합 동식물에 있어서의 방사성물질의 농축, 인간과 동물의 식물 가운데의 방사능의 최대허용량, 방사성폐기물의 지구 물리 및 지구 화학적 연구, 생물학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원자력 시설의 위치 선정, 원자로의 폭주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이와 같은 일련의 보고가 의미하는 것은 이 보고에 기술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성과 신중과의 부단한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못 된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겠다.



<연재소설(連載小說)>

칼리만자로의 눈 (2)

E 헤밍웨이 작(作)

이기석 역(譯)

여자는 사격에 명수야 맞았어, 착하고 돈 많은 암캐야, 상냥한 시종꾼이야,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재능의 파괴자야, 맞았어. 당치도 않은 소리! 네 재산은 네 스스로가 때려 부은 게 아니야. 무슨 소릴…… 네 시종을 잘 든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나무랄 까닭은 없는 게 아니냐? 너는 네 재능을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망친 것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와 자기의 신념과 이 두 가지를 다 배반했기 때문에, 너무 술만 마셔 자기의 감수성의 칼날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태만과 타성과 속물근성, 그리고 자부심과 편견 기타 모든 시시껍 저분한 것들 때문이 아니냐. 이게 뭐냔 말이다? 헌책 가타로구냐? 도대체 네 재능이란 뭣이 깽이냐? 그야 물론 재능은 틀림없는 재능이지. 허나 년 써먹는 대신에 그 재능을 미천 삼아 여태껏 그놈을 팔아먹어 왔던 게 아니냐. 그의 재능이란, 실지로 실천 수행한 재능이 아니고 언제나 그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재능이었다. 그는 펜이나 연필 대신에 딴 것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는 연애를 하면, 의례 앞서 여자보다 부자가 걸리곤 한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그 여자에게 대하듯, 이미 사랑도 다 없으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전 남편도 자식도 있고 몇

번 딴 남자를 사랑해본 일도 있었으나 번번이 실망을 느끼다가, 지금의 그를 작가로서 남자로서 일생의 벗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소유물로서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를 대하듯 전연 사랑도 없이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과거에 진실한 사랑을 하던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보답을! 그 여자의 돈에 대하여! 할 수 있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은 모두 자기 재능이 맞기 때문에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든 거기에 각자의 재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여태껏은 어쨌든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저렇게 팔아먹고 살아왔던 것이다. 애정이 그다지 끓어오르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더 값진 보답을—돈에 대한 보답을—할 수 있다니? 이 괴상한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사실도 아예 쓰지 않으리라. 아무렴 쓸 가치가 제아무리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쓰지는 않으리라.

이때 여자의 모양이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 공터를 건너 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라이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해 두 명이 수놈의 토미—(山羊) 한 마리를 거꾸로 매달고 그 여자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언제 보아도 잘 생긴 얼굴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통쾌한 육체미도 가지고 있었고 침대의 기술과 실력도 상당하였다. 그리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으나 그가 좋아하는 얼굴의 주인공이었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독서가요 승마가요 사냥꾼이기도 하였다. 확실히 술도 과음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은 아직도 상당히 젊은 때이었다. 얼마간은 겨우 성인이 된 두 아해들에게 심신을 다 기울이기도 하였었으나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자 애들은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 여자는 승마와 독서와 술에 열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전 독서를 즐기었던 것이다. 독서 하면서 스카치에 소다를 마시면 저녁식사 때까지는 거나하게 취기가 돌아서, 상을 받고 포도주 한 병쯤 더 하면 보통 마취되어 잠이 잘 들곤 하였다.

이것은 애인들이 생기기 전 일이었다. 애인들이 생긴 이후로는 그렇게 과음할 필요가 없었다. 만취하지 않아도 잠이 잘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애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전에 결혼했던 남편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이 패들에게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다.

두 아해 중 한명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은 후로는 애인 같은 것을 바랄 겨를도 없었다. 술을 마셔도 조금도 기분전환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생활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자기 고독감을 뼈저리게 느끼었던 것이다. 결국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같이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극히 단순하였다. 그 여자는 해튀의 작품을 좋아하였고 그의 생활을 부러워하였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짓을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자가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든 그 과정이며 결국에 가서는 그에게 반해버린 경로는 판에 박힌 진행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즉 여자가 새로운 생활을 스스로 개척하였고 동시에 그도 낡은 생활의 잔재를 팔아먹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었다.

그가 자기의 낡은 생활을 팔아먹은 것은 안정,

다시 말하면 안위를 얻기 위해서였다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그 외에 무슨 까닭이었을 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자가 사줄 수 있으리라는 것만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기막히게 멋진 여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딴 어떠한 여인네보다도 먼저 이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부자인 데다가 기분이 월등히 좋았고 또 침상의 기술이 좋을 뿐 아니라 바가지를 긁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좋았다. 그러나 지금 그 여자가 다시 출발한 이 생활은 종막에 가까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두 주일 전 한 떼의 사슴을 촬영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다가 가시에 무릎을 긁혔을 때 옥도정기를 바르지 않은데서 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그때 사슴들은 대가리를 치켜들고 콧구멍으로 공기를 맡으면서, 바스락 소리만 나면 그냥 수풀 속으로 줄행랑을 치겠다는 듯이 귀를 넓게 벋치고 있었다. 그가 사진을 찍기도 전에 그들은 또한 뺑소니를 쳤던 것 이다.

이때 막 여자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돌려 여자 쪽을 보았다.

“여보.”하고 그가 불렀다.

“토미—(山羊) 한마리를 잡았지요.”하고 여자가 사나이에게 말하였다. “맛있는 국을 끓여 드려야지. 크림과 함께 감자도 좀 으깨라고 일러야겠어요. 근데 참 기분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졌어.”

"어머나 좋아라. 그것 보세요. 제가 상상한 대로 기분이 좋아 지셨지 않아요. 제가 사냥 갈 때에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참 잘 잤어. 당신 멀리 갔었우.”

"아뇨. 언덕 뒤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았을 뿐예요. 양은 한방에 직사에요.”

"당신은 굉장한 명포수(名砲手)로군 그래."

"전 사냥이 좋아요. 아프리카도 좋아요. 정말 당신만 몸이 성하셨더라면 일생에 제일 재미있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사냥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당신은 모르실 꺼에요. 난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나도 그래."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 지신 것을 보는 것이 그 얼마나 신통하고 좋은지 당신은 모르실거에요. 아까 같은 그런 기분이시라면 전 정말이지 못 견디겠어요. 다시는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약속해 주시죠. 네?"

"몰라." 하고 그는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몰라."

"제 마음을 산산 조각해 낼 필요 없지 않아요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하는 중년 계집이라는 것 이외에 무슨 죄가 있어요? 전 이미 두세 번이나 마음이 산산 조각해 깨어 진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또다시 제 마음을 깨트려주지 않으시겠지요. 네?"

"베드에 누어서 두어 번쯤 더 당신 마음을 악살박살을 시키고 싶은 걸."하고 그는 말하였다.

"네 참 훌륭한 악살박살이군요. 우리는 이같이 서로의 마음을 악살박살을 만들 팔자니까요. 그러나 내일은 비행기가 올걸요."

"당신이 어떻게 알어."

"전 확신해요. 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해들은 벌써 연기를 낼 풀과 나무를 준비해 두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確認)하였어요. 착륙(着陸)할 공터도 충분히 있고 벌써 공터 양끝에는 연기를 피울 마련이 다 되어 있어요."

"뭣을 가지고 내일 비행기가 온다는 거야?"

"전 확신해요. 이미 예정 일이 지냈으니까요. 비행기가 오면, 도시(都市)에 가서 당신 다리를 고치고 그땐 좀 좋은 싸움을 합시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말고요."

"우리 한잔 할까? 해도 지고 했으니"

"아무래도 꼭 한잔 하셔야겠어요?"

"한잔 할 테야."

"그럼 우리 한잔씩만 하십시다. 뫼뢰야, 위스키 소다 두 잔만 가져와!"하고 여자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 모기한테 뜯기지 않도록 장화를 신는 게 좋아."하고 그는 여자에게 말하였다.

"목욕하고 나서 신겠어요."

어둠이 깊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술을 마시었다. 날이 캄캄하게 저물기 직전 - 사격할 수 없으리만큼 어두워졌을 무렵,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언덕을 돌아 나와 공터를 횡단하였다.

"저놈의 것은 매일 밤 저기를 횡단한단 말야."하고 사나이는 말하였다. "두 주일 동안 매일같이"

"저것이 바로 밤이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놈이군요. 전 별로 기분상하지도 않은데요. 흉칙한 동물이긴 하지만."

이제는 같은 자세(姿勢)로 누어있어야만 한다는 괴로움 이외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불을 지르는 아해들과 천막위로 뛰어오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 잔의 술을 나누어 마시니. 통쾌한 항복자(降伏者)의 생할을 묵종(默從)하고픈 충동이 다시 그의 마음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여자는 정말로 사나이의 시종을 잘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잔인하고 부당한 태도로 그 여자를 대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훌륭한 여자이고 진정 기특한 여자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뒤적거릴 때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그의 머릿속에 왈칵 치밀어 올랐다.

공포심은 급격히 그의 마음을 습격하였다. 물결이나 바람 같은 그런 습격이 아니고, 난데없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공허(空虛)의 습격이었다. 그리고 기묘(奇妙)한 것은 그 공허의 가장 자리를 그놈의 하이에나란 놈이 슬쩍 미끄러지듯이 스쳐 갔다는 것이다.

"왜 그래서요 해튀?"하고 여자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하고 그는 말하였다. "당신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바람 쪽으로 말야."

"모로가 붕대를 갈아드렸나요?"

"응, 지금은 붕산(硼酸)을 쓰고 있을 뿐이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좀 허청허청 하는 것 같아."

"목욕을 하러 가겠어요."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곧 끝나요 당신허구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침대를 넣읍시다."

그러니 싸움을 그친 것은 참 잘한 짓이었다고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이 여자하고는 그리 많이 싸운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사랑하던 여자들과는 지독하게 싸우곤 하였었다. 그래 그 싸움이 마음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결국에 가서

는 의견이 일치된 것까지도 깨트려버리곤 하였었다. 그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너무 많이 바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만사를 다 탕진(蕩盡)해버린 격이었다.

그는 파리를 떠나기 전, 싸움을 하고 혼자서 콘스탄티노플로 달려오던 당시의 생각이 났다. 내내 오입만 하다가 이제 그것도 다 집어 치워버리니 마음의 고독을 참을 길 없었다. 고독감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다. 그가 첫째 번 여자, 자기를 차버리고 다라난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러한 심경에 빠져 있던 때이었다. 편지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래도 고독감을 참을 수 없다는 것 - 어느 날 렌산스 교 외(郊外)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마음이 아포고 기절할 것 같았으며 불뵈르가(街)에 당신 비슷한 여자가 있기에 그 뒤를 따르려다가 당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실망할 것이 몹시 두려워 고만 두었다는 것.…… 이년 저년 닥치는 대로 같이 자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당신 생각이 점점 더 잊히지 않을 뿐,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가시지 않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전에 헌 짓 같은 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그는 이 편지를 구락부에서 썼는데 그땐 전연 취기(醉氣)가 없었다. 파리의 자기 사무실로 답장 해달라는 부탁을 첨가(添加)하여 뉴욕으로 발송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마음이 허전하고 뻐저리게 그 여자 생각이 간절하였으므로 택심빠 앞을 지나다가 계집 하나를 잡아끌고 나와, 저녁을 같이 하고 춤을 추러갔던 것인데 그 계집의 춤은 도무지 기분이 나지 않으므로 정열적인 아메니야 인(人)의 잡년과 상대를 바꾸었는데 그 년은 어찌나 배때기를 그에게 비벼대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여자를 격투 끝에 영국 포병 하사관(英國砲兵下士官)에게서 빼앗았다. 하사관은 그에게 밖으로 나가서 보자고 했으므로 그들 둘은 컴컴한 자갈 길 위에서 싸웠다. 그는 놈의 옆 턱을 두 번이나 되게 갈겼으나 놈은 쓰러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본격적 격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놈은 그의 가슴팍이와 눈자위를 갈겼다. 그는 다시 왼손 스윙으로 놈에게 일격을 가하니 놈은 그에게로 꼬꾸라지며 그의 저고리를 잡어 찢었다. 그는 놈을 휘잡고 귀 뒷머리에 두 대를 연거푸 메기는 동시에 오른 손으로, 그를 떠다밀면서 후려갈겼다. 놈은 대가리를 부딛[치]고 쓰러져 버렸으나 M.P가 오는 소리가 났으므로 그는 여자를 데리고 뺑소니를 쳤다. 택시를 잡아타고 보스포러스 해(海)에 따로는 뤼미이 힛사까지 차를 달렸다. 그리고 그 근방을 싫건 쏘다니다가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되돌아와 자리에 들었다. 여자는 외양과도 같이, 지나치게 무르익은 감이 없지도 않았으나 부드럽고 장미꽃잎 같고 꿀같이 미끄러운 뱃가죽에 유방(乳房)이 달려 있었다. 그러니 도대체 여자 엉덩이에 베개를 고일 필요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여자가 깨기 전에 나가 버렸다. 아침 첫 햇살이 비칠 때 계집은 정말 꼬락서니 보기 싫었다. 소매 한쪽이 뜯어져 있었으므로 저고리를 들고서 페라 패리스에 얼굴을 나타내었다. 눈자위에는 검은 멍이 들어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로 향발(向發)하였다. 그는 아편을 재배하는 양귀비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리던 것 그리고 그 결과 감각(感覺)이 이상해져서 거리감(距離感)이 전연 뒤틀리었던 일 등이 생각났다. 이것은 그의 여행의 후반(後半)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다음 그가 도착 한 곳은 콘스탄틴의 신임 장교들과 공격을 개시하던 지점(地點)이었다. 신임장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新參)들이었다. 포병대(砲兵隊)는 적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고 영국관측(觀測) 장교는 아해 모양 큰소리만 지르고 있는 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전사자를 본 것은 그날이었다. 전사자는 흰 발레용(舞踊用)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위로 젖혀진 술 달린 장화를 신고 있었다. 터키(土耳其) 군대가 쉴 새 없이 떼를 지어 왔다. 스커트 입은 병정이 도주(逃走)하는 곳을 향하여 권총을 쏘아대던 장교들도 나중에는 뺑소니를 쳤다. 그와 함께 관측장교도 또한 줄행랑을 쳤다. 숨이 차고 입에서는 동화(銅貨)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 그와 관측장교는 어느 바위 뒤에 숨었으나 터키군은 여전히 떼를 지어 쳐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 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지독한 광경들을 목격(目擊)하였고 좀 더 후에는 한층 더 지독한 광경들이 전개되었다. 당시 파리에 돌아갔을 때, 자기나 남이나 말하기에도 끔찍한 일들이었다. 또 그리고 길가의 카페에서는 미국 시인(詩人)이 앞에 접시를 산더미 같이 싸놓고 그 감자 같은 얼굴의 멍청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루마니아 사람과 같이 다다이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루마니아 인은 트리스탄 싸라라는 자인데 노상 외알 안경을 쓰고 두통병(頭痛病)을 앓는 사나이이었다. 그는 전에는 내외 싸움도 많이 하였고 미친 지랄도 굉장히 하곤 했었지만 이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고 아내와 더불어 아파트로 회송되지 않으면 안 되는 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여자에게서 온 편지가 장반에 받혀서(하녀에 의하여) 운반된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 필적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편지를 딴 편지 밑으로 슬쩍 집어넣으려 했으나 아내가 보고 말했다. "여보 거 누구 편지지요?"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만사는 시작이자 곧 끝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또한 그치들과 함께 지내던 당시의 즐거움을 회상하여 보았다. 싸움도 무던히 하였었다. 그들은 장소도 언제나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싸움을 했던 것이다. 자기의 기분이 가장 좋을 때 그들과 늘 싸움을 하곤 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그

일에 관해서도 단 한자도 써본 일이 없다. 첫째로는 남을 중상하기 싫어서요. 그다음으론 그것 아니래도 얼마든지 쓸 것이 있을 상 싶어서이었다. 허나 결국 그 일을 써야지 하고 늘 생각만은 해왔던 것이다. 쓸 것은 참 많았다. 그는 세상이 변천해 가는 양상(樣相)을 보는 눈이 있었다. 표면적(表面的)인 사건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해왔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보다 세밀한 변화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하는 것도 회상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관찰해 왔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은 그의 의무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절대 쓰지 않으리라.

"기분 어떠세요?"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소."

"그럼 잡수실 수 있어요?" 모로가 그 여자 뒤에 식탁(접게 만들어진)을 들고 서있고 아해 하나가 접시를 들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었다.

"난 글을 쓰고 싶은데"하고 그는 말하였다.

"기운 나시게 수프를 좀 드셔야지요."

"난 오늘밤 죽을 것이니"하고 그는 말하였다. "기운 낼 필요도 없어."

"해뤼, 제발 그런 연극 같은 말씀은 고만 하세요."하고 여자는 말하였다.

"왜 당신 코는 뒀다 뭣에 쓸 작정[이]야 이전 내 넓적다리가 반 이상 썩어버렸는데 스프는 먹어서 뭣에 써먹겠느냐 말야?"

"모로야, 위스키 소다 가져온."하고 여자는 조용히 말하였다.

"그럼 좋아"

스프는 너무 뜨거웠으므로 그는 먹기에 알맞게 식을 때까지 그 컵을 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후, 그는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그 국을 다 들이켜 버렸다.

"당신은 참 훌륭한 여자야"하고 그는 말하였다. "나 같은 것은 내버려 두어줘요"

여자는 만인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유명한 표정을 띠우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스파」 또는 「타운 앤드 커트리」 잡지에 흔히 나오는 표정이었다. 술과 난봉 때문에 약간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파」나 「타운 앤드 컨트리」같은 데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자이었다. 그 탐스러운 유방(乳房)이며 쓸모 있는 넓적다리이며 그 위 허리를 애지중지 쓰다듬은 가벼운 솜씨이며. 그러나 그는 여자의 그 유명한 기분 좋은 미소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면 다시금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번엔 죽음의 공포가 왈칵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촛불을 흔들흔들하게 하고 불꽃을 기다랗게 만드는 바람모양, 솔솔 닥쳐오는 것이었다.

"이따 내 모기장을 내다가 나무에 매달구 불을 피워줘요. 난 오늘밤에는 안 들어갈 터이니 움직인대짜 별 수 없구. 밤하늘도 맑고 비는 안 올 테니까."

그렇다, 이와 같이 죽어가는 것이다 - 들리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그래 이전 싸우지도 않으리라 -.

죽는 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전무후무(前無後無)의 유일한 이 경험 - 싸우지 않는다는 - 만은 이제는 간직하리라. 그러나 또 이것마저 깨트려 버릴지도 모르지- 만사를 다 깨트려 먹었으니까. 아마 이것만은 깨트리지 않으리라.

"당신은, 받아쓰기는 못하겠지. 응?"

"해 본 일이 없었어요."하고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좋아"

도대체 시간이 없었다 - 잘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한 절(節) 속에 압축해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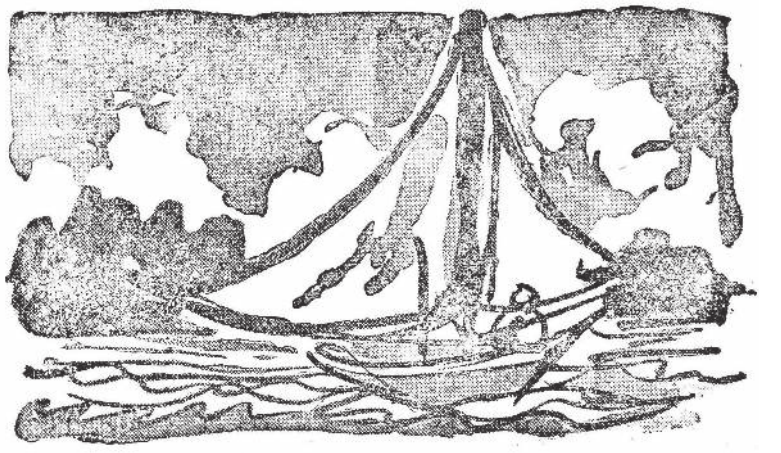
호수 위 언덕에, 모르탈로로 희게 틈바구니를 칠한 통나무 오막집이 있었다. 문 옆 기둥에는 종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것이었다. 집 뒤에는 밭이 있고 그 밭 뒤에는 숲이 있고 롬바르디 포플러나무가 집에서부터 독크(船渠)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죽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딴 포플러나무들은 곳(岬)에 따라 죽 늘어서 있었다. 그 숲 가생이에 따라 한 오리 길이 언덕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는 이 길을 올라가며 검은 딸기를 따먹곤 하였던 것이다. 후에 그 통나무 오막집은 타 버리고 벽로(壁爐)위에 있는 사슴다리 총가(銃架)에 걸려있던 총들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탄창(彈倉)의 납(鉛)이 녹아떨어지고 개머리판이 타버린 총신(銃身)이, 잿더미 위에 나자빠져있었다. 그런데 그 재는 쇠로 만든 큰 솥에 빨래를 삶는데 쓰는, 알카리액(液)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총신(銃身)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좋으냐고 할아버지께 물은즉 대답은 "노"이었다. 타버렸을 망정 자기 총에는 틀림없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그 후 노인은 총을 두 번 다시는 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목재로, 같은 장소에 집을 짓고 흰 칠을 하였다. 현관에서는 포플러나무와 멀리 호수가 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총은 보이지 않았다. 그전 통나무 오막집 벽의 사슴다리 총가에, 걸려있던 총신(銃身)은 잿더미 위에 나자빠져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 후이었다. 우리는 슈발쓰발트(獨逸西南部의 森林地帶)에서 숭어 낚시장을 빌

린 일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 하나는 트리베르히에서 계곡(溪谷)을 내려가는 길이었다. 계곡을 내려서서는 하얀 길가에 따라, 나무그늘이 우거진 골짜기 길을 돌고 슈발트발트 유(流)의 큰 집들이 있는 자그마한 농장을 수없이 지나 마침내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셋길이, 강을 가로지르는 곳에 이르니 그곳이 바로 낚시질을 시작하던 곳이었다.

또 하나는 숲 변두리까지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이었다. 숲 변두리까지 가서는 소나무 숲을 뚫고 언덕 꼭대기를 횡단하여 다시 초원(草原)의 변두리로 나와, 그 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되었다. 강변에 따라서는 벗나무가 늘어져 있었다. 폭이 좁고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물만은 맑고 재빨리 흘러내리는 강이었다. 그리고 벗나무 뿌리 밑의 물결이 중단되는 곳에 연못이 이루어져 있었다. 트리베르히의 호텔 주인은 호경기 시즌을 만난 것이었다. 우리의 기분은 극치에 달하였고 우리는 모두 의합(義合)한 친구가 되었었다. 그 이듬해에는 인플레가 왔다. 작년에 번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올해, 호텔을 개관(開舘)할 필요물자(必要物資)를 구입할 수가 없어, 주인장은 목을 매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차호(次號) 계속)



<창작(創作)>

폐허(廢墟)의 독백(獨白)

유주현(柳周鉉)

손바닥으로 이마에 흐르는 빗물을 쓱— 씻으며 하늘을 쳐다보는 강문수(姜文秀), 그의 뺨에는 희끄무레한 흉터가 흡사 깜파리[52] 형국을 하고 있었다. 왼쪽 뺨 입언저리였다. 세피아 빛 잠바에 탈색한 군복바지를 입은 강문수는 빗물이 드는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씻어 넘기며 허공을 쳐다보았다. 자욱이 가라앉은 하늘, 개일 것 같지도 않았다. 여름철의 가랑비란 우울한 것, 허공을 쳐다보는 강문수의 표정도 몹씨나 우울해 보였다. 상이제대병 강문수는 현재 XX 일보사의 광고부원이다. 신입 무경험의 광고부원이다. 그는 아침부터의 활동이 저녁때가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하여 스스로 불쾌했다. 수월하게 성과를 올리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따분한 일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문수, 그는 부지중에 입맛을 한번 쩍 다시며 차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차도를 건너야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연이어 닥쳐오는 자동차들로 말미암아 좀체로 인도(人道)를 내려설 수가 없어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때마침 지나던 택시 한 대가 앞에 와서 스르르 멈춘다. 조수대에 앉은 열댓 살 난 아이놈이 강문수의 눈치를 살피다가 피—하고 비웃는 듯한 눈총을 남겨 놓고는 다시 미끄러져 갔다.

52) 원문의 깜파리는 껌팔이로 보임.

강문수는 문득 자기가 무심결에 손가락 하나를 앞에 펴들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자 아랫입술을 쑥 내밀며 불현듯 차도를 횡단해서 명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문수, 그는 길을 걸으며 역시 처음에는 좀 창피하더라도 친지들을 찾아 안면으로 부탁해보는 방법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 법도 한데 좀체로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았다. 강문수는 꽤 굵어진 빗발을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뿐임을 깨달았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는 사람은.

강문수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오라는 곳도 없는데 왜 이리 비를 맞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그대로 걸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다. 조만히 그칠 것 같지도 않은데 처마 밑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명동어구에 접어서자 그는 어깨에 촉촉한 감촉을 느꼈다. 팔목의 시계를 본다. 세 시를 지난 지 십분, 아직 시간은 멀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허기증을 느낀다.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허기증이 일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잠시 후 강문수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어느 빌딩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는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의 빗물을 닦으며 다시 한 번 앞에 있는 건물을 훑어본다. 이층 타일의 건물 삼영제약(三永製藥)이라는 네모진 간판이 반듯하게 매달려 있다.

이윽고 강문수는 삼영제약의 좁다란 층계를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중간쯤 올라가다가 마침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한편으로 비켜섰다. 젊은 여자였다. 그는 여자의 무 밑둥같이 쭉 뻗은 종아리를 힐끗 훔쳐보았다.

"지배인 계신가요?"

"올라가 보세요!"

여자는 대수롭지도 않게 대꾸를 하며 또각또각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다. 강문수는 유쾌하지 않았다. 있다든가 없다든가 대답해줄 일이지 올라가는 사람에게 올라가 보라는 말은 물어본 말의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유쾌하지 않았다.

강문수는 자기가 초라한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 같아 불현 듯 층계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러나 이미 그의 눈이 닿는 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강문수는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진종일 허탕을 치고서 생각코 망설이다가 아는 사람이 있는 이삼영제약을 찾은 것인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층계를 올라가다 작으나마 이런 유쾌하지 않은 일이 생겼으니 미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배인 배준걸은 텅 빈 사무실에 댕그라니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뜻밖에도 강문수가 예기했던 이상으로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잠시 세상 이야기를 하던 끝에 강문수가 XX일보사 광고 부원이라는 자기의 직업을 밝히니까 그는 적잖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문수의 동정을 눈여겨 살핀 다음 침착하게 말을 꺼낸다.

"하기야 그것을 자네 같은 지식청년이 정상적인 직업으로야 치겠나만…… 그러나 허는 수 없지 뭐, 현재의 환경은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타개해야 하니까, 그래 생활은 헐 수 있겠나? 그걸로?"

강문수는 덤덤히 딴전을 보며 대꾸했다.

"아직 첨이니까 모르지만 남들도 그걸로 사니까 되겠지."

강문수는 이 중학 동창의 호의적인 말이 고마웠다. 그래 솔직히 배준걸에게 말했다.

"그래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도 실은 그런 용건일세. 나를 도와주는 셈치고 광고나 하나 내라고."

배준걸은 강문수의 말을 듣자 껄껄 웃었다.

"글쎄, 그것도 좋은 얘기네만 뭐 광고를 낼만한 게 있어야지. 광고를 내야만 팔리는 문건은 애당초 만들지 않으니까"

배준걸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혼잣말처럼 말을 또 이었다.

"영업도 시원찮은데다 세금 등쌀에 쉬쉬 하는걸."

강문수는 잠잠히 배준걸의 다음 말만 기다렸다. 완전히 거절하는 뜻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참 세상도……전시라고는 하지만 자네 같이 유능한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더구나 상이용사인데……" 배준걸은 반 개탄조로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 나가나?"

강문수도 따라 일어나며 물었다.

"음, 나 좀 급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겠어. 담에 또 들리게."

배준걸과 강문수가 밖으로 나왔을 때 빌딩 앞에는 젊은 여인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잠시 전 강문수가 층계를 올라가다가 만난 바로 그 여인이 배준걸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여일하게 내리고 있었다.

강문수는 가슴을 피고 어깨를 올렸다. 비 맞은 옷에 축 처진 어깨란 초라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리에는 맥이 하나도 없었다. 벌써 연사흘째나 다리품만 팔았을 뿐 소득이라고는 없으니 맥이 안 풀릴 수도 없었다.

강문수는 잠시 쉬어 보려고 가까운 다방 문을 열었다. 몇번 드나든 일이 있는 곳이라 무의식 중의 좌석을 쭉 살펴보았으나 별로 낯익은 사람이라곤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강문수는 자리에 앉자 우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신문을 집었다. 시선은 자연 광고란으로 갔다. 가지각색의 광고가 오단으로 꽉 차 있는 신문, 그것은 도하(都下)에서도 우수한 신문이었다.

강문수는 그 광고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일일이 그 광고주들을 기억해 두려는 듯이 차근차근 검토해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점점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았다. 결코 낙심이 되지 않았다. 아직 이 사회에서는 신문광고의 선전가치를 잘 모르는 기업주들이 많으리니 앞으로 개척할 영역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휴간하다가 달포 전에 다시 재발족한 삼류 신문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광고부원 들에게는 커다란 핸디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은 매일 몇 번씩이라도 물어 들이 길래 밥들을 먹을 것이었다.

— 남들이 하는 일을 못 한댈 수야 있는가 —

강문수는 신문을 팽개쳤다. 하품이 싹 났다. 시장기가 하품으로 변했는지 하품을 하니까 시장기가 더했다.

레지가 차를 날라 왔다. 언제 차를 시켰던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손을 바라보았다. 커피를 딿고 있는 레지의 몽실하게 살찐 손등을.

종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레지의 피라지 같은 종아리를.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독신임을 깨닫는다.

폭격으로 대전(大田) 집에서 죽었다는 아내가 머리에 떠올랐다. 결혼해서 여섯 달 밖에 살지 못한 아내다. 신접살림이라 이웃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었다. 죽었다고들 하니까 죽은 줄 알 뿐, 구태여 이웃사람들의 말을 의심해볼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다만 처음에는 미칠 것같이 그립기도 했지만 마음을 도사려 단념하려고 노력하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듯싶었다. 시일이 지날수록 눈앞의 현실과 대결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 전쟁으로 마음이 무디어 져서 그런가 했으나 한편 망각(忘却)이란 신이 인간에게 베푼 가장 큰 관용의 선물이니 잊을 때 잊고 생각날 때 생각하는 정도로서 마음 괴로울 바 없었다. 정욕이 발동할 때 죽은 아내가 그립고 속옷이 더러워졌을 때도 그가 아쉬웠으나 그런 필요성에 따른 그리움과 아쉬움이 구태여 부자연하다고 뉘우쳐진 일도 없었다.

어차피 인간이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여자를 보니까 아내의 생각이 난 것이다. 레지의 손등이 엉뚱한 상념을 자아냈던 것이다.

강문수는 무심히 자기 얼굴의 상처를 만지고 있었다. 중공군의 칼에 맞은 상처다. 그 당시의 육탄전이 머리에 문득 떠오른다. 그는 당시의 소름 끼치는 광경을 이내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생각을 말자고 결심하고 있다. 침략해 와서 큰 체를 하는 놈들을 제고장에서 물리치지 못한 채 군복을 벗었으니 아무래도 똥 누고 밑 안 씻은 격이다. 솔직히 말해서 군복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는 혼자만 겪는 일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일단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든 이상 그 길에 충실하려고 최선은 다했다. 그러는 동안에 인생관이 달라졌다. 침략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격퇴하고 말살해야 한다는 적개심만이 몸을 활활 태웠다. 군인이니, 민간인이니, 전선이니, 후방이니, 하는 관념조차 머리에서 사라져 벼렸었다. 남들은 자기 더러 용감한 군인이라고 칭송을 했다. 그 증거를 가슴에 달고 다니라고 훈장을 주었다. 미국에서도 조국에서도 여러 개의 훈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녀 본 일은 없다. 미국도 조국도 훈장이라는 것을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놓았으니까 자기에게 준 것이겠지만, 별로 반갑지도 싫지도 않았다. 훈장이 병정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 훈장을 바라고 목숨을 버리는 얼빠진 놈은 없다. 침략군의 병정은 혹 훈장을 바라고 총칼을 드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략자를 막는 군대에게 훈장이란 필요 없다. 막아야 살겠으니 막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니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데 칭찬이고 보상이고가 필요할 까닭이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영광이나 자랑이 될 수도 없었다. 훈장을 가슴에 다는 게.

레지의 손등으로 말미암아 잠시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고 뉘우친다. 강문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다음 다시 신문을 집었다. 시선은 또 광고란으로 갔다. 그래도 학벌을 따지자면 대학을 나왔다. 삼류 신문사의 광고부원이라는 직업이 결코 흡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들어선 길이니 최선을 다해야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문득 앞 소파에 와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있었다.

강문수는 쓸쓸히 웃었다. 앞에 와앉은 사람은 얼굴이 불쾌했다.

"낮부터 취했군, 그래!"

강문수는 신문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앞에 와앉은 사람에게 말했다. 그는 민영민(閔榮敏)이었다.

민영민은 테이블 위에 놓였던 강문수의 담뱃곽을 집어 한개 피어 물었다.

"낮이고 밤이고가 있나. 사시사철 취해야지."

민영민은 연기를 후— 내뿜으며 지극히 유쾌한 표정을 한다. 그는 자기가 지금 취해있는 것이 퍽이나 유쾌한 모양이다.

"자네 출출하군그래. 어디 가서 한잔 더 할까?"

"글쎄 …… 밥도 못 먹었는데 술을 ……"

"강군도 무식한 소리를 하네그려. 밥 먹어서 기분이 유쾌해 지나? 한껏 배나 부르지."

"그건 자네들이나 할 말이고. 화가와 노동자와는 생리가 다르니까."

"아이러니칼한 말일세 그려. 세태가 강박할수록 정신의 유열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게야, 적어도 인태리겐차란."

민영민은 지극히 위엄 있게 말을 하면서 강문수의 담배를 또 한개 꺼내 불을 잇는다. 그는 강문수의 대학 일 년 선배다.

"강군도 사람이 변했단 말야. 자네가 신문의 광고를 얻으러 다니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인테리의 마지막 밑천은 자존심이야. 뱃속에 똥만 든 놈들에게 머리를 굽히다니. 차라리 요새 한참인 국회의원 입후보나 해서 된 놈 덜 된 놈 찾아다니다가 권리금이나 슬쩍 받고 입후보 포기 공고나 내면 유명이나 해지지 않나!"

민영민은 레지를 불러 커피를 주문하고는 또 말을 계속한다. 그는 강문수가 일언반구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뭐 되놈들 하구 주먹질을 해가며 싸웠다구? 영광일세. 훈장도 많이 탔겠지. 육탄의 용사니까 허허 허허 …… 기막힌 넌센스로다. 수소탄 두 개면 한국전체가 무인지경이 될텐데 육탄전이 다 뭐야! 허허 허허 그것도 일종의 모로못트렸다. 냉전의 시험대 위에 오른 ……"

강문수는 줄줄줄 말을 흘리는 민영민의 입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영민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인정했다. 확실히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무시하려 하는 절름발이 이론에 불과하였다. 그야말로 개체의 자유를 꾀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도 알바 아니라는 주체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강문수는 지금 심경으로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잠자코 있기도 싫었다. 잠자코 있으면 민영민의 말이 정당한 것이 되어 그는 더욱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싫었다.

강문수는 나지막하나마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자네들 지식인도 현실적 활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설혹 자네들을 귀족적인 특권 계급으로 이 사회가 용납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자기행동의 비판만은 해야 하네. 지식만 풍부하고 이론만 발달되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전체적 의식을 잃은 개인주의일세. 적어도 자기 지식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활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네. 자네는 원자시대니 수소탄시대니 하여 그것을 순전히 인간 종언의 비극으로만 규정하여 행동의 의욕을 잃고 있는 듯하네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세계를 피하려는 행동이야말로 인간의 종언을 재촉하는 길이라고보네. 다시 말하면 현대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지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대담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단 말일세."

항상 과묵한 강문수는 한번 말을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자기 의견을 탁 털어놓는 일면도 있었다.

그는 현재 자기가 신문사의 광고부원이라고 해서 남에게 조소를 당해야할 이유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면 그만 못한 지게벌이나 거리의 소제부 노릇도 달게 해나갈 자신이 있었다. 그것은 광고모집이나 지게벌이를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도이니 만치 부끄러울 까닭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영민은 강문수의 말이 끝나자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내 이론에 대한 자네의 의견일세.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문제를 제시하는 데만 능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력한 것이니 어쩌나. 6.25사변을 일으킨 것은 6월 25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한 날짜는 계획적으로 미리 정하지 못할게야. 자네가 총칼을 들고 싸워 상이군인이 되었지만 그 희생이 현세계의 방향을 조금치나 변경시킬 수 있었느냐 말야. 하하하하."

민영민은 호기 있게 웃어버렸다.

강문수는 민영민의 말에 결연히 대결했다.

"불행한 일이야. 많은 청년들이 자네 말에 갈채를 보낼 테니. 허나 자네는 자네로서 최선의 길을 걷게. 자네도 집단사회의 한 분자야. 집단이 움직이는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존재 조건을 잃는 것일세. 자네는 현재의 불합리(不合理)와의 접촉을 피하려고만 하네만 그것은 결국 그 불합리를 조장하는 길밖에 안 되네. 화재현장을 보고 탄식하기 전에 물 한 사발이라도 아직 타지 않은 곳에 다 끼얹는 것이 연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시키기를 기다려 행동하지만 지식인은 자기 지성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해야 하네."

강문수가 혼자 열중하여 말을 하다 보니, 그때 민영민은 강문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딴 짓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민영민은 흰 종이에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이따금 강문수 자기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

강문수는 말을 중단하고 그 종이쪽을 넘겨다보았다.

"자네 초상화를 하나 푸레센트하지. ……"

민영민은 연상 연필을 놀리고 있었다. 그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운필(運筆)에 멋이 있었다. 손을 좌우전후로 획획 쳐드는 것이 흡사 콘탁트를 놀리는 것 같았다.

강문수는 멀거니 앉아 승낙하지 않은 모델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민영민은 연필을 테이블 위에 탁! 놓으며 그린 그림을 쳐들고 자신이 감격한 표정으로 들여다본다. 그는 씽끗 웃으며 그림을 강문수에게 내밀었다.

"자 — 어떤가? 이만하면 됐지!"

강문수는 받아들고 잠잠히 들여다보았다. 도무지 된 것 같지 않았다. 누구를 그린 것인지 모를 그림이었다.

"누군가? 이게."

강문수는 좀 짓궂은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을 보게, 눈 중에도 그 꼬리를 보란 말야. 눈꼬리를. 칼끝처럼 날카롭게 찢어진 것이 자네 눈 아닌가 보란 말야. 어차피 남을 본다는 것은 어느 일부분뿐일세. 전체를 알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라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일세."

민영민은 또 다시 득의만만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강군! 자네 얼굴의 흉터는 안 그렸네. 일부러 안 그렸어. 그건 자네 것이 아니니까. 그건 자네의 타고난 운명을 헤살 놓은 아귀들의 손톱자국이야."

강문수는 민영민의 말을 들으며 뺏어 들고 있던 그림을 착착 접어 포켓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일어서며 그는 말했다.

"원형에만 충실한 것은 현대 예술이 아닐세. 자네가 화가라면 내 얼굴에서 다 빼놓더라도 흉터만은 그려야하네, 이유를 묻나? 내 인생은 이 흉터로 달라졌네. 이 흉터는 이번 전쟁이 나에게 준 훈장일세. 자신의 일생을 개척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훈장일세. 그래 나는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흉터를 쓰다듬어 보네, 자랑삼아서."

강문수가 일어선 것을 보자 민영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래나? 비가 저렇게 오는데?"

민영민이 밖에 내다보며 말했다.

"나가봐야지. 비가 와두"

강문수는 찻값을 계산하며 대꾸했다.

"난 소주 한잔 더 해야겠어. 이백환만 주게나!"

민영민은 계면쩍은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내 ◯◯신문 사회부에 자리 없나 알아봄세. 편집국장 김 XX군은 내 말을 괄세 못할 처지지. 허허허…… 언제쯤 또 만날까?"

"고맙네. 자주 만나지"

강문수도 민영민도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오자 민영민은 돈 이백 환을 받아 포켓에 넣으며 강문수의 팔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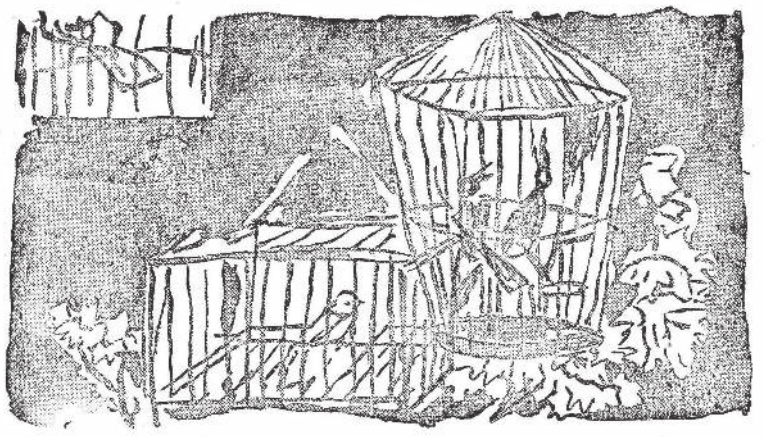
"가세! 좋은 데가 있어. 꼭 한잔씩만 하세나."

잠시 후 강문수는 전차 정류장에 서 있었다. 아침에 동료가 가보라고 일러주던 용산 XX공작소, 마음에도 거기는 무엇이 될 듯싶은 예감이 들었다. 강문수의 심경은 꼭 일선에서 공격명령을 받고 막 행동개시를 하려는 순간의 그것과 똑같았다.

강문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자니 어쩐지 슬프도록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줄기차게 흘러가는 행렬에서 자기만이 튕겨나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단이 움직이는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민영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소에 찬 눈초리로 자기를 흘겨보며 가면 안 될 곳으로 지향해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강문수는 마음을 도사리기 위하여 눈을 딱감고 몸을 돌렸다. 몸을 돌리며 감았던 눈을 뜨니 거기에는 형편없이 파괴된 폐허가,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허망한 폐허가 전개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폐허에도. (끝)



엽편2제(葉篇二題)

곽하신(郭夏信)

제1제(第一題) 어떤 소녀(少女)

'남양'다방(茶房)에서 일하고 있는 영희는 성질이 깔끔하기로 소문이 났다. 얼굴과 몸티가 예쁘게 생긴 관계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였지만 영희 당[사]자는 아무리 지근적거리더라도 결코 거들 떠 보는 일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값진 물건을 사다가 슬그머니 카운터 밑에 낑궈 두고 가기도 하였으나 그런 짓을 하면 이제까지 고마운 손님이라고 대하던 터라도 지체 없이 탁 쏘아 붙이고 마는 것이다. 도도하다느니, 건방지다느니, 어디 두고보자느니—별의별 욕을 다 퍼붓는 축도 있었지만 영희는 조금도 눅지지 않았으며 기껏 이 집에서 쫓겨 나가기 밖에 더하랴고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는 터였다. 그러나 아무리 깔끔하고 쌀쌀히 굴어대도 누구에게 손찌검 질을 당한 일도 없었고 다방에서 쫓겨나게 되지도 아니하였다. 도리어 그런 까다로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배기랴는 듯, 모두들 하인처럼 고분고분히 굴고, 눈치를 살피고, 부지런히 드나들며 친절을 베풀고들 하였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에 윤식이는 결코 그렇게 굽히지 아니 하였다. 영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늘 단골로 다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희를 꾀내려고 재주를 다 짜내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들 축에 끼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거나 누가 말려서가 아니라 영희의 아름다움에 비기어 자신이 너무나 처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구태여 못난이라고 판에 박히울 형편은 아니었지만 윤식이는 결국 남들을 밀쳐 버리고 영희와 맞서 볼 용모도, 체격도, 몸차림도, 언변도 모두 부족하였다. 윤식이는 차라리 어떻게 되어 가는가 구경이나 실컷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예 영희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다. 거들떠보지 않고 구경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지극히 외롭게 여겨지기는 하였지만 차라리 그런 편이 마음이 편하였다.

두 달, 석 달, 반년이 지났다. 날마다 다방 한 귀퉁이에는 윤식이가 앉아 있었고 그동안 영희를 꾀어내려는 젊은 축들이 몇 차례씩 갈리고 영희는 영희대로 깔끔하고 새침한 자세를 그대로 부려나가는 반년이었다.

(지독한 처녀두 다 있다!)

윤식은 정말 영희를 사모하였다. 그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여인은 세상에 다시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윤식은 태도에서나 말에서나 결코 영희에게 반가운 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윤식이의 걸상 앞에 영희가 나타났다. 이미 늦어 있는 때, 다방에는 한사람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았다.

"여줄 말씀이 있어요, 좀."

"내게요?"

"좀 …… 이것 좀 보아 주세요."

영희는 조그만 편지 쪽지를 내어 준다. 영문을 모르면서도 뜯어보려고 하는 윤식의 손을 가만히 잡아 누르며 영희는

"있다가 댁에 가셔서 보아 주세요."

집에 와서가 아니라 다방 문밖을 나서자마자 윤식은 편지를 펼쳤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그 자체 결코 연애감정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에 가까워 있다는 행적이 되기에는 남음이 있었다. 유독 윤식이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사실이 이미 윤식의 승리와 환희를 약속해 주는 노릇이었다. 다른 여러 청년이 재주를 다 짜내도 되지 않던 노릇이었던 것을 도리어 일이 뒤집혀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천 줄기 자체가 무지개로 변하는 기이(奇異)가 솟아났다.

집에 돌아 와서 윤식은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방을 새웠다. 영희와의 찬란한 광경이 서리서리 머릿속을 감돌았고 그런 때 윤식은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잠을 자랴 싶었다.

이튿 날부터 윤식은 더 일찍 다방에 나아갔고 갈 때마다 조그마한 물건을 사들고 갔다. 이제야말로 버젓이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누가 어떤 짓을 하여도 자기를 누를 수는 없으리라 싶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윤식은 진정 승리

자로서 다른 놈팡이의 안타까운 태도를 불쌍하다고 여겨주었다.

일주일이 지난날 밤, 그날 밤도 손님이 없을 때를 가려 영희가 찾아 왔다.

"고맙습니다. 윤식 씨, 비싼 시계를 사보내시고!"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 그만 두세요, 앞으론."

"그만 둘 건 뭐 있어요? 그런 것쯤!"

"알겠어요, 그 뜻은. 그렇지만 그만 두세요, 정말. 도로 받으세요, 이것 모두."

영희는 윤식의 눈앞에, 이즈음[53] 사다 주었던 가지가지의 선물들을 다 헤쳐 놓았다.

"왜 그러우? 이건. 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는 윤식의 귀 가까이 영희는 나즈막하게 일러 주었다.

"윤식 씨에게 애틋한 호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끝이 났다고 봐요. 보세요, 나의 성격을 모르구 이렇게 물건을 사오고 하심 첫째 윤식 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어디 있겠어요?"

"아아!"

"그것뿐이라면 오해도 아무것도 없겠어요. 윤식 씨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나의 편지를 받으신 뒤, 이제는 안전하리라 하는 시기에 가서 선물을 사 오시는 그 공리성이 차라리 더욱 불쾌하게 느껴지는군요."

윤식 뿐 아니라 영희도 얼굴이 핼쑥해 있었다. 영희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윤식은 이미 종막인 것을 알고 죄수처럼 고개를 푸욱 숙였다.

제2제(第二題) 통금시간(通禁時間) 이후(以後)

날마다 마시는 술이 시작만 되면 언제나 앞뒤 없이 곤드레가 되어 버리는 K 씨였다. 오늘은 좀 걸러 볼까, 오늘 저녁만은 얼마쯤 일찍 들어가서 식구들과 단 한 번이라도 저녁을 함께 먹어 볼까, 아침에 회사에 나오기만 하면 단단히 새겨 두는 것이었으나, K 씨는 어느 하루도 술에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진정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꼭 일찍 집에 들어 갈수 있으리라 싶은 날도 어데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이 K 씨는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통행금지 시간이 넘을락 말락 해서야 대문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이놈의 문 안 열 테냐?"

하고 대문을 발길로 차면 부인은 그때까지 앉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울상이 되어 대문 고리를 젓기는 데 K씨는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이놈의 대문!"

53) 원문의 이지막은 이즈음임.

동리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는 하는 것이다.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오리다. 술은 입에 대지두 않구!"

아침이 되면 염불 외우듯 부인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 날도 여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오고는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된 술이었다.

"어디 가서 한잔 할까? 꼭 한잔, 막걸리라두."

"한잔만 하지. 또오, 에에, 대추나무 집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회사에 드나드는 친구 서너 명과 어울렸는데 시작이 한잔이었지 벌써 대접으로 사발로 독한 술이 왔다 갔다 하였다.

"오늘은 이만하세! 볼 일이 있어, 집에."

K씨의 말은 정말이었다. 시골 계시는 백발 엄친이 꼭 1년 만에 아들의 집을 찾아 와서 틀림없이 일찍 들어가겠노라는 약속을 단단히 하고 있는 K 씨였다.

"볼일 보지 말랬나? 누가. 어서 마시구 나서게나 볼일."

친구들은 전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잔을 입에다 치켜 댄다.

"시골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 정말일세, 오늘은."

"술 먹는 아들 두기가 잘못이지 누가 뭐라겠나? 그게 볼 일이라는 건가? 이사람."

"이러다 통행금지 시간 넘으면 큰 일 나네. 대강 이쯤 해두세."

"통금시간 넘으문 자구 가문 되지 않나? 워언. 마누라가 깡깡대는 것이 그리 무서워?"

"글쎄 그렇지가 않대두. 벌써 열시 반일세. 어서 일어나세 들. 곧 통행금지 시간 싸이렌이 부네."

"통행금지가 그렇게 두 무서워? 가마안히 있자, 통행금지가 넘어두 걱정 없는 수가 있어. 염려말구 마시게."

"무슨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 어서 일어나세."

"이렇게 하게. 옷을 훌딱 벗고 뛰게. 마라톤 선수처럼 만화에두 나 있지 않던가? 이사람."

"어서 일어나세! 진짜로 옷을 벗구 뛰게 되겠네."

결국 나머지만 다 마시고 일어나기로 낙착을 보기는 보았으나 나머지를 마시고 일어섰을 때는 벌써 통행금지 시간이 반시간이나 넘어 있었다.

(큰 일 났다! 으음! 큰 일이 나긴 났는데 묘한 방법이 없나?)

거리에 나오니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화살처럼 달리는 지프차들이 별동처럼 작게 보인다. 아직 집에 다다르지 못한 행인들이 겅쭝걸음을 치며 눈이 부시게 오고 간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담뱃대를 들고 방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

래 지르는 늙은 아버지의 모양이 지프차의 사이사이에서 어른거린다.

(살려 줍쇼! 아버지! 가만 있자, 가기는 가야 될 텐데……)

K씨는 옷을 벗고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 가면 되지 않느냐는 친구의 소리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 뿐 아니라 이 더운 여름날 술이 잔뜩 올라오고 보니 도대체 더위가 북받쳐 더 걸을 수가 없다. 잘 되었다. K 씨는 셔쓰와 양복바지를 벗어서 허리띠로 졸라매고 등에 메었다. 그것으로 몸은 거의 알몸이 되어 있었고 알몸이 되자 걸음이 저절로 앞으로 달려 나간다. '파나마'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은 마라톤 선수가 밤길을 뛰고 있었다.

"누구야앗!"

파출소 앞이었다.

"누구냐라? 마라톤 선수다!"

"마라톤 선수? 하, 하, 하."

"마라톤 선수다! 길 비켜라!"

"이리 들어오십쇼! 영감!"

"뭐? 왜 들어오래우?"

"어딜 가는 길입니까?"

순경이 정색을 하고 묻는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용서해 주우."

"이름이 뭡니까?"

"이름요?"

K 씨는 술이 바짝 깨는 것을 느꼈다. 이름을 묻는 것은 하룻밤 재워 보내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아니, 날 재울 모양이요? 통행금지 시간 넘겼다구 재울 모양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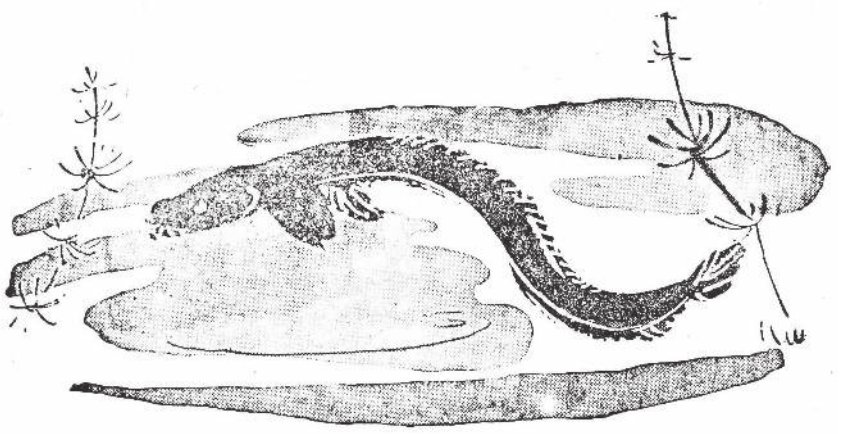
K 씨는 목소리가 떨렸다.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뭡니까?"

"통행금지를 어기면 꼭 자구 가야 되는 거요?"

K 씨가 울먹거리는 소리를 하자 순경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똑똑히 말하였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때문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많은 거리를 벌거벗고 다녔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



<소설(小說)>

불구자(不具者)

최태응(崔泰應)

일일이 자기 방(病室)에 볼일이 있을 경우 마다 노크할 필요 없이 그냥 출입을 하라고 했다.

자기가 서울을 올라 와 있다는 소식부터 알면 매일이라도 찾아 올 친구들이 허다한 것이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노라고 준석은 입원을 하던 첫날, 미리 부탁을 해 놓은 것이었다.

노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러니 병원 원장이며 주치의인 백 박사와 간호원 영옥이.

입원 하자 즉일로 수술을 받은 지 어느덧 석 달—준석이는 이미 환자라고 할 것도 없으나 눌러 아무에게도 기별을 않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채 외로운 속에서 말끼 없이 지내고 있을 따름이었다.

백 박사는 준석이의 맏형 준길이의 친구이며 동창생이었다.

가뜩이나 나이의 차이가 먼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면 숙질간이나 부자간으로까지 짐작을 하기가 일쑤인 준석이의 형 준길이의 동창이니 옛날 친구니 하는 범위를 떠나서 백 박사는 또한 준석이가 어렸을 적부터 구면일 뿐더러 집안끼리 내왕이 있고 남달리 친밀해서 준석이는 백 박사를 보고는 '형님'이라 부르는 사이였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한갓 동생이라고 해도 혈육을 나눈 동기간인 만큼, 준석이 병을 얻어 잘못 관절(關節)이 붙어서 병신이 된 이래 거의 해마다 재발을 하고 수술을 받는데 있어서 같은 외과요 박사건만, 대개 백 박사에게 갔다. 맡김으로써 과히 긴요한 일이라도 생기기 전에는 준석이를 그리 자주 들여다보는 예가 없었다.

준석이로서도 그편이 좋고, 편한 것이라 했다.

친형이라고 바로 앉아서, 공연히 잔 참견을 든다거나, 섣불리 위로를 주려 했다가 너무나 예민하고, 병적인 준석이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에는 실로 피차간의 막대한 손해와 온 집안에 미치는 영향(타격)이며 슬픔이나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또한 일수인 까닭이었다.

— 석 달. —

"그새 석 달이 차느만요. 준석 씨 입원허신지가……"

아침, 검온을 와서 팔목에 팔딱거리는 맥박을 재고 겨드랑이에 끼어 준 체온계를 기다리며 영옥은 입을 떼었다.

"그렇죠. 아마, 내가 여기 오던, 처음 날, 저 현관밖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얼핏 봐 두었던 포도알들이 겨우 녹두알만 밖에 안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벌써 익었다니……"

"내애. 인젠 포두도 제철을 지났어요, 음력으루 구월인 걸요."

"그렇구만요. 그새."

"참 지루허셨죠.…… 외로우시구.……"

"네!"

준석은 잠시 입을 다문 채 무어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망설였으나 차라리 나오는 대로 끄덕이며 수긍 해 버렸다.

"남들처럼, 찾어 오는 이들두 별루 없이 석 달씩이나…… 정말……"

순간 영옥이 북쪽 창밖을 내어다 보는 체하며 외면을 하고, 중얼거리는 말소리에서 준석이는 정작 외롭고 지루했던 사실을 느끼는 동시에, 정작 외롭고 지루했던 사람은 자기였는데, 영옥이 저다지나 동정을 하는가—했다..

"그 동안 참, 많은 수고를 끼쳐 드렸습니다. 신세를 지고"

"아이 천만에요, 준석씨 형님이랑 원장님이랑두 첨부터 절 보구 남달리 간호를 해 드리구 위로를 해 드리라구 말씀들을 허셨지만 제가 워낙 뭘 알어야, 어떻게 허죠? 간호부누나 그냥 인간으루나 도대체 아는 것이라군 통 없는데다가 경험꺼정 없는 형편이 돼 놔서요."

"네에?"

"정말예요, 명색이 간호부라고 이러구 있긴 해두 전, 통 아는 게 없거든요, 이번만 해두 준석 씨 덕분에 석 달 동안을 분에 넘친 호사를 헌 셈이람니다. 호?! 한가허게 놀기만 허구"

"건 또?"

"이 병원 입원실이 열셋이나 있지만 간호원이 저꺼정 세 사람이나 있거든요 근데 준석 씨 입원 허신 뒤로는 전 특별히 준석 씨 병실 하나만을 도맡아 보도록—그러구 간록 수술실이나 의료품 소독 허는 일 같은 것만 거들기루 분담을 시켜 주셨답니다. 물론 그 전에두 남들처럼 고된 일을 말기시질 않으셨지만 서두……"

"아 참! 언젠가 내 형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옥 씨는 보통 직업으루다가 이런데 간호부로 있을 분이 아니라는……"

"아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구 말씀이조, 어떻든 제가 너무나 서틀구 상식이 없구……"

"글쎄 일일이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이 지금 생각을 하니깐 하여튼 영옥 씨가 온 서튼 내기라면 서튼 내기요 여태 사회에 대한 경험이니 상식이니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없는—말하자면 임시 간호원에 여자 대학생에 그러시단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

"난 고만 입원을 하자마자 당장 그날루 수술을 받고, 가뜩이나 신경질에 영옥씰, 불시에 곤란하게 해드리고 내 멋대로 부려먹고, …… 때로는 마구 업신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태도까지 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만요, …… 미안 합니다."

"아이 또, 그런 말씀을! 저야말루 여태 정맥주사 하나를 바로 놓을 자신이 없구 원장님 붕대 교환을 허실 때에두 '핀세트'를 들구 척척 섬길 줄을 못해서……"

"영옥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더욱 새롭게 떠올라서 말씀입니다 마는 언젠간 내가 주사 한번을 맞는데 세 번씩이나 남의 팔을 되찌른다고 영옥 씨 면전에다 대고 짜증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그러구 한 번은 허리가 백혀서 좀 돌아눕든지 허리 밑에다가 뭘 좀 괴어주든지 어떻게 침대에다 한번 걸터앉아 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옥 씨가 혼자 땀을 흘리기까지 하셨건만 아프다고 야단을 치고, 나중에는 애매한 영옥 씨를 보고 탓을 잡고, 투덜거린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쩜, 그렇게 아프실 때 일들을 고대루 기억 허구 계셔요? 아이 부끄러워…… 지금 생각해두……!"

"정말 부끄럽다기보다도 내가 민망스럽습니다. 미안하고,"

"아녜요,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전 혼자 돌아가서 다른 익숙한 간호원들을 붙들고 물어보기두 허구 실지 다른 병실엘 가서 연습을 하듯 준석 씨 비슷한 환자를 상대루 몇 번씩이나 경험을 쌓느라구 해봤지만 막상 준석 씨 병실엘 들어와 보면 원일인지 여길 채 들어 오기도 전에 그냥 켕기구 자신이 없어지구해서."

"그러니 글쎄 미안하달 밖에 있습니까? 원체 사람이 신경질인데다가 참을성이라고는 없고 남은 거라고는 그야말로 악(惡)밖에……"

"어머나 준석 씨두……. 그런 게 아녜요 절대루…… 벌써 여기 입원 허시던 첫날 맨 처음으로 만난 분이지만 제겐 첫눈에 준석 씨가 어떤 분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에 팔려서 항용 2~3분이면 족한 체온계를 10분 이상이나 그냥 두었다가 그나마도 보나마나 형식에 불과한 눈으로 비쳐 본 다음 준석이의 카르테에 평온임을 기입한 영옥이가, 화제를 돌려

"며칠 내루 퇴원을 허신 다구요……"

적이 쓸쓸한 빛으로 마주 보는 것이었다.

"글쎄요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사실상 수술 자리도 거진 항창이 되고, 인젠 고약이나 갈아 대는 정도니깐"

"네! 다른 환자들 같으면야 벌써 퇴원을 허구 하루 한번이나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와서 거즈만 갈아 붙이면 그만이신걸."

"난 원래 일단 퇴원을 한 바에는 그다음 입원을 다시 하기까지는 아주 발길을 끊도록 철저히 치료가 끝난 다음에야 퇴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원을 다시……"

"그렇죠. 잘 해야 반년 무사히 돌아다니면 다행이라 할는지,…… 보나마나 일년 안짝에 또 재발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니깐요."

"……그 아픈 수술을……"

영옥이는 남달리 눈치가 빠르고 경우가 밝은 여자인 까닭인지 아니면 미리 준석이를 상대로 직접 간접 예비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속셈인지, 그 이상 지지하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펄펄 뛰던, 청년이 딱히 알 수도 없는 원인이나 동기에 의해서, 끝끝내 대퇴에 관절이 곪고 부셔지고, 여지없는 강직(强直)으로 버퉁다리가 되었다는 사실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나마 아주 병균만은 깨끗이 떨쳐버린 게 아니라 더 깊은 골수에 들어박혀 있다가 시시로 재발을 하고, 화농작용에 이룰겨서 정작 그 아픈 수술을 해마다—때로는 일 년에도 두세 번씩—되풀이 하는 불행을 놓고 10년 이상의 세상을 살아온 준석에게 만약에 그 이상 무슨 말을 더 시킨다거나 섣불리 동정 같은 것을 늘어놓거나 했다면 제아무리 영옥이라 해도 그리 신통한 결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떤 봉변에 속하는 비극을 초래했을는지도 모르는 때문이었다.

그렇듯 다행 할 수 있는 조건—내력—이 영옥이에게는 골고루 안팎으로 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의 말대로, 생전 처음 만나서 한번을 마주 본 첫날 부터 영옥이는 준석이를 인상 좋게 보았을 뿐 아니라 심상치 않게 여김으로써 관심과 호의를 기울였던 것이며, 하루 이틀—한달 두달—상종하는데 따라서 또한 남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옥이만은 오로지 준석이가 보통 병고(病苦)에서 이룰기는 보통 남자—환자—들이나 매일반인 신경질에 자포자기로서 (혹은 비관과 건강한 사람에 대한 도전적이며 비굴한 겸허 등등) 측은한 마음과 동정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마, 상종하고 접촉하는 시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도 틀리지 않는 새로운 발견을 더해가면서 준석이의 참된 위인과 남이 볼 줄 모르는 진가를 영옥이 혼자서 들여다보고, 저울에 얹혀 놓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양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가끔 찾아와서 허물없이 원장부터 만나보고 준석이가 낮잠을 잔다거나 무엇을 읽는다거나 쓰는 일에 열해 있다면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준석이의 형, 준길이의 말에서 첫째로 동기간이요 나이 어린 동생이건만 준석이가 까다롭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사실과 둘째로 누구보다도 근본을 잘 아는 형으로서 조금도 보탬이 없이 준석이는 남달리 온순하고 침착하고 재질이 풍부한 어린이로 태어났건만 그다지나 악독스럽고 지긋지긋한 육체적 고통이 가다가 그의 근본성격을 여지없이 둘러 엎어버리는 마(魔)의 순간과 감정과 행동까지 안겨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대하고 우려되는바 만약에 지금껏 도사리고 버티어 온, 인내와 의지와 이성이 무참히도 흐려지는 날 준석이가 저렇듯 태연한 속에서 기실은 감쪽같이 비관과 절망과 도대체 인생과 세상에 대한—나아가 자신의 운명과 신에 대한 반발이나 보복으로 여김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자살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집안이요 형제의 사이로서는 어느 집안 어느 형제만 못할 까닭이 없건만 어쩌다가 이야기가 무심결에 삐뚤게 뻗어나가서 과학자—의사—로서의 입장에 준길이가 서게 되는 경우 준석이는 실로 미칠 듯이 진지하고 열렬한 환자—병신—의 처지에 자처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호소와 논리를 펴가며 형을 울리고 자기도 울다 못해 수습하기 곤란할 지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몰고 들어가는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의 의학박사, 두 사람의 형이 할 수 있는 원장(백 박사)과 준길이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영옥이는 다만 제삼자로서 어쩐지 준석이를 놓고 자기야말로, 혈육이니 동기간이니 하는 관계보다 더한 거리와 인연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나 한 듯, 가슴이 답답하고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입술을 피나게 깨물어도 시원치 않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영옥이는 그 다름으로 준석이의 병실까지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발소리를 죽여 가며 문소리를 내지 않도록 애써 준석이의 머리맡까지 들어가 보고야 견디었다.

"……!"

세상을 잊은 듯 비웃는 듯 깊은 잠에 파묻혀 있는 준석이의 애기 같은 얼굴을 영옥이는 그대로 엎드려 볼을 맞추거나 와락 젖가슴에 껴안고 흔들어주고 싶어서 온몸을 후들후들 떨기도 했다.

차마 그럴 수도 없는 바에는 자칫 돌아나가는 인기척에 단잠을 깨울까 두려워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 자리에 지켜선 채 준석이가 싫건 자고 기지개를 켜는 때까지 우두커니 서있는 날도 있었다.

눈을 뜨고 한번 불타는 빛을 띠우기는 했으나 준석이는 그 이상 별다른 느낌도 없다는 양 덤덤한 채 부스스 일어나 높은 침대에 걸터앉으며

"왜 거기 앉으시든지 곤하실 텐데 거기 소파에라도 누우시질 않고……"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을 따름이었다.

영옥이도 기껏

"아까 댁에서 형님이 다녀가셨어요."

"네에, 형님이……. 그럼 날 깨우시지 않고……. 하긴 별로 할 말도 없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한가한 틈을 보아 준석이의 기분도 어둡지 않은 눈치를 보아 백 박사가

"뭐 병원이니 입원 환자니 그런 관념을 떠나서 여기나 자네 형님 집이나 매일반이니 언제까지든지 구태여 싫증이 나기까지는 이대루 더 휴양을 허도록 허란말야, 그러구 거 너무 혼자서 책만 읽구 글만 쓰구 그러질 말구 인젠 한참씩 운동, 산보를 허는게 자네 몸에두 퍽 좋구 그러니깐 혼자 심심허걸랑 저 영옥이 허구래두 가끔 거리루 나가서 바람을 쐬구 극장 구경두 다니구 좀 그러란 말야 뭐? 자네 기분만 나구 스스로 자신만 있걸랑 좀 더 먼데라두 드라이브를 허든지 소규모 하이킹을 허든지 다아, 상관이 없으니깐 말이지 응?"

"네,"

"영옥이 나 좀 봐, 어째 거 그렇게 꿰어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으루 그러구 있지만 말구 우리 준석일 갔다가 좀 더 어떻게 안 되나? 서비스라든지 우정이라든지 허?"

"온 형님두…… 그렇잖어도 영옥 씨 신세를 과히 져서 장차 갚을 도리가 막연한데 괜히"

준석이도 진즉 전예에 없으리만큼, 명랑한 얼굴에 웃음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다.

그 바람에, 영옥이까지

"선생님 말씀 마세요. 워낙 저 같은 정도의 자격이나 서비스 쯤으룬 준석 씨 앞에 아무런 효력도 반응도 바랄 수 없나본걸요 호?"

"온 저런 영옥 씨도 그런 줄 몰랐더니 여간내기가 아니시구만요,"

"하 뭐 그래야지 하여튼 영옥이 잘 부탁해 알았어? 가만있자 그러구 보니깐 부탁은 준석이헌테다가 해야 할 것 같기두 허구…… 에라 그럼 양쪽 다아 잘 부탁을 헌다—그렇지 우리 응? 허허허허"

낌새를 보아 백 박사가 밖으로 나간 다음

"준석 씨!"

"네?"

무료한 침묵을 깨트린다기보다도 잠시 생각에 잠긴 준석이의 입에서 불현 듯 무슨 말이 튀어나올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먼저 영옥이가 입을 떼어

"아까 농담은 용서해주세요. 원장선생님 바람에 함부로……"

"어 어디요 농담이야 누군 안했습니까? 사실상 원장 형님이 그 나이에 주책없는 말씀을……"

"아녜요 그 어른이야 워낙 준석 씨를 애끼구 사랑허시니깐 그러신 거죠. 언제나 진찰실이건 응접실이건 준석 씨 아는 이만 있으면 걱정이 오죽허시다구요."

"!……"

"준석 씬 참, 행복허셔요, 친형님만 해두 그만 허신데 그렇게 또 다른 분들꺼정 진심으루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극진극진히 돌봐주시질 않나.……"

"또, 푼수 없고 무기력하고 한심스러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영옥 씨! 나는 이미 내게는 그렇게 모두들 남이 아닌 그런 분들의 걱정이라든지 돌봐주는 일이라든지 도대체 동정, 아니 사랑이라는 게 모름지기 필경은 나를……그들 몰래……"

"네에?"

"참말입니다. 내게 필요하다기보다도 내가 백배 걱정이나 돌봐주는 일이나 도대체 사랑 같은 것 털끝만큼도 받질 않고 살더래도, 어떻든 꼭 살 자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은 내 육체에 있지 이대로 이 찌그러지고 좀 잡히고 있는 육체와 병을

지닌 채로는…… 사는 일은 언제 어느 시각에 없어질는지……"

"가만 계셔요 준석 씨!"

"네?"

"저두 좀 기탄없는 얘길 여쭙겠어요, 이왕 허물헐 사이두 아니구 헌데다가 준석 씨가 끝끝내 저 같은 인간쯤은 여자니 이성이니 허는 문제를 떠나서래두 아주, 전적으루 무시를 허실 뿐만 아니라 여엉 저 같은 것은 심장두 없구 감정두 없구…… 정말이지 상대조차 해주실려구두 안 허시니!"

"네? 아 아—니"

"글쎄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루 뭐 이러니 저러니 헐께 없이 말씀이죠. 준석 씨! 준석 씨께선 하여튼 죽으시죠?"

"?……"

"언제든지 제명껏 사시겠다는 마음이나 희망 같은 건 통 없으시지 않으세요? 말하자면 언제든지 자살을 허실 작정이시구 실상 자살을 허셔야만 되겠는데 그 시기, 그 기회만을 엿보구 노리구 계시단 말씀 아녜요?"

"!……"

"참말루 그러시다면 말씀예요.……실례구 뭐구 없이 저 저를……제발……살려주시는 셈 치시구설랑은……저 허구……함께 죽!"

"영옥 씬 괜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야 말로 흉허물 없는 사이니 기탄없는 말이니 해가지고 나를 놀려대고 비웃고 아주 톡톡히 멸시를 하자는 속셈이시구려."

"거 보시래두요. 준석 씨야 말루 하여튼 하나에서 백까지 그저 저라구만—제 의사 제 말이라구만 허면 그리 무조건 허구…… 저두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리구 저두 사는데 꺼정은 살어보려구 고향을 잃구 부모형제 다 잃구…… 그래두……"

"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옥 씨!

 차라리 오늘은 이쯤서 그만해두는게 옳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이상 영옥 씨의 말을—그 태도, 그 심리를……"

"아녜요 아녜요 버언히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분해요 까짓것 다른 문제는 제가 짝사랑을 허다가 실연을 당했대두 그만이예요.…… 저 혼자서 죽죠."

"허어— 이건 정말 너무 하신데요? 나 같은 환자, 나위없는 병신, 불구자를 상대로 영옥 씨가……."

"저야말루 병든 사람인걸요.…… 대관절 이 세상에 병신 불구자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이 병원에 간호부루 취직을 한 이래루 느끼구 인식헌 문제지만요.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광범위헌 얘기를 헐 필요가 없어요. 그저…… 준석 씨

허구 저허구 단 두 사람의 일만 가지구 따진다든지"

"따지긴 또 뭘 따질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뭐 따질 것두 없어요. 인제 일은 끝장이 났으니깐요."

"자아 이런 온 무슨 일이 어떻게 끝장이 났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끝장이 나길 영옥 씨."

"그럼요, 이 이상 얘기를 헐 것두 없어요.…… 전……, 전 가겠어요."

가는 것쯤이야 언제나 날마다 가고오고 하기를 몇 번 몇 십 차례씩이라도 들락날락 해온 준석이의 병실에서 영옥이가 어디를 가건 병실 밖으로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마는 힐끗 쳐다본 준석이의 눈에 영옥이는 그날따라 너무나 불안하고 비장한 빛을 띠우고 있었다.

마치 그 길만은 한번 가면 영원히 두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는 물론이려니와 준석이의 병실로만 발길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안에도 서울 천지에도 도시 이 세상에도…….

"영옥 씨!"

"……"

"영옥 씨! 이왕 가시더라도 구태여 석 달 남짓한 동안 전예에 없이 그렇게 가셔야만 맛일게 있습니까?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그냥 앉아서 숨을 태워가지고 가시더라도 내 청을 들어 여기 좀 앉으십시오.…… 어쩐지 내가 무얼 잘못했든가 어디가 잘못됐든가 나 역시 전에 이래 본 경험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자꾸만 가슴을…… 아니 가슴 속에서 지글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준석이는 실상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늘어뜨렸던 발들을 올려 누우려고 버둥거리면서 준석이의 얼굴은 핏기를 잃은 듯 창백해지고 가뜩이나 움푹 들어간 눈알들은 무엇을 찾으려는 듯이 감았다 떴다 했으나 현기증이 앞을 가리고 시력은 멀어진 것 같았다.

"영옥 씨! 나를 좀 눕혀주세요…… 내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말을……"

지나간 석 달 동안의 의리나 습성이나 본능으로만 보더라도 영옥이로서 그 말에는 오죽 그대로 추종할 밖에 도리가 있는가.

"아—"

허나, 어찌된 영문인지 준석이의 목을 안고 활개를 펴서 한쪽 발—다리—까지를 힘껏 안아서 제자리로 들어 눕혀주는 다음 순간 영옥이는 이번에는 자기의 차례라는 양 그대로 준석이의 가슴위에 윗몸을 마주 엎드린 채 한참이나 꼼짝을 않고 있었다.

준석이의 몸부림이 떨쳐 내고 손짓으로 떠다밀고 발길질로 걷어차일 것까지라도 상상을 하고 각오하고 기다리는 듯 그대로 탁 엎드린 채 팔을 둘러 준석이의 허리를 감아 보기도 했건만 뜻밖에도 한참동안을 가만히 짓눌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움직 몸을 놀리는 다음 순간에는

"바보!…… 바보!…… 병신!……"

달싹달싹 입술이 오물거리며 들썩 시체모양 늘어뜨렸던 팔이 살아 허공을 더듬는 다음, 영옥이의 머리를 부러 안으며 설레설레 헝클어진 머리채 속으로 손을 파묻는 것이었다.

(필자(筆者) 소설가(小說家))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종승(李鍾勝)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소령(空軍少領) 최지수(崔枝洙)

코 메 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